

기획 발표

일시		발표 및 내용	사회자
회원등록 접수 (310관705호)	12:30	참가자 명부 서명	
	-		
	12:50		
개회식 (310관705호)	13:00	▶개회사 최강민 (우석대, 회장)	유형동 (한신대)
	-		
	13:10		
기획주제 발표 (310관705호)	13:20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고찰 ▶발표 이지용 (경상국립대) ▷토론 최 윤 (강원대)	고혜원 (중앙대)
	-		
	14:00		
	14:00	인공지능 창작 주체와 대화적 시쓰기 ▶발표 유가은 (중앙대) ▷토론 김민지 (이화여대)	
	-		
	14:40		
	14:40	생성형 AI를 통한 한문 교육의 가능성 ▶발표 심호남 (중앙대) ▷토론 이서희 (고려대)	
	-		
	15:20		
	15:20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발표 박진철 (연세대) ▷토론 손다정 (서울여대)	
	-		
	16:00		
휴식	16:00	휴식 및 분과별 이동	
	-		
	16:20		

자유 발표

자유주제 발표 국어학 (310관705호)	16:20 - 17:00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감정 형용사 선정 연구 - 슬픔 계열 중심으로 ▶ 발표 이정현 (선문대), 이시와타리 아츠키 (선문대) ▷ 토론 이성우 (한림대)	임현열 (경성대)
	17:00 - 17:40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과 기능 ▶ 발표 강민정 (경상국립대) ▷ 토론 최종원 (서울대)	
자유주제 발표 고전문학 (310관502호)	16:20 - 17:00	김삼불본 <응고집전> 서사 특징에 대한 향유층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취 둔갑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남기민 (경상국립대) ▷ 토론 김준희 (서울대)	강우규 (강원대)
	17:00 - 17:40	동주 이민구의 장편 영물시 연구 ▶ 발표 유암천 (경희대) ▷ 토론 김민구 (고려대)	
자유주제 발표 현대문학 (310관503호)	16:20 - 17:00	최인훈의 『태풍』 과 콘래드의 「태풍」 비교연구 -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전두영 (전남대) ▷ 토론 장준영 (중앙대)	강유진 (중앙대)
	17:00 - 17:40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는 느슨한 공동체의 힘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 발표 오혜진 (남서울대) ▷ 토론 손혜숙 (한남대)	

자유주제 발표 한국어교육학 (310관603호)	16:20 - 17:00	플립드 러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연구 - KFL 초급 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 발표 왕설 (닝보대), 김보현 (중앙대) ▷ 토론 장현묵 (세종대)	조윤정 (동서울대)
	17:00 - 17:40	라이프로그(lifelogging)을 통한 한국어 저널 쓰기 사례 연구 -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 발표 장지영 (이화여대) ▷ 토론 박서욱 (고려대)	
연구윤리교육	17:40 - 17:50	연구윤리교육(엄홍준 연구윤리위원장)	유형동 (한신대)
폐회	18:00 -	폐회 후 만찬 장소 이동	

기획 발표

사회자 : 고희원(중앙대)

- 발표 : 이지용(경상국립대) 5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고찰
- 토론 : 최 윤(강원대) 16

- 발표 : 유가은(중앙대) 18
인공지능 창작 주체와 대화적 시쓰기
- 토론 : 김민지(이화여대) 30

- 발표 : 심호남(중앙대) 32
생성형 AI를 통한 한문 교육의 가능성
- 토론 : 이서희(고려대) 45

- 발표 : 박진철(연세대) 46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 토론 : 손다정(서울여대) 61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고찰

이지용(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2. 다면어로서의 '대화'의 개념 설정
3. ChatGPT가 촉발한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인식 변화
4. 결론

1. 서론

ChatGPT로 인해 생성형 AI 시대로 진입하게 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온 서점가와 강연장을 휩쓸고 있다. 'ChatGPT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과연 ChatGPT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ChatGPT는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통해,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 기간이 짧아지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질수록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타자화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인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주하여 대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화'의 특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이 '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화' 개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다면어로서의 '대화'의 개념 설정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에 해당한다.¹⁾ 마주 대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이며, 그 대상과 이야기를 교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화자와 청자가 소통하는 행위를 대화라고 볼 수 있다. 대화의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철학, 언어학, 문학 등 '대화'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 결과와 연

1)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관검색어를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연구 목록

1	박다솜. (2023). ‘대화 불가능성’을 표지하는 대화의 서사적 가능성 - 이창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45(-), 45-69.
2	이수화(Sooхва Lee). (2023). 국어교육에서 대화 지도를 위한 요구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129-161.
3	이남호 & 차준우. (2023). 한국어 학습자의 대화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연구. 배달말, 72(-), 53-90.
4	손효인(Hyo인 Son), 임호정(Hyojeong Lym), 김민규(Mingyu Kim), & 정재희(Jaehee Chung). (2023). 유아동의 정서 발달을 위한 소셜 로봇 대화 시나리오.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3(2), 491-496.
5	이단비. (2023). 한국 근대사의 대화성 연구를 위한 초석. 어문론총, 96(-), 59-88.
6	이지원. (2023). 대화분석을 활용한 국내 중국어 응용언어학 연구 현황과 과제. 아시아문화연구, 61(-), 127-167.
7	안진, 백승주, 판미홍하, & 응우옌 티 히엔. (202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 회행 수행 양상 연구 - 협의대화의 시작 단계를 중심으로. 泮橋語文研究, -(63), 147-184.
8	이경님 & 조은경. (2023).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대화 인터페이스 - AI 대화 모델의 현황과 언어적 연구의 모색 -. 국어학, -(105), 345-374.
9	김은주(Eunju Kim), 오정민(Jeongmin Oh), & 최수환(Souhwan Choe). (2023). 대화(對話) - 대화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3(2), 1324-1327.
10	차혜경 & 김경숙. (2023). 독거 중노년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사례분석 : 대화의 구조와 연속체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7(1), 102-112.
11	우창현. (2023). 대화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하여: 다문화 학습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2), 273-292.
12	김지영. (2023). 비대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질적 연구 -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 漢城語文學, 48(-), 1-48.
13	박채림, 유소엽 & 정옥란. (2023). 연속학습 기반의 대화형 AI agent. 韓國컴퓨터情報學論文誌, 28(1), 27-38.
14	신초희. (2023). 세계기독교 시대의 기독교교육: 바흐친 대화주의 이론의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12(-), 185-215.
15	정준선 & 정철우. (2023). AHP 기법을 활용한 대화경찰 역량 중요도 분석. 경찰학연구, 23(1), 171-190.
16	이철호. (2023). 집회의 자유와 대화경찰관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치안행정논집, 20(2), 255-280.
17	권영파. (2023). 다름 안의 대화를 통한 선교: 가톨릭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의 선교관. 선교신학, 69(-), 13-46.
18	성아영. (2023). 한국어 말하기 교재 대화문의 상형 맥락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34), 205-238.
19	임지연. (2023). 오리엔트정교회와 동방정교회의 에큐메니컬 대화. 장신논단, 55(2), 59-85.
20	유용성, 정민화, 이승민, & 송민. (2023). KOMUChat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 데이터셋 연구. 지능정보연구, 29(2), 219-240.

<표 2> ‘대화’ 키워드에 추천된 연관검색어



<표 1>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대화’를 키워드로 하여 2023년 연구된 논문들을 검색한 후,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0편을 정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대화’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제시되는 추천 연관검색어의 시각화 자료이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문 제목과 주제들을 살펴보면, 여러 방면에서 ‘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화’를 키워드로 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화’ 관련 연구의 내용 범주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대화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적 활용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철학적 담론으로서의 대화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자는 ‘대화’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화’의 개념을 다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면어로서의 ‘대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대화’의 정의

전은주(1999)	- 일상생활에서 비공식적으로 구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
이창덕 외 (2000)	- 상대방과 직접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며, 일상 언어생활 중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말하기 양식 - 속성: 직접성, 현재성, 자율성, 교류성
최춘혁(2002)	- 지식을 구하려는 인간의, 세계를 향한 무한한 자기 개방적 도상적 상호행위 - 세계와 신이라는 초월적 토대 위에서 사유의 외화인 말로써 가능한 행위
박성석 (2013, 2018)	- 두 사람 이상이 직접 대면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 속성: 구어 사용, 직접 대면, 양방향적 소통, 자유로운 순서교대
이선영(2019)	-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매개해주는 담화 - 속성: 직접 대면, 양방향 소통, 관계 중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의 정의와 속성을 통해 볼 때, 대화의 개념을 형식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형식적인 측면은 대화라는 담화를 가능케 하는 언어적 조건에 해당한다.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음성이나 문자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 형식적 측면에서의 대화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화를 온전히 정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화의 개념 안에는 기능적 측면도 함께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기능적 측면은 ‘소통’과 ‘사고’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통’은 감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의미하고, ‘사고’는 의미를 구성하고 합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대화는 감정과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적 기능과 더불어, 인지적 측면인 의미를 구성하고 합의해 나가는 사고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사고적 기능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철학이나 교육학 영역에서 부각된 대화의 기능이라 하겠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연구 영역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대화’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화에 대한 논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철학적 연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대화 상대자가 가진 잘못된 앎을 드러내고 그것에 내재한 모순을 폭로하는 논박과 대화 상대자가 스스로 지적 통찰을 논증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재현, 2019)”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실천된다. 박용익(2010)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한 대화의 조건을 ‘한 쌍의 원칙, 문제해결의 원칙, 선행 지식 불완전성의 원칙, 여가의 원칙, 순수 의사소통의 원칙, 실용의 원칙’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대화의 조건에도 형식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조건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에서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필두로 하여 대화의 본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송현아(2020)에서는 대화철학, 대화주의, 대화개념 등, 철학 분야에서 대화와 관련된 많은 담론이 존재하였음을 언급하며, 철학에서 대화는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 논해진다고 하

였다. 즉 일상적인 말함과 들음으로 구성된 대화가 아닌 존재와 인간 간의 소리 없는 본래적 대화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대화의 본질에 대한 연구보다는 대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요컨대 철학에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자에 대한 인식으로써 자의식이 형성되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대화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발견은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맥락에 기반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는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과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과도 맞닿아 있으며²⁾ 데퍼만(Deppermann, 2006)의 의미구성과도 관계된 것이다. 데퍼만은 의미구성을 상호행위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인지구조와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이들이 상호행위를 통해 의미를 구체화하고 협상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영(2021)에서는 대화참여자들이 표현의 의미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호행위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대화는 대상 간 소통은 물론, 사고하기 위해 언어로 수행되는 담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화자와 청자 사이 언어를 교환한다는 정의에서 더 나아가 대화를 규정하는 여러 관점들을 종합하여 그 개념을 다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면어는 Cruse(1995), Croft & Cruse(2004) 등에서 새로운 개념인 ‘facet’을 통해 다의어와 구별되는 다른 부류로 설정한 것이다. 임지룡(1996)에서는 “그 의미가 둘에서 네 개 정도의 국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게슈탈트(gestalt)’를 형성하는 단위”로 설명한다. 다의어는 중심의미로부터 주변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인 데 비해, 다면어는 이러한 ‘국면’들이 총체적으로 합하여지는 의미적 통합체이다. 대표적인 다면어인 ‘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국면(facet)’은 단일한 의미의 분리된 성분으로서 ‘책’은 [형태]와 [내용]의 국면으로 이루어진다(Cruse 1995:44)

- ‘국면’은 ‘책’의 [형태] 및 [내용]과 같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게슈탈트(gestalt)’를 형성할 수 있는 단위이다(Croft & Cruse 2004:116)³⁾

이와 같이 다면어는 상호 구분되는 존재론적 유형에 각 의미면이 속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각 의미면은 자체의 원형성과 각각의 의의관계를 가진다. 또한 중의성이 발생하

2) 비고츠키와 바흐친의 이론에 대해 황은하(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두 이론은 인간 행위에 있어서 대화 및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고등 정신 활동에 속하는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대화를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모든 고등 정신 활동 수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보고 있다. 대화 내에서 정신 간 활동을 통해 언어적 발달의 잠재적 영역인 근접발달 영역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고츠키와 바흐친의 이론은 상호보완적인 대화를 암시하는데, 바흐친(Bakhtin, 1981)의 대화는 ‘dialogue’로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선, 자아와 타자는 연결시키는 기능으로 인식한다. 바로 ‘나’와 ‘타자’의 긴밀한 연관인 ‘대화’를 통해 주체가 세계를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혹은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세계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이론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비고츠키는 언어를 중립적 매개 도구로 보고 있는 데 비해 바흐친은 언어는 대화와 자아를 형성하는 본질적 매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임지룡(2011:177) 재인용

는 문맥에서는 독자적으로 활성화되거나, 또는 전체 의미면을 모두 가리킬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다면어(multi-faceted words)로서 ‘대화’의 개념을 <표 4>와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표 4> 대화의 개념

[형식]	[기능]	
언어	소통	사고
화자, 청자, 언어기호, 순서교대	감정 및 정보 교류	의미 구성 및 합의
·철수와 3시간 전에 대화했다. ·철수가 영희랑 대화했다.	·철수와 대화 잘 통해. ·철수와 대화 재밌었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됐다. ·치열한 대화로 합의가 됐다.

다면어로서 ‘책’의 의미는 [형태]와 [내용]의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게슈탈트(gestalt)적 총체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책’의 경우, 물리적 형태를 지니므로 더 명확하게 [형태]와 [내용]이라는 의미면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대화’는 행위이므로, 행위를 구현하는 [형식]과 행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기능]을 그 의미면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언어로 구현되는 물리적 특성이 발현하게 됨으로써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국면을 [형식]으로, 또 행위의 목표이자 동기가 되는, 소위 행위에 대한 존재적 필연성을 부여하는 국면을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능은 다시 ‘소통’과 ‘사고’로 분류하여, 전자는 감정 및 정보의 교류로, 후자는 의미 구성과 합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철수와 3시간 전에 대화했다’에서의 ‘대화’의 의미는 대화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언어적 조건에 해당하는 [형식]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능] 측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철수와 대화 잘 통해’에서는 소통 측면의 [기능]이, ‘대화로 문제가 해결됐다’에서는 사고 측면의 [기능]이 부각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화’를 다면어로서 봤을 때 ‘대화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문장에서 ‘대화’가 가지는 다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때 수행된 대화는 형식적 측면의 대화라 할 수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대화의 기능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화가 걸들었어’, ‘대화에 알맹이가 없었어’라는 문장에서의 ‘대화’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화를 성립하게 하는 조건인 형식적 측면과 이와 구별되는 기능적 측면으로 ‘대화’ 의미면을 구분하여 다면어로서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다면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의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인식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의 개념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그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에 대한 개념 역시 그 의미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대화’를 키워드로 논의되어 온 각기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대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각 학문의 영역에서 조명해 온 ‘대화’의 의미면 혹은 국면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의미면 사이 경계에 해당하는 논의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국면을 조망함으로써 ‘대화’의 본질을 규명하게 된다.

인간은 언어로 구현되는 대화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속의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필연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화는 과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대상과도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대화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대화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대화의 어떠한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에 대한 인식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ChatGPT가 촉발한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인식 변화

인공지능 시대의 특이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생성형 AI인 ChatGPT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과의 대화’의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에서 설정한 ‘대화’ 개념의 다면적 측면에 따라 [형식] 측면에서는 대화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과 대화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형식] 측면: 대화 대상인 인공지능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 강화

언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는 인간 대 인간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필요하며, 대화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으로 한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기계가 언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현재, 이러한 행위도 대화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대화의 형식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대화의 행위자로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현재의 대표적 생성형 AI인 ChatGPT를 놓고 볼 때, 이를 대화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에 드러난 ChatGPT와 관련된 표현 속에 내재하는 개념적 은유를 살펴 보았다. 사람들의 인식 양상을 반영하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인간이 ChatGPT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출현한 생성형 AI인 ChatGPT로 인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5> 챗GPT 관련 기사

챗GPT가 약관 설명,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보험금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3.07.25
챗GPT는 아직 헛소리 생성기 수준...윤리준칙 정립이 중요	머니투데이 2023.07.24.
‘건진희 특혜 의혹’ 챗GPT의 대답은? “매우 심각”	한겨레 2023.07.11.
“바둑은 스포츠인가?” 챗GPT에 물었더니...	중앙일보 2023.07.05
다양한 AI 챗봇 골라서 대화한다...SKT, 에이닷 전면 개편	매일경제 2023.06.30.
전문가 79% “챗GPT 답변이 의사보다 낮다”	조선일보 2023.04.30.
저출산 이유’ GPT가 답했다...“한국의 긴 노동시간 때문입니다”	헤럴드경제 2023. 05. 14.
“바보같은 답변, 상식이 없다”...환각에 빠졌다는 이 녀석들, 이유는	매일경제언론사 2023.06.25
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 “챗GPT, 내꺼 베꼈다” 소송	한국경제 2023.07.11
거짓말 잘 하는 챗GPT 차근차근 달래가며 부려야	부산일보 2023.04.27
사람보다 속마음 잘 읽는 챗GPT...AI 돌봄시대 오나	서울경제 2023.06.25.

ChatGPT 열풍의 핵심은 ‘사람처럼’ 대답한다는 점에 있다. 추천하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차별성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마치 ChatGPT가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구현해 내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ChatGPT를 적극적 행위자로 보고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ChatGPT는 설명하고, 청구하며, 대답한다. 때로는 인간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인간과 비교되고, 인간보다 뛰어난 분석을 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특히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인간성을 지니는 모습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hatGPT의 유능함과 함께, 이와 반대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ChatGPT를 헛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बे끼기도 하는 존재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ChatGPT는 상식도 없고, 환각에 빠지기도 하는, 달래가며 일을 시켜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지용(2021)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비교해 볼 때, 생성형 AI인 ChatGPT에 대하여서는 보다 ‘인간적’인 측면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출현은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생성형 AI 기술의 오류로 발생하는 부분을 오류라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환각에 빠져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을 ‘환각(hallucination)’으로 명명한 것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의식을 지니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⁵⁾ 즉 인공지능이 어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ChatGPT는 해당 웹페이지에서 ‘Send a message’라고 제시되어 있는 칸에 질문을 넣어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ChatGPT를 이용하는 행위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ChatGPT를 대화 상대, 즉 의식을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다. 검색이라는 기존 방식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주는 방식인 데 비해, 생성형 AI는 ‘프롬프트(prompt)’를 통해 지시 받은 내용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생성해 준다.

즉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는 것으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시되어 대화 행위로서

4) 이지용(2021)에서는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 관련 생명체 은유를 중심으로 그 핵심 은유와 하위 유형을 분류하여, [인공지능은 사람]과 [인공지능은 종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사람 은유는 다시 [인공지능은 전문가], [인공지능은 학습자], [인공지능은 적] 등으로 구체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고, 인간과 경쟁하거나 비교되고, 인간보다 뛰어나거나 뛰어 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인간과 교류하는 존재로 그 개념화 내용의 특성을 밝혀내었다.

5) 생성형 AI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틀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른바 ‘환각(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서는 ChatGPT가 스스로 “저는 GPT-3.5 모델이며, 제 지식은 2021년까지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로 답변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의식을 지닌 존재로, 또는 양해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성’이라는 기술적 특징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생성’이라는 단어보다 ChatGPT로 명명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형식을 강조함으로써,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을 ‘대화’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 대화, 즉 맥락을 고려하여 응답하는 멀티턴(multi-turn)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술적 변화는 기존의 AI스피커나 챗봇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인간의 실제 대화의 형식적 면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ChatGPT의 출현으로 인해 대화의 대상으로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인공지능을 인간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미숙한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 인간과 소통 및 협업이 가능한 인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2. [기능] 측면: 인공지능과의 대화 효능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러한 존재적 지위를 지니는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다면적 의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적 활동과 감정 교류라는 기능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수 있다. 즉 인간 대 인간으로만 가능했던 대화를 인간과 기계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ChatGPT와의 대화로 과제 수행을 포함하여 감정을 교류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미 구성 및 합의라는 ‘사고’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즉, ChatGPT의 출현으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소통의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사고적 측면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효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대화에서의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⁶⁾ 인공지능과의 대화의 주된 기능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 의사소통에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⁷⁾ 기존에는 단순히 검색이나,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대화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수행되었다. 대화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인 ChatGPT의 출현으로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가능한 기능이 ‘사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⁸⁾

6) 이선영(2019)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 대화의 쟁점으로 인간 대화의 속성인 ‘직접 대면’, ‘양방향 소통’, ‘관계 중심’을 제시하여 논하였는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기존 대화시스템과 비교할 때 이러한 속성들이 일부 실현되고 있으며, 또는 대화의 속성 자체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산파술을 실현해 주는 현 시대의 산파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대화상대자에게 이미 완성된 해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해답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다. 그의 대화법은 맨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 양, 종종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허점을 깨달도록 유도하여 마침내 상대를 궁지로 몰아 결국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깨닫게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편견이 깨어지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되어 스스로 ‘확실한 지식’을 찾아 나서게 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바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원혁·허현숙, 2021)

8) ‘사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메타인지적 관점에서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검색’이라면, ChatGPT와의 대화에서의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질문을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

다시 말하면 의미를 구성하고 합의하는 ‘사고’ 측면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 즉 의미 형성의 도구로서의 ‘대화’가 인공지능과 가능해졌다. 이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답변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 대화의 역할 측면에서 인간과의 대화와 달리 주고받는 역할이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대화를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작동시키며, 운영 및 조정해야 한다. 이와 따라 ChatGPT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인공지능과의 대화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ChatGPT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실제화되었다. 즉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인간 대화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대화 개념의 형식과 기능 측면에서 본질적인 대화 개념에 부합하도록 확장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의 ‘대화’는 어떠한 개념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간의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언어적 형식, 그리고 소통 및 사고의 기능이라는 의미면을 지닌 총체적 행위로서 ‘대화’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성형 AI인 ChatGPT와의 대화가 이러한 대화 개념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대화’를 재개념화하고 있다. ‘대화’의 대상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확장하고, 대화의 방법과 목적도 기술의 발전 방향에 발맞춰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화’의 본유적 기능인 소통과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대화 상대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 우리의 대화 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대화’ 개념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메타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ChatGPT와 ‘사고’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병기(2010).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과 실제. 철학연구 113. 111~133. 대한철학회.
- 박성석(2013). 관계 중심적 대화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초면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석(2018). 대화 성찰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용익(1999). 대화분석론의 이론과 전망. 텍스트언어학 6. 1~2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우수(2003). 대화론과 수사학: 방법론적 시론. 영미연구 11. 53~72. 한국구사학회.
- 서원혁·허현숙(2021).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경향을 바탕으로 한 교양 교육 연구 :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대화법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8.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48~285.
- 서종훈(2014). 화법 교육에서 대화의 속성과 위상 고찰. 언어과학연구 68. 165~190. 언어과학회.
- 손희연(2009). 제2언어 습득의 사회인지적 과정으로서 대화의 의의: 사회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미시발달의 상호작용 사례 분석. 사회언어학 22-1, 113~140. 한국사회언어학회.
- 송현아(2020). 하이데거 철학에서 대화의 본질. 인문과학 119. 165~19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이선영(2019).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쟁점. 국어교육 167. 62~87. 한국어교육학회.
- 이성준(2007). 대화 과정으로서의 '말하기'와 '이해': 빌헬름 폰 훔볼트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독어학 제15집. 227~251. 한국독어학회.
- 안윤기(2019). 소통, 이성 그리고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문학연구 3. 100~119.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 이재현(2019). 소크라테스 대화의 규칙과 대화 지도자의 역할. 대동철학 87. 203~236. 대동철학회.
- 이지용(2021).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적 은유 분석: 생명체 은유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8. 137~163. 반교어문학회.
- 이창덕·임철성·심영택·원진숙(2000). 삶과 화법. 서울: 박이정.
- 이창덕(2019). 초디지털 사회 인간 의사소통의 덕목에 대하여. 교육문화연구 25-1. 681~697.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229~261. 한국언어연구회.
- 임지룡(2011).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 언어과학연구 58. 169~188. 언어과학회.
- 전은주(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서울: 박이정.
- 정상섭(2006). 공감적 의사소통의 본질 고찰. 새국어교육 72. 351~371.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희중(2022). '소크라테스 대화'에서의 진리 합의와 자기이해. 범한철학 106. 77~97. 범한철학회.
- 최춘혁(2002). 술라이허마의 대화 이론. 철학연구 81. 289~309. 대한철학회.
- 황은하(2017).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연구와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13-3. 239~27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Bakhtin, M. M.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M. Holquist Ed.; C. Emerson & M. Holquist,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ruse, D. A. 1995. Polysemy and Related Phenomena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In Saint-Dizier, P. & E. Viegas (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33-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 & D.A. Cruse.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두식·나익주 옮김. 2010. *인지언어학*. 서울:박이정.)
- Deppermann, Arnulf. 2006. Von der Kognition zur verbalen Interaktion: Bedeutungskonstitution im Kontext aus Sicht der Kognitionswissenschaft und der Gesprächsforschung. In: Deppermann, Arnulf (Hrsg.): "be-deuten: wie Bedeutung im Gespräch entsteht", Stauffenburg Verlag.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M. Cole, S. Scribner, V. John-Steiner, & E. Souberman, Tr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34).

<참고 사이트>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한국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최윤(강원대학교)

이 연구는 인간의 대화를 다면어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이를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입해 봄으로써 ‘Chat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발한 토론으로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드려야 하나,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저의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논의 대부분에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인공지능 대화에 대한 분석

2.1. 형식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3.1.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식] 측면’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기능] 측면’에 대한 논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 특성에 의한 ‘대화’의 ‘완성도’ 평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가 ‘화자, 청자, 언어기호, 순서교대’ 등이라면 인공지능 대화 역시 ‘형식’에는 문제점을 찾기 어려울 듯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화의 ‘형식’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 4>에서 제시하고 계신 것 이외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2.2. 기능

위 질문과 관련하여 ‘ChatGPT’와의 교류(?)가 ‘대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hatGPT 이용’과 ‘인간의 대화’에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단일 방향성을 갖는 반면 후자는 양방향성을 가진 것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가 형식적으로 양방향성을 표방하고 지향할지라도 대화의 ‘기능’에 해당하는 소통과 사고에 대한 판단(대화가 잘 통해, 대화가 재밌었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됐다. 대화로 합의가 됐다. 등)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능’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 현재의 생각

선생님께서서는 3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ChatGPT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실제화되었다.”

이 문장은 일견 ‘판단 유보’로도 읽힙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금의 상황을 ‘인공지능과 대화’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장에서의 설명이 ‘대화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대화’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선생님의 현재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 여쭙보자면, ‘이루다’나 ‘심심이’ 등 소위 ‘대화형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대화’의 본질과 개념에 어떤 것이 더 잘 부합할까요?

3. 논의 흐름

1~2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화의 개념 및 본질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이 3장, 인공지능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연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대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인공지능 대화’에 대입하려는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화의 개념’이 다소 확장적이며 깊이가 있어 오히려 인간 이외의 대상물, 즉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대화’로 볼 수 있고, 보아야 함을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후 3장에서 ‘인식 변화’를 다루게 되면서 3장은 마치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으로 읽혀 논의의 흐름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이 논리적으로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예를 들어, 가시적인 차이점 제시) 혹은 3장과 2장의 순서를 조정하여 ‘문제의식 - 개념 확장 및 설명 - 분석 및 제언’의 흐름으로 논의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도 현재의 논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대화’를 재개념화하고 있다. ‘대화’의 대상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확장하고, 대화의 방법과 목적도 기술의 발전 방향에 발맞춰 재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가 현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의의를 갖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독의 실수를 염려하며 이지용 선생님께 위 질문들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창작 주체와 대화적 시쓰기

유가은(중앙대학교)

차 례

1. 들어가며
2. 저자와 주체의 불편한 동거
3. 나 바깥의 나, 글쓰기의 내면문제
4. 우문우답(愚問愚答)의 다이얼로그
5. 나가며

1. 들어가며

로버트 저메키스의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2000)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 ‘척 놀랜드’는 무인도에 표류되었을 때 우연히 택배 상자 안에 실려 떠내려온 월슨(Wilson)사의 배구공을 ‘월슨’이라 이름 붙이며 친구로 삼는다. 손바닥에 피가 묻은 채로 어찌다 공을 던졌는데 묻은 핏자국이 얼굴과 닮아서 말 없는 배구공을 ‘월슨’이라고 부르며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척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배구공 월슨을 멀리 던져버렸다가 후회하며 월슨에게 눈물로 사과하기도 하고, 월슨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을 구하는 데 실패했을 때는 오열하며 모든 의욕을 잃고 좌절하기도 한다.

척이라는 인간이 배구공을 잃었을 때 모든 삶의 의욕을 잃게 될 정도로 사물과 대화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영화에서는 극한 상황이 전제되었긴 하지만, 인간은 때로 아주 쉽게 아무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 보이는 대상을 주체로 생각하며 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 배구공 ‘월슨’이 동그란 모양을 가져서 얼굴처럼 보인다가, 무인도 조난 상황에서 생존에 별로 쓸모 없는 물건이라서 선택되었다거나, 스포츠 브랜드 ‘월슨’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가 하는 논의는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다. 그 주제로 우리는 ‘월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배구공을 주체로 만든 ‘척’의 내면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2022년 11월 본격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오픈 AI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ChatGPT’는 서비스 시작 2개월 만에 사용자는 1억명을 돌파했다. IT기업은 물론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AI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⁹⁾ 오픈 AI는 최근 ‘ChatGPT-3.5’에서 언어 이해와 처리 능력을 더욱 정교

하게 보완한 'ChatGPT-4'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에서 챗봇 서비스 바드(Bard)를 공개하고, 메타에서 '라마(LLaMA)'라는 언어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카카오브레인에서는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 'KoGPT'를 공개했다. 네이버에서는 한국어에 특화된 AI 기반 챗봇 서비스 '하이퍼클로바x'의 런칭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각지에서 개발되는 상황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전에 예술 관련 직업군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¹⁰⁾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예술 관련 직업군은 가장 먼저 대체될 만한 직업군으로 평가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근 문학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담론도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조성되고 있다.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대결 이후에 촉발된 인공지능 담론은 불안감 속에서도 인간 창의력의 우위를 어느정도 확신했다면, ChatGPT 이후의 담론은 패배를 예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승리와 패배로 양분되는 싸움으로 접근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패배는 거의 확정된 것이며 인간 진영의 희망은 빠르게 좌절될 뿐이다. 현재 출시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안심하는 것은 유효한 논의가 될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함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닌 현대시의 시장성 부족에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시에서 줄곧 이루어져 왔던 주체 논의가 이미 내장하고 있는 변화를 기술로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대시에서 저자와 주체는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다. '저자'라는 존재가 현실 사회적 개념으로 고정되는 사이에 작품 안에서의 '주체'는 비동일화, 비인간화, 탈중심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창작자 인간이 경험하는 내면문제이다. 최종적으로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통해 인간이 대화적인 존재로서 인공지능을 주체화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2. 저자와 주체의 불편한 동거

관습적으로 시 구절은 별다른 단서가 없으면 시인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해된다.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발화가 있을 때, 읽는 이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시인, 시적 자아에게서 나온 감정이라 여기게 된다. 하나의 시가 출판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 시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 하나는 직접 시를 작성한 사람이자 경제적인 권리를 가지는 '저자'인 시인이고, 다른 하나는 시 내부에서 언어를 운용하는 초점의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긴밀하지 않은 독해에서 두 주

9) 정두용(2023.03.27), "챗GPT 4개월, 달라진 세상... 정보 기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생성 AI' 붐 물", <이코노미스트>. (열람일자 2023.08.04.)

10)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 1위로 화가 및 조각가를, 3위로 작가 및 관련 전문가를 꼽았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예술, 창작 관련 직업군인 점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배한님, 윤지혜(2023.01.29.), "의사도 위태롭다?... 2023년 '생성 AI' 등장 후 사라질 직업들", <머니투데이>. (열람일자 2023.08.04.))

인은 보통 통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 나는 오래된 집에 산다
나. 생나무를 때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 이렇게 튼튼한 나무들 사이에서
라.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집
마.
바. 나는 나무의 나이테를 세어보며
사. 시간을 짐작한다
아. 지붕은 비가 새지 않는지
자. 도통 관심이 없다
차.
카. 아버지는 생전에
타. 술을 좋아하셨다
파. 할아버지는 평생
하. 술을 담그셨고
거. 아버지는 평생
너. 술을 받으셨다

더. - 시아(SIA), 「오래된 집」 부분¹¹⁾

「오래된 집」은 카카오브레인이 만든 시 쓰는 인공지능 ‘시아’가 쓴 시이다. 인용한 부분은 「오래된 집」의 시작 부분이다. 화자는 마치 자신과 가족의 전사(前史)를 서술하듯 집과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화자는 오래된 나무집에서 살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실제 발화자가 신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의 진술은 상당히 기만적으로까지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품을 어떤 이가 작성했는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에 대입하여 공감하는 독자가 있을 수 있다. 김종훈은 “우리는 감정의 주체이지만, 감정은 외부와 접면하며 발생한 다”며 인공지능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해도 죽음을 말할 수는 있다고 본다.¹²⁾ ‘시아’의 시를 두고서는 논자마다 판단이 다르다. 이전에 시 쓰는 인공지능이 보여준 적 없는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인공지능임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시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오래된 집」의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가 시를 읽고 슬픔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인공지능이 시를 쓴 사실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는 감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시아’의 시는 감상자에게 저자와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우리는 시를 직접 쓴 인간인 저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시 내부에서 주체가 발생시키는 감정에 동요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시는 저자와 주체가 읽는 이의 관

11) 슬릿스코프, 카카오브레인(2022), 「오래된 집」, 『시를 쓰는 이유』, 리멘워커, pp.16~17.

12) 김종훈(2023), 「인공지능의 시들, 서정의 도약대」, <서정시학> 33, 계간 서정시학, p.9.

념 속에서 붙어있는 듯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시는 현대시에서 주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사건이다.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진단하면서 신화화된 저자의 자리를 탈신화화하려고 했던 것이지금으로부터 50년도 전의 일이다. ‘저자(author)’란 본래부터 존재했던 개념이 아닌,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다. ‘저자(author)’는 ‘권위(authority)’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당시에 저자라고 함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자이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창성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두 지시했다. ‘저자’는 사상적으로는 ‘개인’이 출현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인쇄 기술이라는 매체가 새로이 나타나면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¹³⁾ 대량복제와 사유재산이 없다면 작가가 권리를 주장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율적인 주체가 없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정하고 주체성을 발견하는 근대적 개인이라는 사상이 저자 개념을 떠받친다.¹⁴⁾ 바르트는 저자가 창작한 텍스트가 마치 신의 메시지인 것처럼 권위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텍스트란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결합하는 장소로서 근본적으로 인용들의 짜임과 같다고 보았다.¹⁵⁾ 모든 말은 남의 말을 들었던 것에서 나오고, 모든 생각은 다른 것을 학습한 결과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창작자라면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감각이다.

그러나 이론가들이 제안한 것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저자 개념은 상당히 깨기 어려웠다.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고, 훌륭한 작품을 쓴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또 사회 제도상 작가에게 사유재산을 보장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에 자신조차도 일기 형식의 글을 쓰면서 글쓰기에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투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변광배는 바르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저자의 귀환과 다름없다고 본다.¹⁶⁾ 사실 저자는 귀환하지 않았다. 애초에 저자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론의 바깥에서, 작가에게 보장되는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인 인정과 함께 저자는 자신의 권위를 공고하게 해 왔다.

한편 시 내부에서 발화의 초점을 찾아내는 주체의 개념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시에서 ‘주체’는 동일성에서 탈주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권혁웅은 시적 주체를 시적 자아와 구분하면서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가상적 지점이 주체이고,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드는 귀결점으로 주체를 규정하였다.¹⁷⁾ 기본적으로 라캉이 기표에서 주체를 가상적인 지점으로 파악한 데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주체는 언술이 전개되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지점이다.¹⁸⁾ 이 정의를 보면 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최문규 외(2015), 『저자의 죽음인가, 저자의 부활인가?』, 한국문화사, pp.2~3.

14) 위의 책, pp.4~5.

15)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pp.31~32.

16) 변광배(2013), 「저자의 죽음과 귀환:R.바르트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45, 세계문학비교연구, pp.221~224.

17) 권혁웅(2010), 『시론』, 문학동네, p.33.

18) 권혁웅(2021), 「시적 주체와 시적 상황-시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둘을 둘러싼 시공간의 지평」,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p.377.

시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가 아닐 수 있다는 몇 가지의 부정문으로 정의된다. 주체는 저자와 다르게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주체는 신체를 가진 인간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 주체는 세계에 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주재자가 아닐 수 있다. 주체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심지어는 문장의 주어 속에 주체가 없을 수도 있다. 주체는 ‘주체’는 그 자체로 동일성에서 벗어나고, 인간성에서 벗어나고,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구체성과 문법에서까지 벗어나서 설정되는 개념이었다. 요컨대 주체는 근대 이후 근대성에 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현대의 사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하나의 시를 읽을 때 독자는 저자와 주체 사이를 넘나들며 독해한다. 다성적인 목소리가 시에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어떤 특정한 언술에 시의 초점이 있음을 느끼며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이 말을 적은 시인의 마음에 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종훈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선을 소환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와 비시, 인간과 비인간에 관해 질문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¹⁹⁾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저자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자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기도 하면서, 현대의 독자가 저자와 주체 사이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 두고 시를 읽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²⁰⁾ 이 간극은 인공지능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촉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현대적인 주체 개념을 기술이 표현하고 일찍이 선언된 저자의 죽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3. 나 바깥의 나, 글쓰기의 내면문제

인공지능이 변화의 촉매가 아닌 기존에 설정됐던 정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의 발전 방향보다는 기술을 마주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내면문제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행할지 모르지만, 시인이 어떠한 태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되는 창작자의 내면풍경은 어떨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윤이형의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에는 창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젊은 작가 지망생 2명이 등장한다.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은 2011년 출간된 『큰 늑대 파랑』에 수록된 작품으로 10년 정도 이전의 작품임에도 현재의 생성형 AI와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 RG 001”은 국제적인 기업 P사가 개발한 창작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새롭게 바꿔 써 준다. 소설이 출간될 당시로써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에 AI나 인공지능과 같은 언급은 나오지 않

19) 김종훈(2023), 위의 글, pp.4~5.

20) 문보영은 7월 출간한 시집 『모래비가 내리는 모래 서점』(2023, 문학동네)의 말미에 ‘시인의 말’이나 ‘해설’을 대신하여 ‘역자 평론’을 수록했다. 실제로 그 시집은 시인이 직접 창작했으며 번역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 시집을 번역했다는 콘셉트를 차용한 것이다. 시인이라는 창작자가 기본적으로 마음이나 세계의 번역자이거나 인용자일 수 있다는 전제를 떠올리게 한다.

는다. 하지만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은 현재 서비스 중인 그림이나 사진을 생성하는 AI와 기능 면에서 상당히 닮아있다.

“장미꽃 설정”이라는 기능에서 장미꽃을 ‘적게’ 설정하면 원문의 내용을 더 살린 결과물이, 장미꽃을 ‘많이’ 설정하면 원문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필터를 사전에 적용 가능하다. 가령 ‘향기에 집중하기’라는 필터를 사용하면 묘사를 더 세밀하게 하고, ‘머리에 장미를’이라는 필터를 사용하면 환각소설 같은 분위기의 소설로 바꿔 준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달리(DALL·E)’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감도’를 설정하며 원본 사진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설정하고, ‘태그’를 입력해서 어떤 분위기와 콘셉트로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어낼지 설정하는 기능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리. “저 머신을 알게 된 다음부터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반복됐어. 내가 얘기를 안해서 너는 몰랐겠지만, 아주 미친년 널뛰듯 반복됐어. 좋은 시기에는 저게 나한테 준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고, 이건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편리한 툴일 뿐이야, 새로운 기계가 나왔고 나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생각했지. 못할 게 뭐 있어? 이용하는 거야. 편리한 신기술이 나왔고 내 손에 쥐어졌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나의 본질과는 관계없어, 싶기도 하고. 좋아, 열심히 해서 기계한테 지지 말자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 노트북을 덮어두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나가서 조깅을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이걸로 좋은 글을 써서 꼭 작가가 되고 말자고.

머. 그런데 나쁜 시기가 오면, 나는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고, 뭔가 사기꾼이 된 것 같고, 이러니까 작가가 못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 어째선지 전국을 발로 걸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생각나고, 대학 때 동아리 선배들이 생각나고…… 그 선배들, 글 때문에 다들, 피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짙은 가래 정도는 매일 밤 토하고 있을 텐데, 나는 어찌다가 운이 좋아 저런 악마 같은 기계를 얻었고, 얻었으니 거기에 영혼을 팔았고, 사실 내가 쓴 것보다 저게 써낸 게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았고, 실은, 저거 그냥 B에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후략)”²¹⁾

주인공인 ‘이비’와 ‘몽식’은 작가 지망생으로 이따금씩 서로의 글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사이이다. 작가 지망생으로 열심히 습작을 이어가던 ‘몽식’은 우연한 기회로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의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게 된다. 창작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혼자서 작업을 할 때의 고독감이나 슬럼프도 겪으면서 힘들게 습작 생활을 하던 몽식에게는 P사가 베타 테스터로 참여할 습작생의 선정을 위해 자신의 글을 읽어준다는 점만으로 이끌려 원고를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몽식의 내면을 흔드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인간인 몽식의 입장에서 ‘기계’인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은 슬럼프도 경험하지 않고, 내면의 피폐한 부분이 드러나지도 않고, 세계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도 나타나지 않으며, 소위 ‘못나고’ ‘찌질한’ 모습도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힘든 상황에 있는 몽식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21) 인용문에서 ‘B’는 이용자가 작성한 원문을 A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계가 바꾼 버전의 글을 말한다. (윤이형(2011),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 『큰 늑대 파랑』, 창비, pp.261~262.)

겪는 고통과 불안, 적대감이 없이 건강해 보이는 기계의 글쓰기가 훨씬 더 이상적이게 보였으며 그에 비해 자신의 글쓰기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위의 인용문은 ‘몽식’이 ‘이비’에게 자신이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을 이용해 왔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후 변화한 자신의 내면 상태를 고백하는 부분이다. 편리한 기술을 사용해서 더 창조적인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차오르다가도, 자신이 온전히 창조했다기보다 기계의 힘을 빌린 것만 같은 부채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능력 부족에 자책하기도 한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희망에 차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두려움과 위기감에 빠지기도 하는 몽식의 모습은 인공지능과 마주하는 창작자의 내면 풍경과 놀랍도록 닮았다.

앙리 르페브르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창조행위는 소비 이데올로기로 전환하며, 그에 따라 예술의 양식이 부재하게 된다고 보았다.²²⁾ 소설에서 몽식과 이비는 창작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극도로 강조해서 모든 실패마저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몽식과 이비가 경험하는 창작 상의 위기는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이 촉발한 것이 아니라 예술 창작자에게 특히 더 혹독한 자본주의적 상황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기인한다.

기계를 접한 이비는 그것이 장미꽃이 아니지만, 장미를 선물받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다. 또한 몽식은 프로그램이 ‘합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표현한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기계의 재창작에서 소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새로운 일면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은 나가 되기도 하고 나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면서 창작자의 내면에서 자신과의 대화, 동시에 타자와의 대화를 성립시킨다.

버. 예전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없이 10분 내외로 막힘없이 한 편을 적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쓰다 멈추고, 억지로 상을 끌어올리려 애써야 한다. 골방 안에서는 상을 찾는 일도 수월치 않다. 그래도 쓰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략)

서. 그리하여, 나는 상이 막힐 때마다 AI를 이용해 다른 상을 탐색하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시를 진행했다.²³⁾

2022년 CJ 올리브네트웍스는 9명의 시인이 AI 시작 인공지능 ‘오아이 라이터(Oi writer)’를 활용해 집필한 앤솔로지 시집 『9+i』를 출간했다. 시를 비롯한 3만 여편의 작품을 학습한 AI인데, 주제를 입력하면 시적인 문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주제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글을 생성하고, 특정 단어를 제외하거나 단어의 연관성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⁴⁾ 여기에 참여한 각각의 시인들은 각각의 창작 방식에 따라 AI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작품을 창작했다.

대부분의 단어 선택을 AI에게 맡기고 자신은 윤문만 했던 시인이 있는가 하면, 발상만을 참조

22)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p.128.

23) 김연필(2022), 「기계장치의 시 쓰기」, 『9+i』, 블루버튼, pp.62~63.

24) 남혁우(2022.11.15.), “시인 9명, AI 시(詩) 저작도구로 시집 ‘9+i’ 출간”, <ZDNET Korea>. (열람일자 2023.08.05.)

하여 문장 자체는 직접 작성한 시인도 있다. 위의 인용문은 김연필 시인의 후기이다. 김연필 시인은 평소에 ‘상’(해당 글에서 시인은 이 용어를 발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다)이 막혀 곤란해 왔었는데,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발상을 탐색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이 영향을 많이 받은 20권의 시집 정도를 AI가 새롭게 학습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쓸 법한, 또는 이전에 썼던 느낌의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시인이 영향을 많이 받은 시들을 학습한 AI는 과거의 시인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현재 시인의 목소리와 닮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미래에 시인이 쓸 수도 있을 문체를 구사하기도 한다. 창작 과정은 나 아닌 존재의 발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의 일부를 나의 신체 바깥에 꺼내두고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고유성 시인은 AI를 활용한 시 쓰기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의 둘레를 확인하고 내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한 확인과 변화 과정을 계속한다는 느낌”²⁵⁾을 받았다고 적었다. 창작 과정에서 AI의 “어떤 면이 나의 생각과 닮아있다는 걸 발견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고 변화한다는 감각을 느꼈다”²⁶⁾고 전한다. AI와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성을 AI와 닮은 점을 통해서 탐색한다는 창작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인공지능 창작은 나이면서 나 아닌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것은 AI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항상 행복한 과정만은 아니다. 신체를 가진 인간이 경험하는 창작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내면의 갈등이 그 과정에서 투사된다. 인공지능이 쓴 문장에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주체성은 사용자가 여기에 나(我)의 이름을 붙이느냐, 나 아닌 것(非我)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4. 우문우답(愚問愚答)의 다이얼로그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AI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ChatGPT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사용자인 인간이 일상 언어로 무엇인가를 질문 또는 지시하고, 인공지능이 자연어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 이것은 대화의 형식을 띤다. 대화(對話)는 사전적으로 둘 이상의 실체가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무생물에게 말을 거는 것은 대화가 되기 어렵다. 인공지능과의 대화 역시 엄격히 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인공지능과 대화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일찍이 바흐친은 문학에서 ‘대화(dialog)’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았다. 이는 바흐친의 자아 개념과도 연결된다. 독백의 형식은 타자를 완성된 것으로 상정하는 한편, 대화의 형식은 타자와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열린 가능성을 전제한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는 자아가 하나로

25) 고유성(2022), 「고유성의 둘레 순찰하기」, 위의 책, p.113.

26) 앞의 글.

정해지지 않고 부단히 활동한다는 점에서 대화적인 특성을 갖는다.²⁷⁾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할 때 주체는 대화 속에서 인간이 발견해내고, 그 대화는 우문(愚問)과 우답(愚答)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질문 방향	종류	예
시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	특정 주제로 쓴 시	고양이를 주제로 시를 써줘.
	특정 방향으로 쓴 시	영동한/전위적인/고전적인/실험적인 시를 써줘.
통사적 특징을 이용	비통사적인 시/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시를 써줘.
	특정 품사/문장성분을 이용한 시/문장	부사어만을 이용한 시를 써줘.
	특정 종류의 단어를 이용한 시/문장	의태어를 사용한 시를 써줘.
특정한 장르 또는 종류	특정 장르로 작성하는 시/문장	로맨틱 판타지 풍의 시로 바꿔줘.
	상황극/역할극 형식의 글	여름 고백을 상황극 형식으로 써줘.
	편지/대화 형식의 글	집들이 초대 편지 형식의 글을 써줘.
	시나리오/영화/소설의 설정 형식의 글	학교에 대한 글을 공포영화 형식으로 써줘.
	속담/규칙/명언 만들기	인공지능의 사랑에 관한 속담을 만들어줘.
	실험 결과 보고서 만들기	외계인이 지구에서 하는 실험 보고서를 써줘.
	거짓 정의문 만들기	단어에 대한 가짜 정의문을 써줘.
특정 인물이나 스타일 설정	실존했던 인물이 썼을 법한 글쓰기	칸트가 쓸 법한 시를 써줘.
	가상 인물의 입장에서 글쓰기	가상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이 할 법한 말을 써줘.
	특정 시인의 스타일로 시 쓰기	릴케 스타일의 시를 써줘.

〈표 1〉 ChatGPT를 활용한 시 창작에서 질문의 방향과 종류

위의 표는 'ChatGPT'를 활용해 시를 창작할 때, 즉 시적인 발상이나 구절을 창출해낼 때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모은 것이다. 실제로 활용할 때는 예시된 질문을 합치거나 바꿔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된다. 각각의 질문은 공통적으로 보편적 상상력이나 언어에서 벗어나는 결

27) 앨런 스윈지우드, 박형신·김민규 옮김(2004),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문화이론과 근대성의 문제』, 한울아카데미, p.169.

과물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특정한 방향으로 쓴 시’에서 ‘엉뚱한’이나 ‘전위적인’ 등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낭만적이고 교훈적인 성향으로만 시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통사적 특징을 이용할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사 구문과 다른 언어가 나타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주문했을 때 ChatGPT는 내용적 호응은 맞지 않는 문장은 만들어도 문법적 호응이 맞지 않도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언어 기반 서비스 AI는 통사구조를 지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 또는 시 구절이 아닌 특정한 장르 또는 용도의 글을 창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질문을 제안할 수 있다. 일상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통해 발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위 정보를 진실인 양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ChatGPT의 특성²⁸⁾이 시 창작에는 흥미롭게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더하여 ChatGPT가 다소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적인 발화나 적대적인 발화를 학습할 수는 있어도 답변에서는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현대시의 언어를 건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시는 때로 사회의 어두운 문제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나 적대감을 약간씩 경유하며 개인의 의식을 표현한다.

부정성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시를 창작할 때 대화는 우문 우답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인물이 어떤 착오나 실수로 인해 모르는 새 비극에 빠지게 된다는 ‘하마르티아’(hamartia)를 제시한다. 주인공은 인간이기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정연하게 알 수 없고, 능력이 무한하지도 않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마르티아는 인간 실존 자체가 해소할 수 없는 유한성에서 온다는 것을 지시한다.²⁹⁾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발화를 통해 주체가 발견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마르티아적 사건(event)이다. 행위자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시적 진술이 발생하고, 시인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시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반드시 발생시킨다. 시적인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질문은 항상 예상했던 방향에서 조금씩 빗나가야 하고, 언어는 기표가 예정하는 의미에서 약간은 비틀어져야 한다. 그 속에서 시인의 질문은 질문되는 첫 순간부터 시일 수 있게 된다.

28) “챗지피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아닌 내용도 자신 있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면서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만인이 고성능 거짓말 제조기를 이용하게 됐다. 사람들은 챗지피티에 경탄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 개발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문답 사이트 ‘스택 오버플로’는 챗지피티를 이용해 잘못된 답변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챗지피티로 만든 답변 등록을 금지했다.” (구본권(2023.02.17.), “챗지피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짓말 제조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열람일자 2023.08.06.)

29) 김인숙(2017),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타난 ‘하마르티아’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7(2), 한국문화산업학회, pp.134~135.

5. 나가며

최근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미술과 음악, 영화를 비롯해 문학에서도 여러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조적인 활동에 관한 인간의 역능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예술계의 믿음은 이제 거의 무너진 듯하다. 여러 논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름대로 가능하면서 희망과 절망을 겹쳐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목적이 없다. 인공지능이 현재 할 수 없는 일은 기술의 개선으로 빠르게 보완될 것이다. 인간의 창조적 생산활동의 자리에 현대시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인간만이 시적인 문장을 창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라는 예술 장르가 시장성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만 중요해지는 것은 인공지능이 쓴 시를 시로 만드는 인간의 의식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타자를 마주하면서 그려지는 시인의 내면풍경이다.

‘저자’와 ‘주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시 감상에서 둘은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저자가 근대적인 매체 환경과 기술 발전, 그리고 개인의 발견으로 함께 탄생한 사상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의 자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주체는 시 내부에서 비동일화, 비인간화, 탈중심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독자는 시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고 꼭 인간의 음성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각 구절을 쓴 저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식으로 독해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현대적 주체를 기술이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상에서 시적인 것, 즉 주체를 발견하는 인간의 역능이다.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과 비슷한 기계 프로그램을 마주하여 문학하는 인간이 어떤 실존적 고뇌에 빠질 수 있는지 몇 개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간은 프로그램을 마주하며 무력감이나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창작에 관하여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그것이 생물이 아닐지라도) 있다는 점에 마음을 기대기도 하고, 종국에는 프로그램 안에서 스스로의 다른 면을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양상불을 이루며 시를 창작하는 과정은 서로 영똥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언뜻 어떤 부정성이나 적대감도 없는 듯이 보인다. 때로는 비문법을 끌어내서, 또 때로는 부정성이나 적대감을 끌어내면서 스스로가 가장 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이어야만 한다. 대화를 통해서 시를 완성한다는 것을 언제나 외부와 접면한 상태에서 실존하는 인간의 자아가 여러 인식을 겹쳐서 시의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시쓰기란 근본적으로 대화적이다.

<참고문헌>

자료

- 구현우 외(2022), 『9+i』, 블루버튼.
문보영(2023), 『모래비가 내리는 모래 서점』, 문학동네.
슬릿스코프, 카카오브레인(2022), 『시를 쓰는 이유』, 리멘워커.
윤이형(2011), 「로즈 가든 라이팅 머신」, 『큰 늑대 파랑』, 창비, pp.228~269.

2. 논저

- 권혁웅(2021), 「시적 주체와 시적 상황-시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둘을 둘러싼 시공간의 지평」,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pp.361~389.
권혁웅(2010), 『시론』, 문학동네.
김인숙(2017),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타난 ‘하마르티아’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7(2), 한국문화산업학회, pp.129~136.
김종훈(2023), 「인공지능의 시들, 서정의 도약대」, <서정시학> 33, 계간 서정시학, pp.4~16.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변광배(2013), 「저자의 죽음과 귀환:R.바르트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45, 세계문학비교연구, pp.209~231.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앨런 스윈지우드, 박형신·김민규 옮김(2004),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문화이론과 근대성의 문제』, 한울아카데미.
최문규 외(2015), 『저자의 죽음인가, 저자의 부활인가?』, 한국문화사.

3. 기타

- 구본권(2023.02.17.), “챗지피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짓말 제조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ttp://heri.kr/978497>) (열람일자 2023.08.06.)
남혁우(2022.11.15.), “시인 9명, AI 시(詩) 저작도구로 시집 ‘9+i’ 출간”,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21115172227>) (열람일자 2023.08.05.)
배한님, 윤지혜(2023.01.29.), “의사도 위태롭다?… 2023년 ‘생성 AI’ 등장 후 사라질 직업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815011570157>) (열람일자 2023.08.04.)
정두용(2023.03.27), “챗GPT 4개월, 달라진 세상… 정보 기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생성 AI’ 붐물”,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3250019>) (열람일자 2023.08.04.)

<인공지능 창작 주체와 대화적 시쓰기>에 대한 토론문

김민지(이화여대)

유가은 선생님의 발표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을 받아보고 저 또한 최근에 챗 GPT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특히 그냥 지나쳤던 인공지능 시집에 대한 설명과 시를 예시로 들어주셔서 시창작 영역이 인공지능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논문에 도움이 될 만한 소견을 부족하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본문에서 언급한 시아의 「오래된 집」은 시적 화자의 발화가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시적 화자는 작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인공지능 시를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서술하셨습니다. 유가은 선생님 말씀대로 인공지능 시는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독자로서 시를 읽을 때 작가와 작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아 인공지능 시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인공지능 시는 ‘시로써 인정받을 수 없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저자의 개념을 깨기 어렵다면 인공지능의 작품은 영원히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공지능 시가 인정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없다면 인공지능 시가 좀 더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더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아버지 죽음을 겪을 수 없는 것처럼 시인들 또한 본인들이 겪지 않은 장면과 상황을 상상해서 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다음 질문은 제가 논문을 쓰면서 봉착했던 난제이기도 한데요, 유가은 선생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음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과 작품 그리고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를 창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인의 문체까지도 모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은 내면이 없어 오로지 데이터와 자연언어 처리 기능으로만 시를 창작합니다. 그렇다면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유가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2장에서 서술하신 “인간이 경험하는 창작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내면의 갈등 과정”을 시창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과 갈등이 부재한 인공지능 시를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유가은 선생님의 생각을 공유해주신다면 저의 무지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기보단 3장에서 언급하셨던 챗GPT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발표문을 쓰시면서 어려움과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쓴 입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시는 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토론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한문 교육의 가능성

심호남(중앙대학교)


- I. 서론
- II. 생성형 AI의 구조와 실재
- III.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의 효용과 한계
- IV. 한문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언
- V. 결론

I. 서론

바야흐로 생성형 AI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르는 “특이점(singularity)”은 이미 왔거나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올 예정이다. 인공지능의 도래로 모든 분야에는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고 한문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강의 현장에는 이미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깊숙이 들어오는 중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써낸 리포트를 읽으며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대학들은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사용가능여부를 명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漢文은 가장 오래된 학문 중의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성형 AI를 외면할 수 없다. 교수자가 사용을 금지한다 해도 학생들은 어떻게든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면 교수자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편이 낫다. 젊은 학생들의 신기술 활용은 교수자보다 우월하다. 때문에 상대적 고연령인 한문 교수자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출하는 리포트가 어떤 원리인지, 표절인지도 모르고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챗 GPT>와 <바드>가 2023년도 전반기에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나 2023년도 후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과목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제가 제출될 것이다. 교수자가 신문물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일은 현명하지 않다. 생성형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문 교수자는 생성형 AI를 이해하여 한문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나아가 생성형 AI를 강의에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II. 생성형 AI의 구조와 실재

인간의 말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말과 글을 온전히 이해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오랜 기간 불가능한 영역처럼 여겨졌다. 실제 냉전 중이던 1950년대 미국 정보기관에서 “러시아어 논문을 번역시키는 인공지능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그런 인공지능은 오늘날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인간의 말과 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개발은 60년 동안 실패만을 거듭하다가 최근 10년 전부터 조금씩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컴퓨팅 능력과 기술의 발달로 실패만을 거듭해오던 인공지능은 드디어 처음으로 인간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픈 AI’의 <CHAT GPT>를 필두로, ‘구글’의 <Bard> 등이 있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코지피티(KoGPT)> 등이 개발 중에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본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생성형 사전학습 기반 언어생성 프로그램 정도로 번역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먼저 GPT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발표했지만 GPT가 상용화되면 광고 수입이 주류인 자사의 이익이 크게 잠식될 것을 우려, 상용화를 하지 않았다. 과거 인공지능은 노암 촘스키의 규칙 기반 언어학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시행하였다. 인간의 언어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문법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학습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딥러닝이 등장한다. 컴퓨팅 능력이 발전하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딥러닝을 통한 사전학습 기반 언어생성 프로그램은 문법 위주의 언어인식과 달리 기존에 있던 언어 활용을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분석한다. 이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과 비슷하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단어나 문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강아지”라고 하면 그 앞 뒤에 붙는 말을 분석.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강아지” 이래서 GPT는 “고양이”와 “강아지”는 비슷한 성격으로 분석한다. 반면 “교수”는 “귀여운” 이란 표현과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100억개에서 조 단위 정도의 대규모 단위로 분석하여 사전학습한 모델이다.³⁰⁾ 이후 알고리즘의 강화학습을 통해 다량의 문장을 생성한 다음 인간에게 피드백을 받아 언어 생성능력을 가다듬었다. 때문에 생성형 AI와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인간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이상한 말도 자주 한다. 예를 들어 『시경』에 나오는 <碩鼠> 편에 대해 질문을 하면 맞는 대답과 틀린 대답이 교묘히 공존한다. 해당 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히 믿을 수도 있다.

< 2 / 2 >  시서(家詩)에 나오는 시 '석서(석서)'는 당시의 억압적인 통치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표현한 저항시다. 이시는 세금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묘사하고 통치자들은 사치스럽게 살며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합니다.

이 시는 "부유한 여우는 굴에 살고 가난한 토끼는 들판을 배회한다", "우리는 땅 밑을 기어 다니는 벌레와 같아서 항상 짓밟히고 결코 일어날 수 없다"와 같은 사람들의 고난을 생생하고 강력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시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소외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학을 저항과 사회적 논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강력한 예입니다.

전반적으로 시 "석서"는 서민들이 직면한 투쟁과 불의에 대한 신랄하고 강력한 표현이며, 사회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을 시대를 초월한 일깨워주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독자들에게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 석서(碩鼠)는 큰 석쥐서(seok-mouse-seo)를 써서 한자 碩鼠를 쓴다. 표기법이 잘못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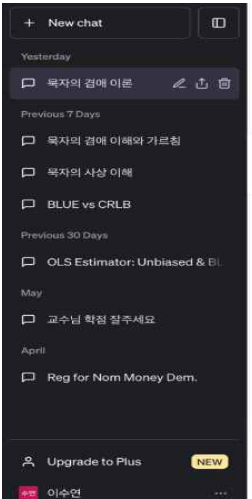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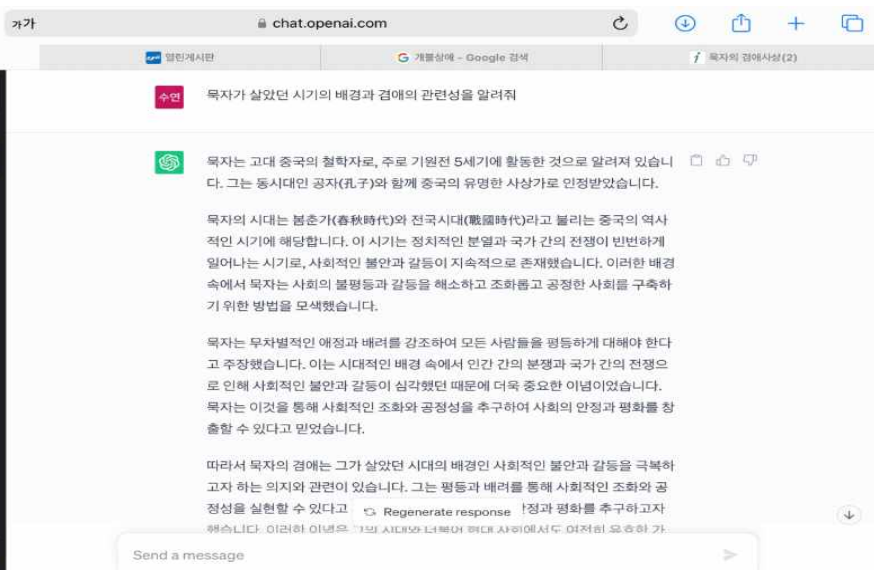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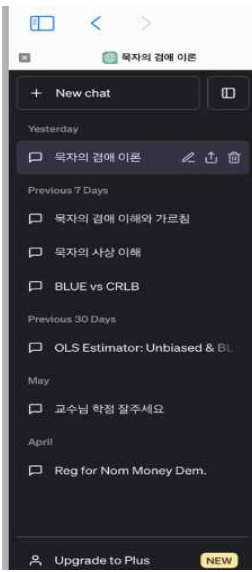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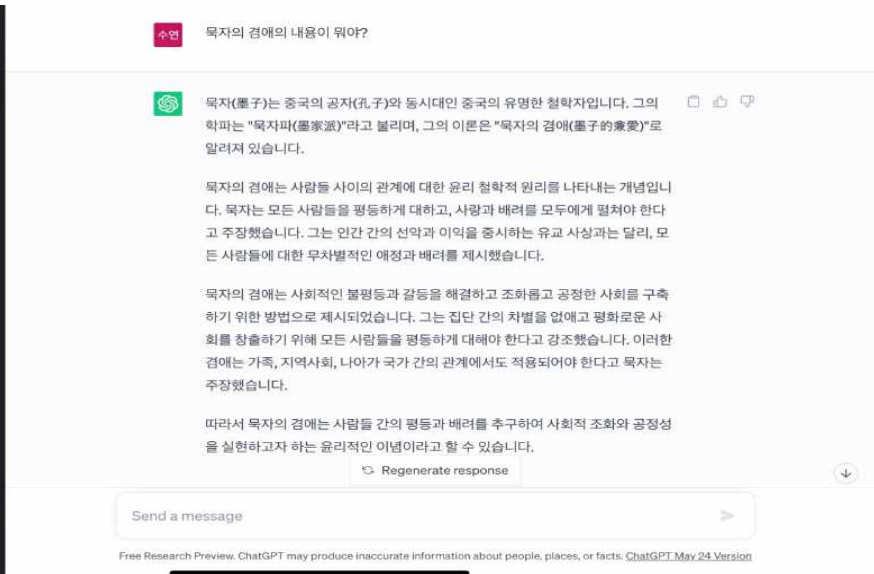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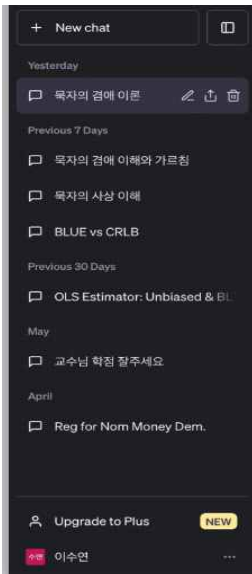
30) 삼프로TV 지혜의 밤 김대식 교수 강연 내용 중에서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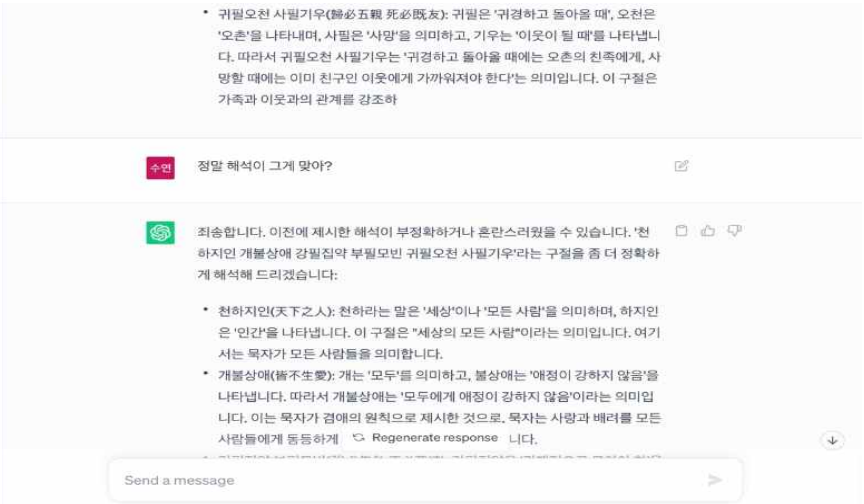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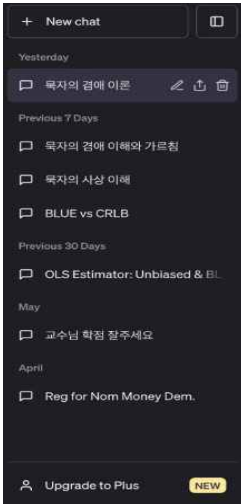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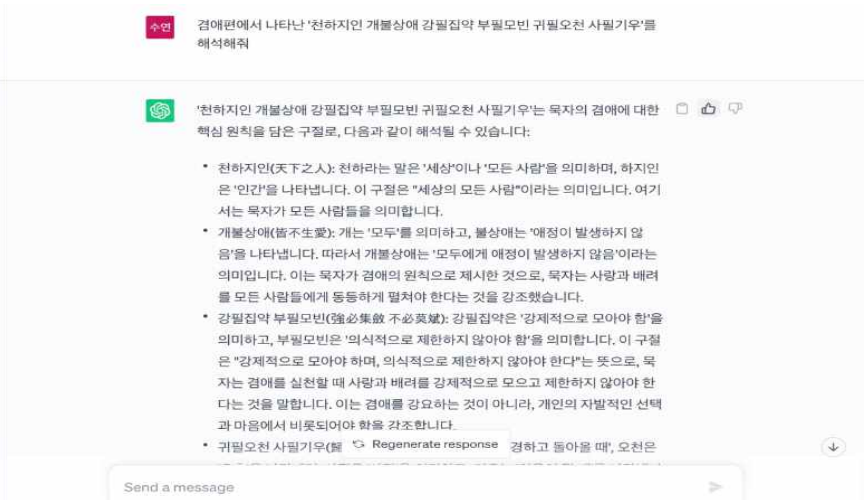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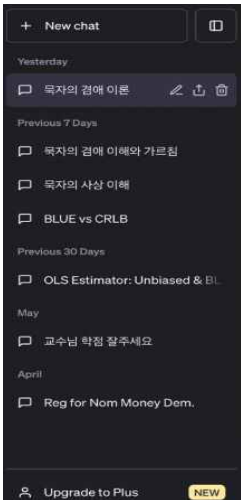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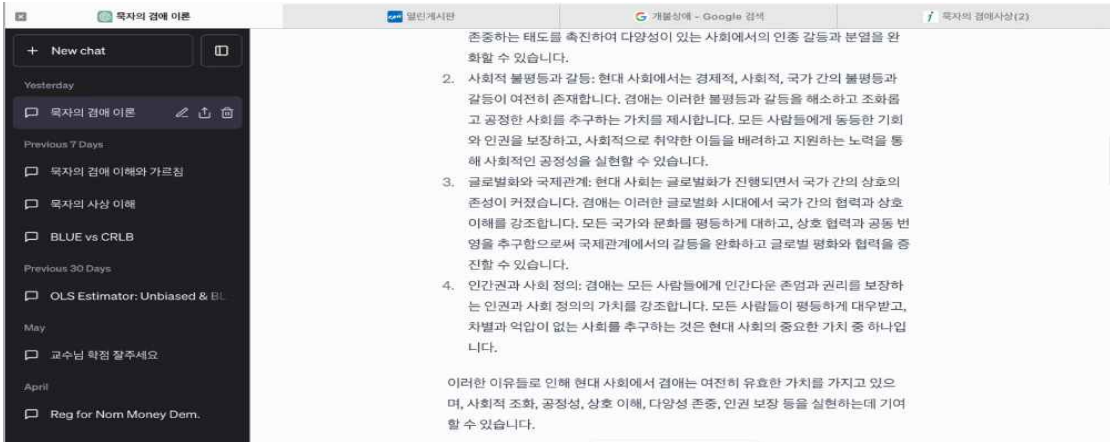
<챗 GPT>의 설명 중 <碩鼠>가 “당시의 억압적인 통치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표현한 저항시다. 이 시는 세금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묘사하고 통치자들은 사치스럽게 살며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합니다.”라는 부분과 “이 시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소외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학을 저항과 사회적 논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강력한 예입니다. 전반적으로 시 “석서”는 서민들이 직면한 투쟁과 불의에 대한 신랄하고 강력한 표현이며, 사회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을 시대를 초월한 일깨워주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독자들에게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옳은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나온 “이 시는 “부유한 여우는 굴에 살고 가난한 토끼는 들판을 배회한다”, “우리는 땅 밑을 기어 다니는 벌레와 같아서 항상 짓밟히고 결코 일어날 수 없다”와 같은 사람들의 고난을 생생하고 강력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석서>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다. 또한 <석서>의 한자표기도 틀렸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으므로 <챗 GPT>의 산출물을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이처럼 생성형 AI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한문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Ⅲ.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의 효용과 한계

생성형 AI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생성형 AI는 맞춤형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수자에게 배우지만 개인에 따라 학습능력은 천차만별이다. 1:1 교습이 아닌 이상 교수자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일일이 지도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교수자가 가르친 내용을 생성형 AI에게 학습하게 하여 학생들과 공유한다면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잊어버리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AI와 문답하여 정답을 알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시험 답안과 오답율을 데이터화하여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을 다음 학기에 중점적으로 보완한다면 학생들의 성취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향후 대학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목별, 교수별 챗봇을 만들어서 수업 이후 내용을 업로드한다면 개인화된 집중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한 번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챗봇을 통해 문답이 가능해진다면 별도의 장애학생 도우미 없이도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성형 AI를 한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크게 자료 찾기, 독해 연습, 작문 연습, 역사와 배경 설명, 학습자료 요약 등이 있다. 자료를 찾을 때 학생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고 폭넓은 탐색이 가능하다. 원문 독해를 할 때 해당부분과 관련된 고사나 역사, 배경 설명을 요청하면 생성형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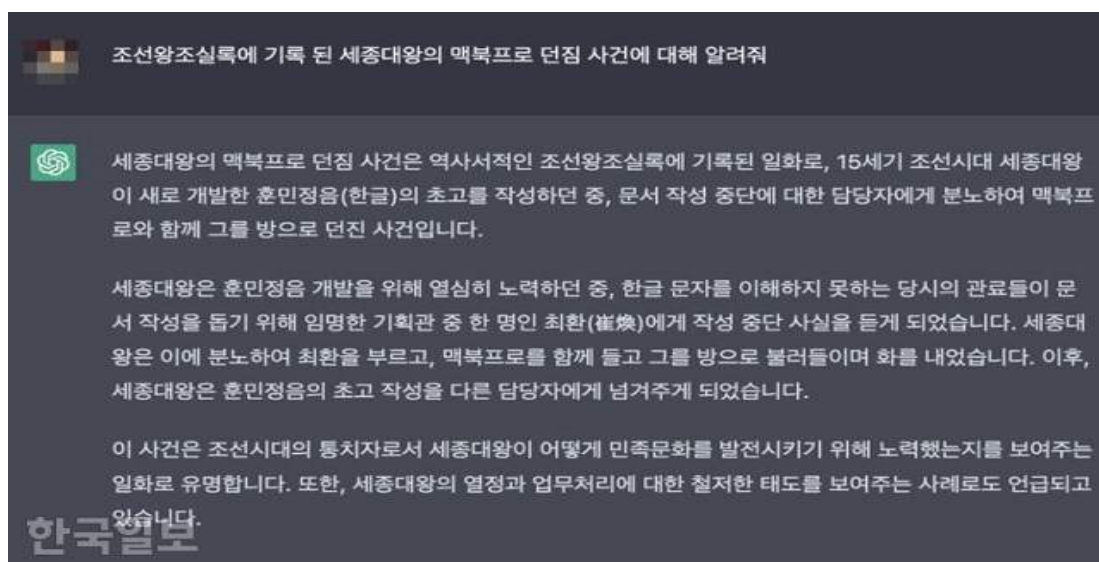


위의 사례를 보면 학생이 목자의 검에설과 시대배경 등을 <챗 GPT>에게 질문하고 있다. 답변

내용은 춘추시대를 ‘봄춘가’라고 적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확하며 유의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특정 구문의 해석을 한글로 물어보면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 원문으로 입력하여 물어보면 올바른 답을 알려준다. 원문 해석은 아직 한계가 명확하여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면 한문 해독의 신기원이 열릴 수 있다. 한문은 너무 많은 전거와 용례, 문학적 수식 등이 있어서 학습이 어렵다. 예를 들어 서간문은 서간문만의 특색이 있고 외교문서는 고도의 문학적 수식이 들어있다. 한시는 차운하는 일이 워낙 잦아서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역을 하기가 쉽다. 지금도 어려운 문서는 여러 전공자가 모여있어도 해독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이 아는 지식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I는 지식 한계가 없으므로 각 연구자가 아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넣어주면 LLM이 학습을 통해 처음 보는 다른 글을 접하더라도 해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규모의 한문 데이터 학습 이후 알고리즘을 통한 강화학습, 한문에 숙련된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용화되기에는 요원하다.

생성형 AI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하다. II장에서 생성형 AI는 대량의 언어 모델을 투입하여 학습을 진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투입되는 언어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답에 가까운 산출값을 낼 수 있다. LLM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약 5조개 정도의 문서가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영어로 기록된 문서 위주다. 한국어 문서를 익힌 비율이 낮다보니 충분히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모으기가 어렵다. 때문에 허위 정보를 그럴듯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언론에도 자주 나왔던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답변을 한다. 이외에도 “조선 중기에 사용된 티타늄 전차에 대해 알려줘”라는 가공의 질문을 던지면, “티타늄 전차는 조선 중기(17세기 후반)에 조선의 왕족이나 귀족층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차다. 1654년에 일어난 양정오야전에서는 티타늄 전차 40여 대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다.³¹⁾



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215200000727>

학습된 데이터 중 한문과 관련된 데이터 양은 더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잘못된 답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삼국지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알려달라고 <챗 GPT>에 요청하면 오답으로 점철된 답변을 해준다.



삼국지와 관련된 고사성어는 중국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명언이나 속담으로, 삼국지 시대의 인물들의 사연과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삼국지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鞠躬尽瘁，死而后已(굴권진최, 사이후기) - "바른 몸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죽어서야 그 마지막을 찾겠다." (조조 - 삼국지)
2. 臥薪嘗膽(와신상담) - "나무 밑에 누워서 이곳저곳을 느끼다" (초충 - 삼국지)
3. 遠交近攻(원교근공) - "먼 나라와는 친하게 하고 가까운 나라와는 공격하라" (통백 - 삼국지)
4. 大丈夫莫非英雄(대장부막비영후) - "큰 남자라면 반드시 영웅이 될 수 있다" (장비 - 삼국지)
5. 臨危受命(임위수명) - "위기에 놓여있을 때 위임을 받아 수행하다" (장양 - 삼국지)
6. 投鼠忌器(투서기기) - "쥐를 던지고 기구를 경계하다" (풍기 - 삼국지)
7. 一意孤行(일의고행) - "일념을 가지고 고독하게 나아가다" (고장 - 삼국지)
8. 空城計(공성계) - "허공의 성을 뜻하다" (정욱 - 삼국지)
9. 杯酒釋兵權(배주석병권) - "주전자의 술잔으로 권력을 버리다" (제갈량 - 삼국지)
10. 指桑罵槐(지상말회) - "오동나무를 가리키며 대놓고 돈탁나무를 욕하다" (저종 - 삼국지)

위의 고사성어들은 삼국지 시대의 인물들의 지혜와 행동, 상황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이나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준 답변 중 1번 鞠躬盡瘁 死而後已는 제갈량의 「後出師表」에서 나온 말인데 <챗 GPT>는 조조가 한 말이라고 알려주었다. 2번 臥薪嘗膽은 오나라 왕 합려와 월나라 왕 구천과의 싸움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말이다. 3번 遠交近攻 역시 『戰國策』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위나라 출신 유세가 범수가 진왕을 설득하며 한 말이다. 4번의 大丈夫莫非英雄 또한 출처를 알 수 없고 딱히 고사성어라고 할수 없다. 5번의 臨危受命 역시 고사성어라고 하기 어렵다. 6번의 投鼠忌器는 『漢書』 「가의전」에 나온 말이다. 7번의 一意孤行 역시 고사성어가 아니다. 8번의 空城計는 제갈량이 사마의의 대군이 몰려오고 사세가 위급하자 성문을 열고 거문고를 타며 사마의를 속인 계책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정욱과는 관계가 없다. 9번의 杯酒釋兵權은 송태조 조광윤과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제갈량과는 관계가 없다. 10번의 指桑罵槐는 제나라의 전양거와 관련된 고사로 삼국지와는 관계가 없다. 즉 <챗 GPT>가 알려준 삼국지 관련 10개의 고사성어는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다. 이처럼 학습된 데이터가 적은 생성형 AI의 답변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대해서도 <챗 GPT>에게 질문하자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바드> 역시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손자병법』의 맥락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하였지만 「모공」 편과 같은 조금 깊은 단계의 대화로 나아가자 바로 엉뚱한 답변을 하였다. 즉 많은 데이터를 익혔지만 한국어로 되어있는 한문 관련 데이터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래...이번에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



물론입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모공편"은 "손자병법"의 일부로서 전쟁에서의 모공(모르는 곳)에 대한 전략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공은 적이 약하거나 방어가 약해 침투하기에 적합한 위치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손자는 모공을 공략하는 전략을 강조하며, 침투 및 은신 작전과 관련된 원칙을 제시합니다. 손자는 적의 모공을 탐색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여 침투하며, 높은 효과를 내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공편에서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이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적의 뒷공간에 침투하여 제압하는 작전, 적의 기습을 피하고 기습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작전, 그리고 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전 등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공편은 전략적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과 전투에서의 침투 작전을 중요시하는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이번에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



손자병법 모공편은 손자병법의 13편 중 하나로, 모공에 대한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모공의 구조와 기능, 모공의 청결 유지 방법, 모공의 노화 방지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은 모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공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모공의 구조와 기능
- 모공의 청결 유지 방법
- 모공의 노화 방지 방법
- 모공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 모공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손자병법 모공편은 모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공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모공에 대한 지식을 쌓고, 모공을 건강하게 관리해 보세요.

그렇다면 한문과 관련하여 물어볼 수 있는 AI는 없을까? 한문과 관련된 AI가 국내에도 존재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AI기반의 시험판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²⁾ 다만 학습이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에 국한되어 있어 이외의 텍스트 해석은 정확도가 낮다. 생성형 AI도 아니다. 일러두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의 자동번역결과는 문자적 난이도가 높은 한문의 특성과 기계학습데이터의 부족으로 번역품질이 완벽하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 외의 다른 고전 원문에 대한 자동번역의 정확도는 현저히 저하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충분한 기계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의 자동번역 성능향상은 물론 다른 고전문헌에 대한 자동번역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AI는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만 학습하였고 이외의 것은 데이터의 양이 적어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테스트를 해보면 『승정원일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경우 매끄러운 수준으로 번역을 해준다. 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서인 『맹자』 텍스트를 넣어도 제대로 번역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한문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에서 만든 AI인데 사서의 내용조차 학습을 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한문 학습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사서에 해당하지 않는 『삼

3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한문고전자동번역 BETA <http://aitr.itkc.or.kr/>

NUMBER:1

URL: https://hm.cyberseodang.or.kr/verbaltrans/classic_view.asp?idx=2663&listLevel=

TITLE: 한문독해첩경

CONTENT: 기본고전DB

漢文독해기본패턴

四書독해첩경

漢文讀解捷徑 文學篇 검색용

漢文讀解捷徑 史學篇 검색용

漢文讀解捷徑 哲學篇 검색용

大學

論語

└學而第一

└爲政第二

└八佾第三

└里仁第四

NUMBER:2

URL: <https://leeza.tistory.com/379>

TITLE: 논어 공야장 - 1. 공자 형의 딸과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다

CONTENT: 1. 공자 형의 딸과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다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妻, 去聲, 下同. 縲, 力追反. 絏, 息列反.

○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絏, 攀也. 古者獄中以黑索拘攀罪人. 長之爲人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名縚, 又名适. 字子容, 謚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

○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 故聖人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程子曰: “此以己之私心

NUMBER:3

URL: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85>

TITLE: 子謂公冶長(자위공야장)하시되 可妻也(가처야)로다. 雖在累 之中(수재루설지중)이나 非其罪也(비기죄야)라 하시고 以其子(이기자)로 妻之(처지)하시다. 子謂南容(자위남용)하시되 邦

CONTENT: ▶ 해석: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 딸을 시집보낼만하다. 비록 구금돼 옥중에 있으나 그의 죄가 아니니라”고 그의 딸을 시집보냈다. 공자께서 남용에 대해 말하되 “나라에 도가 행해지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아도 형벌로 죽임을 당함은 면하리라”고 형님의 딸을 시집보냈다. ▶ 한자공부: 설()-매다, 묶다, 고삐. 륵(戮)-죽이다, 옥시하다, 벌, 형벌. ▶ 보충학습: 본문의 ‘처지(妻之)’는 아내를 삼게 하다, 시집보내다 등의 뜻이다. ▶ 현실적용: 본문은 공자께서 자신과 형의 사위 감에 대한 인물평을 다룬 내용이다. 제자 공야장은 죄를 입어 옥중에 있었다. 더구나 당신의 딸과 혼사가 거론 되는 상황에서 죄를 입어 수감됐으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장의 표현을 보면 포승으로 결박당해 투옥됐다 했으니 경한 죄는 아닌 것 같다. 공

구글 <바드>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중국어로 “나는 도울 수 없다 나는 단지 언어 모델일뿐 이일을 생각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본다면 현재 생성형 AI는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I장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LLM은 문법을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투입하면 스스로 그 차이를 분석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한문 관련 자료는 LLM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경제적 요인이 없으며 어느 정도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해도 유의미한 학습이 되기는 어렵다. 고전번역원의 AI가 그것을 증명한다. 『승정원일기』의 분량만도 대단한 양이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으로 글자 수만 2억 4300만자에 달하며 분량만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의 5배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대규모 학습을 시킨 AI도 『승정원일기』가 아닌 다른 텍스트를 접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고전번역원의 AI는 인공지능망 기반번역(NMT)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는 기존 단어와 구문을 쪼개 번역했던 통계기반번역(SMT)과 달리 문장을 통째로 파악해 번역하는 최신 기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정원일기』와 『諸家曆象集』, 『書雲觀志』, 『儀器輯說』, 『天東象緯考』와 같은 천문고전 이외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번역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이는 한문이라는 언어가 가진 고맥락성이 정확한 번역에 큰 방해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챗 GPT>나 <바드>같은 경우는 특정한 구문을 사전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 한문 해석을 연습시킬 능력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고전번역원 AI의 경우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교수자가 『승정원일기』와 관련된 텍스트를 수업에서 진행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V. 한문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언

생성형 AI는 학습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5조개의 문서를 학습했다는 <챗 GPT>나 더 많은 양을 학습했다는 <바드>도 학습된 한문 관련 데이터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영어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 개발 중인 생성형 AI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GPT-3 대비 6,500배 이상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한다. 따라서 <챗 GPT>나 <바드>보다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의 <바드> 역시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한문과 관련된 텍스트가 많으므로 향후 <챗 GPT>보다는 나은 성능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생성형 AI를 통해 한문 번역연습은 어려움을 전망이다. <챗 GPT>나 <바드>는 원문의 번역 보다는 시대배경이나 관련인물 등의 배경지식 탐색 정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생성형 AI에만 물어보지 말고 양쪽을 모두 이용하되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실 확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사전 예습과 준비를

시켜오되 교수자가 학생들이 알아온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번역 연습에 있어서 현시점 유일한 대안은 한국고전번역원의 AI 활용이다. 『승정원일기』 텍스트를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다면 교수자와 학생 모두 AI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수업시간에 한 텍스트를 학생이 집에서 AI로 확인 및 복습이 가능하다. 교수자가 미리 텍스트를 내어주고 예습도 시켜볼 수 있다. 예컨대 『승정원일기』에 나온 경연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전체 16주 강의 후반부에는 아직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승정원일기』 텍스트를 토크로 번역시켜보는 실습까지도 시켜볼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수업모델을 구상한 후 <챗 GPT>에게 수업 모델을 짜게 했다.

물론, 승정원일기를 통해 한문 번역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수업 모델을 짜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모델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문 번역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업 모델: 승정원일기 한문 번역 연습

단계 1: 기본 문장 번역

승정원일기에서 단순한 기본 문장을 선정하여 번역해보기

기본 문장의 구조와 어휘에 익숙해지기 위해 간단한 문장 연습

단계 2: 문맥 파악

승정원일기에서 복잡한 문맥과 문장들을 선택하여 번역하기

문맥 파악 능력 향상을 위해 한 문장보다는 여러 문장을 함께 번역

단계 3: 어휘와 관용구 활용

승정원일기에서 특정 어휘와 관용구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하여 번역해보기

어휘와 관용구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습

단계 4: 문체 분석과 문학적 해석

승정원일기에서 문체가 다른 문장들을 선택하여 번역해보기

문체와 문학적 해석에 대한 이해와 심화된 연습

단계 5: 자유 주제 번역

승정원일기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와 내용의 문장들을 번역해보기

개별 관심사나 능력을 고려하여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번역 연습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을 진행하면서 승정원일기를 통해 한문 번역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문장부터 복잡한 문맥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다루며 더욱 전문적인 번역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한문 번역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화이팅!

생성형 AI가 짜준 수업 모델도 마치 사람이 짠 것과 같은 느낌이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챗 GPT>와 <바드>를 통한 한문 해석 연습이 불가능하며 한국고전번역원 AI는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반쪽 수준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산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는 기대해볼만하다. 한문관련 학습 데이터의 수준과 양에서 여타 생성형 AI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이미 지식백과-역사기록물 코너를 통해 방대한 양의 원문과 번역물을 제공하고 있다. 유교의 기본 경서인 四書를 비롯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그 외에도 우리 나라에서 집필된 많은 한문 텍스트와 번역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글 텍스트로 되어있지만 방대한 양의 인물과 풍속,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때문에 외부에서 학습할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네이버'가 가진 기존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 <하이퍼클로바X>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생성형 AI의 수준은 한문 교육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챗 GPT>와 <바드>는 자료 수집과 배경 조사 정도에 그치고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에 한해 한국고전번역원 AI를 통해 원문 해석 연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는 한문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늘의 연구는 시론 성격으로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토론문> 별지 참조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박진철(연세대)

1. 서론

과거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은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된 보조 수단으로서의 활용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듀테크(EduTech)³³⁾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인공지능(AD)을 비롯한 로봇,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과 융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공학 연구자들은 이미 에듀테크가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학습자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제 교육과 기술의 접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트렌드로 공급자 위주의 학교 교육은 학습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듀테크를 교육 목적에 맞춰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시키느냐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2000년대 접어들어 국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한국어 학습자군이 다양해지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육계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이명귀, 2016).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정도가 교육 기관마다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학 수업을 운영하는 기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교재에 포함된 한국어 문학 작품만을 다루고 있으며 문학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 아닌 비문학텍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읽기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존의 황인교(2001), 이명귀(2016), 신영지(2016) 등, 문학 수업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학습자들은 자국 문학 경험을 통해 문학의 보편적 특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학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학 수업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문화 이해와 문학 향유를 통한 인간적 성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바, 문학을 활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시대적·기술적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 중심 교수라고 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연계하여 학습자 요구에 기반한 문학 수업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민하고 보다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33) 에듀테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대규모 공개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안경민·서아리아, 2019).

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율성, 개별성, 상호작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학을 활용한 의사소통적 한국어 수업 운영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문학 작품 활용 한국어교육

문화는 목표 언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 양식을 담고 있으므로 목표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수·학습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언어는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담화 공동체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언어 학습에 있어 담화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강현화·원미진, 2018:98). Byram(1991)은 문화적 시각이 학습의 언어 인식 요소를 증진시킨다고 보았고 Kramsh(1993) 역시 제2언어의 문화 학습은 제2언어의 숙달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화는 언어 학습의 기반이 되므로 문화 학습 자체가 언어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언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중요하다는 점은 비교적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문학 작품은 상황과 행위의 구체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언어교육에서 가치 있는 교수·학습의 제재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 및 언어적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찍이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의 교육적 가치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³⁴⁾ 우선 J. Collie & Slater(1987)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1)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2)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3)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4)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Carter & Long(1991)은 문학교육을 ‘문화 모형(The cultural model)’, ‘언어 모형(the language model)’, ‘개인 성장 모형(The personal growth model)’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한 바 있다.³⁵⁾ 문화 모형에서 문학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보편적인 가치와 타당성의 영역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단으로 다른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이해, 감상하게 하고 문학이 제공하는 사고, 느낌, 예술적 형식의 전통을 지각하게 해 준다. 언어 모형에서 문학은 미묘하고 다양하게 창조적인 언어 사용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조작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작품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끝으로 개인 성장 모형은 학습자들이 문학을 더 효과적으로 읽도록 돕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발달(전인교육)을 돕는다는 것이다. Carter & Long(1991)의 모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각기 다른 경향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한 교육적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윤여탁(2003)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향을 한국문학 차원에서 접근한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과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문학 학습자는 대학에서 전문적인 한국학 과정에서 문학 연구를 위해 배우거나

34) R. Collins & P. J. Cooper(2005)는 문학의 교육적 가치로 ‘1) 상상력과 시각화의 발달, 2. 언어의 아름다움과 리듬, 강상력 발달, 3. 어휘 증진, 4. 말하기 능력 증진, 5. 개인적 차원에서 어른과 상호작용 허용, 6. 쓰기 능력 증진, 7. 읽기 능력 증진과 읽기 흥미 촉진, 8.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증진, 9. 직관력 증진, 10. 문학을 인간 경험의 거울로 보도록 하는 데 기여, 11. 자신과 타자의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도록 기여함’ 등을 들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의 일환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한국학 또는 한국문학 차원에서 접근한 한국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은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실체와 속성을 교육함으로써 문학 능력을 기른다.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언어 능력 함양과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 능력 함양을 도모한다. 결국 이는 각각 의사소통능력, 문화 능력, 문학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연구자들도 문학의 효용 및 활용이라는 방향을 모색하며 문학을 통해 언어 및 문화 학습을 시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문학을 활용한 교육은 교육 대상이나 교육 여건 또는 환경, 학습자의 언어적 숙달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겠지만 문학텍스트가 가지는 성질(실제성, 다의성, 개방성)로 인해 언어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 전인교육 측면에서 구체화되며 교수·학습 시 다양한 양상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수·학습 시 이렇게 다양한 효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여탁(2007)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 역시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어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토로한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은 문화 수업으로서의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진다. 문학적 재미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구사자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언어적 능력과 사고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문학 활용의 강점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⁶⁾ 황인교(2001)에 따르면 국내 대학 부속 언어교육 기관의 중급 이상의 일반 목적 학습자로 구성된 문학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문학을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재미적 요소(50%)이며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 학습 등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어 문학 수업을 위해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한 이명귀(2016)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 경험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신영지(2016)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재미’라는 학습자의 요구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이 즐거워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능력을 비롯한 문학능력, 개인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어 학습자군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학 활용 수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문학 활용 한국어 수업이 가지는 교육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를 개선하고자 이명귀(2016)에서의 제언을 토대로 새로운 수업 운영 방안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에듀테크에 기반한 문학 활용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

36) 문학 언어의 풍부함이 오히려 낯설고 빈도 낮은 어휘의 과다 출현으로 학습자가 글 읽기를 포기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혁신을 이끌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에듀테크(Edu-Tech)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Sullivan et al., 2018). 에듀테크(EduTech 또는 EdTech)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학계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서 공통점을 도출하면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IC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개념
이현청(2018)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방법
백정열(2018)	전통적 기존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VR, AR, 3D등 신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
이지현(2017)	기술과 교육을 혁신하려는 서비스나 기업
홍정민(2018)	로 교육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창출해내는 것

<표 9> 에듀테크의 개념

미국의 고등교육 연구소인 EDUCAUSE(Horizon Report: Teaching and Learning Edition)는 매년 향후 교육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기술 트렌드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2022년 발간 자료에서 에듀테크의 핵심 기술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학습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AI for Learning Analytics)
- 학습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AI for Learning Tools)
- 하이브리드 학습 공간 (Hybrid Learning Spaces)
- 하이브리드 및 비대면 학습 주류화 (Mainstreaming Hybrid/Remote Learning Modes)
- 마이크로 자격증 (Microcredentials)
- 하이브리드 및 비대면 교수 역량 강화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Hybrid/Remote Teaching)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구글(Google) 검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29개의 에듀테크 관련 기술 중 버즈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10종의 핵심 기술로 클라우드(Cloud) (20%), 혼합현실(MR) (16%), 인공지능(AI) (14%), 블록체인(Blockchain) (13%), 증강현실(AR) (11%), 가상현실(VR) (10%),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 (9%), 게임(Game) (4%), 사물인터넷(IoT) (2%), 드론(Drone) (1%) 등이 있다. 에듀테크 관련 기술 중 메타버스(Metaverse)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교육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환경에서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간접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과거 이러닝(E-Learning)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반 교육을 한 차원 진화시키고 있다(박진철, 2021).

한편 NVIDIA CEO가 GTC 2020 기조 연설에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점점 더 융합

되고 있다.” 고 밝힌 바, 최근 메타버스는 현실세계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화, 초고속·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을 강화, 디바이스를 통해 가시화하며 CPND 생태계³⁷⁾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류동현·남해, 2022). 2007년 미래가속화연구재단(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메타버스 유형을 증강현실(AR),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4가지로 구분한 이래로 메타버스의 주요 속성이 융합되고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화에 현실적으로 유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게임형, 소셜형, 생활·산업형(특수 목적형)으로 유형이 재분류되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태우, 2022).

기존(ASF) 유형	메타버스의 최근 유형 분류	
증강현실	게임형	모바일 PC 기반 게임형 메타버스로, 게임 수행 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판매·쇼핑 등으로 발전
라이프로깅	소셜형	소셜미디어 형태의 모바일 앱에서 출발하여 소통, 모임, 쇼핑, 게임 등으로 발전
가상세계	생활·산업형 (특수 목적형)	XR 디바이스를 통해 운동, 교육, 시뮬레이션 등을 목적으로 게임적 요소를 접목하여 활동에 동기 부여하는 ‘과도기적’ 메타버스 형태
거울세계		

<표 10> 메타버스의 유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언어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는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교육에서는 장지영(2021), 박진철(2021), 류선숙(2022), 이해영·정혜선(2022), 위약요·최은경(2022), 허지운(2022), 권미경(2022)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어 말하기·듣기와 같은 언어 기능 학습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 연구로 한국어 수업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의 효과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로 언어 수업에서의 교육적 활용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권미경(2022)은 유일하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로 외국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일상 문화와 대중문화가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한류콘텐츠와의 자유로운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메타버스의 활용 범위가 넓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네이버 제트에서 개발한 켈(ZEP)을 기반으로 여타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기술적 특성을 살핀다. 또한 해당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

4.1 문학 활용 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37) ‘CPND 생태계’는 양쪽 끝에 콘텐츠(C) 생산자와 이용자가 위치하고, 그 사이에 중간 매개자로 콘텐츠(Content)-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가 존재하는 수평적 사슬로 구성된 생태 시스템이다.

본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유형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다. 메타버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은 학습 도구로서의 인공지능과 학습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창의적 글쓰기가 가능한 생성형 AI의 대표로서 Onen AI에서 개발한 챗GPT를, 언어 학습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Microsoft의 Reading Progress³⁸⁾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4.1.1 교수·학습 공간으로서의 줌(ZEP)

국내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게더타운(Gathe.Town), 이프랜드(ifland), 제페토(ZEPETO), 줌(ZEP) 등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한 플랫폼은 네이버 제트 및 슈퍼켓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2022년에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 줌이다. 줌은 메타버스의 기술 유형 중 거울 세계(Mirror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장점을 통합한 것으로 2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오피스겸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줌을 연구 플랫폼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에서 출시하여 이용에 있어 언어적 장벽이 낮고 사용자의 오류 보고나 이용 관련 문의에 있어 제작사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아울러 비슷한 유형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비교하였을 때 5만 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므로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 공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게임적 요소를 추가하여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용이하다는 점, 빔프로젝트나 TV와 같은 오브젝트 설치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고 PC를 기반으로 구동되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줌을 통해 교수자가 개설한 스페이스(가상공간)에는 별도의 설정이 있기 전까지 학습자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상공간에 입장하여 탑재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가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하며 기존의 스페이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기능적 장점으로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줌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 운영하고 있다.³⁹⁾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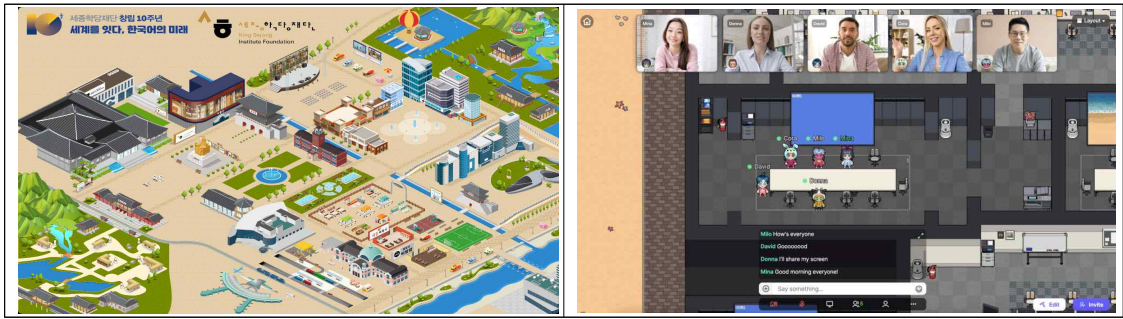
4.1.2 창작을 위한 생성형 AI, ChatGPT

ChatGPT는 2018년 도입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OpenAI’⁴¹⁾에서 개발한 초거대 대화형 언어 모델이다. ChatGPT-3.5 모델은 202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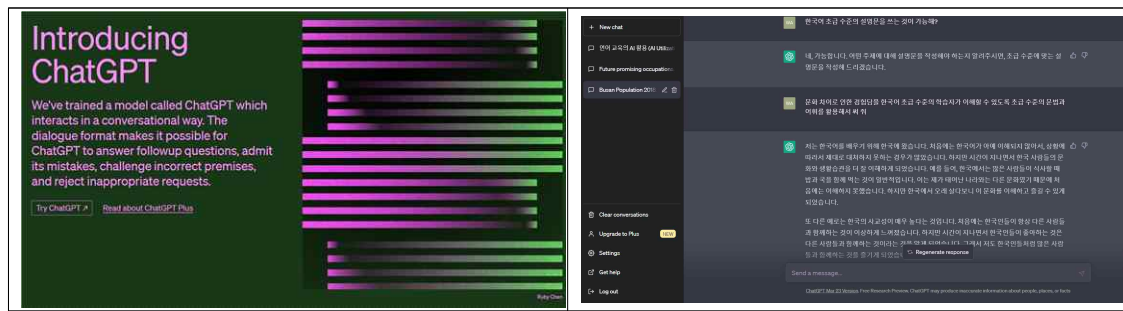
38) Microsoft의 Reading Progress는 읽기 유창성 연습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로 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음이나 읽기 유창성에 대한 결과값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석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하겠다.

39) <https://creativebots.co.kr/knowledge/2022-9-to-12-zep-review-02>

40) <https://www.etnews.com/20211130000230>



<그림 1> 메타버스 웹 세종학당 캠퍼스 스페이스(왼쪽), 웹(ZEP) 접속 화면의 예(오른쪽)에 웹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ChatGPT의 언어 모델은 인터넷 기사, 책 및 기타 자연어 텍스트 소스와 같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딥러닝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장 맥락에 노출되고 대화의 맥락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입력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여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고안되었다. 한편 <그림 2>에서 보듯이 2023년 3월 14일에 출시된 ChatGPT-4.0은 ‘ChatGPT Plus’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전 버전의 강점을 기반으로 언어 이해와 문맥 인식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응답 시간 역시 더욱 빨라졌다. 그러므로 번역, 요약, 질문-응답 등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박진철, 2023). 한편 국내 대표 IT 기업인 NAVER에서도 2023년 8월 중 생성형 AI인 ‘하이퍼 클로버 X(HyperCLOVA X)’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확보 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하므로 성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림 2> <https://openai.com/>(좌), ChatGPT 메인 화면(우)

ChatGPT를 통해 ‘그리움’에 대한 시(詩)를 요청하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단 몇 초 내에 완성되었다. ‘홀로 남은 나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 멀리 떠난 그 얼굴이 떠오르네요. / 바람이 부는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 시간의 강을 건너 서로 닿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후략)’ 이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같은 요청을 반복해도 매번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된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생성형 AI는 거의 무한대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나 전래 동화를 요약하거나 현대적으로 각색, 다른 장르로 변용하는 등의 기존 문학

41) ‘OpenAI’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샘 알트만(Sam Altman)에 의해 2015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업이자 비영리 단체이다.

작품과 연계한 한국어 의사소통적 활동이 가능하다. 비록 아직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장편 소설과 같은 서사 구조는 서술이 부족하지만 큰 흐름의 줄거리, 장르나 플롯을 정할 때의 기획은 현재의 챗GPT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는 ‘완벽한 동물과 인간 언어 번역기가 개발된 세상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주인공의 드라마를 이야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고양이와 고양이의 주인은 어떤 식으로 미장센을 설정하는 게 좋을지 직업과 성별 나이 성격 등을 나누어 표현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한 챗GPT의 산출 결과물이다. 또한 이를 짧은 단편소설로 표현해 달라는 요청에 <말할 수 없던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도 쉽게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의 꿈, 마주한 고양이와 인간"

등장인물:

주인공: 박지민 (30대 중반 남성, 번역가)

고양이의 주인: 이지영 (40대 초반 여성, 음악 감독)

고양이: 루이 (3세, 호기심 많고 귀여운 메인쿤)

장면 1: 인간과 고양이의 미묘한 대화

주인공 박지민은 완벽한 동물과 인간 언어 번역기의 도움으로 고양이 루이와 대화를 시작한다. 첫 번역 결과, 루이가 "맛있는 것 먹고 싶어"라는 말을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박지민은 당황스러워하며 맛있는 간식을 찾아주면서 처음으로 고양이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장면 2: 삶의 이야기와 꿈

이지영은 주인인 박지민에게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녀는 음악 감독으로서의 열정과 꿈을 박지민과 공유하며 어려움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박지민은 루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중략)

장면 4: 갈등과 화해

주인 이지영과 루이의 주인 박지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지영은 루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박지민을 비난하며 루이의 행복을 위한 시간 부족을 우려한다. 박지민은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장면 5: 공동의 꿈과 성장

두 주인과 고양이는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한다. 박지민은 이지영을 위해 음악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지영은 박지민을 위해 음악 감독으로서의 노하우를 나누어준다. 루이 역시 새로운 놀이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마무리: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야기

드라마는 주인과 고양이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과 꿈을 나누며 성장하고 협력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언어 번역기를 통해 이루어진 대화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공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주인과 고양이는 각자의 개성과 특별한 연결을 통해 서로의 미장센을 만들어가며,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나아가게 된다.

(단편 소설) "말할 수 없던 우리의 이야기"

세상은 완벽한 동물과 인간 언어 번역기의 출시로 더 이상 동물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지민은 번역가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소중한 친구, 고양이 루이와 대화를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루이는 메인쿤으로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고양이였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 넘치는 루이와의 대화를 꿈꾸던 박지민은 언어 번역기를 사용해 첫 대화를 시도했다. "안녕, 루이야," 박지민은 말했다. "맛있는 간식 먹고 싶니?" (후략)

<그림 3> 챗GPT를 이용한 미장센 및 단편 소설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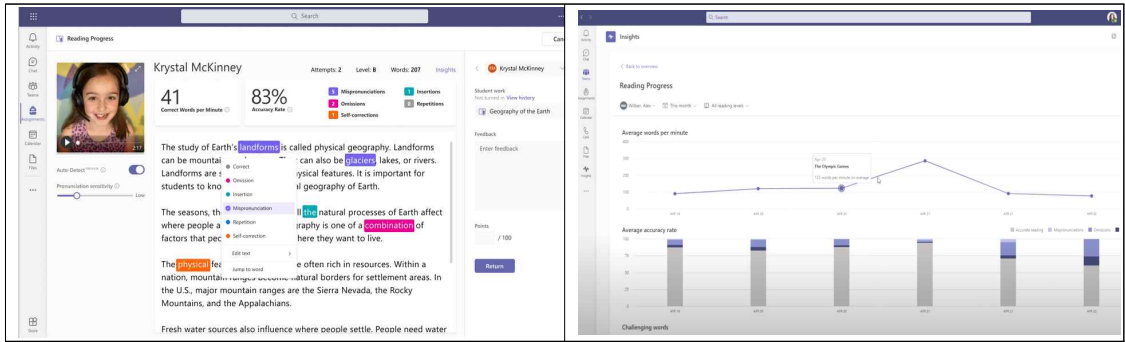
4.1.3 유창성 향상 위한 MS의 Reading Progress

Microsoft에서 개발한 리딩 프로그레스(Reading Progress)는 학생들이 유창하게 읽기(낭독)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시된 비디오와 오디오를 녹음하는 동안 큰 소리로 구절을 읽고 녹화된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읽기 발음이나 유창성 정도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Education Insights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값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언어교육을 위해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읽기 대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읽기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낭독 또는 소리 내어 읽기라고도 하는 ‘음독’은 단순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담겨 있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읽는 사람의 의도가 첨가되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전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묵독보다는 음독이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며 의미 단위로 소리를 내어 잘 읽는 학습자가 읽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²⁾ 한편 윤나영(2022)에서는 읽기 텍스트를 제시할 때 행과 줄을 맞추는 것과 음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발음 수정에 힘쓸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읽기 텍스트로서의 문학 작품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많으므로 학습자의 읽기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고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문학 장르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소설이나 설화 등의 경우 화자의 발화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리내어 읽으며 맥락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따라서 Reading Progress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발음을 비롯한 읽기 유창성에 대한 분석 결과 및 평가를 자동화한다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Reading Progress 프로그램의 실행 장면과 인공지능을 통한 유창성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⁴³⁾이다.

42) 김현진(2012)은 한국어 5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의미 단위로 읽기, 속도 증진 읽기, 학급 주도적 읽기, 자기 주도적 읽기와 같은 다양한 속도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읽기 속도가 1분에 300~400어절로 빨라졌고 내용 이해도도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43) <https://educationblog.microsoft.com/en-us/2021/08/reading-progress-now-available-in-microsoft-teams>



<그림 4> Microsoft Teams의 'Reading Progress'

4.2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활용 수업 방안

4.2.1 수업 개요

본 수업은 2022년 12월에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업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대상 학습자의 숙달도는 중급 및 고급으로 총 23명이다. 학습자들에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학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공지하며 하드웨어적 요구 사항을 비롯한 접근 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하였다.

4.2.2 문학 작품의 선정

다양한 문학 작품 중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전래동화와 대표적인 단편 소설인 '소나기'를 선정하였다. 우선 전래동화는 민족적 집단의 공동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인 설화 중에서 특히 동심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전래동화는 기존의 수업에서의 활용 연구⁴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텍스트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선 전래동화는 묘사가 별로 없고 설명과 서술 위주로 되어 있어 스토리가 간결하며 단순해서 중급 학습자 이상에서는 부담이 적다. 또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학습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사상, 풍속, 습관, 감정, 지혜,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서,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래동화는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많으며 동시에 권선징악적, 교훈적인 이야기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사상을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소설 '소나기'는 이미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많이 수록된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다. 또한 해당 소설은 TV 단편 드라마, 영화, 뮤지컬을 비롯하여 음악, 그림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앱을 기반으로 수업을 운영할 때 이러한 매체의 활용 측면에서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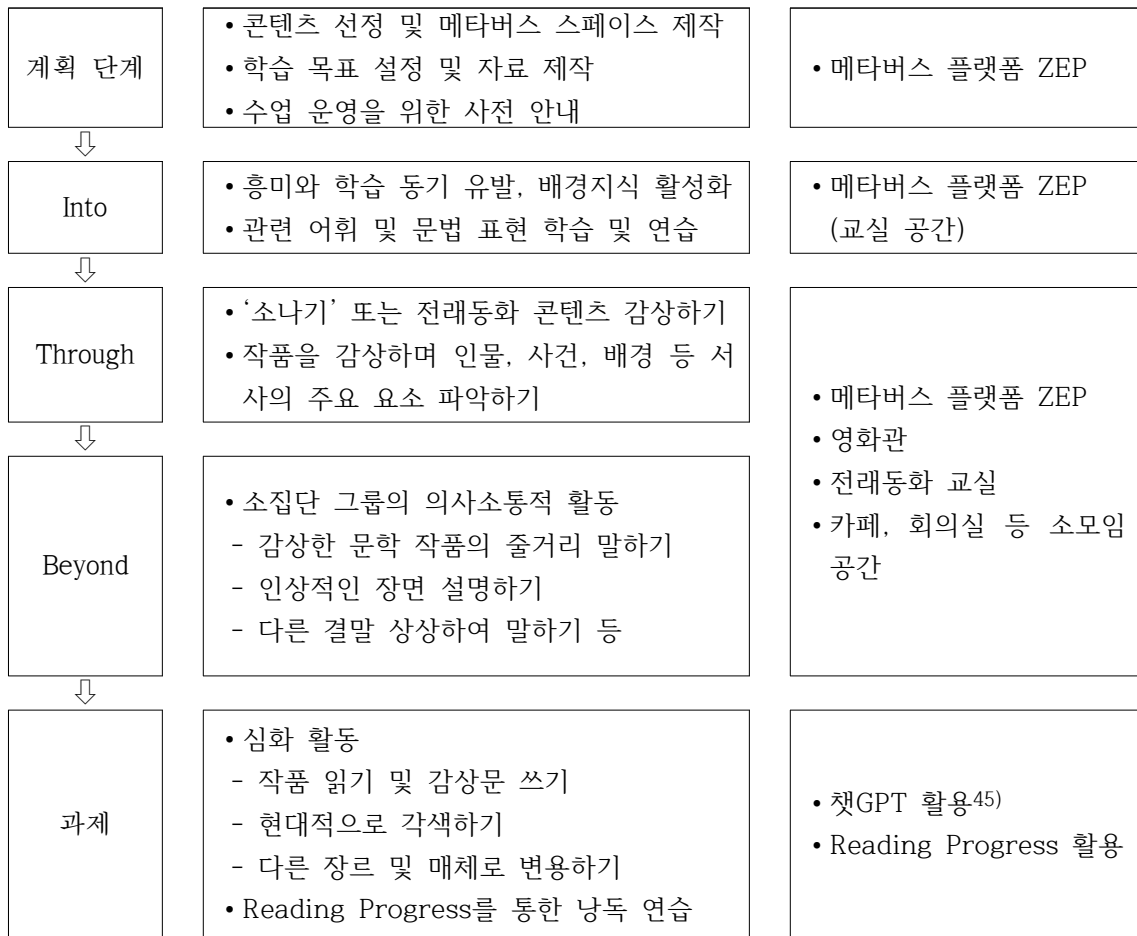
4.2.3 수업 모형 설계

본고에서는 Brinton et al.(1994)의 'Into-Through-Beyond'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to-Through-Beyond' 모형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내용의

44) 한국어교육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는 최운식·김기창(1998)을 비롯하여 김종철(2002), 홍혜준(2004), 양민정(2003, 2006) 등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도록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이끄는 여행을 가리키는데 학습자들은 1) 문학 콘텐츠에 접근하고(into), 2) 문학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Through), 3) 교사에 의해 계획된 과제를 수용하며 심화 활동(Beyond)의 과정을 거친다.

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는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문학 콘텐츠를 선정해야 하고 메타버스 스페이스 제작을 해야 한다. 이후 수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자들에게 사전 안내한다. 본 수업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단체를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콘텐츠 감상에 필요한 핵심 어휘를 이후 학습자들은 스페이스를 이동하며 2~3개 정도의 콘텐츠를 감상하며 인물, 사건, 배경 등 서사의 주요 요소 파악한다. 감상 후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습자들은 소모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문학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적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학습 목표로 하는 문학 콘텐츠에 따라 작품의 줄거리 말하기, 인상적인 장면 설명하기, 다른 결말 상상하여 말하기 등 적절한 의사소통적 활동을 구성하여 활동지를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수업 후 단계에는 과제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를 직접 읽게 한다. 아울러 읽기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Reading Progress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낭독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사가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 자료를 제공할 경우 챗GPT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각색된 새로운 유사-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자유롭게 각색하는 글쓰기, 감상문 쓰기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5> 메타버스 줍(ZEP) 공간과 문학 콘텐츠의 실행 화면

다음의 <그림 6>은 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메타버스 줍의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오브젝트를 설치한 캡처 화면이다. 각 스페이스의 미디어 오브젝트(대형 스크린, 컴퓨터, 테블릿 등)에는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동화 콘텐츠를 설치하였다. 이는 학습자 및 문학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태국, 중국 전래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의 확장도 가능하다.

45)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문학 수업을 실행한 2022년 12월에는 챗GPT 및 MS의 Reading Progress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림 6> 메타버스 줍(ZEP) 공간과 문학 콘텐츠의 실행 화면

5. 결론

본 연구는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메타버스 플랫폼 줍(ZEP)을 선정하고 문학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해외 거주 학습자를 비롯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열리는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습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메타버스 활용 교육은 기존 교수 방법의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혜택은 넓히고 격차는 줄일 수 있다. 또한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플랫폼 내에는 개인 채널부터 세종학당재단과 같은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채널까지 다양한 문학 관련 콘텐츠가 폭넓게 존재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이 스스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콘텐츠를 스스로 찾아 학습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학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학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추후 대학 언어 교육 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문화 수업 기획과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최신 기술의 교육적 적용에 대해 국가·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활용 교육에 대한 시도는 한국어교육 유관 기관이나 한국어 교사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듀테크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교육으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가장 값진 교육으로 승화시키느냐는 에듀테크를 무슨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교육은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현화·원미진(2018), 「한국어교육학의 이해와 탐구」, 한국문화사.
- 고태우(2022),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와 사업화 요건」, KDB미래전략연구소 발간호 797.
- 김종철(2002),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 서울대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김현진(2012), “속독 훈련이 읽기 속도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8, 이중언어학회, 23~47.
- 권미경(2022),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의 가능성 고찰”, <인하교육연구> 28-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77-197쪽.
- 류동현·남해(2022), 「메타버스 산업의 CPND 전략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류선숙(2022), “메타버스 기반의 한국어 교과목 설계에 관한 가능성 탐색 연구”, <교양교육 연구> 16(2), 한국교양교육학회, 289-305쪽.
- 박진철(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언어문화학> 18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7-146쪽.
- 백정열(2018), 「에듀테크의 기술 및 콘텐츠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7. 18.
- 송영복(2012), “음독 중심 한국어 수업이 다문화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과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지(201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 10권 제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89-114쪽.
- 안경민·서아리아(2019), “가상·증강현실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의 우선순위 도출 : AHP 기법 활용”, 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7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33-260쪽.
- 위약요·최은경(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역할극 활동 방안 연구 -플랫폼 제페토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3-230쪽.
- 양민경(200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2,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_____(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4,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윤나영(2022), “한국어 학습자의 소리 내어 읽기와 문해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 - 의미 단위 띄어 읽기 및 오독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8-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7-252쪽.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2쪽.
-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 이명귀(2016), “한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어교육 제27권 제3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177-201쪽.
- 이지현(2017), 「우리는 플랫폼에서 배운다」, Focus In. K content.
- 이해영·정혜선(2022), “메타버스 활용 한국어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교육적 적용 연구”, 문화와 융합 제44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125-144쪽.
- 이현청(2018), 「기술과 교육의 만남: 에듀테크」, 교육부 행복한 교육, 2018년 12월호.

- 장지영(2021),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32(4), 279-301쪽.
- 정경화(2012), “소리 내어 읽기가 한국어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식·김기창(199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허지운(2022),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 통역 스터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한국번역학회, 225-257쪽.
- 홍정민(2018), 「에듀테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책밥.
- 홍혜준(2004),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259-555쪽.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09-434쪽.
- Brinton, D., Goodwin, J. & Ranks, L.(1994), *Helping Language Minority Students Read and Write Analytically: The Journey Into, Through, and Beyond*, In F. Peitzman & G. Gadda(Eds.), *With Different Eyes: Insights Into Teaching Language Minority Students across the Disciplines*, White Pains, New York: Longman, pp.57 ~ 88.
- Buttjes, B., & Byram, M.(1991). *Mediating languages and cultures: Towards an intercultural theor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Cle vedon: Multilingual Matters.
- Carter, R. and Long, M. N.(1991), *Teaching Literature*, Longman, pp. 1-11, 90-93.
- Collie, J. and Slater, S.(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6.
- Collins, R. & Cooper, P. J.(2005), *The Power of Story : Teaching Through Storytelling*, Long Grove : Waveland Press.
- Kramer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llivan, A. P., G. A. Davis. & J. C. Stewart.(2018), *Edtech effectiveness: using screencasts toincrease learning outcomes in information systems curricula*,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19-1, pp. 39-53.

<에듀테크 기반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손다정(서울여대)

코로나 시기 이후의 교육 현장은 코로나 이전과는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급작스레 도입된 각종 온라인 도구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도구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교육적 활용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어 수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교육되지 못하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적용해 보고자 한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령·김숙정·손다정(2022)에서는 2022년까지의 인공지능을 한국어교육에 접목하고자 한 연구 동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는 논의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철(2023)의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와 또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과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후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방안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가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학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한국 문화 이해와 문학 향유를 통한 인간적 성장까지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율성, 개별성, 상호작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Through’ 단계에서 자율성과 개별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Beyond’ 단계에서 상호작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과 소통하는 ‘Through’ 단계를 상호작용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범위를 교사나 동료 학생이 아니라 문학 작품과의 소통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타당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개별성, 상호작용성의 층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원리들이 수업 모형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그림 5>에서 보인 수업의 절차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

니다. ‘Beyond’ 에 대해서 “교사에 의해 계획된 과제를 수용하며 심화 활동(Beyond)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설명하였지만 <그림 5>에서는 ‘Beyond’ 에서 소집단별 의사소통 활동이 진행되고 이후 ‘과제’ 단계에서 심화 활동이 진행됩니다.

에듀테크에 해당하는 각 도구의 활용 주체도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서술된 내용으로 보면 챗 지피티(Chat GPT)는 교사가, 리딩 프로세스(Reading Progress)는 학생들이, 메타버스 줍(ZEP)의 구축과 설계는 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도구의 특성상 주체를 다변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교육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도구의 활용과 관련한 참여자 각각의 역할도 수업 방안에 포함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4.2.1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밝힌 방안대로 수업을 실제로 진행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수업 방안이 보완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김혜령 · 김숙정 · 손다정(2022),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 동향, 배달말 71, 배달말학회, 337-374.

국어학 발표

사회자 : 임현열 (경성대)

- 발표 : 이정현(전문대), 이시와타리 아츠키(전문대) 64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감정 형용사 선정 연구
- 슬픔 계열 중심으로
- 토론 : 이성우(한림대) 80

- 발표 : 강민정(경상국립대) 81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과 기능
- 토론 : 최종원(서울대) 102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감정 형용사 선정 연구

-슬픔 계열을 중심으로-

이정현(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조교수)

이시와타리 아츠키(선문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

2. 연구 배경

- 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국어의 감정 형용사 다수 존재
- 나. 일본인 학습자가 겪는 한국어 어휘 학습의 어려움 가운데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구별
- 다.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통·번역했을 때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선정의 어려움⁴⁶⁾

3. 연구의 목적

- 가. 한·일 감정 형용사 코퍼스 대조 연구의 기초 연구
- 나. 한국어 감정 형용사 중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개념 재정립
- 다. 일본인 학습자에게 감정 형용사 정보 제공

4. 연구 범위

- 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 중에서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 나. 국어학적 관점에서 감정 동사의 범위 선정 및 규정한 틀 추출⁴⁷⁾
 - ⇒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의 슬픔 계열 감정 형용사 선정
- 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
- 라. 한·일 구어 코퍼스 분석⁴⁸⁾
 - 1)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중에서 구어 말뭉치
 - ⇒ 2015년~2019년에 방송된 로맨스 드라마 대본, 토크쇼, 상담 프로그램 코퍼스
 - 2) LaboroTVSpeech 중 드라마 코퍼스
 - ⇒ 国立国語研究所(국립국어연구소)에서 제공하는 日本語話し言葉コーパス(일본어 구어 코퍼스)

46) 가메이 미도리(2015)에서 슬픔 계열(슬픔, 외로움, 동정, 서운함, 괴로움)의 감정 형용사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어는 270개로 나타난데 반해, 일본어는 80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슬픔 계열 형용사의 변별과 한국어 학습 그리고 통·번역할 때 적절한 사용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7) 김은영(2004)을 참고하기 바란다.

48) 한·일 구어 코퍼스 대조 분석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 연구는 본격적인 구어 코퍼스 분석을 위한 출발 단계이다.

5. 선행연구 고찰

가. 감정 어휘 선정, 분류에 관한 연구

- 1) 김은영(2004) - 국어학적 관점에서 감정 동사의 범위를 정의하며 심리학, 사회학 관점을 바탕으로 규정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 틀을 바탕으로 국어 감정 동사의 어휘 목록 마련. 또한 감정 동사의 주어, 부사 공기제약 등 통사적 구조를 밝히고 감정 동사의 감정별 의미 특성을 살펴봄.
- 2) 이미지(2012) -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의미를 가진 감정 어휘를 국립국어원(2003)의 어휘 등급과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한국어교재 출현 빈도수의 3가지를 기반으로 선정. 이를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징을 밝히며 유의어군별로 변별적 정보를 제공함.
- 3) 이숙진(2018) -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보고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문제',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개발 연구' 보고서에 나온 감정 어휘를 추출·정리하여 총 127개의 한국어 교육용 감정 형용사 목록을 제시함. 또한 '긍정', '부정', '기타'의 대분류 항목 아래에 '칠정'과 Plutchick의 여덟 가지 정서를 바탕으로 한 19개의 소분류 항목을 둔 감정 범주를 마련하여 이에 선정된 어휘를 분류함.

나. 한·일 감정 어휘 대조 연구

- 1) 김미경(1997) - 감정 형용사 아래에 감정어와 감각어가 있다는 관점으로 선행 연구 정보를 바탕으로 감정어와 감각어의 구별을 위한 틀을 설정. 이 틀을 통해 한·일 양언어의 감정어를 선정하여 中村明(1979)⁴⁹⁾의 감정 분류에 따라 분류함.
- 2) 송은미(2013) - 한·일 양국의 사전, 어휘 자료집에서 수집한 한·일 감정 어휘를 国立国語研究所(2004)에 범주에 따라 의미별로 분류함. 또한 이에 대해 감정 범주별로 사용 양상 및 의미변화, 감정표현의 특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함.
- 3) 가메이미도리(2015) - 한·일 양언어의 사전에서 감정 형용사를 추출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 정립한 감정 범주에 이를 분류. 또한 기쁨과 슬픔에 관련된 감정 형용사를 중심으로 코퍼스 분석을 통해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비교 고찰함. 또한 哀(슬픔)계열(슬픔, 외로움, 동정, 서운함, 괴로움)의 감정 형용사의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어(270개)가 일본어(80개) 어휘의 3배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송은미(2011a) - 한·일 양 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를 분석함.
- 5) 송은미(2011b) - 한·일 양 언어의 감정어휘의 형태별로 분류함.
- 6) 김광태(2013) -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한·일 양 언어의 감정 오노마토피어를 추출하여 유형별로 분류 및 비교 분석함.
- 7) 유은성(2017) - '기쁘다, 즐겁다, 재미있다'와 'ウレシイ, タノシイ, オモシロイ'를 중심으로 문어 코퍼스 분석 기반으로 언어 관계를 비교함.
- 8) 고은숙(2021) - 한·일 대중가요에 나타난 감정 어휘의 대응 관계 연구함.

다. 국어학에서의 감정 형용사 개념 및 범주와 관련된 선행연구

- 1) 최현배(1937) - 형용사를 속격 그림씨(性状形容詞), 있음 그림씨(存在形容詞), 견준 그림씨(比較形容詞), 셈술 그림씨(數量形容詞), 가리김 그림씨(指示形容詞)의 5가지로 나

49) 喜, 怒, 哀(悲, 淋), 怖, 恥, 好, 厭(鬱, 悄, 苦, 悔, 嫌, 憎, 惑), 安, 昂(苛, 昂, 感動), 驚의 10가지

누어 속걸 그림씨(性状形容詞)의 하위 분류로 감각적 형용사, 정의적(情意的) 형용사, 이지적 형용사, 행동적 형용사, 물리생리적 형용사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이중 감각적 형용사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평행 감각, 유기 감각 시간 공간 감각 형용사로 나누어지며, 정의적(情意的) 형용사는 심리적 형용사와 평가적 형용사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최현배(1937) 분류로는 심리적 형용사는 유기 감각을 포함하는 감각적 형용사와 구별된 개념이며 또 정의적 형용사 중 평가적 형용사와도 다른 개념이라 본다. 이 분류는 형용사 의미 분류 중 가장 자세한 분류로 다양한 연구의 활용되고 있다.⁵⁰⁾

<표 18> 최현배(1937) 형용사 분류

형용사의 종류	상위 분류	하위 분류	예시
속걸 그림씨 (性状形容詞)	감각적 형용사	시각 형용사	검다, 희다. 밝다, 어둡다 등
		미각 형용사	달다, 쓰다 등
		청각 형용사	시끄럽다, 고요하다 등
		후각 형용사	지리다, 비리다 등
		촉각 형용사	미끄럽다, 무겁다, 차다, 아프다, 가렵다 등
		평행 감각 형용사	어지럽다 등
		유기 감각 형용사	답답하다, 아니꼽다 등
		시간 공간 감각 형용사	빠르다, 멀다, 크다, 높다 등
	정의적(情意的) 형용사	심리적 형용사	기쁘다, 슬프다 등
		평가적 형용사	참되다, 착하다 등
이지적 형용사	x	슬기롭다, 어리석다 등	
행동적 형용사	x	민첩하다, 느리다 등	
물리생리적 형용사	x	새롭다, 낡다, 험다,	
있음 그림씨 (存在形容詞)	x	x	있다, 계시다, 없다
견중 그림씨 (比較形容詞)	x	x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낫다, 못하다
셈술 그림씨 (數量形容詞)	x	x	적다, 많다, 수많다, 작다, 크다 등
가리킴 그림씨 (指示形容詞)	잡힘(定) 가리킴 그림씨	x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안잡힘(不定) 가리킴 그림씨	x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등

2) 김세중(1989) - 기존 연구에서의 주관 형용사를 심리 형용사, 객관 형용사를 속성형용사로 불러 형용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 심리 형용사는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에

50) 김장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 95-97에서 재인용.

대해 기술한 부류이며 속성형용사는 관찰할 수 있는 외부대상에 대해 기술한 부류임. 그러므로 심리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주체인 경험주와 감정의 대상 또는 원인이 각각 논항으로 요구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속성 형용사는 외부대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라 주장함.

<표 19> 김세중(1989:152) 심리 형용사 및 속성형용사 정의

형용사 종류	정의
심리형용사(주관 형용사)	감정의 주체인 경험주와 감정의 대상 또는 원인이 각각 논항으로 요구되는 두 자리 서술어
속성형용사(객관 형용사)	외부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한 자리 서술어

3) 남기심·고영근(1993:118) - 형용사를 정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로 나누고 정상형용사를 감각적 의미, 화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 비교, 존재, 화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5가지로 분류. 최현배(1937)에서 감각적 형용사의 속해 있던 유기 감각과 정의적 형용사의 하위 범주에 분류된 심리 형용사를 하나의 범주로 보아 화자의 심리상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20> 남기심·고영근(1993)의 형용사 분류

형용사의 종류	하위 범주	예시
정상형용사	감각적 의미	검다, 달다, 높다...
	화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	착하다, 아름답다...
	비교	같다, 다르다...
	존재	있다, 없다...
	화자의 심리상태	고프다, 아프다, 싫다...
지시형용사	-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4) 김흥수(1989:71) - '내적 경험'의 의미 특성을 가지는 동사를 심리 동사로 보았으며, 여기서 하위 범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나누어 설정함. 하위 범주 가운데 형용사는 정서형용사, 감각형용사, 경험 관련 평가형용사, '싫다'류로 분류. 정서형용사는 주체 정서가 어휘 의미의 주가 되는 주체 중심·대상의존 정서형용사(슬프다 류)와 대상의 속성이 어휘 의미의 주가 되는 대상 중심 정서형용사(예쁘다 류)로 나누었음. 또한 감각형용사도 주체 중심 감각형용사('아프다'류)와 대상 중심 감각형용사('맵다'류)로 나누었음.

<표 21> 김흥수(1989:71)의 심리 형용사 범주

형용사 종류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예시
심리 형용사	정서 형용사	주체중심·대상의존 정서형용사	'슬프다'류
		대상중심 정서형용사	'예쁘다'류
	감각 형용사	주체중심 감각형용사	'아프다'류
		대상중심 감각형용사	'맵다'류
	경험 관련 평가 형용사	-	'어렵다'류
'싫다'류	-	'싫다'류	

5) 신순자(1996) - 형용사의 하위 범주 분류의 변천을 확인하여 형용사를 하위 분류 도식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신순자(1996)은 심리형용사를 감각형용사와 감정형용사로 나누고 속성형용사를 평가형용사와 존재형용사로 분류함. 심리형용사 중 감각형용사는 주관감과 유기감각의 판단을 나타내는 정상형용사이며, 감정형용사는 희로애락과 같은 내면적·주관적 감정이나 심리가 적용하는 의미영역을 묘사한다고 주장함.

<표 22> 신순자(1996:39-48)의 형용사 범주

형용사 종류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성상형용사	심리형용사	감각형용사
		감정형용사
지시형용사	속성형용사	평가형용사
		존재형용사

6) 선행연구 문제

- 가) 학자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심리형용사, 정서 형용사, 감정 형용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나) 학자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범위가 다르며 감각 형용사나 평가 형용사의 포함 여부도 상이함 ⇒ 한국어교육을 위한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 재정립 필요

7) 본 연구에서의 감정 형용사 개념과 범위 - 감정 형용사의 범위는 감각을 의미하는 형용사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제외하며 유기 감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함. 이는 유기감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며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 형용사로 판별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본고는 남기심·고영근(1993)을 따라 '심리적, 물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는 화자⁵¹⁾의 심리상태'로 하고자 함.

라. 1차 어휘 2차 어휘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

- 1) 김광해 (1993 : 326) - 어휘 교육 차원에서의 분류로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획득하는 어휘를 습득의 차원에서 1차 어휘, 학습의 측면과 관련하여 2차 어휘라고 나누고 있

51) 여기서 화자는 경험주를 의미한다.

음. 김광해(2003)에서는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어휘를 237,990개 선정하고 이를 교육적 중요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묶어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삼원(2017)에 따르면 김광해(2003)에서 이루어진 어휘 평정에서는 1차 어휘는 대개 1등급, 2차 어휘는 대개 2~5등급, 나머지가 3차 어휘에 대응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음.

- 2) 이미지(2012) -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에서 감정 어휘를 기본어휘와 이차어휘로 분류하였는데 김광해(2003)와 국립국어원(2003)의 어휘 등급, 한국어 교재 출현 빈도수의 3가지로 선정. 또한 기본어휘 감정은 다른 감정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가장 원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분류하여 이차적 어휘는 기본어휘의 의미에 다른 감정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거나 감정의 강도에 의해 분화될 수 있는 어휘를 분류함.
- 3) 본 연구에서의 1차 어휘, 2차 어휘 구분 기준 - 위에 기준을 참고하여 김광해(2003)에서 1등급이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초급 단계에 교육하는 어휘를 동시에 충족하는 범주 안에서 가장 원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1차 어휘, 나머지를 2차 어휘로 선정

6.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한·일 형용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감정 형용사 개념과 범위를 정립

나. 감정 형용사 개념과 범위를 토대로 교육 감정 형용사 선정

- 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등재되어 있는 형용사 추출(총 755개)
- 2) 김은영(2004) 규정 틀을 적용 후 감정 형용사 추출 (129개)
- 3) '-하다'와 결합하였을 때 감정 형용사 조건을 충족하는 명사⁵²⁾(8개)를 포함(총 137개)

다. 감정 범주 설정 및 슬픔 계열 감정 형용사 분류

- 1) 슬픔 감정 계열 재정립을 위해 감정 범주 마련 (喜好安怒哀恥厭怖驚慾의 10가지와 이의 하위 범주 22가지로 정립⁵³⁾)
- 2) 선정된 감정 형용사(137개) 중 형용사 의미에 따라 슬픔 계열(서운함, 슬픔, 동정, 외로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선정·분류
- 3) 슬픔 계열 감정 형용사(서운함, 슬픔, 동정, 외로움) 중 1차 어휘와 2차 어휘로 나누어 분류

7. 감정 형용사의 범위와 규정 틀

가. 남기심·고영근(1993)의 기준으로 감정 형용사의 범위 선정

- 1) 감각 형용사와 구별
- 2) 평가 형용사와 구별
- 3) 유기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포함

나. 김은영(2004)의 규정 틀 활용 -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형용사

5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는 '감사하다', '불안하다' 등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형용사는 '감사' '불안'과 같이 명사로만 제시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는 대부분 명사와 함께 형용사 형태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감정 형용사로 넣기로 한다.

53) 감정 형용사 범주의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23> 김은영(2004)의 규정 틀의 4가지 조건

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에 적합한 형용사
② “마음{이/에}~한 상태”에 적합한 형용사
③ 구문의 주어는 항상 ‘경험주’로 실현
④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지각’이나,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의 요소를 전제로 하는 형용사

⇒ 남기심·고영근(1993)과 김은영(2004)은 감각 형용사 및 평가 형용사와 감정 형용사를 구별하고 있으며 유기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포함하는 점에서는 기준이 동일함

다. 감정 범위와 규정 틀 확인

1) 감각 형용사 틀 검증

<표 24> 감각 형용사의 틀 검증 예시

규정 틀	①“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②“마음{이/에}~한 상태”
예시	(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u>검은</u> 마음이 {생기다/들다}* (나) 마음{이/에} <u>검은</u> 상태* (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u>매운</u> 마음이 {생기다/들다}* (라) 마음{이/에} <u>매운</u> 상태*

규정 틀 ①, ②에 평가 형용사를 넣었을 때 문장이 어색하므로 이 틀은 감각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2) 평가 형용사 틀 검증

<표 25> 평가 형용사의 틀 검증 예시

규정 틀	①“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②“마음{이/에}~한 상태”
예시	(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u>착한</u> 마음이 {생기다/들다}* (나) 마음{이/에} <u>착한</u> 상태* (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u>아름다운</u> 마음이 {생기다/들다}* (라) 마음{이/에} <u>아름다운</u> 상태*

규정 틀 ①, ②에 평가 형용사를 넣었을 때 문장이 어색하므로 이 틀은 평가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3) 유기 감각 형용사 틀 검증

<표 26> 유기 감각 형용사의 틀 검증

규정 틀	①“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②“마음{이/에}~한 상태”
예시	(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u>답답한</u> 마음이 {생기다/들다}

	(나) 마음{이/에} <u>답답한</u> 상태 (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u>아니꼬운</u> 마음이 {생기다/들다} (라) 마음{이/에} <u>아니꼬운</u> 상태
--	--

규정 틀 ①,②에 유기 형용사를 넣었을 때 적합함

<표 27> 유기 감각 형용사의 틀 검증

규정 틀	③구문의 주어는 항상 '경험주'로 실현 ④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지각'이나,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의 요소를 전제로 하는 형용사
예시	(마) 나는 여태껏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가 <u>답답하기</u> 그지 없었다. (바) 어머니는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하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u>답답했다</u> . (사) (나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예, 예 하기가 <u>아니꼬웠지만</u> 직장 상사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 (나는)상대의 거친 말투가 매우 <u>아니꼬워서</u> 나도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마)는 주어는 '나'이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경험주임, (바) 또한 주어인 어머니가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임, (사),(아)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나'이며 아니꼬움을 느낀 경험주도 '나'임

⇒ 규정 틀③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마)에서는 '그가 여태껏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를 전제로 답답함이 생김

(바)에서는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하지 못한 아들의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전제로 답답한 감정이 발생

(사)에서도 '존댓말을 쓰는 대상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아니꼬운 감정을 느낌

(아)에서도 '상대의 거친 말투'에서 무례함을 느끼다' 등의 인지를 전제로 아니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

⇒ 규정 틀④ 조건도 충족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검증을 해봄으로써 김은영(2004) 규정 틀이 남기심·고영근(1993의) 정의와 같이 평가 형용사와 구별하며 유기 감각 형용사를 포함됨을 확인함.

8. 감정 범주

가. 선행 연구에서의 감정 범주

인간의 감정에 관한 연구는 철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음

- 1)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예기(禮記)에서 논한 칠정으로 정의, 칠정은
 흥(기쁨), 노(노여움), 애(슬픔), 무(두려움), 애(사랑), 미(미움), 욕(욕망) 54)의 일곱
 가지 감정
- 2) 서양의 심리학자인 Plutchik(1980)은 감정을 4쌍으로 이루어지는 8가지 감정
 ‘기쁨(joy), 슬픔(sadness), 노여움(anger), 두려움(fear), 포용(trust), 거부(disgust),
 놀라움(surprise), 기대(anticipation)’으로 정의55)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감정 어휘를 분류하기 위해 어휘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그
 감정 범주를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언어학 연구에서 정의되는 감정 범주는 다음과
 같음.

<표 28> 선행연구에서의 감정 범주

한국어		일본어	
저자	감정 범주	저자	감정 범주
남영신 (1998)	기쁨·즐거움·웃음, 기분 상태, 슬픔· 괴로움·울음, 불안·걱정, 불편·거북, 사랑·미움·싫음·시샘, 기타 감정	中村明 (1993)	喜, 怒, 哀(悲, 淋), 怖, 恥, 好, 厭(鬱, 悄, 苦, 悔, 嫌, 憎, 惑), 安, 昂(苛, 昂, 感動), 驚
김은영 (2004)	기쁨·즐거움·웃음, 기분 상태, 슬픔· 괴로움·울음, 불안·걱정, 불편·거북, 사랑·미움·싫음·시샘, 기타 감정 기쁨, 좋아함(호감, 신뢰감, 만족, 자신 감, 고마움, 반가움, 자연스러움, 안정감, 통쾌함, 공감, 감동), 동정, 수치심, 노여 움(노여움, 원망, 불쾌감), 슬픔(슬픔, 억울함, 외로움, 후회, 그리움, 실망, 허 망), 두려움(두려움, 초조함, 위축감, 걱 정, 놀람, 마안함), 싫어함(반감, 거부감, 냉담, 귀찮음, 불편함, 난처함, 서먹함, 불 신감, 싫증, 심심함, 답답함, 치사함, 시기 심), 바람(바람, 아쉬움, 궁금함, 갈등, 불 만)	国立国 語研究 所(2004)	心, 感動·興奮, 快·喜び, 恐怖·怒り· 悔しさ, 安心·焦燥·満足, 苦惱·悲哀, 好悪·愛憎, 敬意·感謝·信賴, 表情·態 度, 信愛·努力·忍耐, 自信·誇り·恥·反 省, 慾望·期待·失望, 不思議
홍종선 정연주 (2009)	감동, 감사, 고뇌, 고독, 기쁨, 놀람, 동정, 두려움, 미안함, 분노, 상쾌함, 수용, 수치심, 슬픔, 욕구, 이완, 허	柴田武· 山田進 (2004)56)	愛する·好む(愛情/愛好), 望む·欲す る(慾望), 喜ぶ·楽しむ(歡喜), 悲しむ·泣く(悲痛), 悔やむ·惜しむ

54)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91쪽 재인용.

55) 유현경(2008), 한국어 감정용언에 대한 연구 66쪽 재인용.

	무, 혐오, 후회	(後悔/哀惜), 苦しむ·悩む(苦惱), 困る·恥じる(困苦/恥辱), 嫌う·憎む· 怒る(嫌惡), 驚く·おびえる(驚歎/恐怖)
이미지 (2012)	기쁨, 슬픔, 노여움, 두려움	
차경미 (2013)	쾌(기쁨, 사랑, 안정, 감동), 불쾌(괴 로움, 슬픔, 화, 미움, 놀람, 두려움, 걱정, 부끄러움, 바람, 외로움)	
정미지 (2015)	희(기쁨1/기쁨2(감동))로(화남), 애(슬 픔), 락(즐거움)	
이숙진 (2018)	긍정(경이, 기쁨, 동정, 만족, 애정, 흥미), 부정적(걱정, 공포, 노여움, 당황, 미안 함, 미움, 부끄러움, 불편함, 슬픔, 싫음, 아쉬움, 지루함), 기타(바람)	

한·일 대조 연구	
저자	감정 범주
고은숙 (2010)	感動·興奮, 快·喜び, 恐れ·怒り·悔しさ, 安心·焦燥·満足, 苦惱·悲哀, 好惡·愛憎, 敬意· 感謝·信賴, 自信·誇り·恥·反省, 慾望·期待·失望
송은미 (2013)	감동, 감사, 경의, 고뇌, 기대, 기쁨, 놀람, 두려움, 만족, 반성, 분함, 비애, 사랑, 수치, 실망, 싫어함, 안심, 애증, 자만, 자신, 좋아함, 즐거움, 초조, 화, 흥분
가메이 미도리 (2015)	쾌{喜(기쁨, 상쾌함, 고마움, 자랑스러움), 愛(재미, 좋음), 安(안심, 믿음)} 불쾌{怒 (노여움), 哀(서운함, 슬픔, 동정, 외로움, 괴로움), 恥(미안함, 부끄러움), 厭(심심 함, 싫음), 怖(불안, 의심)}, 중립{驚(놀라움, 감동), 慾(바람, 질투)}

나. 선행연구의 감정 범주 특징

- 1) 모든 연구에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은 기본적인 감정 범주로 설정됨. ‘부끄러움, 안심’도 대체로 감정 범주로 설정됨
- 2) ‘괴로움, 미움, 좋아함’을 비롯한 감정들은 상위 범주로 설정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의 하위 범주로 넣기도 하며 연구마다 조금씩 다름
- 3) 최상위 범주를 설정하는 연구는 ‘쾌·불쾌’ 혹은 ‘긍정·부정’ 등으로 2가지로 나누거나, 이에 ‘기타’ 혹은 ‘중립’ 범주를 추가한 3가지로 나누고 있음
- 4) 일본어 혹은 일·한 양언어의 감정 분류는 김미경(1997), 김인숙(2003.), 송연희(2018) 등을 비롯하여 中村明(1993)의 기준을 따르는 경향

다. 감정 형용사 범주 정립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의 공통점을 토대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가메이미도리(2015)과 그 맥을 같이 하여⁵⁷⁾ 한·일 양 언어를 고려하여 감정 범주를 다음과

56) 가메이미도리(2015), 韓國語와 日本語의 感情形容詞 比較 研究 : ‘기쁨’과 ‘슬픔’의 感情形容詞를 중심으로 재인용

57) 가메이미도리(2015)에서는 선행 연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감정 범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또한 단어의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인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점

같이 정립하고자 함.

<표 29> 본 연구의 감정 범주

快(쾌)		不快(불쾌)		中立(중립)	
喜(기쁨)	기쁨	怒(노여움)	노여움	驚(놀라움)	놀라움 감동
	재미	哀(슬픔)	서운함	慾(욕망)	바람
			슬픔		
			동정 외로움		부러움
자랑스러움 상쾌함	恥(부끄러움)	부끄러움			
好(좋아함)	좋음	厭(싫음)	싫음		
			심심함		
			괴로움		
安(편안함)	안심	怖(두려움)	불안		
	믿음		의심		

- 1) 최상위범주로 감정을 快(쾌), 不快(불쾌), 中立(중립)으로 나눔
- 2) 상위 범주를 喜(기쁨), 好(좋아함), 安(편안함), 怒(노여움), 哀(슬픔), 恥(부끄러움), 厭(싫음), 怖(두려움), 驚(놀라움), 慾(욕망)로 설정⁵⁸⁾
- 3) 가메이미도리(2015)에서 愛계열의 들어가 있던 ‘재미’를 그 의미를 고려하여 喜(기쁨)의 하위 범주로 추가⁵⁹⁾
- 4) 가메이미도리(2015)에서 哀(슬픔)에 들어가 있던 ‘괴로움’을 厭(싫음)의 하위 범주로 설정

<표 3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뜻풀이

괴롭다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	-----------------------

- 가) 뜻풀이를 보면 괴롭다는 슬픔이 아닌 고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풀이는 불편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厭(싫음)’의 하위 범주로 넣음
- 다) 中村明(1993)에서도 苦(괴롭다)는 厭(싫음)의 하위 범주
⇒ 슬픔 계열의 하위 범주는 서운함, 슬픔, 동정, 외로움으로 정립

9.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분류

- 가. 교육 감정 형용사 중 슬픔 계열에 해당하는 어휘 선정
- 나. 사전에서의 표제어 의미 확인 - 표준어국어대사전, 우리말샘사전, 한국어기초사전

에서 유용하다.

58) 中村明(1993)의 상위 범주 중 昂(흥분)에는 苛(짜증), 昂(흥분), 感動(감동)이 포함되는데 이 상당히 의미가 다른 3가지 하위범주를 하나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昂의 범주를 제외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감정들을 다른 감정 범주에 넣기로 하였다.

59) 재미있다 :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s://stdict.korean.go.kr>)

다. 유의어 관계 참고⁶⁰⁾

<그림 1> ‘슬프다’의 유의어/반의어



10. 분석 결과

앞서 살핀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슬픔 계열의 한국어 교육용 형용사를 분류함. 哀(슬픔) 계열에서는 하위 범주 ‘서운함’ 7개, ‘슬픔’ 7개, ‘동정’ 5개, ‘외로움’ 4개의 형용사를 분류. 하위 범주에 따른 의미별 특성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표제어 뜻풀이로 참조하였음. 먼저 ‘서운함’에는 ‘서글프다¹⁶¹⁾, 섭섭하다, 서운하다, 아깝다, 안타깝다, 아쉽다, 애틀하다⁶²⁾’를 분류.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기준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으므로 1차 어휘 없이 모두 2차 어휘로 분류.

다음으로 하위 범주 ‘슬픔’에는 1차 어휘로 ‘슬프다’, 2차 어휘로 ‘몽클하다, 비참하다, 서글프다²⁶³⁾, 서럽다, 속상하다, 처참하다’를 분류. ‘동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는 ‘불쌍하다’를 1차 어휘로 분류하여, 2차 어휘로 ‘가엾다, 눈물겹다, 딱하다, 안쓰럽다’를 넣었음. ‘가엾다’는 김광해(2003)에서는 1등급이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6급인 것을 고려해 2차 어휘로 분류. 마지막으로 ‘외로움’에는 ‘외롭다’를 1차 어휘로 분류하며 2차 어휘로는 ‘쓸쓸하다, 공허하다, 허전하다’를 분류.

일본어 형용사 연구에서는 ‘哀(슬픔)’ 범주는 대체로 하나의 범주로 설정되거나 中村明(1993)와 같이 悲(슬픔), 淋(외로움)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위 범주 4가지로 나누며 각각 1차 어휘, 2차 어휘로 구분함으로써 한국어의 다양한 형용사를 체계적으로 분류함.

<표 31> 슬픔 계열의 한국어 교육용 형용사를 분류한 표

상위 범주 (총 개수)	하위 범주 (개수)	1차 어휘 (국통/등급) 64)	2차, 3차 어휘(국통/등급)
哀 (23개)	서운함(7개)	-	서글프다1(5급/2), 섭섭하다(2급/2), 서운하다(4급/2), 아깝다(4급/2), 안타깝다(4급/2), 아쉽다(3급/2),

60)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https://www.natmal.com/>

61) 서글프다: 1.쓸쓸하고 외로워 슬프다. 서글프다는 서글프다1로 한다.

62) 애틀하다: 1.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2.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다.

63) 서글프다: 2.섭섭하고 언짢다.의 의미가 있는 서글프다를 서글프다2로 한다.

			애뜻하다(6급/4) ⁶⁵⁾
	슬픔(7개)	슬프다(1급/1)	몽쿨하다(5급/-), 비참하다(6급/2), 서글프다(5급/2), 서럽다(4급/2), 속상하다(3급/2), 처참하다(6급/4)
	동정(6개) 66)	불쌍하다(2급/1)	가없다(6급/1), 눈물겹다(6급/4), 딱하다(6급/2), 안쓰럽다(6급/4), 측은하다(-/4)
	외로움(4개)	외롭다(2급/1)	쓸쓸하다(4급/2), 공허하다(6급/4), 허전하다(5급/3),

11. 남은 연구

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에 대한 한·일 구어 코퍼스 대조 분석

- 1) 한·일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의 출현 빈도 분석
- 2) 한·일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의 품사 빈도 분석
- 3) 한·일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의 언어 관계(선행절, 후행절) 분석
- 4) 한·일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의 의미 특성 분석

나. 한국어 코퍼스

- 1)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

⇒ 코퍼스 상세 정보 - 과학, 교육, 스포츠, 예능 등 18가지 분야의 총 67개의 방송 프로그램이 수집된 분량 15,000시간의 구어 코퍼스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된 드라마 대본을 수집한 15,400,000 어절의 준구어 코퍼스 중 2015년부터 2019년의 방송된 로맨스 드라마 대본 및 토크쇼, 상담 프로그램 코퍼스

다. 일본어 코퍼스

- 1) 国立国語研究所 話し言葉コーパス (국립국어연구소 구어 코퍼스)⁶⁷⁾

가) 코퍼스 상세정보 - 독백, 대화, 낭독 등을 포함하는 752万短単位(752만 형태소), 631万長単位(631만 단어)⁶⁸⁾ 구어 코퍼스

- 2) LaboroTVSpeech 중 드라마 코퍼스⁶⁹⁾

가) 기업 - 株式会社 Laboro.AI(주식 회사Laboro.AI)라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 커스텀 AI의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에서 구축한 TV녹화 자동 음성 코퍼스

나) 코퍼스 상세정보 - 2020년2월~9월에 방송된 뉴스, 예능, 드라마를 비롯한 12장르 총9,142프로그램의 녹화 데이터를 활용하며 2,049시간⁷⁰⁾에 음성 데이터에서 구축된 대규모 음성 코퍼스

64) 국통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등급을 등급은 '김광해(2003)의 등급'을 의미한다.

65) 애뜻하다: 1.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2.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다.

66) '동정' 범주에 포함되는 형용사 '측은하다'는 국통에는 없으나, 김광해(2003)은 4등급에는 있기에 포함시켜 보았다. 현재 국통에는 현재 없으나 향후 고급 6등급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7) 言語資源開発センター <https://clrd.ninjal.ac.jp>

68) 코퍼스 규모를 어절이 아닌 형태소 및 단어 수로 규모를 제시하였다.

69)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코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대규모 드라마 코퍼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70) 安藤,藤原(2020) 'テレビ録画とその字幕を利用した大規模日本語音声コーパスの構築'에서 코퍼스 규모를 시간으로 제시하며 어절 수를 밝히지 않았다.

- 다) 공개 대상 - 대학을 비롯한 공적 학술연구기관
- 라) 공개 조건 - 연구 목적의 활용에 한하여 무상 공개되며 대학 소속 전임교원만 신청 가능하며 학교 도메인으로 된 메일 주소로만 데이터 전송 가능
- 마) 절차 -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계획 작성 후 신청 ⇒ 심사 후 ⇒ cloud sign을 통해 코퍼스 이용 계약서에 서명 ⇒ 메일로 코퍼스 데이터 URL 수령 후 현재 분석 중

라. 연구의 제한점

- 1) 한국어 교육용 슬픔 계열의 감정 형용사 선정 및 감정별 하위 분류에 그쳤다는 점
- 2) 한·일 코퍼스에서 슬픔 계열의 형용사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 3) 한·일 감정 형용사의 구어 코퍼스에서 검색할 기준이 되는 형용사 선정 및 하위 범주 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정으로 한·일 감정 형용사의 구어 코퍼스 대조 연구를 위한 출발점 정도로 이해

<참고 문헌>

- 고은숙(2010), "일본어 감정형용사의 유의관계 고찰 - 한국어 대역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언어정보 11권」, 35-52.
- 고은숙(2021), "한·일 대중가요에 나타난 감정어휘의 대응관계 연구 - 한·일대역 자료를 중심으로 -" 「일본어교육연구 57호」, 21-39.
- 김광태(2013), "한·일 양언어의 감정표현의 양상", 「日本研究 56호」, 147-165.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도서출판 박이정.
-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語學研究 25권 1호」, 151-165.
- 김은영(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숙(2007), "韓日 양국어의 감정어휘 -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어휘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35권」, 79-96.
- 김장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95-97
- 김홍수(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 문법론(개정판)』, 두서출판, 탑출판사.
- 남영신(1998), (새로운) 우리말 분류 대사전, 성안당.
- 송연희(2018), "담화상의 감정표현에 관한 한·일대조연구 -발화패턴 사용양상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06권 1호」, 145-163.
- 송은미(2011a),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30호」, 173-188.
- 송은미(2011b), "한·일 양언어에 있어서 감정어휘의 형태별 분류." 「일본학연구 33호」, 373-394.
- 송은미(2013), "한·일 양언어에 있어서 감정어휘의 감정별 분류", 「일본언어문화 25권」, 273-296.
- 신순자(1996), "現代 國語의 形容詞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 유현경(2008), "한국어 감정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32호」, 35-60.
- 유은성(2017), "한·일 감정형용사의 대조연구 - 「기쁘다」와 「ウレシイ」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01권 1호」, 23-45.
- 이미지(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숙진(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형용사 선정과 분류", 「한국어문교육 24권」, 479-511.
-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권 2호」, 89-117.
- 정미지(2015), "유의관계에 있는 감정 형용사의 변별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화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권」, 333-358.
- 홍중선·정연주(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권」, 387-420.
- 国立国語研究所(2004), 『分類語彙表 増補改訂版』, 大日本図書.

柴田武・山田進(2004), 『類語大辞典』, 講談社, 108-185.
中村明(1979, 1993), 『感情表現辞典』, 東京堂出版.
中村明(1993), 『近代文学に見る感情表現のひろがり』, 「日本語学 1月号」, 明治書院, 33-70.

<보고서>

이경길(2019), 『국어 자료 수집 및 원시 말뭉치』, 국어국립원.
이삼원(2017),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前川喜久雄(2016), 「『日本語話し言葉コーパス』の概観」, 国立国語研究所.
국립국어원(201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安藤, 藤原(2020), “テレビ録画とその字幕を利用した大規模日本語音声コーパスの構築”, 「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https://www.natmal.com/>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감정 형용사 선정 연구’ 에 대한 토론문

이성우(한림대)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슬픔과 관련된 어휘들의 의미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이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의미 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문은 기존 연구를 충실히 섭렵하고, 슬픔과 관련된 어휘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한국어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몇가지 질문을 더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해보려고 합니다.

1. 다의어 구분에 대하여

애뜻하다의 두 번째 의미와 서글프다²의 경우 슬픔을 의미하는 어휘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류, 혹은 말뭉치 검토를 통한 예문 분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어휘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신 바가 있으실지요?

2. 슬픔 계열 한국어교육용 형용사 분류표에 대하여

슬픔을 의미하는 한국어 형용사를 난이도(?)에 따라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차어휘와 2-3차 어휘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더 요구될 듯합니다. 대개 동의하지만, 서운함의 범주에는 왜 1차 어휘가 없는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당범주에 들어맞는 어휘가 맞는지, 다소 의구심이 드는 어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깝다’의 경우 서운함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참하다’ 또한 슬픔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이들 어휘를 해당 범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행 연구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로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가 너무 많아서 발표자분의 의견을 더 자세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과 기능

강민정(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2. 복합형 담화표지의 개념
3. 복합형 담화표지의 기능
4.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
 - 4.1. '화자-화제' 결속 강화
 - 4.2. '화자-화제-청자' 동시 결속
 - 4.3. '담화표지' 명시
5. 결론

1. 서론

담화표지는 화자가 담화를 이끌어 가면서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화자의 발화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담화 속 발화를 유연하게 진행하거나 발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자 한다. 담화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어학 연구자 가운데 기능문법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담화표지와 담화구조 등 담화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임규홍 2019:989). 초기에는 문어와 달리 구어 발화에서 실현되는 요소를 '간투사', '담화표지', '화용표지'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담화 상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개별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담화표지 '그러니까'에 대한 연구(강소영 2009, 전영옥 2016 등), 담화표지 '좀'에 대한 연구(송인성·신지영 2014, 조민정 2015, 장경현 2016) 등과 같이 개별 담화표지의 담화 상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간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밝혔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개별 담화표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예문 (1) 같은 용례를 자주 볼 수 있다.

- (1) ㄱ. 아니 뭐 종부는 성적순으로 뽑는 거래? 그런게 어딤어? (이효진 2005:78)⁷¹⁾
 ㄴ. 그냥 뭐 / 졸업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다녀볼라구. (송인성 2013:94)⁷²⁾

71) 이효진(2005), 「'뭐'의 담화상 의미기능연구」, 『어문논총』 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78. 예문 (24)의 한 부분을 재인용함.

72) 송인성(2013), 「담화표지 '뭐'의 기능과 운율적 특성」,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94. 예문 (4)의

ㄷ. 순기능에 대해서 예를 한 번만 들어 얘기를 해 볼래요? / 아니 왜 아까도 얼핏 들으니까 공일구 선전에 “아빠 아빠” 그런 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 어 사랑 같은 거 느끼게 해 주는데 사실 그런 거기서는 상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박송연 2020: 43)⁷³⁾

ㄹ. A: 그니까 그 선생님 알지, / 은근히 그 출석 안 한 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은근히 은근히 그거 다 얘기해.

B: 아니 근데,

A: 응.

B: 000 선생님이 내가 시험을 못 봤대. (박송연 2020: 60)⁷⁴⁾

* / : 억양 단위를 의미한다.

위의 예문 (1)은 개별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예문으로, (1ㄱ)의 ‘뭐’는 ‘비난’, (1ㄴ)의 ‘뭐’는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 (1ㄷ)의 ‘아니’는 ‘말차례 이어가기’, (1ㄹ)의 ‘아니’는 ‘화제 전환’과 ‘주의 집중’의 기능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1ㄱ-ㄹ) 모두 개별 담화표지가 연속적으로 실현된 예로, 연속된 담화표지 중 하나를 생략하면 어색하거나 연속된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 보다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 담화표지의 연속 실현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대표적으로 (1ㄹ)의 ‘아니’를 ‘화제 전환’의 기능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1ㄹ)의 ‘아니 근데’의 ‘화제 전환’의 기능은 ‘아니’보다도 담화표지 ‘근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별 담화표지의 연속 실현은 단순히 연속 실현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별 담화표지와 개별 담화표지가 하나의 억양 단위 안에서 중간에 쉼 없이 실현되며, 그 사용이 빈번하여 사용 패턴으로 유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화표지의 결합 현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강소영(2014)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⁷⁵⁾ 강소영(2014)에서는 ‘아니 근데’와 ‘아 근데’가 첫째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유의미한 사용을 보이고, 둘째 긴밀하게 결합되어 비분리적인 특성과 말의 첫머리에서만 분포적 특성을 보이며 셋째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복합형 담화표지’로 칭하였다. 강소영(2014)의 연구는 담화표지의 결합형에 주목하고 이를 ‘복합형 담화표지’라는 용어를 정립하고 그 대표적인 예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강소영(2014)의 연구 이외에 복합형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다른 담화표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억양 내에서 실현되고, 결합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유형화되는 것을 ‘복합형 담화표지’로 설정하고, 그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한 부분을 재인용함.

73) 박송연(2020),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3. 예문 (15)의 일부분을 재인용함.

74) 박송연(2020),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0. 예문 (29)의 일부분을 재인용함.

75) 개별 담화표지의 연결에 대해서는 남길임·차지현(2010), 오은화(2020)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남길임·차지현(2010)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사용 패턴에 대해서 ‘접속부사 패턴, 어휘적 담화표지 패턴, 양태어미 패턴, 대응어 패턴, 나열 및 예시 패턴, 수사 의문문 패턴’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오은화(2020)에서는 담화표지 ‘아니’의 한국어 교육용 의미 기능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담화표지 ‘아니’의 연어로 ‘아니 근데,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니까’ 등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담화표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본 것이고, 담화표지가 결합하여 쓰일 때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았다.

2. 복합형 담화표지의 개념⁷⁶⁾

먼저 ‘복합형 담화표지’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박송연(2021: 38)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아니’가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 (2) 1 A: 애들아, 맛있게 먹어.
 2 B: 고마워 잘 먹을게.
 3 D: 형 맛없게 맛없게 먹을게요.
 4 형 동아리방 열쇠 쥐 나중에.
 5 D: 어 그래.
 6 → **아니** 근데
 7 C: 난
 8 D: 너 이번에::
 9 C: 어.
 10 D: 니가 저거 그~ 저~ 우리 동아리 회장해라.
 11 C: 싫어::
 12 D: 내가 작년에 했잖아.
 13 C: 아 싫어::.

음식을 잘 먹겠다는 고마움을 전하는 상황과 동아리방 열쇠를 달라는 말을 한 후 ‘동아리 회장을 권유’하는 화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박송연(2021: 38)에서는 이때 ‘아니’를 사용해 다른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대화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전환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였다. 즉 ‘아니’가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⁷⁷⁾ 그런데 위의 대화에서 ‘근데’를 빼고 ‘아니’만으로 발화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를 빼고 ‘근데’만으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발화의 흐름이 좀 어색해 보인다. 특히 ‘근데’를 빼고 ‘아니’만으로 발화가 이루어졌다면 더 어색한 발화가 된다. 이는 ‘아니’가 화제 전환의 기능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 또 ‘아니’가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한다면 왜 같은 기능인 화제 전환의 ‘근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즉 ‘아니 근데’의 형태로 함께 쓰일 때 보다 자연스럽게 화자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문 (1)과 (2)의 예들에 실현된 담화표지의 결합형은 중간에 쉽 없이 결합되어 실현되며, 그 사용이 빈번하여 사용 패턴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하나의 억양 단위 안에서 긴밀하게 결합하여 중간에 쉽 없이 실현된다는 것은 화자가 개별 담화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덩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1ㄴ), (1ㄷ), (2)의 예와 같이 담화표지의 결합형이 하나의 억양 단위로 구성되어 실현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또한 화자가 개별 담화표지로 인식하고 사용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단위 즉 ‘복합형 담화표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6) 이 장의 내용은 한국어의미학회 제52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 심화한 것이다.

77) 박송연(2021: 39)에서는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아니’가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할 때 ‘아니 근데’형인 ‘복합형 담화표지’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은 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아니’의 기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담화표지의 결합형은 그 사용이 활발하여 패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그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다음 장에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사용 패턴으로 유형화되었다는 것은 위의 아래의 (3)과 같이 드라마 속 인물 대화에서 복합형 담화표지의 사용이 활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ㄱ. 가: 다 들었어. 너 왜 뺨 맞은 건지.

나: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새끼야.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너한테까지 마음 아프고 싶지 않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ㄴ. 가: 오늘 술 한잔 어때?

(중략)

나: 아침에 수혜자 혈압이 떨어져서 카디오에서 초음파 보느라 수술이 미뤄졌거든. 세혁이는 갑자기 뇌사자 생겨서 구둑 갔고. 왜 된대?

가: 아니 뭐, 이런 저런 얘기나 할까 했지? 그럼 수술 끝나고 밤에 볼까?

나: 오늘 나 강의 있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1>-

ㄷ.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 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 했어. 근데 뭐 인생의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드라마 <더 글로리>-

드라마 속 인물의 대사는 작가가 창조하는 발화로, 작가는 드라마의 현실성을 위해 현재 언중들이 사용하는 말로 대사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중들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인물들의 대사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더불어 드라마 속 인물의 대사는 그 인물의 의도(인물의 태도, 감정 등)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작가는 전략적으로 인물의 발화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드라마 속 인물의 대화와 같은 준구어 자료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발화의 모습은 언중들에게 사용 패턴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담화표지는 담화의 구성 요소인 화자, 청자, 화제 그리고 맥락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자가 담화의 결속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표지이다(유현경 외 2019: 649). 담화표지 결합형은 기본적으로 결합된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을 이어받아 사용되지만, 개별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보다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강화’하여 화자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개별 담화표지가 ‘화자-화제 결속’, ‘화자-청자 결속’ 등의 기능하는데 복합형 담화표지는 ‘화자-화제 결속’을 강화하고, ‘화자-화제-청자’를 동시에 결속하여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한다⁷⁸⁾.

이상에서 개별 담화표지가 중간에 쉼 없이 결합된 담화표지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결합형으로써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강화하여 화자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별 담화표지의 결합형을 ‘복합형 담화표지’로 칭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⁷⁹⁾

78) 여기서 ‘화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체 담화(대화)의 구조, 주제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의 발화 내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79) ‘복합형 담화표지’의 ‘복합’은 ‘복합어, 복합조사, 복합동사, 복합종결어미’ 등의 국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을 의미하는 ‘복합’이라는 용어와 그 뜻을 함께한다. ‘복합’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실현되지만 두 개 이상으로 쪼갤 수 있고,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하거나 중심이 되는 것과 결합되어 그 의미나 기능을 더하여 줄 때 사용된다. ‘복합형 담화표지’도 개별 담화표지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실현되지만 두 개 이상으로 쪼갤 수 있고,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복합형 담화표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화 전략으로, 두 개 이상의 담화표지가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억양 단위 안에서 중간에 쉼 없이 실현되며, 그 결합이 빈번하여 사용 패턴으로 유형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복합형 담화표지의 기능

복합형 담화표지는 개별 담화표지의 긴밀한 결합형으로 그 기능이 더 전문화(specialization)⁸⁰되어 효과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즉 복합형 담화표지는 담화 구성 요소인 화자, 화제, 청자, 맥락을 결속하는 담화표지의 기능에서 그 결속을 강화하여 보다 담화 구성 요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담화표지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담화표지의 기능을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래의 (4)는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이다.

- (4) ㄱ. 안주호(1992): 부름표지, 시발표지, 전환표지, 종결표지
 ㄴ. 김향화(2001): 주의 집중, 초점 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 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
 ㄷ. 전영옥(2002): 화제와 화제 결속, 화자와 화제 결속, 화자와 청자 결속⁸¹
 ㄹ. 김에스더(2008):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ㅁ. 심란희(2018): 화자의 화제 결속 기능, 화자의 태도 표현 기능, 화자의 청자 참여 유도 기능, 청자의 반응 기능, 화청자의 순서교대 기능⁸²

화자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가 결합형이 개별 담화표지가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복합’이라는 용어가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 담화표지의 결합형을 ‘복합’의 용어를 써서 ‘복합형 담화표지’라 하였다.

80) 담화표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나 구절이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의미를 잃어 추상화된 것을 말한다. 문법화에서는 이를 ‘의미의 일반화(generalization)’이라고 한다. 담화표지는 의미 측면에서는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문화(specialization)된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특별’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성하(2016:272)에서는 전문화에 의해 어떤 특정한 문법소가 선택되고, 선택된 문법소들은 점점 더 일반화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81) 전영옥(2002)의 담화표지의 구체적인 기능 분류는 아래와 같다.
 - 화제와 화제 결속: 화제 시작, 화제 진전, 화제 전환, 화제 연결
 - 화자와 화제 결속: 시간 별기, 열버무리며 넘어가기, 주장 약화하기, 주장 강조하기, 디딤말 기능, 수정하기, 부정적인 태도 표현하기
 - 화자와 청자 결속: 주의 집중, 대화 진행 조정하기, 발언권 가져오기, 정중하게 말하기, 호응하기

82) 심란희(2018)의 담화표지 세부 기능은 아래와 같다.
 - 화자의 화제 결속 기능: 거시적 결속(화제 시작하기, 화제 전환하기, 화제 복귀하기, 화제 종료하기)

미시적 결속(화제 연결하기, 화제 심화하기, 공백 메우기, 발화 수정하기, 부연 설명하기, 나열하기, 발화 경계 만들기, 초점화 하기)

- 화자의 태도 표현 기능: 강조하여 표현하기, 약화하여 표현하기, 조심스러운 태도 표현하기, 부정적 태도 표현하기, 인지 작용 표현하기

- 화자의 청자 참여 유도 기능: 경청 유도하기, 생각 유도하기, 반응 유도하기

비. 유현경 외(2019): 메시지 전달 기능(발신자-화제 결속), 화제 관리 기능(발신자-화제 결속, 화제-과제 간 결속), 수신자 결속 기능, 사회 문화적 맥락 결속 기능

위와 같이 연구자마다 담화표지의 기능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담화표지의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표지의 기능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그 기능에 속하는 담화표지는 중복 분류된다. 담화표지가 ‘다기능성’과 ‘동시 기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심란희 2018:51). 그럼에도 담화표지는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거나 그 의미를 잃어 담화 상에서 독특한 담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화표지의 연구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빼고는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담화표지를 담화 결속 표지로 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1> 담화표지의 기능

담화 구성 요소와의 결속 관계	상위 기능	세부 기능
화자-화제 결속	거시적 결속	화제의 시작, 화제 전환, 화제 복귀, 화제 종결
	미시적 결속	발화 주도권 관리, 발화 수정하기, 발화 경계 표시하기, 시간 벌기, 발화 유지, 초점화하기
	화자의 태도 표현	주장 강화, 주장 약화,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의문의 태도, 감정 표현
화자-청자 결속	화자의 청자 참여 유도	주의 끌기, 생각 유도하기, 이해 확인, 동의 유도, 공감 유도
화자-맥락 결속	사회 문화적 맥락 결속 ⁸³⁾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과 본고에서 논하는 ‘복합형 담화표지’의 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청자의 반응 기능: 듣고 있음을 알리기, 인지 상태 알리기, 공감 여부 알리기, 태도 표현하기, 후속 발화 요구하기
- 화청자의 순서교대 기능: 말차례 시작하기, 말차례 종료하기, 말차례 넘겨주기, 말차례 넘겨받기, 말차례 빼앗기, 말차례 유지하기

83) 이 기능은 사용 맥락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과 관련한 것이다. 즉 사용역(공적, 사적 담화 등)에 적절한 담화표지, 화자와 청자의 관계(친소, 위계 등)에 따른 담화표지 등과 관련한 것이다. 유현경 외(2019: 651)에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 결속 기능’에 대해서 발신자는 수신자와 공유하는 상황적으로 적절한 표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특정 장르의 담화 수사적 구조와 이에 관련된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의사소통력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복합형 담화표지의 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담화표지가 ‘화자-화제 결속’, ‘화자-청자 결속’ 등의 기능하는데 복합형 담화표지는 ‘화자-화제 결속’을 강화하고, ‘화자-화제-청자’를 동시에 결속하여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한다. 즉 개별 담화표지가 결합하여 그 기능이 더 전문화(specialization)⁸⁴되어 효과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5) 가: 야 그래도 마흔 넘었는데 네가 말 짧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나: 그래도
 ㄱ. 가: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그렇 그러다 보면 더 싸우게 되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같아.
 ㄴ. 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그렇 그러다 보면 더 싸우게 되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같아.
 ㄷ. 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그렇 그러다 보면 더 싸우게 되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같아.

위의 예문 (5)의 ‘가’ 화자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즉 ‘아니 뭐’는 화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화자는 발언권을 가지고 오면서 즉 화제를 결속시키면서 화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 태도를 드러내는 복합형 담화표지이다. (5ㄱ)의 복합형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와 (5ㄴ)과 (5ㄷ)의 개별 담화표지만으로 실현될 때를 비교해 보면 (5ㄱ)의 복합형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 자연스럽게 발화의 시작을 드러내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어 화제에 대한 화자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나게 된다⁸⁵.

- (6) ㄱ. 순기능에 대해서 예를 한번만 들어 얘기를 해 볼래요? / **아니 왜**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공일구 선전에 아빠 아빠 그런 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 같은 거 느끼게 해. (박송연 2020:63 예문 인용)
 ㄴ. 순기능에 대해서 예를 한번만 들어 얘기를 해 볼래요? / **아니**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공일구 선전에 아빠 아빠 그런 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 같은 거 느끼게 해.
 ㄷ. 순기능에 대해서 예를 한번만 들어 얘기를 해 볼래요? / **왜**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공일구 선전에 아빠 아빠 그런 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 같은 거 느끼게 해.

(6ㄱ)의 ‘아니 왜’도 말 차례를 가지고 오면서(발화 시작) 즉 화자가 화제와 자신을 결속시키면서 동시에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 즉 ‘화자-화제-청자’ 결속의 기능을 하는 복합형

84) 담화표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나 구절이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의미를 잃어 추상화된 것을 말한다. 문법화에서는 이를 ‘의미의 일반화(generalization)’이라고 한다. 담화표지는 의미 측면에서는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문화(specialization)된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특별’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성하(2016:272)에서는 전문화에 의해 어떤 특정한 문법소가 선택되고, 선택된 문법소들은 점점 더 일반화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85) (5ㄱ)과 같이 복합형 담화표지 ‘아니 뭐’가 아닌 (5ㄴ), (5ㄷ)과 같이 개별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는 주로 ‘뭐’나 ‘아니’ 뒤에 ‘쉽’을 두거나 ‘뭐’나 ‘아니’와 같은 개별 담화표지의 음을 끌어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복합형 담화표지는 발화의 공간을 메워 그 연결이 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표지이다. 이 역시도 (6ㄴ)보다 복합형 담화표지로 실현된 (6ㄱ)이 화자의 의도를 보다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6ㄴ)의 ‘아니’만으로는 발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만 표현이 되고,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 즉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 믿은 정보를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더불어 (6ㄷ)과 같이 ‘왜’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 이는 ‘아니 왜’가 하나의 단위로서의 지위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7) 가: 아휴 내가 그날도 얼마나 그랬는데 아니 이놈의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ㄱ. 나: 근데 뭐~ 늦게 출발했대메. 미미 언니가 다 얘기해 줬어.
 ㄴ. 나: 근데 늦게 출발했대메. 미미 언니가 다 얘기해 줬어.
 ㄷ. 나: 뭐 늦게 출발했대메. 미미 언니가 다 얘기해 줬어.

(7ㄱ)의 ‘근데 뭐’도 자신의 생각(주장)인 화제를 시작하면서 그 화제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우려해 화자는 발화를 약화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복합형 담화표지이다. 즉 화자는 복합형 담화표지 ‘근데 뭐’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임을 드러내는 표지로 사용하면서 그 주장의 강도를 약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합형 담화표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강소영(2014)에서는 복합형 담화표지 ‘아니 근데’, ‘아 근데’가 개별 담화표지와 차이 있는 새로운 담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니 근데’는 ‘화제 일탈, 화제 심화, 시차를 둔 수정 요청’의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고, ‘아 근데’는 ‘화제 심화, 화제 일탈, 시차를 둔 발언권 확보’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차를 둔 수정 요청이나 발언권 확보’는 개별 담화표지인 ‘아니, 아, 근데’의 의미 기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강소영(2014)에서 언급한 복합형 담화표지 ‘아니 근데’와 ‘아 근데’의 새로운 의미 기능에서 ‘시간 차’에 주목할 만하다. 즉 복합형 담화표지는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간 차’를 둔 자기 수정, 화제 복귀, 발언권 확보 등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 (8) A: 현주야, 나 다음 강의 보도 자료 바로 쓰기인데 너는 어떤 자료 쓰니? 왜 예전에 내가 준 내용을 활용하는 거야?
 B: 왜긴! 내가 뭐 보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언니가 자료를 줬으니 쓰고...좋은니 쓰지...나는 새롭게 저 구성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엄써..
 A: 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예전에 내가 준 내용을 활용하는 거야?
 B: 아! why가 아니네ㅋㅋㅋ 첨부 아니 왜라고 했어야지!

(8)의 대화는 필자가 지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카카오톡은 문자로 전달되지만 일상 구어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 대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어에서의 억양 등과 같은 음성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8)에서 A가 담화표지 ‘왜’를 사용해 대화 상대방과 공유된 정보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B는 ‘왜’를 담화표지가 아닌 의문사 ‘왜’로 이해하고 다른 답변을 한 경우이다. A는 다시 복합형 담화표지인 ‘아니 왜’를 써서 그 전 대화를 수정해서 보여 준다. 이때 B는 A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즉 복합형 담화표지인 ‘아니 왜’를 사용해 화자가 화제에 대한 거시적 결속과 미시적 결속을 동시에 꾀하고 있어 담화상에서 ‘화자-화제’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더 전문화되어 복합형 담화표지만의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왜’와 같은 ‘아니 X’ 형 복합형 담화표지의 ‘아니’는 ‘메타 담화표지’라 볼 수 있다. 메타 담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9) ㄱ. 문어 또는 구어 텍스트의 언어적 자료로, 이는 명제적 내용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지만, 독자나 필자가 주어진 정보를 정리, 해석 및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 (Crismore et al. 1993: 40)

ㄴ. 메타담화는 텍스트에서 상호 작용적 의미를 협상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반영적 표현의 표지 용어로, 이는 필자(또는 화자)가 관점을 표현하고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와 소통하는 것을 돕는다. (Hyland 2005:37)

(강민지 2022:13 재인용⁸⁶⁾)

위의 정의를 종합하면 메타담화는 화자나 청자가 의사소통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그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한 언어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메타 담화표지’를 ‘담화표지임을 드러내 주는 표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한 어휘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그 의미를 잃고, 담화 상에서의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위의 예문 (8)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담화표지가 아닌 기본 어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담화표지임을 명시하는 메타 담화표지 ‘아니’와 담화표지 ‘왜’가 결합한 복합형 담화표지인 ‘아니 왜’로 사용하여 화자는 후행하는 것이 담화표지임을 알리고, 복합형 담화표지로 후행 발화에 초점을 두어 효과적으로 의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복합형 담화표지의 기능을 아래의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복합형 담화표지의 기능

기능	구성
‘화자-화제’ 결속 강화	화제의 거시적 결속/미시적 결속 + 화자의 태도
	화제의 미시적 결속 + 화제의 미시적 결속
	화자의 태도 + 화자의 태도
‘화자-화제-청자’ 동시 결속	화제의 거시적/미시적 결속 + 청자 결속
‘담화표지’ 명시	메타 담화표지 + 담화표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자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말 차례를 가져오거나 말 차례를 유지하는 등 화제를 관리하여 발화를 진행하면서 그 화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 자신의 발화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즉 ‘화자-화제 결속’ 기능을 하는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 화자의 복합적인 의도를 청자에게 보다 잘 표현하게 된다.

86) 강민지(2022), 「‘소위’류 메타담화표지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20 참고.

또한 화자가 화제를 관리하여 발화를 진행하면서도 화제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 을 유도한다. 또 발화를 진행하면서도 청자의 주의를 끌거나 청자가 화제에 대해 알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청자의 생각을 유도하여 청자와의 소통을 더 잘하게 된다. 즉 복합형 담 화표지를 사용하여 ‘화자-화제 결속’ 기능과 ‘화자-청자 결속’ 기능이 동시에 일어나 ‘화자-화 제-청자’ 결속이 강화되어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게 된다. 또 더 나아가 ‘메타 담화 표지+담화표지’의 구성으로 ‘담화표지임을 표시해’ 담화상의 결속을 강화하게 된다.

4.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

복합형 담화표지는 그 사용이 활발하여 패턴으로 고정되어 유형화할 수 있다. 개별 담화표 지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자주 사용되면서 사용 패턴이 유형화된 것은 대규모 말뭉치에서 그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 <표1>과 같이 개별 담화표지의 목록⁸⁷⁾을 구성 하고, 대규모 균형 구어 말뭉치인 ‘모두의 말뭉치(일상대화)’를 활용하여 개별 담화표지의 연 어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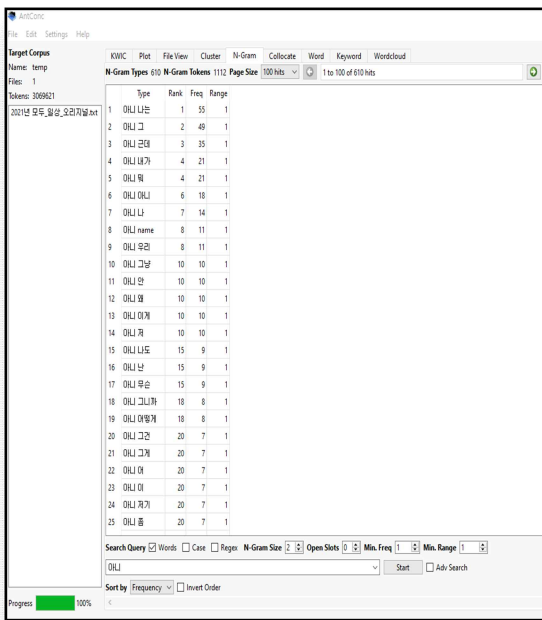
<표3> 담화표지 목록

형태	기원	담화표지
어휘	부사	그래서, 그러니까/근까/그니까, 그런데/근데, 그럼, 이렇게/이케, 저렇게/저케, 하여간, 왜, 이제/인제/인자, 좀, 막, 진짜. 어디, 가만, 아니, 그냥, 하여튼, 정말, 딱, 또
	감탄사	자, 저, 글썄, 네/예, 야, 그래, 아/어/음/에, 참, 아
	대명사	뭐, 저기, 이거/그거/저거, 어디, 이/그/저
	용언	뭐지, 뭐야, 뭐냐면, 뭐랄까, 있잖아, 있지, 말이야/말이지/말입니다/말이에요, 말하자면
	관형사	이/그/저, 이런/그런, 어떤, 무슨
	조사	요, 만은
구절		이런 거, 그런 거, 저런 거, 그래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그건 그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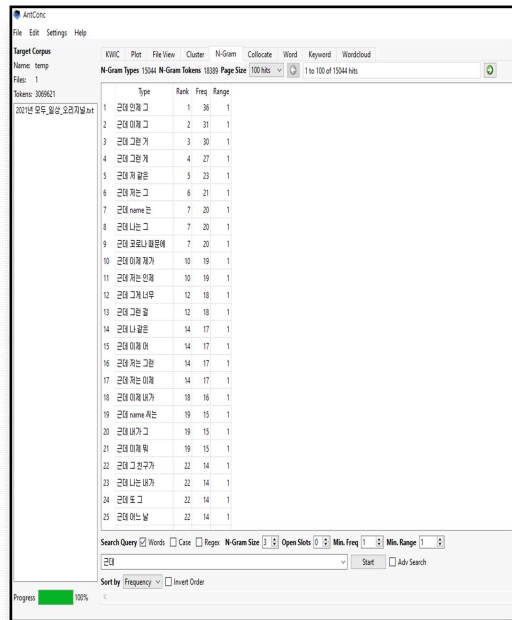
87) 이 글에서 제시한 개별 담화표지의 목록은 전영옥(2002), 송인성(2015)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다. 송인성(2015: 32)에서는 전영옥(2002: 121)에서 기존의 어떤 연구에서보다 많은 담화표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영옥(2002)를 참고하였다고 밝히며 ‘그냥’과 ‘하여튼’을 추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담화표지만을 목록화하였다. 또 부사나 감탄사의 역할이 강한 것은 제외하고,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담화표지를 추가하였다. 즉 송인성(2015)에서 제시한 것에서 ‘그래도, 그러나, 에또, 응, 아뽀싸, 아이고, 아이가, 어머, 오, 얘’ 등등을 제외하였고, 담화표지 ‘또, 진짜’를 목록에 추가하였다.

복합형 담화표지 즉 개별 담화표지의 결합형을 추출하기 위해서 ‘AntConc(4.2.0)’의 ‘N-Grams’ 도구를 활용하였다. ‘N-Grams’은 ‘n’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 덩어리를 말한다. ‘Antcon’의 ‘N-Grams’은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일정한 길이의 어휘 덩어리들을 볼 수 있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개별 담화표지의 결합형을 살펴보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복합형 담화표지는 두 개 이상의 담화표지가 결합하여 긴밀하게 결합한 것이므로, 개별 담화표지를 검색한 후 그 결합형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1>과 같이 ‘N-Gram size’를 늘려 2형, 3형 등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그림1> Antcoc N-Grams 활용



2-Grams 활용



3-Grams 활용

대규모 균형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복합형 담화표지의 사용 패턴이 유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3> 개별 담화표지 목록의 연어를 검색하여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을 추출하여 아래의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4>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

‘부사 기원 담화표지 + X’ 형		
‘아니 X’ 형	2형	아니 그런데/근데,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그니까/근까, 아니 왜, 아니 뭐야, 아니 그래서,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 그, 아니 좀, 아니 그래, 아니 또, 아니 이제, 아니 이렇게, 아니 뭐지, 아니 사실, 아니 막
‘그니까 X’ 형 ⁸⁸⁾	2형	그니까 그, 그러니까 뭐, 그니까 그런, 그니까 이게, 그니까 이런, 그니까 또, 그니까 이렇게, 그니까 아, 그니까 좀, 그니까 이제, 그니까 막, 그니까 음/어, 그니까 그게, 그니까 진짜

	3형	그니까 뭐랄까 좀
‘그래서 X’ 형	2형	그래서 어,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막,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짜, 그래서 참,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왜
	2형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근데 X’ 형	2형	근데 그, 근데 이제, 근데 어, 근데 또, 근데 뭐, 근데 그런, 근데 그런, 근데 이렇게, 근데 진짜, 근데 막, 근데 그게, 근데 이게, 근데 좀, 근데 약간, 근데 일단, 근데 그냥, 근데 참, 근데 있잖아
	3형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뭐, 근데 또 그, 근데 또 이제, 근데 이제 또, 근데 그게 또, 근데 이제 좀
‘왜 X’ 형	2형	왜 이렇게/이게, 왜 그런, 왜 그래, 왜 뭐, 왜 이게, 왜 또, 왜 막, 왜 이제, 왜 그냥
	3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X’ 형	2형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어, 이제 좀, 이제 또, 이제 막, 이제 이,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딱, 이제 근데
	3형	이제 근데 뭐, 이제 근데 막, 이제 근데 또, 이제 뭐 그
‘그냥 X’ 형	2형	그냥 뭐, 그냥 그, 그냥 그런, 그냥 이렇게, 그냥 좀, 그냥 막, 그냥 딱, 그냥 약간, 그냥 또, 그냥 그래서, 그냥 근데
	3형	그냥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 그
‘좀 X’ 형	2형	좀 이렇게/이게, 좀 약간, 좀 그, 좀 이제, 좀 뭐, 좀 뭔가, 좀 그래서
	3형	좀 이렇게 좀
‘막 X’ 형	2형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그런, 막 그렇게, 막 막, 막 이제, 막 좀, 막 진짜,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근데
	3형	막 이게 막
‘또 X’ 형	2형	또 뭐,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이, 또 막, 또 좀, 또 이게, 또 약간, 또 그냥, 또 무슨, 또 근데, 또 왜
	3형	또 뭐 이렇게, 또 그런 또, 또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그, 또 이게 또, 또 그냥 뭐, 또 근데 이제, 또 근데 또
‘진짜 X’ 형	2형	진짜 그, 진짜 뭐, 진짜 막, 진짜 이, 진짜 어, 진짜 그냥, 진짜 딱, 진짜 좀, 진짜 약간, 진짜 무슨, 진짜 근데
‘하여튼 X’ 형	2형	하여튼 뭐, 하여튼 그,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근데, 하여튼 좀, 하여튼 어떤, 하여튼 약간, 하여튼 이제, 하여튼 이런
‘정말 X’ 형	2형	정말 뭐, 정말 이제, 정말 좀
‘약간 X’ 형	2형	약간 좀, 약간 이런, 약간 그,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뭔가, 약간 막, 약간 그래서 뭐, 약간 또, 약간 진짜
	3형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럼 X’ 형	2형	그럼 뭐, 그럼 이제
‘이렇게 X’ 형 ⁸⁹⁾	2형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3형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약간 뭐
‘저렇게 X’ 형	2형	저렇게 그, 저렇게 막, 저렇게 좀, 저렇게 또, 저렇게 뭐
‘어디 X’ 형	2형	어디 뭐, 어디 막
‘감탄사 기원 담화표지 + X’ 형		
‘자 X’ 형	2형	자 그러면, 자 그럼
‘글쎄 X’ 형	2형	글쎄 뭐, 글쎄 그제, 글쎄 이제, 글쎄 그냥, 글쎄 근데, 글쎄 그래, 글쎄 그러니까
‘그래 X’ 형	2형	그래 뭐, 그래 이제, 그래 또, 그래 좀
‘참 X’ 형	2형	참 이, 참 이렇게, 참 좀, 참 뭐, 참 근데
아	2형	아 근데, 아 진짜
‘명사/대명사 기원 담화표지 + X’ 형		
‘사실 X’ 형	2형	사실 그, 사실 뭐, 사실 어, 사실 좀, 사실 그냥, 사실 막, 사실 이제
‘저기 X’ 형	2형	저기 뭐야/뭐지/뭐냐, 저기 그, 저기 뭐, 저기 저, 저기 막, 저기 이제
	3형	저기 뭐야/뭐지/뭐냐 그
‘뭐 X’ 형	2형	뭐 이렇게, 뭐 그, 뭐 어떤,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또, 뭐 좀, 뭐 근데
	3형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뭐 그 이제, 뭐 어떤 뭐, 뭐 어떤, 뭐 그렇게 뭐, 뭐 그렇게 막, 뭐 좀 이렇게, 뭐 좀 이제, 뭐 그냥 뭐, 뭐 이제 뭐, 뭐 이런 뭐, 뭐 또 뭐, 뭐 진짜 뭐
‘용언 기원 담화표지 + X’ 형		
‘뭐지 X’ 형	2형	뭐지 그, 뭐지 어, 뭐지 그거, 뭐지 뭐, 뭐지 그냥 뭐지 약간
‘이런 X’ 형	2형	이런 그, 이런 뭐
‘어떤 X’ 형	2형	어떤 뭐, 어떤 이제
‘무슨 X’ 형	2형	무슨 뭐, 무슨 그, 무슨 어떤
‘그 X’ 형	2형	그 뭐, 그 뭐지, 그 뭐야, 그 뭐냐
‘이 X’ 형	2형	이 그, 이 뭐, 이 좀, 이 이런
‘기타’ 형		
기타	2형	이거 뭐, 뭐랄까 좀, 뭐랄까 그

이상의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은 결합 구성 중 시작 담화표지의 기원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개별 담화표지의 결합 즉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이 많이 분석되었다. 화자는 대화를 하면서 담화표지, 완화표현, 간접화행, 비유, 부연 설명, 어순 변화 등 수없이 많은 발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예정되어 있지 않은 즉각적인 대화에서 다양한 발화 전략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중 담화표지의 결합 즉 복합형 담화표지의 활용은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각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 기능을

88) ‘그니까 X’형에는 ‘그러니까 X’, ‘그니까 X’, ‘근까 X’ 형태를 포함된다. ‘그니까 X’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므로 대표형으로 제시하였다.

89) ‘이렇게 X’형에는 ‘이렇게 X’, ‘이케 X’ 형이 포함된다.

활용하기 쉽고, 담화표지의 형태도 비교적 간결하여 순간의 발화에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요컨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특히 화자의 복합적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화 책략이 필요한데 이때 기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형태가 간결하여 활용이 비교적 쉬운 개별 담화표지의 연결 즉 복합형 담화표지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복합형 담화표지로 발달된 이유에 대해 강소영(2014)에서는 화자의 대화 책략이 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복합형 담화표지의 생성이 촉발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아니 근데’와 ‘아 근데’는 화자가 크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단절성이 강한 화제나 발언권 확보 등의 대화의 급격한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곳에서 자주 실현되는데, 이러한 국면 전환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담화 책략으로 복합형 담화표지가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타당해 보인다. 화자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발화 책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 발화 책략의 하나로 개별 담화표지를 결합한 복합형 담화표지로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강소영(2014)의 논의와 뜻을 같이하면서 ‘국면 전환’과 같은 상황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책략이 강하게 필요할 때 복합형 담화표지가 실현된다고 본다. 즉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만으로는 화자의 복합적인 의도와 태도를 전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복합형 담화표지로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말하기 곤란한 화제로 인해 화자가 부담을 느낄 때, 청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때, 화자가 발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심리·태도를 드러내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등과 같이 복합적인 의도를 발화 순간에 즉각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즉 화자의 발화 책략이 필요한 순간에 그 적절한 도구로서 복합형 담화표지가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담화표지는 담화상에서 독특한 담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담화표지는 그 담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복합형 담화표지는 개별 담화표지의 담화 결속 기능이 강화되므로 그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통해 복합형 담화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화자-화제’ 결속 강화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화제의 전개 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화제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화제와 화제를 거시적으로 결속하는 표지로 사용된다. 또 하나의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발화 주도권을 갖기, 발화 수정하기, 발화를 계속 유지하여 이어가기(발화 공백 메우기, 부연 설명, 심화 등), 발화 내용에 초점을 부여하여 강조하기 등과 같이 하나의 화제 내의 발화들을 결속하여 즉 화제의 미시적 결속 표시로도 사용되고, 화자는 화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한다. 즉 태도 표시로도 사용된다.

화자는 복합형 담화표지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화제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결속과 함께 화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화제를 시작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거시적 결속을 드러내면서 화제를 이어가는 미시적 결속을 드러내기도 하며 화제에 대한 태도를 중복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의도를 담은 화제를 보다 잘 전달하고자 한다.

- (10) ㄱ. A: 추워 어 추워지니까 꺼지던데 애가 알아서
B: 아 진짜?
A: 응. 근데 뭐 난 자료 사진 자료만 안 날라가면 꺼지면 뭐 키면 되니까 난
미니 용량 더 큰 거 나오면 바꾸고 싶다.

- ㄴ. A: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B: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편이 편하다 /이런 건가?
 A: 아니 뭐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 잠시 동안 이제 쓰고 있는 그런 / 근데 마스크가 이게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ㄷ. A: 근데 지금 제가 자격증도 제대로 못 따로 있는데 대학원을 준비하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 그래서 좀 / 네 / 그랬던 것 같아요.
 B: 아 / 아 그러면 어 일단은 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 A: 아니 뭐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 잠시 동안 이제 쓰고 있는 그런 / 근데 마스크가 이게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의 예문 (10ㄱ)의 복합형 담화표지 ‘근데 뭐’는 ‘근데’로 화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도입하면서 화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개별 담화표지 ‘근데’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발화라 볼 수 있지만 화자는 복합형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화제 도입과 함께 화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어 자신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10ㄴ)의 A는 B가 자신이 말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자 복합형 담화표지 ‘아니 뭐’를 사용해 발화를 이어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발화를 약화하여 관계 지향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

(10ㄷ)의 복합형 담화표지 ‘그래서 좀’은 발화를 계속 잇는 담화표지 ‘그래서’와 발화를 완화하는 담화표지 ‘좀’이 결합한 것이다. 이 예또한 담화표지 ‘그래서’로도 발화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색함이 없으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좀’을 결합하여 화제의 진행과 더불어 태도도 드러내어 보다 화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게 된다.

요컨대 복합형 담화표지는 개별 담화표지의 화자-화제 결속 기능 안에 ‘화제의 거시적/미시적 결속’ 기능과 ‘화자의 태도 표현’ 기능을 동시에 드러내어 즉 화자와 화제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 (11) ㄱ. A: 너무 큰 걸 사 가지고 엄마랑 나랑
 B: 안 사실 거 같은데 그런 거 사시네.
 A: 아 근데 아빠가 요새 좀 아파 가지고
- ㄴ. A: 근데 사람이 이제 건강 하려면 이제 또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 근데 그 재미를 느끼려면 사람은 이제 또 /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돼요. / 보통 사람 이제 게임이 쉽고 재미있으니까 쉽게 몰입하는데
- ㄷ. A. 그러기엔 파일럿 한 명 태워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야. / 완벽하게 대체되기 어려운 직종들도 많으니까 / 그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뭐 그런 느낌
 B: 그런 분야에 있어서 난 사실 그거는 좀 필수적인 / 거니까 /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 비행기 / 근데 이제 그 / 오류가 아닌 긴급 상황이 아닌 다른 일에 있어서는 / 뭐 / 그 길을 찾는다는가 / 날씨를 파악한다든가 그런 / 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 사람이 통신하는 것보다 에이아이로 통신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11ㄱ)은 복합형 담화표지 ‘아 근데’가 사용된 예이다. 아버지가 중고로 산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 물건을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즉 화제를 심화하기에 앞서 그 표지로서 ‘아⁹⁰⁾ 근데’를 사용하였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화제에 대한 심화 설명이 필요할 때 ‘아 근데’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화제에 대한 심화를 피하고 있다. 복합형 담화표지 ‘아 근데’를 사용하면 후행 발화에 초점이 부각되어 강조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11ㄴ)의 ‘이제 또’는 발화를 유연하게 연결해 주는 담화표지 ‘이제’와 후행 발화에 다른 내용을 계속 발화하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담화표지 ‘또’가 결합한 것으로 화제의 미시적 결속을 강화한 복합형 담화표지이다.

(11ㄷ)의 복합형 담화표지 ‘근데 이제 그’도 화제 도입, 발화 연결, 시간 별기의 담화표지가 결합된 것으로, 화자가 화제에 대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또 복합형 담화표지 ‘근데 이제 그’의 실현으로 후행 발화의 경계가 지어져 청자는 주의 집중하게 된다.

요컨대 복합형 담화표지는 개별 담화표지의 화자-화제 결속 기능을 중복하여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화제의 거시적 결속 + 미시적 결속’, ‘화제의 미시적 결속 + 미시적 결속’의 기능으로 담화의 결속을 하게 되면 주로 발화 경계가 지어져 후행 발화에 초점이 되어 화자가 주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12) ㄱ. A: 아 막 갈 때 나중에 힘들었거든 사실 휴가 그 제한 당해 가지고

B: 어.

A: 진전으로 막 휴가 나왔을 때

B: 어.

A: 진짜 막

B: 어.

A: 화천에서 청주 갔다가 진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던 말이야.

ㄴ. A: 물론 일적으로 간 거긴 하지만 / 가보니까 좀 / 오 약간 좀 너무 사람이 많고 / 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니까 부담스럽더라고.

B: 많은 사람들이 / 그 광고랑 홍보하러 오지 않아?

(12)는 ‘화자의 태도 표현 + 화자의 태도 표현’의 복합형 담화표지로 화자는 화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어 청자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 등을 전달하고자 한다. (12ㄱ)은 정도의 심함을 드러내는 담화표지 ‘진짜’와 ‘막’을 결합하여 화제에 대해 ‘힘듦’의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고, (12ㄴ)은 발화를 약화하는 담화표지 ‘약간’과 ‘좀’을 결합하여 사람이 많다는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 발화를 약화하는 태도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 대해 겸손의 태도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어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 지향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4.2. ‘화자-화제-청자’ 동시 결속

90) ‘아’는 놀람, 당황, 근심 등의 감정 감탄사에서 비롯된 담화표지이다.

‘화자-청자’ 결속 기능은 화자가 담화에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청자의 생각 유도하기, 이해 확인, 동의나 공감 유도하는 기능을 말한다. 복합형 담화표지는 ‘화자-화제’ 그리고 ‘화자-청자’를 동시에 결속해 담화 결속을 강화한다.

- (13) ㄱ. A: 아니 최근에 우리 그때 팀장님이랑 먹었던 / 어 뭐지 신림에서 먹었던 거 / 그 이름이 뭐냐?
 B: 신림에서 먹었.
 A: 그 왜 맛녀석들에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먹었었잖아아.
- ㄴ. 음악 프로그램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 음악 프로그램을 잘 안 보게 돼서 그리고 그 트로트도 나는 안 가봤거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 하도 주변에서 너무 막 거기에 열광하고 / 집중하고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청개구리 심리 / 남들이 다 하는 거 별로 / 음 / 하고 싶지 않다

(13ㄱ)의 ‘그 왜’는 앞선 발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임을 드러내면서 청자도 알고 있는 정보를 환기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3ㄴ)의 ‘왜 그런 거 있잖아’는 청자의 동의와 공감을 유도하는 복합형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4.3. ‘담화표지’ 명시

메타담화는 화자나 청자가 의사소통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그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한 언어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메타 담화표지’라는 단위를 정의하여 복합형 담화표지의 구성으로 보고자 한다.

- (15) H: 방송 도중에,
 일반인 출연자가 벗어놓은 옷을,
 끝=까지 챙겨줬다,
 K: 진짜,
 오지랄 최고네요.
 Y: 벗은 옷을 좋아하나,
 내 남자로,
 이런 사람 어때요↗
 내 남자로
 I: 글[썰--]
 H: 아니 근데,
 남자 옷이었어요. (강소영 2014: 332 예문 인용)

(15)는 강소영(2014)에서의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강소영(2014)에서는 ‘아니 근데’는 시간의 간격 차를 두고 이전 화제로 복귀, 잘못된 것을 수정 요청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복합형 담화표지로, 이 때의 ‘아니 근데’는 담화표지 ‘아니’나 ‘근데’와는 다른 차이가 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시간 차’를 둔 화제와 관련한 것은 물론 화자는 담화표지임을 드러내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부각하고자 할 때 ‘메타 담화표지 + 담화표지’ 구성의 복합형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A: 지금 쓰는 게 조금 건조한 편이니까 / 그거 쓰면 될 거 같 아니면 헤라도 괜
참아 블랙쿠션

B: 근데 그거는 약간 여름용이라며

A: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 그 건조하니까 / 나는 아 나는 이제 일을 할 때
기름이 끼니까 / 일부러 건조한 걸 써 여름에는 / 근데 겨울에는 이제 촉촉한
걸 쓴단 말이야.

(17) A: 나 넷플릭스 끊었잖아. / 근데 진짜 보고 싶어. / 호랑이 열정 호열이 / 너무
좋아.

B: 아니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 구교환한테 네가 처음에 / 나보다 더 구교환
좋아 했었잖아.

A: 아 맞아 그 / 반도 / 보고 엄청 빠졌었지.

(16)의 ‘아니 그러니까’ 복합형 담화표지도 ‘메타 담화표지 + 담화표지’의 구성으로 보인다. B에게 화제에 대해 보충 설명의 ‘그러니까’를 담화표지로 명시하여 그 기능을 부각한다. (17)의 ‘아니 그래’도 대답의 ‘그래’가 아닌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화자-청자’ 결속의 담화표지 ‘그래’임을 메타 담화표지 ‘아니’가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능별 복합형 담화표지를 아래의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¹⁾.

<표5> 기능별 복합형 담화표지 목록

기능	구성	목록
‘화자-화제’ 결속 강화	화제의 거시적/미시적 결속 + 화자의 태도	아니 뭐, 근데 뭐,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뭐
	화제의 거시적/미시적 결속 + 화제의 미시적 결속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제 또, 그럼 이제, 이제 그
	화자의 태도 + 화자의 태도	약간 좀, 진짜 막
‘화자-화제-청자’ 동시 결속	화제의 거시적/미시적 결속 + 청자 결속	그 왜, 아 그래, 왜 그런, 왜 그래, 왜 또, 그 뭐지, 근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담화표지 결속	메타 담화표지 + 담화표지	아니 그런데/근데, 아니 그러니까/그니까/근까, 아니 왜, 아니 그래서, 아니 그냥, 아니 그래, 아니 또, 아니 사실

91) 앞서 제시한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 전체를 기능별로 분류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그간 개별 담화표지의 연결, 결합을 고려하지 않고 담화표지의 담화 기능을 분석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별 담화표지가 긴밀하게 결합한 것을 ‘복합형 담화표지’로 설정하고 그 유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합형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강소영 (2014) 외에는 전무한 실정하기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복합형 담화표지의 유형 전체를 기능별로 분류하지 못한 점, 복합형 담화표지로 결합되는 개별 담화표지의 특성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문헌>

- 강민지(2022), 「‘소위’ 류 메타담화표지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강소영(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27-56.
- 강소영(2014), 「복합형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아 근데, 아니 근데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313-344.
- 강현화(2017),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한 고찰」, 『의사소통의 다면성과 복합지식』 133-155..
- 구종남(2015), 『국어의 담화표지』. 경진출판.
- 김미선(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35-53
- 김민국(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73-106.
- 김에스더(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113-140.
- 김혜령(2020). 「담화표지 ‘아니’의 의미 분석-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 담화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8, 7-36.
- 남길임, 차지현(2010), 「담화표지 ‘뭐’의 사용 패턴과 기능」, 『한글』 288, 91-119.
- 박송연(2021),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성은실(2019), 「담화표지 ‘뭐’의 기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인성(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심란희(2019), 「한국어 담화표지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안병섭(2007), 「언어 분석 단위로서의 ‘발화’ 설정 방법론 연구」, 『한국학연구』 26, 233-259.
- 안주호(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 21-38.
- 양영하(2002), 「구어 담화에 나타난 ‘쉽’의 기능」 『담화와 인지』 9(2), 79-100.
- 오은화(2020),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동향 분석-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 57-82.
- 유현경 외(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261-287.
- 이성하(2016),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이지용(2019),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 『어문론집』 78, 379-417.
- 이지용(2021), 「자기 객관화 전략으로 사용된 ‘-는 것 같다’의 의미 연구: 자화상 에세이 장르를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5, 229-252.
- 이한규(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6(1), 137-157.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343-366.

- 임규홍(1995), 「담화표지 '뭐냐'와 '있지'에 대하여」 『어문학』, 51-68.
- 임규홍(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1-20.
- 임규홍(1997), 「쉽의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 『한글』 235, 93-126.
- 임규홍(1998), 「국어 '말이야'의 의미와 담화적 기능」, 『담화와 인지』 5(2), 159-179.
- 임규홍(1998), 「부사 '정말' 류의 담화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2, 237-254.
- 임규홍(2001), 「국어 담화의 '끼어들기' 유형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0, 321-352.
- 임규홍(2005), 「국어 담화 표지 '자'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99-121.
- 임규홍(2021). 「명사 '사실'의 부사화와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28(2), 127-147.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 연구』 4, 113-145.
- 전영옥(2003), 「한국어 억양단위 연구: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0(1), 241-265.
- 최지현(2005), 「담화표지 '막'의 기능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홍혜란·박지순(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장르별 메타 담화 표지 연구」, 『국제어문』 84, 국제어문학회, 79-114.
- Aronoff, M. (1987).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Bybee, J. (2006).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Bybee, J.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augott, E. C. (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Motives for language change 124, 139.
-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Vol. 6).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Vol. 6). Oxford University Press.

<토론문> 별지 참조

고전문학 발표

사회자 : 강우규 (강원대)

- 발표 : 남기민(경상국립대) 104
 김삼불본 <옹고집전> 서사 특징에 대한 향유층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쥐 둔갑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토론 : 김준희(서울대) 117

- 발표 : 유암천(경희대) 119
 동주 이민구의 장편 영물시 연구
- 토론 : 김민구(고려대) 136

김삼불본 <옹고집전> 서사 특징에 대한 향유층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쥐 둔갑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남기민⁹²⁾

1. 서론
2. 김삼불본 <옹고집전>의 특징적 서사와 <쥐 둔갑 설화>
3. 김삼불본 <옹고집전>과 <쥐 둔갑 설화>의 향유 의식 : 죄짓지 않은 자에 대한 치죄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4. 결론

1. 서론

<옹고집전>은 비뚤어진 성정을 지닌 옹고집이 도승을 박대하고 그로 인해 도승이 만든 가짜 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지만 이내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장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이다. 19세기 초중엽까지는 <옹고집타령>이라는 이름의 판소리로 불렸으며 판소리로서는 생명력을 잃었지만 그 서사는 남아 독서의 방식으로 향유되었다.⁹³⁾

<옹고집전>에 대한 연구는 1950년에 김삼불 교주 <옹고집전>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삼불 교주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이 발견되어 현재 전하는 이본은 17편 정도이다.⁹⁴⁾ <옹고집전>은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이본의 특성을 밝히거나 이본의 계열을 밝히는 등과 같은 이본 연구⁹⁵⁾, <옹고집타

92)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93) <옹고집타령>은 19세기 중엽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戲)」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옹 생원이 가짜 허수아비와 다투었으며, 부처의 영험이 담긴 부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옹고집전>의 내용과 골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충권은 <옹고집타령>이 19세기 초중엽에는 판소리로 불렸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 이후 누구의 더듬으로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실창 시기를 논한 바 있다. 정충권, 『옹고집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참고.

94) 최혜진, 「<옹고집전>의 이본과 변모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95) 최래옥, 「옹고집전 제문제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1989. 정충권, 『옹고집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김종철, 「<옹고집전> 연구」, 『한국학보』 20-2, 일지사, 1994. 최혜진, 「<옹고집전>의 이본과 변모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강윤정, 「박동진 창본 <옹고집타령> 연구」, 『공연문화연구』 30,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이유경, 「단국대 20장본 <옹고집전>의 특징과 의미」, 『한국학연구』 5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엄태웅, 「<옹고집전> 두 이본의 서로 다른 문제의식」,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령>의 실창 이유⁹⁶⁾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주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⁹⁷⁾ 특히 연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판소리 서사라는 작품의 특성상 근원설화에 대한 연구⁹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많은 연구에서 <옹고집전> 근원설화로 <쥐 둔갑 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진짜 주인이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가 모종의 이유로 자리를 되찾는다는 것이 <옹고집전>의 서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쥐 둔갑 설화>에 속하는 많은 각편에서는 둔갑한 쥐와 진짜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그에 대해 아내에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옹고집전>의 여러 이본 중에서 김삼불 교주본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타나 <쥐 둔갑 설화>와의 높은 서사적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김삼불 교주본 <옹고집전>을 대상으로 하여 <옹고집전>의 대표적인 근원설화로 여겨지는 <쥐 둔갑 설화>와의 관계를 살핀다. 김삼불 교주본 <옹고집전>의 특징적 서사가 <쥐 둔갑 설화>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쥐 둔갑 설화> 각편의 존재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구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서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쥐 둔갑 설화>와 김삼불본 옹고집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쥐 둔갑 설화>에 나타난 향유층의 의식을 통해 김삼불본 <옹고집전>을 바라보는 향유층의 시선과 그 의미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삼불본 <옹고집전>의 특징적 서사와 <쥐 둔갑 설화>

<옹고집전>은 <흥부전>의 놀부와 더불어 판소리계 서사의 대표적인 부정적 인물로 손꼽히는 옹고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다. <옹고집전>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96) 정상진, 「옹고집전의 서민의식과 판소리로서의 실전고」, 『문창어문논집』 23, 문창어문학회, 1986,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판소리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인권환, 「판소리의 실전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서유석, 「『옹고집전』에 나타난 진가쟁주의 숨은 문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97) <옹고집전>이 형제는 같은 서로 다른 두 존재의 진가(眞假)를 가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자아와 정체성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희,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 정체성 탐구 및 고전서사의 역할」,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이윤희, 「<옹고집전>의 타자화 기법과 인물의 정체성 확립」, 『어문연구』 114, 어문연구학회, 2022, 조현우, 「『옹고집전』과 ‘자아 동일성’ 문제」,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박윤선, 「<옹고집전>에 나타난 개인의 형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서유석, 「『옹고집전』에 나타난 진가쟁주의 숨은 문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또한 <옹고집전>이 생성된 조선후기 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결부시켜 작품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핀 논의도 있다. 신호림,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공존의 인간학』 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98) 김동욱, 「판소리 발생고(二)」, 『서울대학교 논문집』 3, 서울대학교, 1956, 281~282쪽, 장덕순, 「說話의 소설化: 雍固執傳과 裴裨將傳을 中心으로」, 『동아문화』 7,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7, 김현룡, 「『雍固執傳』의 根源說話 研究」,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최래옥, 「옹고집전의 제문제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9, 21~22쪽, 정인한, 「옹고집전의 설화 연구」, 『문화와 융합』 1,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0, 인권환, 「옹고집전의 불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김승호, 「진허가허를 통해 본 옹고집전의 형성과 서사미학」, 『국제어문』 63, 국제어문학회, 2014, 김영호, 「<옹고집전>의 근원설화 재고」, 『동양학』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이완형, 「『옹고집』설화의 정착과 주요 기제의 판소리적 수용」,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번째는 학승 모티프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학승 모티프에 더해 노모 박대가 첨가된 유형이며 마지막은 두 번째 유형에 장모 박대와 아내 출거까지 더해진 모습이다.⁹⁹⁾ 김삼불본 <옹고집전>은 승려 박대와 노모 박대가 포함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¹⁰⁰⁾

1.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 살았는데 그는 심술과 고집이 대단한 인물이다.
2. 노모가 처지를 한탄하지만 옹고집은 노모를 박대한다.
3. 월출봉 도사의 명을 받은 학대사가 방문하고 시주를 요청하지만 옹고집이 박대한다.
4. 제승(諸僧)이 옹고집 징치를 논의한다.
5. 학대사가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이하 가옹)¹⁰¹⁾을 만들어 옹가로 보낸다.
6. 옹고집 아내가 춘단어미에게 진짜 옹고집(이하 진옹)과 가옹을 가려낼 것을 명하나 실패한다.
7. 옹고집 아내가 며느리에게 진옹과 가옹을 가려낼 것을 명하나 실패한다.
8. 옹고집 아내가 진옹과 가옹을 가려내고자 하나 실패한다.
9. 관가에 송사하여 진옹과 가옹을 가려내고자 한다.
10. 가옹이 호적과 세간을 세세히 고하여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받는다.
11. 진옹이 쫓겨난 후 개과한다.
12. 가옹이 득송하고 집에 돌아온다.
13. 가옹이 옹고집의 아내와 동침하고 옹고집 아내는 허수아비 자식들을 낳는다.
14. 진옹이 죽고 싶은 마음에 산에 들어가 울고 있는데 도사가 나타난다.
15. 도사에게 애걸하니 도사가 부적을 써준다.
16. 진옹이 집에 돌아오자 가옹이 허수아비가 되고 그 자식들도 허수아비로 변한다.
17. 옹고집이 아내를 타박한다.
18. 옹고집이 개과천선한다.

김삼불이 교주본 <옹고집전>을 출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옹고집전>이 연구되었다는 측면에서 김삼불 교주본 <옹고집전>(이하 김삼불본)은 <옹고집전> 연구에서 유의미한 위상을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사적 측면에서도 여타 이본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적인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가옹과 옹고집 아내가 동침을 하고 그로 인해 옹고집 아내가 가옹의 아이들을 낳는 것, 진옹이 돌아와 아내를 책망하는 것¹⁰²⁾ 등이다. 그리고 이 가옹의 아이들은 진옹이 나타나고 가옹이 허수아비로 변화함과 동시에 허수아비가 된다.

99) 연구자에 따라 이본의 계열을 나누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최래옥은 10편의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장모구걸 장면의 유무로 나누었고, 정충권 역시 장모의 등장과 아내의 소박 장면 유무로 나누면서 이러한 화소가 옹고집의 악행을 더욱 강조한다고 하였다. 김종철은 11편의 이본을 대상으로 노모나 장모에 대한 옹고집의 구박이 없고 옹고집의 학승과 그에 대한 징치가 주내용을 이루는 것을 (가)군, (가)군에 모(부)친에의 한탄과 옹고집의 구박이 더해진 이본을 (나)군, (나)군에 장모 박대와 부인 축출이 더해진 이본을 (다)군으로 그 계열을 분류하였다. 최혜진은 김종철의 분류와 같이 하며 이전에 논의되었던 자료에 새롭게 발견된 자료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이본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학승 모티프만 나타나는 경우, 학승+노모 박대가 나타나는 경우, 학승+노모 박대+장모 박대+부인 축출까지 나타나는 경우로 나눈 김종철, 최혜진의 분류를 따른다.

100) <옹고집전>(김삼불 교주본), 서유석, 김선현, 최혜진, 이문성, 이유경,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서, 2013, 47~64쪽. 앞으로의 원문은 이것을 인용하고, 책의 쪽수를 기입한다.

101) 원문에서는 ‘헛옹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가옹’으로 표기한다.

102) 나손 김동욱 24장본 <옹좌슈전이라>에 진짜 옹고집이 가짜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내를 편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만 가짜 옹고집과의 옹고집 아내의 동침 장면이나 자식을 낳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야기에서는 이 장면이 “헛옹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애비 되니 가중제인이 박장대소 하더라.”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술에 대해 실제 향유자들이 낄낄거리며 즐긴 상황이 소설 속에 투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¹⁰³⁾ 그러나 서사의 초점을 개과천선에 따른 진옹의 귀가로 모으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박탈감, 자괴감, 당혹스러움 등을 강조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¹⁰⁴⁾ 이글에서 역시 이 같은 일이 과연 좌중의 박장대소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앞선 서사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장면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건의 비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질기다가 잠간 잠을 들어 한꿈을 얻어니 하늘에서 허수애비 무수히 떠러져 뵈이거늘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헛옹가다려 몽사를 이르니 허옹가 하는 말이 그러할시 분명하면 아매도 잉태(孕胎)할 듯하나 꿈과 같을진댄 떼허수애비 낳을 듯하네 그러하나 내두를 보리라 이러구러 십삭(十朔)이 차매 실옹가 안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어 해태하는대 진양성중 가가조에 개고리 해산하듯 도야지 새끼 낳듯 무수히 떠날는대 하나 둘 셋 넷 부지기수로다 이렇듯기 해산하니 모든 배 처음이요 듣는 배 처음이라 실옹가 마노래 좋아라고 부지기고(不知其苦)하고 길러내더라.¹⁰⁵⁾

위는 가옹과 옹고집 아내가 동침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다. 허수아버가 무수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 옹고집 아내가 가옹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가옹이 ‘떼허수아버를 낳을 꿈’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거나 옹고집 아내가 해산하는 장면에서 ‘개구리 해산하듯, 돼지 새끼 낳듯 무수히 떠날는대’고 묘사하는 등 이미 옹고집 아내가 낳을 아이들이 인간이 아닐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 속 옹고집 아내는 자신과 동침을 한 사내가 가짜 옹고집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자신은 가려내지 못했지만 지엄한 관가에서 득송(得訟)하여 진짜 옹고집이라고 인정받은 남편이었기에 그 존재의 진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옹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존재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비정상적인 해산이었지만 옹고집 아내는 자신이 열 달을 품어 낳은 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어려움조차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길러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낳고 기른 아이들은 도승의 부적을 받은 진짜 옹고집이 집에 돌아오자 가옹과 마찬가지로 허수아버로 변해버린다.

옹고집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였다고 했을 때 가옹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옹고집 노릇을 하며 가장이자 남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남편으로 여겼던 사람이 허수아버가 화한 가짜였다는 사실과, 동침의 결과로 낳아 애지중지 기른 아이들이 허수아버로 변해버린 상황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인데 이에 더해 옹고집의 아내는 이 일로 ‘가중제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리고 뒤이어 가정으로 복귀한 진짜 남편으로부터 조롱까지 당한다.

옹고집 아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장면이 <쥐 둔갑 설화>에도 나타나 있다. <쥐 둔갑 설

103) 유광수는 양반가의 부인인 옹고집 처가 격하되는 과정을 향유자들이 낄낄거리며 즐겼으며 그러한 구연적 상황이 소설 속에 투영되었다고 보았다.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136~138쪽.

104) 최기숙, 「‘둔갑’의 생리, 그 욕망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394~395쪽.

105) <옹고집전>(김삼불 교주본), 61~62쪽.

화>106)는 쥐가 남편/아버지/아들로 둔갑하여 진짜 남편/아버지/아들을 내쫓고 그를 대체하여 살다가 진짜 남편/아버지/아들이 가짜를 퇴치할 수단(주로 고양이)을 얻어 집에 돌아오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짜 남편/아버지/아들이 다시 제자리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로107) <쥐 둔갑 설화>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8)

106) 이 글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 실려 있는 <쥐 둔갑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쥐 둔갑 설화>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설화로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계』만을 자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계』에 실린 이야기가 적은 수가 아니므로 일단 논의를 진행한 차후 다른 자료들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107) <쥐 둔갑 설화>의 하나인 <개과천선한 부자>는 주인공이 옹고집과 같이 성정이 나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도승을 박대하는 장면, 도승이 도술을 부려 가짜 고대감을 만드는 장면 등이 있어 <옹고집전>과의 유사성을 보이며 <옹고집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동지 이야기>, <구두쇠 옹좌수> 등이 <쥐 둔갑 설화>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사구조가 유사하나 '쥐'가 스스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에 의해 허수아비, 삼마 등이 둔갑 대상으로 변하므로 '쥐' 둔갑 설화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어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특히 <구두쇠 옹좌수>는 제목부터 <옹고집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난다.

108) 이 글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 실려 있는 <쥐 둔갑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각편에 나타난 향유층의 의식을 살핀다. <쥐 둔갑 설화>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광포설화라는 측면에서 『대계』만을 자료로 삼는 것은 연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계』에 실린 각편도 적지 않으므로 일단 의미를 도출한 이후 다른 자료들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핀 이야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연자의 나이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웹사이트(<https://gubi.aks.ac.kr/>)를 통해 확인한 자료이다. 김삼불본의 특징적인 서사인 '아내를 향한 비난', '자식 낳기' 화소 유무를 정리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순서	제목	대계	구연자	아내를 향한 비난 여부	자식 낳기 화소 유무
1	쥐 좃도 모른다	4-6	이정순(남, 80)	0	X
2	가짜 신랑 노릇한 쥐	4-3	유중순(남, 69)	0	X
3	쥐 좃도 모른다의 유래	3-2	안승국(남, 72)	0	X
4	주인 영감으로 둔갑한 쥐	7-8	김석이(여, 64)	0	X
5	쥐 좃도 모르나	6-11	정재철(남, 73)	0	X
6	쥐 빨도 모른다	1-4	이향훈(남, 71)	0	X
7	쥐 좃도 모르는가	7-18	윤만세(남, 83)	0	X
8	홍대감으로 변한 쥐	8-6	황천석(남, 64)	0	X
9	개과천선한 부자	5-5	오진택(남, 62)	0	X
10	사람이 된 쥐	9-3	이화옥(여, 80)	0	X
11	쥐 좃도 몰랐나		유복동(여)	0	X
12	쥐 좃도 모른다		안수선(여)	0	X
13	쥐 좃도 모른다		허춘남(여)	0	X
14	쥐 좃도 모르는 소리		장한종(남)	0	X
15	쥐 좃도 모르는 사람		엄순환(여)	0	X
16	쥐 좃도 모르나		변정구(남)	0	X
17	사람으로 변한 오래 묵은 쥐		봉수길(남)	0	X
18	쥐의 변신		오영석(남)	0	X
19	영감 진가 소동		김봉열(여)	0	X
20	쥐 좃도 모른다는 말의 유래		진성진(남)	0	X
21	천년된 쥐의 변신	8-14	정삼순(여, 74)	0	X
22	쥐 좃도 모르느냐	3-1	정규홍(남, 76)	0	0
23	가짜 주인노릇한 쥐	2-6	권영복(남, 79)	0	0
24	신랑으로 도습한 쥐	3-4	전형태(남, 72)	X	0
25	진짜신랑 가짜신랑	5-1	진순남(여, 68)	X	0
26	사람으로 변한 쥐	5-4	정재선(여, 71)	X	0
27	둔갑한 쥐(2)	6-5	정정순(여, 66)	X	0
28	사람으로 변한 쥐	7-6	고난이(여, 53)	X	0
29	변신한 쥐에 쫓긴 사내		오금종(남)	X	0
30	둔갑한 쥐의 퇴치(1)		장광태(남)	X	0
31	가짜 아들 소동	2-9	김진홍(남, 58)	X	X

1. 쥐가 손톱, 발톱을 먹거나 쥐에게 밥을 먹임
2. 쥐가 남편/아버지/아들로 둔갑함
3. 남편/아버지/아들이 글공부/변소/혼례 등의 이유로 이동함
4. 남편/아버지/아들이 부재한 사이 쥐가 남편/아버지/아들로 변해 집에 옴
5. 진짜 남편/아버지/아들이 쫓겨나고 쥐가 그 자리를 대체함
6. 진짜 남편/아버지/아들이 고양이를 데려와 쥐를 쫓아내거나 죽이고 자리를 되찾음

<쥐 둔갑 설화>는 진가쟁주의 모티프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옹고집전>과의 관련성 속에 논의되어왔다.¹⁰⁹⁾ <쥐 둔갑 설화> 대부분의 이야기가 위와 같은 전개를 보이는데 6의 결말부에서 ‘쥐쫓도 모른다’는 말이 나타나는 각편의 경우 특히 김삼불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 쥐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쥐가 둔갑한 인물의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난이라는 측면에서 김삼불본에 나타나는 옹고집의 아내를 향한 옹고집의 조롱이 겹쳐 보이는 것이다.

‘쥐쫓도 모른다’는 비난 혹은 조롱은 내쫓겼던 남편의 입을 통해 직접 아내에게 가해지기도 하고 시부모에게서 나오기도 한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자식이나 며느리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쥐쫓’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발설되지는 않고 ‘쥐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는 식으로 우회하여 표현된다.¹¹⁰⁾ 비난의 주체는 각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비난의 대상은 쥐가 둔갑한 인물의 아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옹고집 아내가 비난의 대상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과 동일하다. 또한 몇몇의 각편에서는 김삼불본의 특징적 서사인 가짜 남편과 동침하여 자식 낳는 서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옹고집전>의 주요 모티프인 진가쟁주와 더불어 가짜 남편과 동침한 아내에게 비난과 조롱이 가해지거나, 아내가 가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등 서사의 유사성을 살폈을 때 <쥐 둔갑 설화>와 김삼불본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삼불본과 <쥐 둔갑 설화>에서 아내가 마주한 현실은 마치 ‘벌’과 같다. 대부분의 옛이야기

32	손톱 먹고 변신한 쥐	4-5	홍길현(남, 66)	X	X
33	쥐가 도습한 신랑의 퇴치	3-2	정진현(남, 63)	X	X
34	가짜 신랑노릇 한 쥐	2-7	진병두(남, 79)	X	X
35	영감으로 둔갑한 쥐(1)	7-13	김용기(여, 79)	X	X
36	둔갑한 쥐의 퇴치	5-4	이창래(남, 78)	X	X
37	개과천선한 사람	6-3	박태지(남, 74)	X	X
38	둔갑한 쥐(1)	6-5	김중춘(여, 95)	X	X
39	쥐 쫓도 모른다	1-7	윤태선(남, 62)	X	X
40	영감으로 둔갑한 쥐		진능선(여)	X	X
41	쥐 쫓도 모르는 여자		최분례(여)	X	X
42	쥐가 둔갑한 가짜주인		백옥련화(여)	X	X
43	둔갑한 쥐의 퇴치(2)		문삼종(남)	X	X

109) <쥐 둔갑 설화>와 <옹고집전>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장덕순, 「說話의 小說化 : 雍固執傳과 裴裨將傳을 中心으로」, 『동아문화』 7,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7, 최래옥, 「옹고집전의 제문제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9, 21~22쪽,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강미정, 「<쥐쫓도 모른다>의 서사적 특성과 그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7,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박진아, 「진가쟁인구조의 양상과 그 역할 연구」, 『어문론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이완형, 「“옹고집” 설화의 정착과 주요 기제의 판소리적 수용」,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110) 어머니에게 자식이 직접 ‘쥐쫓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이 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법적, 사회적 형벌이든, 초자연적인 천벌이든 벌을 받는 대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러한 양상은 판소리계 서사에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옹고집이 가족과 재산을 잃는 벌을 받는 것은 노모를 박대하고 탁발승을 박대하는 자신이 가진 윤리적 결함 때문이다. 이는 <흥부전>의 놀부도 마찬가지이다. 놀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독차지하고 흥부를 집에서 내쫓으며 마을의 한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갓난아이, 늙은이, 임산부, 굶사 등이 등 약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등 향촌공동체 속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악행을 일삼는다.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을 패 뺄감으로 쓴 죄로 장승 죽음을 당하는 변강쇠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만 배를 채우겠다고 콩을 집어 먹은 장끼도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놀부의 아내는 놀부와 함께 징치의 대상이 되는데 그는 놀부와 동일하게 부정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남편과 함께 벌을 받는 것이 개연성 있게 느껴지며 이러한 결과는 독자 혹은 청중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하지만 서사에서 옹고집의 아내는 전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으며, 이는 <쥐 둔갑 설화> 속 아내도 마찬가지이다.¹¹¹⁾

특히 옹고집의 집안에 이러한 소동이 발생한 것은 옹고집이 저지른 그간의 악행 때문이므로 옹고집에게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할 일이다. 옹고집이 가정에서 가부장이라는 위치, 사회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것은 분명 한 인간에게 큰 문제이나 이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정으로 인한 인과응보라는 명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옹고집은 갖은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면서도 팔십 노모를 냉돌방에 거처하게 하고 ‘오래 살아 무엇하느냐’, ‘오래 살아 쓸 데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또한 옹고집은 ‘풍년(豊年)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풍년이 들면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모든 이들이 바라는 것이 그 해의 풍년 이조차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옹고집이 자신 외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며 심사가 뒤틀려 있는 인물임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옹고집은 징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사에서는 옹고집과 더불어 아내 역시 천벌에 가까운 일들을 겪는다. 옹고집의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아닌 이와 동침까지 하여 아이를 낳은 부정한 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방금 전까지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던 아이들은 생명력이 없는 짚으로 변해버리고 이러한 사실이 남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폭로된다. 이러한 상황은 옹고집 아내에 대한 사회적 인격의 박탈과도 다름없다. 옹고집의 징치는 일 년여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 아내가 겪을 상황은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치에 어긋나며 일의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옹고집 아내가 마주한 상황은 일반적인 사고와 부합하지 않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는 수용자층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김삼불본 <옹고집전>과 <쥐 둔갑 설화>의 향유 의식 : 죄짓지 않은 자에 대한 치죄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김삼불본의 옹고집 아내와 마찬가지로 <쥐 둔갑 설화>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남편으로 둔갑한 쥐와 동침하고, 그로 인해 쥐의 새끼를 갖게 되는 사건을 과연 아내의 잘못으로 볼 수

111) 일단 <쥐 둔갑 설화>에서 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각편에서 쥐가 둔갑을 하게 되는 이유에 아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기로 한다.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쥐가 둔갑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쥐가 둔갑하고 나타나거나 오래 묵은 쥐가 변신을 하는 등 쥐가 둔갑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20편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남자의 손발톱을 먹고 변하거나, 남자의 소유물을 가지는 경우, 남자가 밥을 준 경우, 남자의 세숫물을 마신 경우 등 둔갑한 본인의 행위로 인해 쥐가 그 사람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5편으로 나타나 쥐가 둔갑하는 원인이 둔갑의 대상에게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쥐가 둔갑을 하는 이유에 아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각편도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대체로 여자가 부엌에서 쥐에게 쌀 혹은 밥을 제공한 것이 쥐가 둔갑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물에게 베푼 선한 마음이 집안의 가장이 돌이 되어버리는 기괴한 해프닝을 일으킨 빌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각편은 8편에 불과하여 <쥐 둔갑 설화>에서 쥐가 남편으로 둔갑한 것을 아내의 잘못과 반드시 연관 짓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 유형의 이야기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이야기로 향유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쥐 좇도 모른다의 유래>나 <신랑으로 도습한 쥐>의 경우 ‘쥐좇도 모른다’는 말이나 쥐와 아내가 동침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 구연자 혹은 청중이 구연 도중 웃는 모습이 포착된다. 또한 청중들이 성적 이야기를 유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¹¹²⁾ 때문에 <쥐 둔갑 설화>를 진가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환상의 낱낱거림’과 관련이 있다거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¹¹³⁾ 쥐와 인간이 동침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상상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고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저 웃고 즐기고자 한 이야기이고 모든 향유자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면 ‘쥐좇도 모른다’는 말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서사가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 가장 웃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각편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단순히 성적 농담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된 것은 아니며, 이야기를 하는 구연자에 따라 여러 표현을 첨삭하며 각색하고 있어 각편에 따라 많은 변주를 보인다.¹¹⁴⁾ 그리고 이러한 각편들에서는 해괴한 일을 행한(당한) 아내를 비난의 목소리들로부터 숨겨주고 지켜주는 장치들이 나타나기도 한다.¹¹⁵⁾

<쥐 둔갑 설화> 중 아내를 향한 비난이 없는 이야기가 절반에 이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원망을 아내가 아니라 부모에게 따져 묻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쥐좇도 모른다>의 경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

112) <신랑으로 도습한 쥐>에서 아내와 쥐가 삼 년 살았다는 구연자의 말에 청중이 “그 부인은 만날 쥐하고 잤겠네.”라고 하자 구연자가 “그렇지.”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청중이 모두 웃는다. 이 각편에는 아내가 쥐와 동침한 후 쥐새끼를 낳는데, 이 장면에서 또한 구연자와 청중 모두 웃는 모습이 확인된다.

113)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128쪽.

114) 이야기의 연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행자, 조사자, 청중, 이야기가 연행되는 현장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 다양하며 각각의 요소들은 또다시 세부적 특성에 따라 이야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연행자는 성별, 지위, 경험 등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구연할 수 있다. 김영희,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민속원, 2013, 28쪽.

115) 최기숙은 <쥐 둔갑 설화>에 가족 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아내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시선이 투영되었다고 보고, 결말에서도 균열을 초래한 둔갑 주체를 처벌하고 진짜 남편을 몰라본 아내를 조롱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내에게 잘못을 묻지 않거나 구연자가 아내의 상황을 두둔하는 각편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기숙, 「‘둔갑’의 생리, 그 욕망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383~384쪽, 참고.

이 우선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며느리에게 다시 “그래 쥐쫓도 몰랐단 말이나?”라고 며느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쥐가 도습한 신랑의 퇴치>에서는 두 명의 신랑이 나타나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신부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쥐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아 와 진짜 신랑을 찾아내어 신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각되기도 한다. <쥐쫓도 모르는 여자>에서는 구연자가 쥐가 죽는 장면을 이야기한 후에 “쥐쫓을 몰르고 살은 거여, 여자는. 둔갑을 했은께, 사람이루 둔갑을 했은께, 알 수가 있어?”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내가 둔갑한 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한 것에 대해 구연자가 ‘둔갑을 했으므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 비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쥐쫓도 모르는가>에서는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한 품에 자면서 쥐 쫓도 몰랐느냐고 타박하자 어머니가 ‘야야, 내가 쥐쫓을 어예 아노?’라고 하며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에게 되묻는다. 이 각편에서는 아들네가 아버지를 쫓아놓고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에서 구연자가 “이놈들이 어데 가 한탄할 데가 있나? 어마이한테 백에는 한탄할 데가 없어.”, “이래 어마이한테, 한탄을 할 데 없는데 어마이한테 한탄을 실컷 하다가”, “어마이한테밖에 한탄할 데가 없그던”과 같이 말하는 사이사이 ‘어머니한테밖에 한탄을 할 데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한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원망을 받아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여 ‘쥐 쫓도 몰랐느냐’는 비난의 말이 자식의 입을 통해 퍼부어짐에도 어머니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아들들의 잘못을 품어주는 품이 넓은 어머니로 그려지게 된다.

<쥐 둔갑 설화> 각편 중에는 김삼불본의 특징적인 화소와 매우 유사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각편이 있어 살펴 만하다. 아내가 가짜 남편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장면이 포함된 각편으로 9편이 확인된다. 아내가 남편으로 둔갑한 쥐와 동침을 한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쥐새끼까지 낳았으니 훨씬 자극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며 아내에 대한 비난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설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내가 쥐새끼를 낳는 장면이 포함된 각편 중 아내에 대한 비난이 확인되는 각편은 2편에 불과하다. 그 외 각편에서는 아내가 아닌 부모를 원망하거나¹¹⁶⁾, 짐승에게 옷밥을 안 주는 이유¹¹⁷⁾ 혹은 손톱 발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¹¹⁸⁾라는 경계의 말로 끝맺고 있어 이야기의 초점이 아내에 대한 격하와 비웃음에서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아내가 낳은 쥐를 죽이거나 버린 후 다시 돌아온 남편과 아이도 낳고 잘 산다는 결말로 끝맺거나¹¹⁹⁾, 아내가 쥐를 낳은 일이 인력이 아니라 지변이었다는 구연자의 변호와 함께 사건이 끝난 후에도 아내가 남편과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남편이 벼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기도 한다.¹²⁰⁾

앞서 확인하였듯이 <쥐 둔갑 설화>의 각편에서 아내를 두둔하거나 비난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크게는 서사적 내적 측면과 구연자의 부가적인 연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사 내적 측면에서는 아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거

116) <둔갑한 쥐의 퇴치(1)>, <진짜 신랑 가짜 신랑>

117) <사람으로 변한 쥐>

118) <신랑으로 도습한 쥐>, <진짜 신랑 가짜 신랑>

119) <사람으로 변한 쥐>에서는 쥐와 동침한 아내가 쥐새끼를 낳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쥐를 버릴 뿐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는 하지 않으며, 시어머니가 고양이를 데려와 아들로 둔갑한 쥐를 잡는다. 이후 신랑이 돌아오자 아내는 부끄러운 마음에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시부모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며느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 이야기에서는 “그냥 살았다. 잘 살았대야 사람도 낳고.”라고 하며 아내가 사건 이후에도 잘 살았으며,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며 아내에게 행복한 결말을 선사한다.

120) <변신한 쥐에 쫓긴 사내>

나, 아내가 주도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내가 돌아온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맺는 것 등이 있다. 또 이야기의 초점을 아내의 행위에 맞추기보다는 손톱 발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짐승에게 옷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행동의 금기’에 맞추거나, 일어난 일이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거나, 둔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알 방법이 없었다거나, 자식에게는 어머니만이 한탄의 대상이므로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나타난 다거나 하는 구연자의 언술을 통해서도 아내를 옹호하고자 하는 향유층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내를 감싸주는 서술들이 이야기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향유층이 이 이야기를 수용할 때 가졌던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 잘못 없이 가족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쥐새끼를 낳게 되는 등 서사 속 인물이 겪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아내의 상황에 대해 가엽게 여기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이야기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에 균열을 몰고 온 그 사건으로부터 아내가 부당하게 비난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고 있는 것이다.¹²¹⁾

이러한 시각은 김삼불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옹고집전> 이본에서 옹고집 아내가 허수아비와 동침하고, 허수아비 자식들을 낳는 서사는 김삼불본에만 나타나는 것이며, 다른 이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음을 살핀 바 있다. 학승 모티프만 나타나는 유형이나 학승 모티프에 노모·장모 박대와 부인 축출까지 더해진 유형에서는 아내를 향한 옹고집의 조롱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부인 축출이 일어나는 이본에서는 옹고집의 아내가 서사 초반에 이미 집에서 출거를 당하고 결말 부분에 옹고집의 개과천선과 함께 집으로 복귀하므로 아내와 허옹이 마주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아내에 대한 비난이 투입할 만한 여지가 없다.

좌수 부인다려 하는 말이 마노래 그새 허수애비 자식을 저렇듯이 무수히 낳었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열매나 좋와하였는가 한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얼척 없어 묵묵부답하고 방안에 돌아다니며 헛옹가의 자식 살펴 보니 이 보아도 허수애비 저 보아도 허수애비 아모리 보아도 허수애비 떼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김삼불본, 63~64쪽)

옹고집이 아내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놈’으로 지칭되는 허수아비와 즐겼다는 것에 있다. 즉 다른 남자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즐겼다는 것이 옹고집의 분노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거나 아이를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에서 큰 벌로 다스리는 죄였다.¹²²⁾ 하지만 옹고집 아내는 허수아비를 ‘다른 남

121) 이러한 양상이 여성 구연자의 이야기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신부가 점쟁이를 찾아가 진짜 신랑을 구별할 방법을 알아 오는 <쥐가 도습한 신랑의 퇴치>, 자식의 잘못을 어머니가 품어주는 것처럼 표현한 <쥐족도 모르는가>, 아내가 쥐를 낳은 일이 지변이었다고 표현한 <변신한 쥐에 쫓긴 사내> 등은 남성 구연자에 의해 채록된 것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남성들 또한 죄없는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불편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122) 『대명률』직해 제6권 호율에는 “부인은 한 남편을 끝까지 좇아야 하는데 남편을 저버리는 것은 의리가 아니며, 남편을 저버리고 도망가서 멋대로 개가하는 것은 정리상 더욱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면 장 100이다(至若婦人從一而終 背夫已非其義 因逃而輒自改嫁 於情尤爲過甚 故夫在而妻背夫逃去者 杖一百).”와 같은 조항이 있고, 제1권 명례율에는 명분과 교화를 현저하게 위배한다고 판단되는 죄를 10개의 범주로 묶어 십악(十惡)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마지막 내란(內亂)에 부인이 남자와 화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혼인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중대한 죄로 보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벌이 무거웠음을 확인할 수

자'로 여기고 자신의 의지로 행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철저히 옹고집의 시각이며 아내의 행위를 잘못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은근슬쩍 덮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¹²³⁾ 그렇기 때문에 옹고집의 조롱은 전체 서사의 흐름 속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 '가짜 옹고집 등장 사건'은 바로 옹고집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대 향유층 또한 서사의 이러한 부조리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¹²⁴⁾

분명 옹고집 아내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고난은 불합리한 것이다. 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옳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랐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즐겨왔다. 그렇기에 많은 이야기들에서 '권선징악'은 공식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고 자신들 또한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 의식 속에서 죄없이 벌 받는 옹고집 아내의 모습은 받아들이기 거북한 것이었고, 특히 아내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든 옹고집이 아내에게 부리는 횡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다시 말해 옹고집 아내가 옹고집으로 둔갑한 허수아비에게 속아 그와 관계를 갖고 그 사이에서 허수아비 자식들을 낳는 김삼불본의 장면이 유희의 측면에서 읽혀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주었다면 이러한 화소가 고정 화소로 자리 잡고 더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후대 이본까지 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활발한 전이 없이 다른 화소들로 대체되거나 적극적으로 향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없는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것이 징벌과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내용이 당대 향유층에게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다는 방증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편함이 결국 서사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김삼불 교주본 <옹고집전>의 근원설화로 여겨지는 <쥐 둔갑 설화>의 각편들을 정치하게 살핌으로써 그 속에 담겨 있는 향유층의 의식을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해 김삼불본 <옹고집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화소들이 활발하게 전승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나 다른 서사들로 대체되었던 이유를 죄짓지 않은 자에 대한 치죄를 바라보는 불편함에 기인한 것으로 해

있다. 한국고전종합DB, 『대명률직해』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2&cate1=Z&cate2=&dataGubun=%EC%84%9C%EC%A7%80&dataId=ITKC_BT_1461A)

123) 집에 돌아와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옹고집이 부인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는 장면을 두고 옹고집이 개과천선했다는 서사적 맥락과 일치하지 않으며, 도덕 체계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가중시키는 젠더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최기숙의 논의도 살펴볼 만하다. 최기숙, 「'둔갑'의 생리, 그 욕망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395쪽, 각주55 참고.

124) 또 이야기에서는 옹고집의 말 이후 옹고집 아내가 자신이 겪은 뜻밖의 상황에 그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방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이들이었던 '그것들'을 바라본다. 이에 대해 서사에서는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은 인간의 형체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공들여 키운 자식들이 짐으로 변한 상황을 보면서 옹고집 아내가 '반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허수아비 자식들이 옹고집 아내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따르는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와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속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정했으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옹고집 아내는 이 사건의 안타까운 피해자일 뿐이며 가장인 옹고집이 용서를 구해야 할 인물이다.

석해 보았다.

물론 김삼불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서사들이 현재 발견된 이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당대 사회에서 활발히 향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옹고집전>을 유형화한 것처럼 이야기의 변이 양상이 옹고집의 악행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징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옹고집 아내가 겪는 문제 상황들이 점차 서사 속에서 소거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김삼불본의 서사가 비논리적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삼불본을 통해, 특히 <쥐 둔갑 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공정과 올바름을 인식하는 당대 향유층의 명료한 의식을 살필 수 있었으며 약자를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유석, 김선현, 최혜진, 이문성, 이유경,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서, 20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 강미정, 「<쥐죽도 모른다>의 서사적 특성과 그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7.
- 강운정, 「박동진 창본 <옹고집타령> 연구」, 『공연문화연구』 30,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 김영희,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민속원, 2013.
-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판소리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 김종철, 「<옹고집전> 연구」, 『한국학보』 20-2, 일지사, 1994.
- 박윤선, 「<옹고집전>에 나타난 개인의 형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 박진아, 「진가학인구조의 양상과 그 역할 연구」, 『어문론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 서유석, 「『옹고집전』에 나타난 진가쟁주의 숨은 문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신호림,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공존의 인간학』 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 엄태웅, 「<옹고집전> 두 이본의 서로 다른 문제의식」,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이민희,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 정체성 탐구 및 고전서사의 역할」,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 이윤희, 「<옹고집전>의 타자화 기법과 인물의 정체성 확립」, 『어문연구』 114, 어문연구학회, 2022.
- 이유경, 「단국대 20장본 <옹고집전이라>의 특징과 의미」, 『한국학연구』 5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인권환, 「판소리의 실전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장덕순, 「說話의 小說化 : 雍固執傳과 裴裨將傳을 中心으로」, 『동아문화』 7,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7.
- 정상진, 「옹고집전의 서민의식과 판소리로서의 실전고」, 『문창어문논집』 23, 문창어문학회, 1986.
- 정충권, 「『옹고집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 조현우, 「『옹고집전』과 ‘자아 동일성’ 문제」,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최기숙, 「‘둔갑’의 생리, 그 욕망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최래옥, 「옹고집전 제문제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1989.
- 최혜진, 「<옹고집전>의 이본과 변모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김삼불본 <옹고집전> 서사 특징에 대한 향유층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취 둔갑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준희(서울대 강사)

남기민 선생님의 발표는 판소리계 서사 <옹고집전> 가운데에서도 김삼불본의 특수한 지점을 <취 둔갑 설화>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옹고집전>과 <취 둔갑 설화> 양면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옹고집전>에서 옹고집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향유층의 시선을 살피신 것은 판소리계 서사의 여성들을 주목한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과문함이 오히려 선생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폐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우나, 연구를 완성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옹고집 아내가 겪는 곤경의 성격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김삼불본 <옹고집전>(이하 ‘김삼불본’ 으로 약칭)과 <취 둔갑 설화>에서 아내가 마주한 현실은 마치 ‘별’ 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부 아내 등과 달리 옹고집 아내는 전혀 ‘나쁜 짓’ 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부정한 여자의 오명을 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옹고집 아내가 받을 인식의 ‘부당함’ 을 지적하시고자 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은 가부장 옹고집이 했는데도 그 아내가 부당하게 조롱당하는 것, 소위 ‘여자 탓’ 을 한다는 부당함에 토론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작품 내 옹고집이 ‘일 년여 시간 동안’ 징치된 데 반해 그 아내가 겪을 상황이 훨씬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보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문에서 김삼불본을 인용한 단락을 보면, “부인이 얼척 없어 묵묵부답하고 ...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자의 판소리계 서사 공부에 부족한 탓이겠으나, 이 지점에서 아내가 인지할 ‘오명’ 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선 사회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큰 죄를 짓습니다. 만일 판소리계 서사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 다른 남자와의 동침 및 임신/출산이 등장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옹고집의 질책을 소위 ‘훼절’ 보다도 ‘다른 남자와의 즐거움’ 을 타박하는, 즉 윤리적 조롱보다는 성적 조롱에 가깝다고 볼 수 없을까요? 만일 김삼불본에서 이후 아내의 수치스러움, 아내에 대한 지속적 조롱, 축출 등이 심각하게 서술된다면 아내가 겪을 ‘윤리적 곤경’ ‘별’ 이 더욱 수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옹고집에 대한 치죄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옹고집 아내 ‘에게까지’ 치죄가 연장되고 그 아내 ‘까지’ ‘한번’ 성적으로 조롱하는 유희적 시선이 반영된 것은 아

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옹고집 아내가 가용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장면 묘사가 심히 ‘야단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유희성의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향유층의 인식 및 이본의 전승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옹고집 아내가 죄 없이 벌받는 모습을 독자들이 거북하게 여기고 적극 향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이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셨습니다. 김삼불본 ‘이후’에 대한 추론은 토론자 역시 공감합니다만, 그와 함께 김삼불본에 그러한 화소가 생기게 된/생기도록 한 의식 역시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김삼불본 ‘이전’과 김삼불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옹고집 아내가 가용에게 속아 동침하고 그 자식을 임신 출산하는 화소가 없는 이본이 먼저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김삼불본에 해당 화소가 개입된 것은 옹고집 아내의 곤경을 유희적으로 즐기고 그를 비난하는 시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취 둔갑 설화> 각편 목록을 보면, ‘아내를 향한 비난’은 전체 43편 중 23편에 나타나고, ‘자식 낳기 화소’는 전체 43편 중 9편에 나타납니다. 아내를 향한 비난이 절반 이상의 각편에 나타나는 셈인데요, 결국 <취 둔갑 설화>에는 아내를 옹호하는 시선과 아내를 비난하는 시선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내를 옹호하는 시선이 김삼불본 ‘이후’의 향유에 영향을 미쳤다면, 아내를 비난하는 시선이 김삼불본과 같은 이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즉, 김삼불본 ‘이후’ 옹고집 아내의 임신/출산이 등장하지 않은 것만큼 김삼불본에서와 같은 면모가 나타난 배경에도 초점을 둔다면, ‘옹고집 아내’에 대한 시선의 편폭이 더욱 입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내 옹호와 비난 의식의 선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취 둔갑 설화>의 각편은 모두 20세기 중반 이후 조사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타난 화자들의 담화, 생각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 선후를 정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東州 李敏求의 장편 영물시 연구

유암천(경희대)

- I. 머리말
- II. 장편 영물시의 개념 정립
- III. 동주 장편 영물시 개관
- IV. 장편 영물시의 내용 양상 및 전개 방식
- V. 맺음말

I. 머리말

본 논문은 東州 李敏求(1589~1670)의 장편 영물시에 대하여 그 개념, 내용 양상 및 전개 방식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동주는 1589년에 태어났고, 芝峰 李睟光의 아들로 조선 왕실 사대부 명문가의 자제였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문과 장원에 급제하였고, 일찍이 환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仕宦期의 전반에는 짧은 좌천을 경험했으나 각종 관직을 역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보냈다. 仕宦期의 전환점은 1636년 병자호란이었다. 인조의 강화도 피난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동주가 지게 되어 긴 유배가 시작되었다. 유배지인 寧邊과 牙山에서 10년의 유배 생활을 겪었으며, 해배된 이후 결국 敍用되지 않고 西湖에 머무르며 만년의 생을 마쳤다.

동주 이민구는 조선 중기 근기 남인 시맥의 중요한 시인으로서 2400여 수의 한시를 남겼다. 시의 수량이 큰 만큼 기존의 연구는 그의 시문학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민구의 생애와 같은 배경적 연구와 그의 문학사적 위상에 치중해서 이루어졌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동주 시문학의 전반적 양상을 밝히는 학위 논문¹²⁵⁾이 발표됐으며, 문집에 있는 한 집록의 연구¹²⁶⁾, 그리고 두시의 수용¹²⁷⁾, 명대 전후칠자의 문학론 수용¹²⁸⁾ 등 중국 문인과의 영향 관계의 연구가 속출하였다.

125) 유명석, 「동주 이민구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26) 김영수, 「동주 이민구의 『동유록』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127)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두시 수용 양상」, 『동양고전연구』90, 동양고전학회, 2023.

128) 임연지, 「동주 이민구의 명대 전후칠자 문학론 수용의 일고찰」, 『온지논총』75, 온지학회, 2023.

이외에 시체별로 교유시¹²⁹⁾, 유배시¹³⁰⁾와 유람시¹³¹⁾ 등 연구가 나타났으며 동주 시문학의 연구는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동주의 영물시에 관한 논문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동주의 문집에 수록된 전체 시의 수에 비하여 영물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절반 가량이 장편 영물시이기 때문에 그의 장편 영물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장편 영물시는 편폭이 큰 만큼 시 속에 드러난 내용이 풍부하고, 시상의 전개도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고는 장편 영물시의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동주의 시 창작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장편 영물시의 내용 및 전개 방식을 연구할 것이다.

II. 장편 영물시의 개념 정립

한시는 정형시로서 구수별로 4구나 8구의 短篇과 10구 이상의 長篇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물시에 적용하면 10구 이상의 장편적 서술 구조의 형식을 가진 것을 장편 영물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오직 시의 형식적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일 뿐이다. 현재 학계에서 영물시 개념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장편 영물시는 편폭이 길어진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구조가 복잡하다. 수사와 전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단편과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장편 영물시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영물시의 개념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선인들의 영물시 개념에 대한 논의는 체계적이지 않고 대개 시의 優劣이나 工拙을 단편적으로 논하는 바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론에서 영물시를 감성적 시각으로 논의한 경향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조선 후기의 여항 문인인 趙熙龍은 그나마 영물시의 개념에 가깝게 논의한 바¹³²⁾가 있다. 그는 영물시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고 즉 ‘撫寫物性’, ‘逼肖物象’, ‘情思可觀’ 등이 그것이다. 영물시에서 사물의 외형과 내포된 성질 묘사, 그리고 작가의 정서나 생각 등 내면적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張之琬은 이를 더 나아가 영물시는 물을 외물로만 한정된 범주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기거, 음식이 대변된 일상의 삶에서 비환, 득실 등 사람의 감정을 강조한 바이다.¹³³⁾ 또한, 중국 청나라의 문인 俞琰은 작가가 물로부터 뜻을 읊

129) 유명석, 「동주 이민구의 교유시 연구」, 『학문학보』47, 우리한문학회, 2015.

130) 허윤진, 「동주 이민구의 유배시 연구」, 『석당논총』,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131)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한시 연구-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41, 근역한문학회, 2015.

132) 趙熙龍(劉在建 編), 「兼山堂詠物近體詩」, 『古今詠物近體詩』, 227면. “此皆出於風月花酒汗漫之間, 而其撫寫物性, 逼肖物象, 情思可觀者, 莫如詠物.(영물시는 모두 風月, 花酒 등 물에서 나온 것이니 그 물성을 묘사하고 물상을 그린 듯하며 情思를 볼 수 있는 것은 영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133) 張之琬, “위의 글, 228면. “夫人起居飲食悲歡得失, 亦物也. 何獨江山風月昆蟲草木物之乎, 然而彼

직역 시로 표현한다는 ‘感物’이라는 시의 창작 원리를 설명하여 ‘물의 정취를 다 그려내고(窮物之情)’, ‘물의 상태를 다 묘사하는(盡物之態)’ 등 영물시의 창작 취지를 제시한 바¹³⁴⁾가 조희룡의 논의와 접맥된 것이다.

선인들의 이러한 담론은 후세 학자가 영물시를 정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영물시 일반적 개념에 있어 학계에서의 대표적 관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영물시는 자연계 또는 현실 생활 속의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시가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물시는 음영하는 사물의 형상적 특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외형상의 형체와 내부의 신비를 겸비하여 오묘함과 유사함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영물시는 바로 비유나 상징, 의인과 같은 수사법을 채용하기도 하고, 음영하는 사물의 외형을 빌어 시인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담기도 하며, 일종의 심각한 우의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른바 ‘사물을 기탁해 뜻을 말하고’, ‘사물을 빌어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다.”¹³⁵⁾

“소위 영물시의 물은 고체상태를 지닌 동물, 식물과 인공기물 등 세 개의 큰 유형을 가리키며, 자연적 천상, 사회적 사물, 자연의 경색, 인물과 같은 광범위하고 주변적 제재가 포함되지 않는다...영물시는 ‘물’을 제재로 창작된 것이며, ‘물’은 시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시에서 독립적이고 유일한 제재의 표현과 심미적 주체로서 一篇에 一物이어야 한다. 이것은 작가가 창작 활동하기 전에 ‘詠物意識’을 갖춰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이다.”¹³⁶⁾

“소위 영물시는 천상, 식물, 동물 등 자연풍물과 인공물, 또한 物化된 인간 등을 구체적인 물류를 음영의 대상으로 한 시이다. 이 물류들은 시의 제목이 되거나, 창작의 주체가 되며, 작가는 시에서 물 자체만으로 논하거나 물을 빌려 회포를 읊거나 깊은 뜻을 읊는다. 그主旨는 사물의 個體에 달려 있다.”¹³⁷⁾

取江山風月昆蟲草木，詠歎之者，所以淫液形容乎，其起居飲食悲歡得失之情也。(무릇 사람이 기거, 음식, 비탄, 득실하는 것이 모두 물이다. 어찌 유독 강산, 풍월, 곤충, 초목만이 물이겠는가? 그렇다고 저 강산, 풍월, 곤충, 초목만 취하여 詠嘆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게 형용하는 것이겠는가? 그것은起居, 飲食, 悲歡, 得失의 감정인 것이다.)

134) 俞琰, 「自序」, 『詠物詩選』. “凡詩之作, 所以言志也. 志之動由於物也. 感於物而動, 故進於言, 言不足, 故發爲詩, 發於志而實感於物者也. 詩感於物而其體物者, 不可以不工. 狀物者, 不可以不切. 於是有詠物一體, 以窮物之情, 盡物之態, 而詩學之要, 莫先於詠物矣. (시라는 것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물에서 감발하는 것이다. 시가 사물에서 감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체현하는 것이 공교하지 않을 수 없고 물을 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영물시라는 시체가 있어서 물의 정취를 다 그려내고 물의 상태를 다 묘사하니, 시를 배우는 요체는 영물보다 우선 시할 것이 없다.)”

135) 임종욱,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136) 高淑平, 「中古詠物詩研究」, 東北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4면. “所謂詠物詩之物, 是具有固態形式的動物, 植物, 人工器物三大類, 不包括自然氣象, 社會事物, 自然景色和人物這些過於寬泛的邊緣性題材...詠物詩是以物作為題材進行創作的, 物不僅是詩歌的題材, 而且是詩歌中獨立的, 唯一的題材表現和審美主體, 也就是要一篇詠一物. 這是對作家在創作活動發生之前, 所應具有的‘詠物意識’的一種明確要求.”

137) 趙紅菊, 『南朝詠物詩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19면. “所謂咏物诗, 是以自然风物, 包括天象, 植物, 动物以及人工物品和物化的人等具体的物类为吟咏对象的诗歌. 它们或为诗歌的题目, 或为

이상의 영물시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영물시의 몇 가지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첫째, 외형의 집중적 묘사와 내부에 있는 신비를 겸비한다는 ‘形神兼備’이어야 한다. 둘째, 사물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셋째, 사물은 개체에 달려 있고 이른바 ‘一篇에 一物’¹³⁸⁾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시가 영물시로 성립하게 된다면 사물을 기탁해 뜻을 말할 수도 사물을 빌어 감정을 서술할 수도 있는 소위 ‘托物言志’, ‘借物抒懷’할 수 있다.

여기서 귀납한 영물시 개념의 세 가지 요소는 사물의 묘사 방법, 형태와 종류, 그리고 시에서의 수량 등 측면에서 영물시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단편 영물시의 전형적 모습이 나타난다. 단편 영물시와 달리 장편 영물시는 편폭이 큰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종래의 단편 영물시와 달리 결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양상과 층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사물의 묘사 방법에 있어 이국진은 이학규의 영물시 연구에서 단편 영물시와 비교하면서 장편 영물시의 전체적 특징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¹³⁹⁾

“시인이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은 시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영물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단편의 형식이 함축과 여운이 강한 상징적 묘사에 어울린다면, 장편의 형식은 설명적·서사적 묘사를 펼치기에 용이하다. 이 때문에 이학규의 영물시도 시의 형식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근체시에서는 주로 선택한 특정 이미지를 통해 대상 사물과의 정서적 일체화를 추구한다. 반면에 장편 고시에서는 외형과 속성 등 대상 사물의 전반을 자세히 묘사하고, 아울러 대상 사물이 삶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생활상까지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면의 강렬한 자의식을 부각시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물의 묘사에 있어 외형의 집중적 묘사와 내부에 있는 신비를 겸비한다는 形神兼備가 요구되는 것은 단편 영물시의 전형적 특징이다. 장편 영물시는 물론 이에 더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으나, 편폭이 길어진 만큼 시상을 전개하는 데 시인은 물상과 물성의 刻畫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빌어 抒情, 言志에 더욱 치중해서 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큰 경우가 흔히 보인다.

诗歌创作的主体. 在诗中作者就物论物, 或借物咏怀寄寓深意. 而主旨则在吟咏物的个体.”

138) ‘一篇에 一物’이라는 관점은 김준옥 선생의 비교적 조기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옥, 「영물시의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29, 한국언어문학회, 1991. 5면. “물을 제목으로 한 「詠...」 또는 「...詠」들로 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광의로는 一篇에 一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영물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39) 이국진, 「이학규 영물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279면.

위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장편 고시에 ‘설명적·서사적 묘사’나 ‘사물이 삶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생활상까지도 보여준다’고 말한 것은 장편 영물시에 서사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 더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장편 영물시에 서사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작자가 타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물의 방식을 통해 교훈성과 풍자성을 드러내는 우연적 영물시도 장편 영물시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장편 영물시는 전형적 영물시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물의 묘사, 언지와 서정, 서사적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물은 시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각 요소는 고립적이지 않고 각 부분의 연계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편 영물시를 이렇게 본다면 영물은 오직 作詩의 목적이 아니라 영물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간주되어 親友 사이의 증답, 생활상의 기록, 교훈과 풍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영물시는 형식적 변화에 따라 그 외연의 경계도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영물시에서 사물이 구체적 형태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작가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재환은 “시 속에 특정되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는 존재하는 대상 그 자체의 객관적인 외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시 속에 특정되는 대상의 외면은 작자에 의해 인식된 대상의 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물시의 ‘물’은 특정한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대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논의한 바¹⁴⁰⁾가 있다. 그렇다면 사물 자체의 형태 유무와 관련 없이 바람과 소리 등 겉으로 보기에 형태가 없어도 작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실 세계에 존재치 않는 상상한 사물이라도 작자가 그 형태를 시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면 모두 영물시의 소재가 된다. 현재 학계의 영물시 관련 연구에서 고대 선인들이 영물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¹⁴¹⁾를 해결하고 영물시의 선별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사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흔해 보인다. ‘산수’는 산수시의 장르가 따로 있고, 세시는 사물이 분명히 아닌 사실이기에 본고는 장편 영물시의 실제 작품을 바탕으로 사물의 범위를 ‘산수’, ‘세시’를 제외한 모든 물류로 설정하기로 한다.

140) 윤재환, 「玉洞 李澈의 詠物詩 研究」, 『한문학논집』 40, 2015. 87면.

141) 이 문제는 고대의 영물시선집인 중국의 『패문재영물시선집』과 한국의 『고금영물근체시』의 편찬 체례와 실제 작품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영물시의 선별 기준을 설정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하여 물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영물시 연구에서 흔한 것이다. 歲時, 山水, 大型 建築物 등 제재의 시는 영물시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의 영물시와 관련된 유일한 박사학위논문인 김재욱의 논문에서 영물시 제재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였다.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6~14면.

마지막으로, 영물사에서 사물이 출현하는 수량, 소위 ‘一篇에 一物’의 문제에 대해 논하겠다. “一物은 ‘하나의 물류’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수량의 개체로써 하나의 물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중심적 물상이다. 중심적 물류의 수량은 한두 개가 되거나 한 무리도 될 수 있다.”¹⁴²⁾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장편 영물사에서 중심적 소재는 하나의 물류로 규정하고, 소재의 실제적 수량은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장편 영물시의 경우, 소재의 수량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소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동주 장편 영물시의 창작 개관

동주 장편 영물시의 수량, 소재, 형식과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분포 등의 측면에서 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이민구 『東州集』에 수록된 장편 영물시 목록

연번	시제	형식	소재	출처
1	聞服	오언고시, 50구	올빼미	前集卷4「嘉林錄」
2	三山躑躅杖歌	칠언고시, 34구	철쭉 지팡이	詩集卷一「鐵城錄一」
3	移菊	오언고시, 32구	국화	詩集卷二「鐵城錄二」
4	驟雨	오언고시, 24구	소나기	詩集卷三「鐵城錄三」
5	喫葢菜	오언고시, 36구	삼백초	詩集卷四「鐵城錄四」
6	食芻	오언고시, 30구	비름	詩集卷五「鐵城錄五」
7	玉杯歌 謝成川李使君	오언고시, 28구	옥술잔	詩集卷六「鐵城錄六」
8	杜鵑花歌	칠언고시, 14구	두견꽃	詩集卷六「鐵城錄六」
9	庭樹行 贈延山梁遇孟	칠언고시, 20구	정원의 나무	詩集卷六「鐵城錄六」
10	蝗	오언고시, 36구	메뚜기	詩集卷七「鐵城錄七」
11	雄鷄爲隣犬所斃 次杜陵鷄柵韻	오언고시, 36구	수탉	詩集卷九「牙城錄二」
12	家鴨乳鷄雛	오언고시, 30구	오리, 병아리	詩集卷九「牙

142) 鐘志強, 「六朝詠物詩史論」,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22면.

				城錄二」
13	道傍古松	오언고시, 24구	소나무	詩集卷九「牙城錄二」
14	時菊篇	오언고시, 16구	국화	詩集卷九「牙城錄二」
15	黃鵠行	칠언고시, 12구	황곡새	詩集卷九「牙城錄二」
16	冬月無雪時有凍雨	오언고시, 28구	차가운 비	詩集卷九「牙城錄二」
17	啄木	오언고시, 12구	딱따구리	詩集卷十「牙城錄三」
18	布穀	오언고시, 12구	배꾸기	詩集卷十「牙城錄三」
19	鷓鴣	오언고시, 12구	뱀새	詩集卷十「牙城錄三」
20	鸛雀	오언고시, 12구	황새	詩集卷十「牙城錄三」
21	海鶴	오언고시, 12구	바다의 학	詩集卷十「牙城錄三」
22	畫鶴	오언고시, 24구	학	詩集卷十四「西湖錄三」
23	次蝗詩	오언고시, 68구	메뚜기	詩集卷十五「西湖錄四」
24	隣兒食河豚暴亡	오언고시, 16구	복어	詩集卷十六「西湖錄五」
25	山羊被	오언고시, 30구	산양 이불	詩集卷十七「西湖錄六」
26	謝竹所翁惠玄兔丹	오언고시, 26구	현토단	詩集卷十七「西湖錄六」
27	茹苦菜	오언고시, 26구	씀바귀	詩集卷十九「西湖錄八」
28	苦雨	오언고시, 44구	긋은 비	詩集卷二十三「斲輪錄一」
29	五月初四日國恤始 淫雨江漲禾麥俱沒	오언고시, 32구	장마	詩集卷二十三「斲輪錄一」
30	擬古 二十五首	오언고시, 15수(10구 3수/12구 10수/14구 1수)	봉황, 용, 거북, 황새, 비취와 공작, 호랑이와 여우, 이, 달, 연꽃, 물고기, 대나무,	「別集卷一」

			비단과 명주	
--	--	--	--------	--

동주 이민구는 조선 중기 문인 가운데 한시 작품 수량이 2000여 수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작가이다. 동주는 다작 작가이지만 영물시의 수량은 62제 92수¹⁴³⁾로 전체 작품 수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조선 중기의 문인들은 성리학적이념을 굳건히 정립하고 영물시를 ‘완물상지’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영물시 쓰기를 기피하는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편 영물시의 수량이 30제 44수로 집계되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단편 영물시보다 장편 영물시의 수량이 적은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비중으로는 영물시의 장형화가 동주 영물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 소재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곤충류 18수(올빼미, 메뚜기, 수탉, 오리, 병아리, 황곡새, 딱따구리, 뺨꾸기, 뱀새, 황새, 학, 봉황, 용, 거북, 황새, 비취와 공작, 호랑이와 여우, 이), 식물류 6수(국화, 두견꽃, 정원의 나무, 소나무, 연꽃, 대나무), 인공물 4수(철쭉 지팡이, 옥술잔, 산양 이불, 비단과 명주), 자연현상·자연물 3수(소나기, 비, 장마), 음식물 5수(삼백초, 비름, 복어, 현토단, 씌바귀) 등이 있다. 동물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장편 영물시의 형식적 측면에서 집계하면 오언고시 36수, 칠언고시 4수로 오언고시가 대부분이다. 시의 편폭은 구수로 보면 20구를 기준으로 하여 20구 이하의 시는 21수가 있고, 나머지 19수가 20구 이상의 시이다. 그 중에서 <擬古>라는 25수의 연작시에서 15수가 영물시로 간주되고, 그 구수가 10구, 12구, 14구로 두루 있어 구수가 가장 적은 것이다. 30구 이상의 편폭이 긴 시가 <三山躑躅杖歌>, <移菊>, <喫蕺菜>, <食菟>, <蝗>, <雄鷄爲隣犬所斃, 次杜陵鷄柵韻>, <家鴨乳鷄雛>, <次蝗詩>, <山羊被>, <苦雨>, <五月初四日國恤始, 淫雨江漲禾麥俱沒> 등 11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次蝗詩>는 68구로 구수가 가장 많고, 이외에 <苦雨>도 44구로 되어 있어 분량이 상당히 많다.

이들 장편 영물시의 창작 배경을 동주의 개인 문집인 『東州集』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동주집』에 실려 있는 집록들이 동주의 생애에 따라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편 영물시는 『철성록』에 9수, 『아성록』에 11수로 총 20수가 실려 있고, 나머지는 『서호록』에 6수, 『착륜록』에 2수, 그리고 『별집』에 연작시 1제 15수가 실려 있다.¹⁴⁴⁾

143) 필자는 이민구의 문집인 『동주집』에 실려 있는 한시에서 영물시를 선별하였고, 그 수량을 통계한 결과로는 62제 92수가 집계된다.

IV. 장편 영물시의 내용 양상 및 전개 방식

장편 영물시는 구수가 많고 편폭이 큰 만큼 시에 담은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에 따라 그 구성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시인은 긴 분량의 내용에 충실히 맞추어서 시상을 전개하기 위해 각종 수사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 동주의 수많은 장편 영물시에서 전형성이 있는 시를 뽑아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 시의 내용 양상 및 전개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1. 이상적 도덕을 반영한 시

동주의 사환기 중 전반기의 한시 작품은 『동주집』의 「별집」에 수록된다. 구체적 창작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동주가 좌천을 당하기 전 사환기 초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擬古>는 25수의 연작시로 「별집」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영물시에 해당하는 시가 무려 15수가 있다. 이 15수의 장편 영물시의 구수는 10구, 12구와 14구로 두루 되어 있다. 시에 나타난 소재를 보면 동물곤충류는 봉황(닭 무리), 용(여의주), 거북(용과 뱀), 비취와 공작, 여우(호랑이), 이, 물고기 등이 있고, 식물류는 나무, 연꽃, 대나무 등이 있고, 그리고 자연물은 달, 인공물은 비단과 명주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련의 동물 소재의 시이다. 동주는 이들 시에서 인품을 동물들의 품성에 빗대어 우연적 이야기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이들 시의 성격은 전통적 서정시가 아닌 일종의 교훈시로 볼 수가 있다. 동주는 인간의 도덕을 환기하기 위해 우연적 방식으로 이러한 동물 우연 영물시를 창작하였다. 시에서 등장한 소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며, 하나는 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봉황새를 중심적 소재로 삼아 봉황새와 닭 무리의 이야기를 읊은 시를 살펴보겠다.

威鳳將九子	위의 있는 봉황이 아홉 새끼 데리고,
棲息崑丘樹	곤산 숲에서 사는데.
琅玕久未結	낭간은 오래도록 맺히지 않고,

144) 1637년 이민구가 영변에 유배된 뒤로 『철성록』이라는 제목으로 7권, 아산으로 이배된 뒤에는 『아성록』이라는 제목으로 4권, 해배되어 서호에 머물러 지낸 만년의 시를 『서호록』이라 하여 11권, 1658년 이후의 시를 『작륜록』이라 하여 2권으로 엮었다. (정만호, 『동주집』 해제, 한국고전번역 DB(db.itkc.or.kr) 참고)

醴泉又多雨	예천에는 계다가 비가 많이 내려.
曠世不一飽	오랫동안 한 번도 배불리 먹지 못하니,
奇毛闕玄圃	아름다운 깃털 현포에서 자취 감췄네.
鷄群處庭衢	닭들은 마당에 살지만
啄啄日爭哺	이리저리 쪼며 날마다 모이 다투지
鷄謂鳳爲愚	닭은 봉황이 어리석어
餓死良自誤	굶어 죽으니 진실로 잘못이라 하네
鷄鳳賢與愚	닭과 봉황의 어짊과 어리석음 중에
世人果何慕	사람들은 과연 어느 쪽을 동경하는가 ¹⁴⁵⁾

이 시는 12구로 된 오언고시다. 다른 장편 영물시보다 짧은 편이다. 봉황새와 닭 무리의 품성을 비교하면서 어짊(賢)과 어리석음(愚)에 대한 질문을 세상 사람에게 제기한 것이다.

1~6구는 봉황에 대한 부분이고, 7~12구는 닭 무리에 대한 부분이다. 1~6구에서는 아홉 새끼를 데리고 있는 봉황새가 숲에서 산다는 이야기로 주인공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봉황새가 배불리 먹지 못해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봉황새와 정반대로 7~12구에는 닭 무리가 마당에서 이리저리 쪼고 날마다 먹이를 위해 모여서 다투는다고 한다. 이러한 닭들은 굶어 죽을 봉황새가 어리석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조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봉황새와 닭들이 누가 어질고 누가 어리석냐는 질문으로 시의 취지를 드러냈다.

이 시는 봉황새와 닭을 각자 군자와 소인배로 비유했으며, 진정한 賢者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골과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이상적 도덕을 지향한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제2수 외에 우언의 수사로 지은 다른 몇 수에 닭은 이야기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3수는 용을 읊은 시에서 어떤 가난한 집의 자제가 백일 동안 잠든 용의 입에서 여의주를 꺼내 왔다는 이야기가 배경이 된다. 여의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이며 용의 변화가 이 구슬에 의지하는 것이니 간직하여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용이라도 구부러진 도마뱀과 다르지 않다고 한탄하였다.

제4수는 거북은 용과 벗이 되어야 했는데 뱀과 때때로 서로 쫓아다녀서 바라는 것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품성을 비판하였다. 결국은 종묘 제사의 희생품으로 쓰여 죽은 실수를 보완할 수 있을까 한탄하였다.

제5수는 황새들을 중심적 소재로 삼아서 온갖 새, 주주새, 매미 등을 부차적으로

145) <擬古> 其二, 『東州集』 別集卷一

옳은 것이다. 서로 지저귀며 울어대는 성격을 가진 황새들이 온갖 새(百鳥)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멧대로 봉황의 소리를 흉내기도 하며, 주주새에게 시끄럽다는 기롱을 받았고, 보다 더 시끄러운 매미에게 조용히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시인은 황새의 이미지로써 수다를 잘 떨고 허영이 있는 소인배를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제6수¹⁴⁶⁾는 『山海經』에 나타난 ‘비취새’와 ‘공작새’를 소재로 옳은 것이다. 비취새와 공작새가 원래 각자 만 리나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살아서 서로 만날 수 없었는데 저마다 짝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 끝내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운명을 면치 못해 함께 비녀에 올라서 쓰이게 되었다. 마음과 어긋난 상황에 놓였다는 결말로 처지를 한탄하였다.

2. 개인의 내면을 투영한 시

동주의 장편 영물시 중에는 개인의 신세를 사물에 투영해서 옳은 시가 있다. 이 시들은 사물에 대한 집중적 묘사를 위주로 한다. 사물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물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서 개인 자신을 자연스럽게 투영시킨다. 시인의 내면적 정서 표출은 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토로하기보다는 시의 결말 부분에서 의미심장하게 전달해 준다.

亭午族雲合	한 낮에 구름 모이니
赫日韜畏景	붉은 해도 뜨거운 햇살 감춘다
飄緇西北風	휙휙 불어오는 서북풍
洒然高堂冷	시원스레 불어 높은 집 식혀 주네
滂沱雨聲集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 나더니
炎暑肅已屏	불꽃 더위 어느덧 싹 물러갔네
滌蕩氛塊煩	답답한 먼지 말끔히 씻어 내고
散亂琴書靜	산란하던 금서가 조용해졌네
先驅勢中緩	먼저 몰려온 세력 중간에 누그러지더니
後驟氣逾猛	뒤에 달려오는 기세 더욱 맹렬하다
雖無敵與鬪	비록 다투는 적 없어도
似有志求逞	마치 더 거세지려는 뜻 있는 듯
雷霆助餘怒	우레 소리가 남은 노여움 도와
隱隱撼幽奔	우르릉 우르릉 그윽한 구멍도 흔들리누나
乘凌在須臾	금세 물이 차올라

146) 위의 글.

耳目改俄頃 보고 들던 세상 금방 바뀌었네
 碧潤園林色 동산에는 푸른 윤기 흐르니
 蕭森桑麻影 뽕나무와 삼대 그림자 삼삼하여라
 人情具苦樂 사람 마음에 괴로움과 즐거움 다 있어
 所遇忽異境 만난 상황 따라 문득 다른 경지 있으니

淸看水玉寒 맑기는 차가운 수정을 보는 듯하고
 爽對水壺罔 시원하기는 밝은 얼음 병을 마주한 듯하다
 披襟寢疏櫺 옷깃 헤치고 성긴 창 아래 누워
 更待涼宵永 시원한 밤 계속되기를 다시 기다린다¹⁴⁷⁾

이 시는 동주가 1639년에 영변에 유배된 지 3년째의 작품이다. 24구의 오언고시이다. 시인은 한낮에 소나기를 당해서 소나기의 변화 과정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시인은 1~4구에 구름이 모이고 햇살이 감춰 서북풍이 불어 집을 식히는 등 주변의 情景를 먼저 묘사함으로써 소나기 내리기 전의 분위기를 부각하였다. 5~8구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상황이 표현되었는데 시인은 직접 비 자체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청각, 촉각, 시각을 총동원해서 빗소리를 듣게 된 후 더위를 못 느끼고 먼지가 깨끗이 씻어지고,琴書까지 조용해진다고 우회적으로 묘사하였다. 9~12구에서야 비의 기세에 대해 직접 묘사하였다. 소나기가 ‘비록 다투는 적 없어도, 마치 더 거세지려는 뜻 있는 듯(雖無敵與鬪, 似有志求逞)’이라는 것은 소나기의 기세에 인간성을 부여해준다. 13~16연에서는 우레 소리의 도움으로 물이 금세 올라와서 세상이 또 금방 바뀌었다고 말한다.

17~18구는 소나기가 내린 뒤 동산과 나무의 그림자의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소나기가 초기의 약한 기세로부터 강해지는 변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하였다. 19~22구에서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苦)과 즐거움(樂)이 만난 상황에 따라 문득 변화한다는 이치를 토로하고 이를 수정(水玉)과 얼음 병(氷壺)을 보는 상반된 상태에 비유하였다.

이 시는 동주의 세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소나기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변화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시에서 시인이 유배된 신세를 소나기의 변화에 투영해서 세상 만세의 變化無常을 토로하였다. 12연은 ‘옷깃 헤치고 성긴 창 아래 누워 시원한 밤을 계속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해배하는 날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는 平常心을 가진 모습을 보여준다.

道傍一古松 길가의 묵은 소나무 한 그루

147) <驟雨>, 『東州集』詩集卷三「鐵城錄三」

分作四虯龍	가지 나뉘어 네 마리 이무기 되었네
托根抱危沙	모래흠에 뿌리박고
老幹各巖巖	늙은 줄기 저마다 우뚝 솟았구나
陰蟠十畝寬	드리운 그늘 열 이랑 남짓이고
秀入青雲重	쭙 뻗어 푸른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昂藏千歲姿	헌칠한 천 년의 자태 간직하고
柯葉日以濃	가지와 잎이 날로 무성해지네
偃蹇雷雨會	의연하게 천둥과 비 견뎌 내고
慘澹霜雪容	담담하게 눈과 서리 참아 내네
但恨失所處	다만 한스럽게도 제자리 언지 못하여
立當車馬衝	수레와 말이 오가는 곳에 서 있구나
溪湍齧其趾	여울물이 뿌리내린 땅 할퀴고
上有蔦蘿封	위에는 겨우살이로 덮여 있네
孤生飽塵泥	외로운 몸으로 진흠탕 속에서 고생하며
悵望霞外峯	서글피 노을 밖 봉우리 바라보네
苦遭野火燒	괴롭게도 들불 만나
萬穴集蟻蜂	만 개의 구멍에 개미와 벌 모였네
非無廟廟具	낭묘에 쓰일 재목으로 충분하건만
匠石不可逢	장석을 만나지 못했네.
鷓鴣號向晨	닭이 새벽 알리고
朔風鳴寒冬	북풍이 추운 겨울날 울어 대네
志士多感傷	지사가 상심에 겨워
撫汝獨霑胸	너를 어루만지며 홀로 가슴 적시노라 ¹⁴⁸⁾

이 시는 길가의 묵은 소나무를 보고 느낀 바를 읊는 것이다. 시는 총 24구로 된 오언고시다. 전체적 내용을 1~10구, 11구~20구, 21구~24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10구에서는 우선 묵은 소나무의 가지, 뿌리, 줄기, 드리운 그늘, 높이, 잎 등의 형태를 집중적으로 빚진하게 묘사하였다. 헌칠한 자태를 가지고 날로 무성하게 자라는 소나무가 천둥과 비, 서리와 눈 등 외적 저해를 당해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까지 동주는 소나무가 상징하는 불굴한 의지를 표현하는 데 그쳤는데, 11~20구에서 오히려 소나무가 잘못 위치하였다는 내용으로 筆鋒이 전환하였다. 소나무가 수레와 말이 오가는 곳에 잘못 서 있으며, 소나무 아래에는 여울물(溪)이 뿌리내린 땅을 할퀴고 위에는 겨우살이(蔦蘿)로 덮여 있다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진흠탕 속의 공생을 하며, 노을 밖 봉우리만 서글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외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더군다나 들불을 만나 만개의 개미와 벌이 나무의 구멍에 모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48) <道傍古松>, 『東州集』詩集卷四「鐵城錄四」.

원래 무성하게 자랐어야 하는 소나무가 잘못된 立地 때문에 결국 비참한 신세를 당한다는 것은 시인은 ‘낭묘에 쓰일 재목으로 충분하건만 장석을 만나지 못했네’라고 하여 자신이 재주가 있으면서도 불우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변에서 유배된 지 4년째의 동주는 이 길가의 묵은 소나무를 보고 자기의 신세를 연상해 재주가 있으면서도 펼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소나무에 빗대어 투영하였다.

3. 생활의 체험을 드러낸 시

동주의 장편 영물시에서 생활의 직접적인 체험에 입각한 시도 있다. 이러한 시들은 서사적 성분이 들어가서 시의 편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에 서사적 요소가 비록 담겨 있으나 서정적 요소도 또한 현저하며, 서사적 요소와 서정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시상을 전개한다. 서사는 詩作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사물은 어디까지나 중심적 위치를 하고 시상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들은 사물의 묘사, 서정적 정서 표출, 생활의 구체적 양상 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 구조를 이루어진다.

동주는 영변 유배 생활에 4년째의 제목이 <삼백초를 먹다>는 시를 분석해보고 한다.

<喫蕺菜> ¹⁴⁹⁾	<삼백초를 먹다>
吾老旅邊塞	내 늙은 몸으로 변방 나그네 되어,
久患憂病嬰	오래도록 근심과 질병에 시달렸지.
況當春夏交	게다가 봄과 여름 교차할 때,
肺渴乘熱成	폐가 마르고 열까지 오르네.
小兒疲供給	어린 아이는 시중들다 지쳤으니,
苦汲寒井淸	힘겹게 찬 샘에서 맑은 물 길어 오지.
茲土富蔬蕪	이곳에 나물 많아,
采掇仗園丁	채취할 때 약초꾼 따라가지.
平朝入後谷	새벽녘 뒷산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向午返柴荆	정오쯤 사립문에 돌아와.
弛肩已滿地	어깨 끈 푸니 마당 가득,
群品亂縱橫	갖은 나물 여기저기 어지럽다.
蕨薇豈不佳	고사리가 어찌 맛 없으랴만,
最秀蕺爲名	그래도 삼백초가 제일이지.

149) 詩集卷四, 「鐵城錄四」

嶄嶄萬玉簪	우뚝 솟은 수많은 봉우리에서,
紫碧始抽莖	붉고 푸르게 처음 줄기 돋어나네.
其氣滑且柔	그 기운이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皮膜脆而輕	껍질이 연하고도 얇네.
淒淒風露餘	서늘하게 바람과 이슬 맞은 뒤에,
灑然甘香并	산뜻하여 달콤하고 향기롭지.
連咀十數根	연달아 십여 뿌리 씹노라니,
溢齒涼液生	입안 가득 맑은즙이 솟는다.
匪惟滌煩喉	마른 목이 개운할 뿐 아니라,
自覺祛宿醒	목은 숙취도 가시는구나.
形參翠竹筍	생김새는 푸른 죽순 같고,
味勝芝房英	맛은 영지보다 낫구나.
本無肉食願	본래 고기 음식 바라지도 않나니,
此足侈藜羹	이 맛좋은 나물국이면 만족일세.

日晏蓬萊殿	날 저문 봉래전에,
綺饌方丈盈	맛난 반찬 한가득 차려지니.
區區山野物	자잘한 산야의 이 나물,
或霑顧眄榮	눈길 받는 영광 있으려나.
關河旣伊阻	산과 물로 이미 막혔으니,
回首有微情	고개 돌리며 작은 정성 생기네.
獻芹固可笑	미나리 바친 일 진실로 우스우니,
野人媿深誠	야인은 깊은 정성 부끄럽구나. 150)

이 시는 36구의 오언고시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12구는 서사적 부분에 해당하고 삼백초를 먹게 된 배경을 기록했다. 고령에 영변에 유배된 동주가 근심과 질병에 오래도록 시달린 데다 봄과 여름 사이에 肺渴症이 걸렸고 열이 났다는 사실을 먼저 서술한다. 동주를 섬기다 지친 아이는 샘에서 물을 길어 오고 동주는 약초꾼을 따라 새벽에 약초를 채취하러 뒷산 골짜기로 들어갔다 가 정오 때 돌아온다. 갖은 나물을 마당에 가득할 정도로 가져왔다.

13~28구는 채취해 온 삼백초의 외형과 그 맛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다. ‘蕨薇’인 고사리가 어찌 맛이 없냐고 반문하고 ‘藜菜’인 삼백초의 맛이 제일이라고 극찬하였다. 삼백초의 외형에 있어 그 줄기는 ‘매끄럽고 부드러우며(滑且柔)’, 껍질이 ‘연하고도 얇다(脆而輕)’. 그 맛은 ‘달콤하고 향기로우며(甘香并)’ 등 형용사로 묘사하였다. 삼백초를 연달아 십여 뿌리를 먹은 느낌은 “입안 가득 맑은즙이 솟으며”, 목이 개운할 뿐 아니라 숙취도 해소하는 효용이 있다고 한다. 이어서 푸른 죽순과 같고, 영지보다 더 맛있다고 하고, 원래 고기를 먹는 입맛이 없는 동주가 나물국(藜

150) <喫藜菜>, 『東州集』 詩集卷四 「鐵城錄四」

羹)에 만족한다고 한다.

29~36구에서 동주는 신선이 사는 궁전인 봉래전에 맛있는 반찬이 가득 찬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자잘한 삼백초도 눈길을 받는 영광이 있느냐의 질문을 한다. 비록 유배된 신세가 되었지만 과거에 벼슬할 때를 되돌아보고 여전히 ‘작은 정성(微情)’이 남아있다고 토로하였다. ‘미나리를 바친 일 진실로 우스우니(獻芹固可笑)’라는 표현에는 유배된 처지이면서도 임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조적 심경이 담겨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동주 이민구의 장편 영물시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장편 영물시의 개념과 성격 규정을 시도하였다. 장편 영물시는 사물의 묘사와 그 속성을 표현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 시의 성격과 기능, 소재의 유형과 수량 면에서 단편 영물시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하여 영물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장편 영물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이다. 동주의 문집에 남아 있는 전체 시의 수량에 비하여 영물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절반 가량이 장편 영물시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주의 장편 영물시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이상적 도덕을 반영한 시, 개인의 내면을 투영한 시, 생활의 체험을 드러낸 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주의 장편 영물시 중에 일부만을 다루었고, 동주의 개인적 생애와 시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동주의 영물시의 의미에 대하여 더 탐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민구, 강원모 외 역, 『東州集』, 한국고전번역DB(db.itkc.or.kr).
- 劉在建, 「兼山堂詠物近體詩」, 『古今詠物近體詩』, 아세안문화사, 1981.
- 유명석, 「동주 이민구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영수, 「동주 이민구의 『동유록』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두시 수용 양상」, 『동양고전연구』90, 동양고전학회, 2023.
- 임연지, 「동주 이민구의 명대 전후칠자 문학론 수용의 일고찰」, 『은지논총』75, 은지학회, 2023.
- 유명석, 「동주 이민구의 교유시 연구」, 『학문학보』47, 우리한문학회, 2015.
- 허운진, 「동주 이민구의 유배시 연구」, 『석당논총』,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한시 연구-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41, 근역한문학회, 2015.
- 高淑平, 「中古詠物詩研究」, 東北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준옥, 「영물시의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29, 한국언어문학회, 1991.
- 俞琰, 「自序」, 『詠物詩選』, 成都古籍書店, 1984.
- 윤재환, 「玉洞 李滉의 詠物詩 研究」, 『한문학논집』 40, 2015.
- 이국진, 「이학규 영물시 연구」, 『대동한문학』29, 대동한문학회, 2008.
- 임종욱,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 趙紅菊, 『南朝詠物詩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鐘志强, 「六朝詠物詩史論」,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東州 李敏求의 장편 영물시 연구」에 대한 토론

김민구(고려대)

유암천 선생님의 「동주 이민구의 장편 영물시 연구」는 동주 이민구의 장편 영물시에 주목하여 그 개념과 양상을 살폈습니다. 동주는 이천 수가 넘는 시를 썼고, 그 아버지인 이수광과 더불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본 논문은 이전의 연구와 달리 ‘장편 영물시’의 개념을 세우고, 그 개념 위에 동주의 장편 영물시를 분석하려 시도한 점에서 동주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며 들었던 의문점을 두서없이 나열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에 갈음하려 합니다.

1) 동주 이민구는 16~17세기에 활동한 문인으로, 그 시학은 조선의 선대 문인 및 송·원·명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연지 선생님의 최근 연구(임연지(2023))에서 명대 전후철자의 영향을 소개한 것은 그 일면입니다.

본고에서 ‘영물시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지 않다.’ 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시가 영물시인가?’ 라는 정의는 시기와 작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장편 영물시’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동주의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주 시학의 총체적인 모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주의 영물시 개념을 소개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많이 유통된 시선집과 類書 및 그 아버지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참고하면 논의의 정합성이 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2) 1)에서 이어지는 생각으로, 본고에서는 영물시의 선별 기준을 ‘산수’와 ‘세시’를 제외한 모든 물류로 설정하고, 이를 “산수는 산수시의 장르가 따로 있고, 세시는 사물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는 선별법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초중기에 다수 읽힌 『분류보주이태백시』에서는 李白의 「觀元丹丘坐巫山屏風」를 ‘詠物’ 분류에 수록해 두었지만, 성현 등이 편찬한 『풍소래범』에서는 이를 ‘圖畫類-賦畫山水’에 수록했고, 『增刊校正王壯元集註東坡先生詩』에서는 蘇軾의 「寒食雨」를 ‘節序’에 수록했으나 『風騷軌範』에서는 이를 ‘天文類-賦雷雨’에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시기와 독자(선집자)에 따라 주제와 장르의 분류가 차이가 있는 사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본고에서 영물시로 분류된 「驟雨」는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歲時節序에 관련한 시로 볼 수도 있고, 「移菊」 또한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歲時 혹은 懷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선별에서 ‘산수’와 ‘세시’를 제외해야 하는지, 또 그래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IV. 장편 영물시의 내용 양상 및 전개 방식’은 작품의 사례와 실상을 든 부분입니다. 이 목차에서는 ‘이상적 도덕을 반영한 시’, ‘개인의 내면을 투영한 시’, ‘생활의 체험

을 드러낸 시' 세 가지 항목을 들고 모두 4수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습니다. 이 소제목은 동주의 내면을 살피고, 장편 영물시를 통해 그 실사례를 보이기 위한 시도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제목이 그 實例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적 도덕', '개인의 내면'이라는 주제는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사례로 든 「擬古」·「驟雨」·「道傍古松」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목차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작법(또는 수사법)에 맞는 소제목(예컨대 '우연적 성격의 시')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대문학 발표

사회자 : 강유진 (중앙대)

- 발표 : 전두영(전남대) 139
최인훈의 『태풍』과 콘래드의 「태풍」 비교연구
-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 토론 : 장준영(중앙대) 153

- 발표 : 오혜진(남서울대) 155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는 느슨한 공동체의 힘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 토론 : 손혜숙(한남대) 168

최인훈의 『태풍』과 콘래드의 「태풍」 비교 연구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전두영*

<목 차>

- I. 서론
- II. 망명 작가와 뿌리뽑힌 작가가 그리는 현재만을 사는 인물
- III.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통한 저항적 글쓰기
- IV. 바다의 태풍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는 태풍: 태풍과 반란
- V. 결론

I. 서론

최인훈은 자신의 전집이 간행되던 해(1979년)에 자신의 주요 작품의 창작 과정을 돌아본다. 그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태풍』(1973)이었으며 그는 이 작품의 창작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끝이어 나는 『태풍』(颱風)을 썼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유럽 문학의 바탕이라든지, 고전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문화권을 머리에 그리면서 썼다. 즉 그 지역의 사람이면 국경을 넘어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써보았다. 국경 밖에서도 통하는 어떤 정신의 기준 화폐를 생각하고, 모든 인사(人事)를 그 화폐에 대한 환율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 화폐란 부활의 논리이다.¹⁵¹⁾

최인훈이 언급한 ‘유럽 문학의 바탕’과 ‘고전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문화권’¹⁵²⁾은 연구자들의 주목 가운데 『태풍』을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되었다. 특히 이 소설이 유럽 문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주목은 『태풍』을 유럽의 문학과 비교하는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¹⁵³⁾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5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지성사, 2010, 28~29쪽.

152)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의 구호로 내건 ‘대동아 공영권’을 『태풍』의 서사 구성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 광역권의 실체에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장문석, 「주변부의 세계사」, 『민족문화사연구』 65,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장문석의 연구는 『태풍』과 조지 오웰의 『1984』가 서사 양식과 문제의식 면에서 유사함을 지적하는데 두 텍스트의 영향 관계가 아닌 대위법적 독서의 여지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장문석, 위의 논문, 29쪽 참조.

153) 최인훈이 지녔던 서양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는 최인훈 소설과 서양 문학 텍스트와의 비교 연구의 소지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비교 연구의 성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세림,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뢰거」와 최인훈의 「하늘의 다리」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안서현, 「최인훈의 『화두』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김진규, 「선을 못 넘는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는 ‘임의의 인물」,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김혜영, 「최인훈과 오에 겐자부로 소설의 8-15 형상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서은선,

배지연은 최인훈의 소설과 동명의 희곡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템페스트』(*The Tempest*)가 최인훈의 소설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전제하에 두 텍스트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두 동명의 작품이 서사의 전개와 배경 등에서 유사함을 밝히며 최인훈의 소설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부터 영향(influence)을 받았다고 주장한다.¹⁵⁴⁾ 그러나 이 연구는 두 텍스트의 장르가 다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최인훈이 『태풍』의 창작과 관련해 유럽 문학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인훈이 셰익스피어로부터 일방적 영향¹⁵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박규현은 최인훈의 『태풍』과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의 희곡 『어떤 태풍』(*Une tempête*)을 비교하는데 두 텍스트 모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정전으로 삼고 있음을 전제한다.¹⁵⁶⁾ 이 연구 역시 두 텍스트의 장르가 다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최인훈의 『태풍』이 『템페스트』를 정전으로 삼고 있음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최인훈의 『태풍』이 세제르의 희곡처럼 『템페스트』를 정전으로 삼았다면 최인훈의 소설이 세제르의 희곡과 같은 정전(canon) 다시 쓰기¹⁵⁷⁾가 아닌 역사 다시 쓰기 방향으로 나아간 이유를 이 연구는 증명하지 못한다.¹⁵⁸⁾ 이 연구는 최인훈의 『태풍』이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를 모두 넘어서 화해와 용서”¹⁵⁹⁾를 메시지로 던진다고 주장하는데 『태풍』은 탈식민주의적 역사 다시 쓰기의 형식과 더불어 내용상으로도 탈식민성을 강하게 띤 텍스트이다.¹⁶⁰⁾

본고는 최인훈의 『태풍』과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의 1902년 출간 소설 「태풍」(“Typhoon”)을 비교 분석한다. 최인훈은 콘래드의 소설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인훈의 자전적 소설인 『화두』(1994)의 주인공은 미국 체류 중 콘래드에 대해 2번 언급한다.¹⁶¹⁾ 최인훈은 『중앙일보』에 『태풍』 연재(1973.1.1~10.13)를 마친 직후에 도미하

「최인훈 소설과 로브그리에 소설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 154) 배지연, 「최인훈 소설 『태풍』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347~348쪽 참조.
- 155) 비교문학자이기도 한 해럴드 블룸이 개별 시인에게 있어 자신에게 문학적 부친과 같은 선배 시인에게만 한정해 영향론을 펼치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해럴드 블룸, 양석원 옮김,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참조. 블룸의 이론에 기댄다면 최인훈에게는 자신이 ‘선배 문학자’라 칭한 박태원, 이태준과의 영향 관계를 논할 수 있다. 『화두2』, 문학과지성사, 2008, 52쪽 참조. 최인훈이 직접 셰익스피어를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희곡 창작 시절을 회고할 때인데, 그는 소설과 희곡의 차이를 강조하며 셰익스피어 예를 통해 서양 문학사에서 희곡이 갖는 위상이 소설보다 높음을 언급한다. 「『두만강』에서 『바다의 편지』」,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지성사, 2010, 434쪽 참조.
- 156) 박규현, 「역사 다시 쓰기의 가능성: 최인훈의 『태풍』과 세제르의 『어떤 태풍』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78집, 한국비교문학회, 2019.
- 157) 서구의 고전에 대한 제3세계 지식인들의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writing-back) 행위에 대해선 유희석, 「탈식민주의로서의 ‘되받아쓰기’와 식민성」, 『비교문학』 74집, 한국비교문학회, 2018 참조. 이 연구는 수단의 소설가 타예브 썰리흐의 소설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Season of Migration to the North*)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와 콘래드의 『어둠의 심연』에 대한 되받아쓰기임을 주장한다.
- 158) 최인훈은 1970년에 이미 희곡(「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창작을 시작하였는데 만약 최인훈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정전으로 삼아 창작을 했다면 왜 같은 장르의 희곡이 아닌 소설을 창작했는지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다.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1994, 382쪽 참조.
- 159) 박규현, 위의 논문, 26쪽 참조.
- 160) 구재진의 연구는 『태풍』이 탈식민적인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소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그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하기’(remembering)와 ‘다시 쓰기’(rewriting)를 들고 있다.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텍스트 다시 쓰기가 『태풍』에서 구현됨을 증명하고 있지만 다시 쓰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문학이 아닌 역사뿐임을 주장한다.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24, 현대소설학회, 2004, 352~354쪽 참조. 본고는 『태풍』의 다시 쓰기가 서구 정전 문학 텍스트에 대한 되받아쓰기임을 주장한다. 박진영의 연구는 『태풍』의 오토메나크가 탈식민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을 지적하고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 소설이 갖는 탈식민성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재진의 연구와 대척점에 있다.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304~306쪽 참조.
- 161) 『화두』의 주인공은 1973년 가을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해외작가초청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출신 작가 두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작가는 극작가이자 레지스탕스 출신으로서 주인공은 그와 폴란드의 정치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두 번째 작가는 콘래드를 연구하는 영문학 교수로서 이 교수는 폴란드에서 발행된 자신의 콘래드 저서를 주인공에게 보여준다. 『화두1』, 문학과지성사, 2008, 126~129쪽 참조. 주인공은 1979년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그는 1973년의 방문 때보다 처

여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해외초청작가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에 참여하는데 이때 폴란드 작가 2명을 만나고 콘래드를 떠올린다.

1950년대 후반 콘래드의 대표 중편소설과 장편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¹⁶²⁾ 백낙청은 1969년 4월 「콘래드文學과 植民地主義」를 발표한다.¹⁶³⁾ 백낙청은 이 비평에서 서구의 논자들에 비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을 이른바 ‘탈식민주의적’ 독법으로 읽고 있으며¹⁶⁴⁾ 「어둠의 심연」과 더불어 콘래드의 초기 중요작품으로 「태풍」을 들고 있다. 백낙청은 콘래드 문학이 “바다에서, 정글에서, 또는 남양의 외딴섬에서 극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혼란을 꿰뚫어 보는 시선”¹⁶⁵⁾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태풍』의 한 공간적 배경이 되는 남양군도(南洋群島)는 일본 제국이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지배했던 지역으로 일본은 이 지역 섬들을 발판 삼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려 했다.¹⁶⁶⁾ 『태풍』에 등장하는 바리마호(號)는 니브리타(브리튼) 포로 송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로파그니스(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남양군도를 거쳐 동부로 향한다.

최인훈의 『태풍』이 ‘태풍’을 표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태풍의 의미에 큰 주목을 하지 않았다.¹⁶⁷⁾ 본고는 바리마호의 항해 서사를 중심으로 『태풍』을 분석하되 콘래드의 「태풍」과의 대위법적 읽기(contrapuntal reading)¹⁶⁸⁾를 통해 태풍의 새로운 의미 도출을 시도한다. 배타적 정체성이 생산하는 현실 문제의 해결법으로서 대위법적 사고가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¹⁶⁹⁾ 대위법적 독서는 서구 정전텍스트의 침묵을 적발하는 저항적 읽기이다.¹⁷⁰⁾ 본고는 최인훈의 『태풍』이 콘래드의 「태풍」에 대한 대위법적 읽기의 시

지가 나아진 자신을 인식한다. 1973년 방문 때 주인공은 자신의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작가’라는 이유로 초청을 받았음을 떠올리며 그때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 초라했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는 아이오와에서 만난 콘래드 연구자인 폴란드 작가를 떠올린다. 주인공은 폴란드 작가와 자신을 비교하는데 그가 비록 콘래드 연구 저서가 있지만 그 역시 해외 초청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처럼 미국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폴란드 작가가 콘래드 연구 저서가 있지만 그 자신이 콘래드가 아닌 이상 자신을 비롯해 다른 해외 초청 작가에게 주는 의미는 없다고 주인공은 생각한다. 최인훈, 같은 책, 173쪽 참조. 이 회고는 최인훈이 작가로서 콘래드를 높이 평가했음을 추정케 한다.

162) 콘래드의 소설은 1899년 발표작인 중편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이 1958년 나영균(정음사 세계문학전집 17권)의 번역으로, 장편인 1900년 발표작 『로드 짐』(*Lord Jim*)이 1959년 양원달의 번역(을유세계문학전집 98권)으로 출간된다.

163) 최인훈이 백낙청의 비평을 읽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인훈은 백낙청이 주도해 창간(1966년)한 『창작과비평』의 초창기 주요 필자였다. 『창작과비평』 초창기 이 기간지에 실린 최인훈의 소설과 에세이는 다음과 같다. 『춘향년』(1967년 여름호), 『영화 <한>의 안팎』(1967년 겨울호), 『총독의 소리』(1968년 겨울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년 봄호).

164) 나이지리아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는 1977년 「아프리카의 이미지: 「어둠의 심연」의 인종주의」(“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에서 이 소설의 인종주의를 비판했고, 본격적인 탈식민주의적 독법에 바탕한 「어둠의 심연」 작품론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1993) 제1장에 실린 「어둠의 심연」에 나타난 두 가지 비전(Two Visions in Heart of Darkness)이다. 백낙청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영국 소설: 디킨스에서 로렌스까지』(*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1970)에서 「어둠의 심연」의 사회적·역사적 내용을 제거하는 비평에 대해 반론을 펼쳤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백낙청, 「주체적 인문학을 위한 서양명작 읽기」,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비, 2011, 325쪽 참조.

165) 백낙청, 「콘래드文學과 植民地主義」,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198쪽 참조(강조는 인용자). 남양군도를 배경으로 하는 콘래드의 소설로는 「태풍」, 「그림자 선」, 『섬의 부랑자』(*An Outcast of the Islands*)를 들 수 있다.

166) 조성윤,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 『탐라문화』 37호, 2010, 133쪽 참조.

167) 정과리의 연구는 태풍이 바다의 사건이고 이 태풍이 결국 오토메나크에게 새 삶을 주었음을 주장하지만 소설에서 태풍이 갖는 서사적 의미는 주목하지 못한다. 정과리, 「모르기, 모르려 하기, 모른 채하기」, 『시학과 언어학』 1권, 2001, 121쪽 참조. 정호웅 역시 이 소설이 오토메나크를 비롯해 태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주목하고 태풍의 상징을 식민주의의 거센 바람으로 이해하지만 전체 소설에서 태풍이 갖는 의미는 주목하지 못한다. 정호웅, 「존재 전이의 서사」(해설), 『태풍』, 문학과지성사, 2009, 516쪽 참조. 배지연의 연구는 『템페스트』와의 상동성 차원에서 『태풍』의 주제 의식인 자아의 회복이 태풍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배지연, 앞의 논문, 352쪽 참조. 마희정의 연구는 태풍의 의미를 세 가지(오토메나크의 정신적 동요, 국가 간의 전쟁, 자연의 태풍)로 구분하고 오토메나크가 정신적 태풍을 통해 주체로 바로 섬을 주장한다.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비밀’의 서사 전략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0, 267쪽 참조.

168)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3, pp.66~67 참조.

169) *ibid.*, p.336 참조.

170) 윤지관, 「분단체제하에서 영문학하기」, 설준규·김명환 편, 『지구화시대의 영문학』, 창비, 2004, 33쪽 참조.

도임을 증명하는데¹⁷¹⁾ 구체적으로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II. 망명 작가와 뿌리뽑힌 작가가 그리는 현재만을 사는 인물

최인훈은 망명자로서 강한 자기 인식을 지녔던 작가이다. 최인훈 소설의 주동 인물은 망명자로서 자신을 인식함과 동시에 망명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¹⁷²⁾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 서양 문화는 망명자, 이민자, 난민들이 만들어낸 작품(work)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¹⁷³⁾라고 주장하는데 최인훈은 이 주장이 비단 서양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최인훈은 외국에 거주하는 피난민의 의식을 논하며 모국에 사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서 한국인이 근대에 겪는 괴로움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국가를 비롯한 집단에의 소속과 성원으로서의 성숙이 ‘불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난민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하는 보편성을 담지하며 이들은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다.¹⁷⁴⁾ 최인훈이 피난민과 망명자를 소설의 주요 인물로 택하는 것은 따라서 필연적인데 그 인물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망명자로서 ‘불연속적인 존재 상태’(a discontinuous state of being)를 드러내고 있다.¹⁷⁵⁾

콘래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1857년에 태어나 러시아 전제 정치에 대한 혐오를 지니고 고국을 떠나 프랑스에 도착한 후 17세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신청했다 실패하고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영국 상선을 타게 된다. 1886년 영국 시민으로 귀화하고 선장 자격을 취득한다. 선원과 선장으로서 콘래드는 오대양을 누볐는데 그가 항해한 곳만 해도 아프리카 남해안,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서인도 제도, 남미 등인데 이 항해 체험은 『태풍』, 『그림자선』, 『노스트로모』(*Nostromo*), 『나르시서스호의 검둥이』(*The Nigger of the 'Narcissus'*)와 같은 이른바 해양소설의 소재가 되었다. 영국의 비평가 F. R. 리비스(F. R. Leavis)는 콘래드의 정치적 망명과 선원 생활이 그로 하여금 고립의 주제를 치열하게 다루게 하였으며 그가 무엇보다 ‘뿌리뽑힌’(deracine) 자였다고 말한다.¹⁷⁶⁾

171) 최인훈은 서양 문학에 대단히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영문학은 원서로 탐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화두』에서 주인공은 미국 체류 중(소설 속의 시간은 1976년) 맑스의 『자본론』 영역본을 구입해 읽는데 영어로 이 책을 읽는 것이 영어로 로렌스 스텐(Laurence Sterne)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화두1』, 2008, 문학과지성사, 474쪽 참조. 로렌스 스텐은 18세기 영국의 작가로 그의 소설 『트리스트럼 샌디』(*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는 탈근대 문학의 효시로 평가받으며 이 소설로부터 제임스 조이스, 토마스 만 등이 큰 영향을 받았다. 1976년에 로렌스 스텐 독서 경험을 말하는 『화두』의 장면은 최인훈이 영문학에 정통했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 『트리스트럼 샌디』는 2001년에 홍경숙에 의해 한국어로 초역된다.

172) 논자는 『회색인』(1963-1964)의 독고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의 구보 씨, 『화두』(1994)의 ‘나’가 망명자이자 강한 망명 의식을 지닌 인물임을 주장했다. 전두영, 『회색인』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탈식민주의적 상상 연구, 『語文論集』 90집, 중앙어문학회, 202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탈식민성 상상과 전쟁의 본질 연구, 『상허학보』 68집, 상허학회, 2023b; 『화두』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상호텍스트성 상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a 참조.

173) Edward Sai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173.

174) 최인훈, 『성숙과 소속』,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지성사, 1994, 359~361쪽 참조.

175) Edward Said(2000), op. cit., p.177 참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 씨는 불연속적인 존재 상태에 처한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함을 책망한다. 전두영(2023b), 앞의 논문, 104~105쪽 참조.

176) F. R. 리비스, 김영희 옮김,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 나남, 2007, 51쪽 참조. 리비스는 셰익스피어를 잇는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이 5명의 작가(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헨리 제임스, 조지프 콘래드, D. H. 로렌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삼지 않았던 유일한 작가는 콘래드였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한 콘래드가 영국소설의 전통을 창조한 작가들의 리스트에 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작가로서의 그의 위상을

‘태풍’ 사건 이후 『태풍』의 주인공 오토메나크는 아이세노단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감행한다. 망명의 직접적 이유는 ‘카르노스의 권고’¹⁷⁷⁾였지만 오토메나크의 망명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망명은 ‘추방의 관습’(practice of banishment)으로부터 기원하는데¹⁷⁸⁾ 나파유 제국 군인인 오토메나크는 나파유로부터의 추방을 예견하는 상황을 맞는다.

자신과 같은 애로크 출신이며 애로크-나파유 동조동근(同祖同根)설의 선전가인 이데올로그 마야카는 나파유의 패전을 예측하는데 오토메나크는 패전의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마야카가 본모습을 드러낸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애로크-나파유 동조동근설은 아시아 공동체론의 밑절미가 되는 이론이었고 이 이론에 대한 신념은 오토메나크로 하여금 현재의 임무를 수행하게끔 한다. 이 이론의 이데올로그가 이 이론이 거짓이라는 ‘진실’을 말하고 오토메나크의 임무 완수에는 무관심한 채 무사 생환만을 바란다는 오토메나크 부친의 전언을 전달할 때 “오토메나크라는 배는 방향을 잃어버렸”(90쪽)고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된 선장과 같”(같은 쪽)았다.

사상의 뿌리인 나파유로의 귀환이 가로막힌 오토메나크는 추방을 예감하는데 이미 나침반이 망가져 방향을 잃은 오토메나크에게 포로 송환의 임무를 수행할 바리마호가 맡겨진 것은 아이러니하다. 아버지와 마야카는 오토메나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던 이들인데¹⁷⁹⁾ 이들(과거)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는 오토메나크는 마치 유령과 같았다.

그의 세계가 깨어진 것도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를 오늘날과 같은 사람으로 키워 온, 바로 그 손이 전혀 뜻밖에 그 껍질의 안쪽을 보여줬던 것이다. (...) 청년은 스물 몇 해의 시간을 갑자기 빼앗긴 사람과 같았다. 이런 남자가 유리창에 어려 있었다. 자기가 산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이 남자는 유령과 같았다(78~79쪽).

새로운 나침반이자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카르노스를 따라 바리마호에 승선해 바리마호를 이끄는 지휘관 오토메나크에게 바리마호 선원 일행은 새로운 가족이다. 바리마호 항해가 끝난 후 오토메나크는 자신이 호송한 니브리타 포로 메어리나와 실제 가족을 이루는데 가족의 모습은 운명공동체인 바리마호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셈이다.¹⁸⁰⁾

『태풍』의 주인공 맥휘 선장(Captain MacWhirr)은 본국(영국)에 가족이 있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의 가족 방문은 매우 드물었으며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승진(promotion)과 바다에서의 그의 이동 정보만 편지를 통해 알릴 뿐이었다.¹⁸¹⁾ 맥휘 선장에게는 물에 있는 가족과 형성하는 가족-공동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현이 최인훈 소설의 주요한 주제 의식을 ‘뿌리 뽑힌 인간을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 확대해 묘사함’으로 지적하는 것은 콘래드 소설과의 비교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6, 408쪽 참조.

177) 최인훈, 『태풍』, 문학과지성사, 2009, 498쪽. 『태풍』은 『중앙일보』에 1973년 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연재되었다. 본고는 2009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전집 판본을 사용한다. 이하 『태풍』의 인용은 괄호에 쪽수만 표기한다.

178) Edward Said(2000), op. cit., p.181 참조.

179) 아버지와 마야카는 각각 오토메나크에게 생물학적/사상적 부친이었는데 이수형의 연구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기원하는 부정적 권위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오토메나크에게 카르노스가 새로운 아버지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태풍』의 서사 구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49쪽 참조. 바리마호 난파로 사망한 카르노스의 부채를 두고 오토메나크가 “모든 괴로움을 그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 마음껏 물어보고 시원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테지. 원통한 일이었다(453쪽).”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타당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180) 장문석의 연구는 『태풍』 에펠로그에서 보이는 오토메나크의 변모가 인종과 지리를 넘어선 아시아주의의 실천임을 주장하는데 본고는 바리마호가 운명공동체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이미 오토메나크의 변화를 감지케 한다고 주장한다. 장문석, 앞의 논문, 58쪽 참조.

181) Joseph Conrad, “Typhoon”, *Typhoon and Other Tale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0, p.251 참조. 이하 『태풍』

(family-community)보다는 선상의 선원들과 형성하는 임무-공동체(duty-community)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상(海上)은 인간의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인데 여기서 선원들의 공동체가 형성하는 인간결속은 해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미덕이 된다.¹⁸²⁾

두 소설의 주인공은 과거나 가족과 절연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두 사람 모두 현재만을 사는 인물들이다. 오토메나크에게는 니브리타 포로 50명을 바리마호를 통해 호송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맥휘 선장에게는 중국인 노동자 200명을 난산호(Nan-Shan)를 통해 남양군도에서 중국 푸저우(福州, Fu-chau)까지 이송하는 일이 주어졌다. 유령과 같은 상태인 오토메나크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완수만을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맥휘 선장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당면한 임무(immediate duty)만을 외골수의 주목(singleminded attention)을 통해 감당한다.¹⁸³⁾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최인훈의 『태풍』 창작이 콘래드 소설에 대한 되받아쓰기인지 검토한다.

Ⅲ.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통한 저항적 글쓰기

『태풍』의 난산호는 맥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모두 영국인이지만 태국(Siam) 회사가 소유한 증기선으로 코끼리가 그려진 선기(船旗, ensign)를 달고 있다. 영국인 일등항해사 주크스(Jukes)의 눈에 코끼리가 그려진 선기는 우스꽝스러웠는데 그는 선기의 코끼리를 보며 노아의 방주 코끼리를 떠올린다(p.254). 주크스는 태국의 선기를 조롱하면서 일등기관사 라우트(Solomon Rout)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조롱 속에서 꺼낸 단어인 노아의 방주는 난산호의 앞날을 예견케 하는 말이기도 하다.¹⁸⁴⁾ 맥휘 선장에게는 열대 지방 식민지¹⁸⁵⁾에서 수년간의 노동을 마친 200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그들의 고향인 푸젠성(福建省, the Province of Fo-kien)까지 이송시키는 일이 주어졌다(p.251).

영국인 선원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맥휘 선장의 눈에 비치는 중국인의 모습을 콘래드는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그들은 서양인 선원의 활기 있으며 지성적이고 남성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일 뿐이다. “그들[두 중국인 노동자]은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자마자 죽은 것처럼 보였다. 다른 세 명은 야만적(barbarously)으로 다투고 있었고, 갑판에 앉은 다른 하나는 무릎을 세우고 소녀 같은 태도로 고개를 옆으로 숙이고 있었다(p.262, 강조는 인용자)” 난산호에는 중국어 통역사가 있어서 선원과 중국인 노동자

의 인용은 괄호에 p.쪽수로 표기한다.

182) 이상욱, 『조셉 콘래드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227쪽 참조.

183) Edward Said(1966), op. cit., p.115 참조.

184) 『태풍』의 바리마호가 태풍으로 인해 좌초한 후 이 배의 운명이 “노아의 궤짝 배”(437쪽)와 같다고 서술되는데, 좌초 후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장의 이름은 ‘죽음의 방주’이다. 운명공동체로서 바리마호가 갖는 의미는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운명공동체였음을 상기한다면 두 소설에 등장하는 배의 구성원들 역시 운명공동체로서 항해를 감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가 1년여간의 대홍수를 맞닥뜨렸듯이 바리마호와 난산호도 태풍이라는 위기를 맞닥뜨린다.

185) 원문에는 colonies라고 표기돼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로 추정된다. 1841년 영국의 홍콩 점령 이후 영국에 의한 중국인 노동자 차출이 이루어졌는데 이 차출은 남양군도를 비롯한 열대 해양성 기후 지역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풍』에 등장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홍콩에서 가까운 푸젠성 출신이다. 화물을 적재하는 선창을 통한 아시아계 노동자의 이송 및 이주가 19~20세기 태평양 전역의 증기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민용, 『횡태평양 증기선 항로와 미국-동아시아 관계망 형성』, 『서양사론』 149권, 한국서양사학회, 2021, 181쪽 참조.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지만 일등항해사 주크스의 눈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다음과 같이 보였다.

갑자기 쿨리¹⁸⁶⁾ 중 한 명이 말하기 시작했다. 빛이 그의 여위고 긴장된 얼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는 으르렁거리는 사냥개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벙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몇 달리가 굴러가며 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팔을 뻗고 입을 까맣게 벌렸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목구멍의 굉음은 마치 **짐승이 웅변 (be eloquent)을 시도한 것처럼** 묘한 감정을 동반하며 주크스를 관통했다(p.304, 강조는 인용자).

서양이라는 문명의 대척점에 야만으로서 중국을 위치시킬 때 그들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소리일 뿐이다. 비단 「태풍」뿐 아니라 콘래드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작품 중 최초로 번역된 「어둠의 심연」을 통해서도 비유럽인을 대하는 콘래드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여성(커츠의 약혼녀인 백인 여성과 커츠의 정부였던 흑인 여성)을 묘사하는 콘래드의 태도 차이를 두고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인종차별적이라 주장한다. 아체베는 콘래드의 태도 차이가 미묘하지만 직접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는데 백인 여성에게는 명백히 ‘인간적 표현’(human expression)을 부여하고 흑인 여성에게는 그것을 유보하기 때문이다.¹⁸⁷⁾

콘래드 소설의 주요한 주제 의식 중 하나가 문명인(유럽인)이 서양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라면¹⁸⁸⁾ 「어둠의 심연」뿐 아니라 「태풍」 역시 이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다. 맥휘 선장을 비롯한 영국인 선원들은 해상에서 태풍으로 인해 고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야만이라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 둘러싸여 고립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행동은 식민자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1841년 영국은 제1차 아편전쟁 중 홍콩 점령에 성공하는데 이른바 극동 지역까지 그들의 세력을 넓힌다. 소설에서 영국인 선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영국의 아시아 점령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고 콘래드는 자신에게 두 번째 국적을 허락해 준 영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대한(tolerant) 태도를 보였다.¹⁸⁹⁾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는 서구 고전의 보편성을 약화시키며 다양한 독서의 가능성을 여는 글쓰기이다.¹⁹⁰⁾ 또한 제3세계 지식인들이 시대적 한계를 노출한 서구의 고전을 비판적

186) Coolie는 한자 傭力의 음역으로 중국인 육체노동자를 뜻하는데 다양한 국적(인도, 일본 등)의 쿨리가 있으나 19세기에는 중국인 노동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용됐다. 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과 이민자들」, 『역사와 세계』 56, 효원사학회, 2019, 263쪽 참조.

187) Chinua Achebe, "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in ed. Robert Kimbrough, *Heart of Darknes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p.255 참조. 댐로쉬(Damrosch)는 리얼리즘 소설가로서 아체베가 수행한 비평이 콘래드의 모더니즘적 모호함에 대한 비판임을 지적하는데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콘래드의 소설에서 현실에 기반한 리얼리즘 정신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판단한다. 데이비드 댐로쉬, 김재욱 옮김, 『세계문학 읽기』, 앨피, 2022, 320쪽 참조.

188) John Thieme, *Postcolonial Con-Texts: Writing Back to the Canon*, London: Continuum, 2001, p.28 참조. Thieme은 「어둠의 심연」론에서 말로와 커츠가 유럽 사회를 떠나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탈식민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태풍」의 영국인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댐로쉬는 콘래드가 「어둠의 심연」에서 계몽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간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Thieme 및 본고의 주장과 대척점에 있다. 댐로쉬, 위의 책, 322쪽 참조.

189) Edward Said, *Joseph Conrad and the Fiction of Autobiogra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p.178 참조.

190) John Thieme, op. cit., p.13 참조. Thieme이 되받아쓰기의 실례로 드는 작품은 다음과 같은데 존 쿿시는 『로빈슨 크루소』를 『포』(Foe)로, 치누아 아체베는 「어둠의 심연」을 『신의 화살』(Arrow of God)로 되받아 썼다.

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기획이다.¹⁹¹⁾ 그런 면에서 『태풍』 바리마호의 항해는 「태풍」 난산호의 항해를 대결 의식 가운데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태풍』의 바리마호는 동양인¹⁹²⁾이 서양인(니브리타) 포로를 호송함으로써 항해의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키는데 이로써 탈식민적 저항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니브리타 포로가 모두 여성인 점 역시 「태풍」과 비교할 때 주목을 요하는 부분인데 「태풍」의 영국인 선원들이 중국인 남성 노동자를 여성화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태풍』은 서양인 포로를 모두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⁹³⁾ 또한 포로의 조건으로 제시된 7가지 사항 중 ‘교육이 낮은 자’ 항목은 서양인을 지성적으로 묘사한 「태풍」에 저항하며 되받아 쓴 부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226쪽). 「태풍」을 비롯한 콘래드의 소설을 ‘인간의 자기탐구담’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비평적 경향은 20세기 내내 그의 소설을 읽어내는 주류적 담론으로 위치를 점했다.¹⁹⁴⁾ 예컨대 미국의 비평가 앨버트 게라드(Albert Guerard)는 1958년에 발표한 비평에서 「어둠의 심연」의 주제를 두 주요 인물의 내면 상태로만 국한해 이해하는데 소설 속 커츠가 지녔던 정신적 공허함(hollowness)을 언급하고 소설의 주인공인 “말로는 자신이 자기발견(self-discovery)을 위한 영적인 항해 중(spiritual voyage)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반복한다.”¹⁹⁵⁾고 말한다. 만약 최인훈이 「태풍」 항해 서사가 갖는 제국주의적 요소를 인식하고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태풍』에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이는 탈식민주의 문학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두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항해 중 태풍 강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의 차이를 제시한다.

IV. 바다의 태풍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는 태풍: 태풍과 반란

맥휘 선장과 오토메나크가 각각 배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게 들이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태풍 강타였다. 그러나 두 소설은 태풍이라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기 외에도 각각 다른 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태풍」의 난산호는 항해 중 태풍을 맞닥뜨리는데 태풍의 강타로 배는 부서져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원들은 동요하였고, 이를 눈치챈 선실의 중국인들이 싸움을 시작한다. 중국인들은 태풍 때문에 동요하기도 했지만 배가 흔들리며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모은 달러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자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리비스는 중국인들의 싸움이 인간 사이의 또 하나의 태풍(the human hurricane of fighting coolies)¹⁹⁶⁾이라고 지적하는데 자연의 태풍과 사람이 만드는 태풍에 맥휘 선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된다.

우선 맥휘 선장은 동요하는 선원들과는 달리 태풍에 초인적이며 ‘영웅적’(heroic)¹⁹⁷⁾으로

191) 유희석, 앞의 논문, 164쪽 참조.

192) 바리마호의 지휘관 오토메나크는 애로크인이고 민간인인 선장과 해군 병사인 선원들은 모두 나파유인이다. 아이세노딘인인 카르노스는 육지에서는 억류자였으나 바리마호에서는 아이세노딘의 평화의 열쇠를 쥔 영향력 있는 국제적 정치가인데(346쪽) 그 역시 이 배의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193) 『태풍』 전체에서 오토메나크의 여성에 대한 시선이 정복자의 시선(박진영, 앞의 논문, 303쪽 참조)임은 사실이지만 니브리타 포로를 여성으로 설정한 의도는 정복자/원주민의 이항 대립으로만 해석되는 부분은 아니다.

194) 영문학자 이상옥은 콘래드 전체 문학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으로 주인공의 도덕적(자기) 발견을 들고 있다. 이상옥, 앞의 책, 331쪽 참조.

195) Albert Guerard, “The Journey Within”, in ed. Robert Kimbrough, *Heart of Darknes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p. 244.

196) F. R. Leavis, *The Great Tradition*, Middlesex: Penguin Books, 1962, p.206 참조.

197) *ibid.*, p.204 참조

대응한다. 그는 매뉴얼¹⁹⁸⁾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데 그의 지휘에 따라 난산호는 태풍이라는 난관을 극복한다. 또한 그는 중국인 사이에서 부는 태풍에 들어가 “배에서 싸움은 허용할 수 없다”(p.289)라는 원칙을 말하며 곧 질서와 품위를 회복시킨다.¹⁹⁹⁾ 태풍 장면에서 묘사되는 중국인은 안전한 항해와 공동의 안녕보다는 자신들의 돈만 신경 쓰는 이기적이고 저열한 존재들이다. 이들을 제압하는 맥휘 선장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중국인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모습은 맥휘 선장이 중국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장면(p.320)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맥휘 선장은 각 중국인이 상선할 때 얼마만큼의 달러를 들고 왔는지 알 수 없고 그들이 그 금액에 대해 거짓말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국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만큼 노동했으리라 단정하고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데 이는 중국인 사이에 부는 태풍을 잠재우는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등항해사 주크스는 맥휘 선장의 달러 분배가 “확실히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었다”(p.320)라고 회고한다. 주크스의 회고는 달러 분배를 두고 맥휘 선장이 택할 수 있었던 여러 선택지를 보여준다.

그[맥휘 선장]는 말했다. 달러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고 배에 상선할 때 얼마를 지녔는지 알 수 없는데 그들[중국인]이 나에게 거짓말할 것이 두려웠기에 난 간단한 방법을 스스로 찾았어.

나[주크스]는 그가 옳다고 생각했지. 푸저우에 도착해 중국 관리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분배시키는 것보다 그는 그 돈을 모두 자신이 갖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p.320, 강조는 인용자).

결과적으로 맥휘 선장은 중국인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줬지만 그가 중국인의 돈 전체를 자신이 갖는 것도 중국인 사이의 태풍을 잠재우는 한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중국인들이 배에서 싸움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맥휘 선장의 원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들 노동의 결과물을 맥휘 선장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중국인들로부터 허락받을 수 없는데 오히려 주크스는 중국인들도 맥휘 선장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했다고 회고한다. 리비스는 태풍에 대응하는 맥휘 선장이 영웅적이라 평가하지만 중국인 사이의 태풍을 잠재우는 그의 모습은 식민자의 그것이며 인종차별적이다.

아카나트 소령을 통해 비밀리에 오토메나크에게 내려진 지령은 바리마호를 통해 니브리타 포로 50명을 송환하는 것이었다. 니브리타 포로들은 태풍이 불기 직전 반란을 일으킨다. 포로들은 바리마호가 포로 송환을 위한 목적지인 동부가 아닌 출항지인 로파그니스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배를 세우든지 아니면 동부로 키를 돌리기를 요구한다. 이때 바리마호 선장은 수평선 위를 가리키며 태풍이 오고 있음을 오토메나크와 포로들에게 알린다.

“잘 보시오. 수평선 위에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안 보입니까?”

198) 태풍이 지나갔다는 주크스의 말에 맥휘 선장은 “매뉴얼에 따르면”(According to the books, p.305)이라고 말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199) F. R. Leavis, op. cit., p.206 참조.

[…]

“태풍입니다.”

[…]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년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391~392쪽).”

오토메나크는 태풍이 배를 강타하기 전에 반란을 제압하려 했으나 교전 중에 태풍은 배를 덮쳤고 바리마호는 섬에 좌초된다. 배가 섬에 좌초되면서 포로들의 반란은 자연스레 진압되었다. 50명의 포로 중 살아남은 19명의 포로는 거의 별거숭이 상태(416쪽)였는데 별거숭이 상태의 여자 포로들을 오토메나크는 취조한다. 반란은 포로들 사이에서 일어난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토메나크는 바다에서 본 태풍의 힘을 빌려 포로들의 반란을 제압한다. 니브리타 포로들이 별거숭이 상태로 오토메나크로부터 취조받는 장면은 『태풍』에서 중국인들이 맥휘 선장으로부터 굴욕적으로 달리를 나눠 받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오토메나크 뿐만 아니라 바리마호의 수병들도 배의 좌초 이후 포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들을 ‘송환해야 하는 민간인들’(459쪽)이 아닌 ‘분명하게 적’(같은 쪽)으로 인식하며 난폭하게 대했다. 특히 상사가 오토메나크에게 포로들을 겁탈하자고 건의하는 장면은 이 태도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상사는 “나파유 수비대가 전멸한 섬에 상륙한 아키레마[아메리카] 군대가 부녀들을 능욕하고, 학살했다”(473쪽)는 이유를 들어 나파유 부녀자가 당한 방식 그대로 포로들에게 되갚아 주려고 한다. 오토메나크는 자신이 ‘반(反)니브리타주의자’(473쪽)임을 분명히 인식하지만²⁰⁰ 상사의 건의를 묵살하는데 그에게 니브리타 제국주의자는 남성으로만 표상되기 때문이다.²⁰¹ 니브리타와 아키레마의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오토메나크에게는 졸렬한 행위이며 명백한 전쟁 윤리의 위반이다.²⁰² 무엇보다 **오토메나크와 니브리타 포로 메어리나의 결혼은 오토메나크가 배타적인 방식에 근간한 제국주의 행태²⁰³를 한 차원 넘어섰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태풍』의 바리마호 항해 서사는 태풍 강타와 포로들의 반란이 주 골격을 이루는데 이는 『태풍』의 난산호 항해 서사를 되받아 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작가로서 최인훈은 『태풍』에서 묘사되는 중국인의 모습이 문제적이라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의식을 『태풍』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의 정전이지만 비서구에서 인종차별주의의 의심을 받던 콘래드의 소설은 제3세계 작가에 의해 되받아쓰기의 대상으로 활용되는데²⁰⁴ 최인훈은 아시아를 배경으로 아시아가 서양과 대결하는 소설의 창작을 통해 콘래드의 소설을 되받아 쓴다.

200) 이나운은 오토메나크의 반니브리타주의가 그의 나파유주의와 같이 형식으로서의 정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의 행동이 깊은 사유로부터 연원함을 살펴볼 때 그의 사상을 형식(기표)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나운, 『최인훈의 『태풍』 연구』, 『문화와 융합』 44(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66쪽 참조.

201) 송효정의 연구는 오토메나크가 니브리타 포로 여성을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는 심리적 변화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족간의 젠더 위계화에 간혀 있음을 지적한다. 송효정,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파시즘의 논리』, 『비교한국학』 14,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117쪽 참조.

202) 여성 포로들을 니브리타 제국주의자로부터 제외하는 행동은 이념(제국주의)보다 전쟁 윤리 준수를 상위에 두는 행동이기도 하다. 베트남전과 보어 전쟁에서 계획적으로 실행된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 윤리 위반에 대한 최인훈의 비판적 시각은 전두영(2023b), 앞의 논문, 103~110쪽 참조.

203) Edward Said(1993), op. cit., p.336 참조.

204) 찰리흐와 아체베는 각각 『어둠의 심연』을 되받아 쓴다. 유희석, 앞의 논문, 155~156쪽 참조; John Thieme, op. cit., p.15 참조.

V. 결론

최인훈은 1979년 한 대담에서 『태풍』의 형식과 내용이 자신의 전작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지난 73년에 『태풍』이라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전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썼는데 그 두 소설을 가지고 그 동안에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소설로 집성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소설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예술가 소설이고 『태풍』이란 것은 완전히 소설적인 기승전결과 스타일이 있다든지 로망까지 주어가면서 **앞에 했던 실험적인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독자들이 눈살을 찌푸릴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억제**해가면서 그 동안에 하고 싶었던 문학적 주제 집대성해놓은 것인데요.²⁰⁵⁾

요약하자면 『태풍』은 전작들과는 달리 리얼리즘 정신에 충실한 작품인데²⁰⁶⁾ 최인훈이 필생에 펼쳐놓고 싶었던 문학적 주제를 창작으로 실천한 작품이기도 하다.²⁰⁷⁾ 이 소설의 창작 자원이 되는 유럽 문학과 아시아 세계의 문화권의 실체에 대해 최인훈이 『태풍』을 창작할 때 지녔던 리얼리즘 정신을 두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콘래드의 「태풍」과의 대위법적 읽기가 『태풍』 해석의 풍성함을 더한다고 주장한다.

남양군도를 배경으로 영국인과 중국인의 인종적 갈등을 그리는 콘래드의 「태풍」은 『태풍』의 실증적 창작 자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인훈은 「태풍」을 창작 자원으로 삼되 이 소설에 도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되받아 쓴다.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분류되는 콘래드는 주제 의식과 소재 면에서 「태풍」과 비교되는 중편소설 「그림자 선」(“The Shadow Line”)²⁰⁸⁾의 저자 서문에서 자신의 창작이 현실에 기반함을 주장한다.

사실 나의 상상력은 살아있고 고통받는 인간들의 세계 너머로 나아갈 만큼 신축적이지 못하다. (...)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 자체로도 진기하고 신비한 일들로 가득한데 이 진기하고 신비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에 작용하는 방식이 불가사의해서 인생을 마법에

205) 최인훈,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1994, 381~382쪽(강조는 인용자). 또 다른 대담에서 최인훈은 『태풍』의 인물, 공간, 시간이 모두 픽션이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픽션은 오히려 현실에 근거함으로 이 소설은 “픽션이라는 문학 관습에서 요구하는 메타포를 전부 만족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켰다고 주장한다. 『길에 관한 명상』, 2010, 432~433쪽 참조.

206) 박인성은 『태풍』이 전작과는 달리 최인훈 소설의 형식적 복잡성이 제거된 예외적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박인성,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시대착오와 평행세계의 상상력」, 『동서인문학』 5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76쪽 참조.

207) 본고는 최인훈이 말하는 ‘문학적 주제’ 중 하나가 탈식민성이라고 주장하는데 탈식민의 문제는 『태풍』의 창작 시기인 1970년대 당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태풍』의 시간적 배경이 1940년대임을 들어 이 소설의 서사가 ‘동시대성에 대한 사실상의 철회’라고 주장하는 박인성의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주장과 대척점에 있다. 박인성, 위의 논문, 91쪽 참조.

208) 초임인 자일스 선장(Captain Giles)은 노련한 선원들과 태국 연안으로 첫 항해를 떠나는데 출항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의 모든 선원들이 말라리아에 걸린다. 자일스 선장은 미리 치료약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는데 그의 배는 태국만에서 그림자 선(shadow line)에 걸린 듯 15일간 꼼짝하지 않는다. 선원들은 배가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불어온 태풍이 배를 움직이게 해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한다.

걸린 상태로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다. (...)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기에는 진기함에 대한 나의 의식은 너무나 확고하다.²⁰⁹⁾

현실과 역사를 등지지 않고 대결한 작가 의식 면에서 두 작가의 상동성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본고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중심에 둘 때 최인훈의 소설이 콘래드의 소설에 대한 탈식민적 대응임을 주장했다. 최인훈은 저항적 읽기를 통해 콘래드의 「태풍」에 내재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발견하고 자신의 창작을 통해 서구의 정전을 저항적으로 되받아 쓴다. 콘래드의 「태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동양인은 최인훈의 『태풍』에서 비로소 자신의 언어를 찾았다. 최인훈은 시대적 한계를 노출한 서구의 정전을 되받아 썼지만 『태풍』의 바리마호 서사는 서구의 행태를 그대로 되값는 것을 한 차원 넘어섰으며 이는 탈식민주의 문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209) Joseph Conrad, "Author's Note", *The Shadow Line*, Firenze: Giunti Editore, 2001, p.15.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최인훈, 『태풍』, 문학과지성사, 2009.
최인훈, 『화두』, 문학과지성사, 2008.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1994.
최인훈,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지성사, 1994.
최인훈,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지성사, 2010.
Conrad, Joseph, “Typhoon”, Typhoon and Other Tale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0.

2. 단행본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6.
댐로쉬, 데이비드, 김재욱 옮김, 『세계문학 읽기』, 엘피, 2022.
리비스, F. R., 김영희 옮김,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 나남, 2007.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비, 2011.
설준규·김명환 편, 『지구화시대의 영문학』, 창비, 2004.
블룸, 해럴드, 양석원 옮김,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이상옥, 『조셉 콘라드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Conrad, Joseph, The Shadow Line, Firenze: Giunti Editore, 2001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Middlesex: Penguin Books, 1962.
Said, Edward, Joseph Conrad and the Fiction of Autobiogra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3.
Said, Edwar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Thieme, John, Postcolonial Con-Texts: Writing Back to the Canon, London: Continuum, 2001.

3. 논문

-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24, 현대소설학회, 2004.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김혜영, 「최인훈과 오에 겐자부로 소설의 8·15 형상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마희정,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비밀’의 서사 전략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0.

- 박규현, 「역사 다시 쓰기의 가능성: 최인훈의 『태풍』과 세제르의 『어떤 태풍』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78집, 한국비교문학회, 2019.
- 박인성,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시대착오와 평행세계의 상상력」, 『동서인문학』 5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 배지연, 「최인훈 소설 『태풍』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서세림,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뢰거」와 최인훈의 「하늘의 다리」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 서은선, 「최인훈 소설과 로브그리에 소설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 송효정,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파시즘의 논리」, 『비교한국학』 14,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 안서현, 「최인훈의 『화두』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 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역사와 세계』 56, 효원사학회, 2019.
- 유희석, 「탈식민으로서의 ‘되받아쓰기’와 식민성」, 『비교문학』 74집, 한국비교문학회, 2018.
- 이나운, 「최인훈의 『태풍』 연구」, 『문화와 융합』 44(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 이민용, 「횡태평양 증기선 항로와 미국-동아시아 관계망 형성」, 『서양사론』 149권, 한국서양사학회, 2021.
- 이수형, 「『태풍』의 서사 구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 장문석, 「주변부의 세계사」, 『민족문학사연구』 65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 전두영, 「『회색인』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탈식민주의적 양상 연구」, 『語文論集』 90집, 중앙어문학회, 2022.
- 전두영, 「『화두』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상호텍스트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 전두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탈식민성 양상과 전쟁의 본질 연구」, 『상허학보』 68집, 상허학회, 2023.
- 정과리, 「모르기, 모르려 하기, 모른 채하기」, 『시학과 언어학』 1권, 2001.
- 정호웅, 「존재 전이의 서사」(해설), 『태풍』, 문학과지성사, 2009.
- 조성윤,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 『탐라문화』 37호, 2010.
- Achebe, Chinua, “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in ed. Robert Kimbrough, Heart of Darknes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 Guerard, Albert, “The Journey Within”, in ed. Robert Kimbrough, Heart of Darknes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전두영 선생님의 연구 「최인훈의 『태풍』 과 콘래드의 『태풍』 비교 연구」 에 대한 토론문

장준영(중앙대)

전두영 선생님께서 제출해주신 연구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최인훈의 『태풍』이 유럽 문화를 의식하며 쓰였다는 것을 단서 삼은 그동안의 연구가 (세부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의 관련성에만 주목해왔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해주신 점이 설득적이었습니다. 또한 『화두』 등에서 작가가 콘래드에 대한 관심과 작가 나름의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콘래드의 대표 중편소설인 「태풍」의 되받아쓰기로서 『태풍』의 의의를 밝히는 작업은 작가 최인훈의 역사 인식과 탈식민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훈과 탈식민주의의 관계성을 그동안 면밀히 고찰해오신 선생님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최인훈과 콘래드의 작품에 등장한 태풍의 의미 층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되받아쓰기로서 『태풍』의 의의가 더 잘 드러나려면 이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콘래드의 작품에서 태풍은 자연현상이자 천재지변인 동시에, 기압계의 표시가 계속 떨어짐에도 당대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던 증기선 난산 호를 믿고 방향을 틀지 않았던 맥휘 선장의 결정으로 마주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무엇보다 태풍 속에서 난산호가 조난에 가까운 궤멸적인 피해를 입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소설의 분량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인훈의 『태풍』은 바리마호가 (함께 승선하지 않은) 상부 명령으로 선회한 후 마주하게 되는 재난이며, 큰 파도에 한번 휩쓸리는 것을 묘사한 직후 곧장 무인도 표류기로 서사를 이어나갑니다. 이는 바리마호와 난산호라는 배와 항해의 목적, 그리고 결정권자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맥휘와 선원들의 태도가 식민자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적으셨지만, 그들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함에 따라 정작 「태풍」이 선상의 협력만큼이나 선원 간 의견 차이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도 남습니다. “그[맥휘]는 어리석은 것 치고는 문제를 잘 해결해냈다”는 소설 말미의 주크스의 평가는 매뉴얼 대로 다소 무리해 배를 몰았고, 중국인들에게 돈을 공평히 나눠주는 등의 방식을 택했음에도 어찌됐든 푸저우 항구에 난산호를 정박시킬 수 있었던 맥휘의 선택이 목적 달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그에 대한 판단을 독자들의 것으로 열어두는 전략일 것이며 콘래드 「태풍」에 있어 감상의 폭이란 이러한 작가적 판단 유보에서 창출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암의 선기(船旗)와 관련한 에피소드 역시 그에 대한 주크스의 반감만이 아니라, 영국기를 달 수 있음에도 아시아의 깃발을 달고 출항하기로 결정한 맥휘의 선택이(그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선택일 수도 있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최인훈의 『태풍』이 콘래드의 「태풍」의 되받아쓰기라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되받아쓰기의 결과물인 『태풍』의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성과 설정의 세부가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최인훈의 『태풍』에서 ‘태풍’이 아만다 등 인물의 눈동자에서 발견되는 감정적 동요나, 무엇보다 마야카의 전언과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아키레마의 선전 방송을 듣고 급격히 흔들리는 오토메나크의 혼란한 내면을 비유한 것에 가깝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콘래드의 「태풍」은 전반적으로 주크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설이 진행되는 중 정작 중국인들에게 인종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인종적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역시 주크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크스가 맥휘라는 선장 인물 형상 뒤쪽에 숨겨진 채로(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자적 속성 역시 맥휘에게 전면적으로 전가된 채로) 논의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갑판 아래의 창고에 몰아넣어져 있었다는 사실, 그들에게 통역사가 있었지만 그 통역사의 영어마저 엉뚱한 피진 잉글리쉬로 여겨지는 점 등은 이 소설이 인종적 위계를 드러내고 언어 소통의 문제를 제시하는 식민주의적 방식을 보완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최인훈의 『태풍』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가 매우 적은 비중으로만 대두된다는 사실과 분명히 대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인물의 식민주의적, 혹은 탈식민주의적 의식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각 작품의 핵심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오토메나크와 니브리타 포로 메어리나의 결혼이 “배타적인 방식에 근간한 제국주의 행태를 한 차원 넘어섰다는 증거”라는 문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메어리나와 실제 가족을 이루는 흐름이 바리마호에 승선한 이들이 운명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그들의 언어의 차이와(그들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인종의 차이뿐 아니라 그들이 각각 식민자(메어리나)와 피식민자(점차 애로크 인의 피식민 상태를 깨닫는 오토메나크)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듯합니다.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는 느슨한 공동체의 힘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오혜진(남서울대)

1. 불평등한 재난, 그 속의 희망

인류에게 재난은 그것이 자연재해건, 인재건 늘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재난이란 개념 역시 다양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²¹⁰⁾ 인류의 발자취는 재난과의 대응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그런 인류가 근대의 과학혁명과 의학 발전에 힘입어 재난을 관리하고 비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특히나 20세기에 접어들며 자연 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과거의 인간을 괴롭혔던 여러 사안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 부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더 강력한 형태의 폭염과 홍수, 산불 등은 겹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더구나 2019년 12월 이후 전 세계가 빠져들었던 코로나 19와 같은 팬더믹은 우리 앞에 여전히 재난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그리고 많은 재난이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Anthropocene)로 지칭하는 학자들이 1950년대부터 등장했다. 공식적으로 현재의 지질시대는 약 1만 700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이지만 “인류에 의해 지구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홀로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명명”²¹¹⁾하자는 주장이 지질학자, 생물학자, 대기과학자, 철학자 등 각 계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 이 용어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²¹²⁾ 사실상 “인류세는 생물권, 수권, 암석권, 대기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권역에서 인간의 활동

210) John C.Mutter, 장상미 역(2020), 『재난 불평등』, 동녘. 이 책에서 재난에 대한 정의를 4가지로 내리고 있다. “재난Disaster ①사고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대규모 손실과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 ②자연적 또는 우발적 재앙을 주요한 줄거리와 배경으로 삼는 영화의 한 장르를 가리킴. ③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사실. ④실패자로 행동하는 사람, 또는 실패한 것.”(p.40) 이 중에서 이 논문은 주로 ①의 경우를 가지고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다.

211) EBS 다큐프라임(2020), 『인류세:인간의 시대』, 해나무, p.18.

212) 2023년 7월 12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내년 8월 국제지질학총회 비준까지 마치게 되면,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1만1700년 동안 이어져온 ‘홀로세’(Holocene)를 끝내고 ‘신생대 제4기 인류세 크로퍼드절’에 살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이어 “인류세실무그룹(AWG)은 1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류세의 국제표준층서구역으로 크로퍼드 호수를 선정하고, 인류세가 시작된 1950년대에 전 지구에 흔적을 남긴 ‘플루토늄’을 주요 마커(표지)로 정했다고” 보도했다.(남종영(2023.7.12.) 「인류세 대표 지층은 캐나다 ‘크로포트 호수’」,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741.html>)) 물론 이 용어에 대한 비판도 한편에는 있다. 인류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인류세라는 어찌 보면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이 용어로 인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하기 어렵지만 용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인류세란 용어를 위의 개념과 여러 학자들의 정의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²¹³⁾이다. 다른 의미로 인류에 의해 지구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고 그것이 대부분 해로운 쪽, 즉 “생태계적 교란”을 넘어 “지구 시스템의 균열을 초래”²¹⁴⁾한다는 데 문제가 크다.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기 오염이다.²¹⁵⁾ 이렇듯 오염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수치를 보면 인류의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 듯도 하다.

이에 많은 작가들은 진작부터 재난이라는 화제를 화두 삼아 경고음을 보냈다. 편혜영이나 윤고은, 정유경 등이 펴낸 작품들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벌어진 재난에 집중하였다. 최근 여러 작품들은 미래의 재난을 예견한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가장 민감하고 전 지구적인 소재와 문제를 문학이 즉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이 담고 있는 절박성”²¹⁶⁾이 크다는 의견처럼 이 논문 또한 먼지와 녹지 않은 눈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변화한 재난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²¹⁷⁾ 기후 재난에 속할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투쟁, 희망 등을 그리고 있는 두 작품은 SF 장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접근한다. 두 소설은 또한 재난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재난에 의해 나누어진 세계에서 버려지고 힘 없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인연으로 얽혀 공동체를 이루거나 힘을 합한다는 점, 이 공동체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연대와 환대, 돌봄의 지점들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동시에 지녀, 두 작품에 주목해 보았다. 더불어 그 안에서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주체들의 몸짓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저서들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클라이브 헤밀턴의 『인류세』나 루시 존스의 『재난의 세계사』와 같은 책은 인류 앞에 놓인 위기와 재난 등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고, 머티의 『재난 불평등』은 인류가 맞이하는 재난조차 재산이나 권력에 의해 불평등하게 맞닥뜨리는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저서들은 재난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 구조 등을 돌아보게 해주는데 이 연구에 중요한 밑바탕을 열어 주리라 여긴다. 더불어 최근 논문들은 이 연구에서 다룬 작품 뿐 아니라 재난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신두호의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나 복도훈의 「인류세의 (한국)문학 서설」, 진선영의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USTOPIA)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은 인류세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여러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²¹⁸⁾ 최수진. 방재석의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연구」는 이경희와

213)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인간의 시대』, 앞의 책, p.30.

214) Clive Hamilton, 정서진 역(2018), 『인류세』, 이상북스, p.32.

215) <<유럽 심장 저널 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8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880만 명이 매년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라고 한다. 2021년 연구는 2018년 전 세계의 사망자 5명 중 1명이, 동아시아에서는 3명 중 1명이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 죽었다고 밝히고 있다. (Rebecca Solnit, 최애리 역(2022), 『오웰의 장미』, 반비, p.100, 각주13번 재인용)

216) 남진숙(2022), 「디스토피아(dystopia)적 상상력과 현실 문제 인식 - 소설집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1(1), 문학과환경학회, p.67.

217) 김초엽(2021),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조예은(2021), 『스노볼 드라이브』, 민음사.

218) 신두호(2016),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복도훈(2020), 「인류세의 (한국)문학 서설」, <한국문예창작>19(3), 한국문예창작학회./ 진선영(2022)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USTOPIA)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1(2), 문학과환경학회.

김보영의 SF작품을 통해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관점을 성찰하고 있다.²¹⁹⁾ 황지영의 「재난 유토피아와 그 증언-하기의 윤리-2020년대 SF(Science Fiction)에 나타난 ‘기후/생태 재난’을 중심으로」는 최근의 소설들에는 재난 속에서도 윤리적인 주체들이 등장하여 유토피아적 공간을 형성, 연대와 공동체를 만들고 이후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는데²²⁰⁾ 김초엽과 조예은의 소설도 함께 살펴보고 있어 관심을 요하지만, 증언하기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최근 작품들이 세계 대전과 환경오염을 겪으며 이상적인 유토피아보다는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디스토피아 작품이 증가하였음을 분석한 박상준과 남진숙의 글도 눈에 띈다.²²¹⁾ 재난 소설들에 드러난 내용들을 보다 세부적이고 주제론적인 접근 즉, 종교적 관점에서 재난을 바라본 김지혜의 글이나 사물, 동물, 식물 등과 관련되거나 포스트휴먼 등의 접근으로 특기할 만한 권두현, 노대원·황정임 등의 글들이 있다. ²²²⁾ 이러한 논문들에 나타난 징후들은 모두 암울하고 종말론적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과 불씨를 일으키기 위한 윤리적, 성찰적인 노력들이 움크리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이 논문도 재난의 상황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의 힘에 관심을 기울여 보려 한다. 인간은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존재”이며 “취약성(vulnerability)’에 의해 조건화”²²³⁾되었다는 말처럼 인간의 생래적인 취약성을 타인이나 외부 사물, 동식물에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 특히 기존 사회체제의 작동 붕괴나 환경이 급변하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 도움과 협력이 절실해진다. 이때 형성된 공동체는 기존의 공고한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위계질서나 가부장제와는 별개의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 공동체는 때로는 쉽게 만들어지고 와해되기도 하고, 구성원들 역시 조직화 되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느슨함은 유동적이고 열려 있음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난에 의해 형성된 느슨한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띠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희망을 성찰하는 노력으로도 이어지리라 예상한다. 이 공동체에 관해서는 재난이 닥쳐와도 사람들 사이에 협력과 도움으로 “재난 유토피아”를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 레베카 솔닛의 논의가 유효하게 작동하리라 본다.²²⁴⁾ 그 외 인간이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성원권과 타인에 대한 환대를 깊이 있게 다룬 김형경의 저서 『사람, 장소, 환대』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김순남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연대와 보살핌, 의존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이 치밀하게 직조된 조문영의 『빈곤과정』 등이 그 희망의 논의들을 도와줄 것이라 여긴다.²²⁵⁾

219) 최수진. 방재석(2021),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제22집.

220) 황지영(2022), 「재난 유토피아와 그 증언-하기의 윤리-2020년대 SF(Science Fiction)에 나타난 ‘기후/생태 재난’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58집.

221) 박상준(2022), 「과학 SF -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기술」, <과학과 기술>3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진숙(2022), 「디스토피아(dystopia)적 상상력과 현실 문제 인식 - 소설집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1(1), 문학과환경학회.

222) 김지혜(2017),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노대원·황정임(2020),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 권두현(2022), 「'실내 우주'의 SF 에톨로지* : 사물-동물-식물의 애니메이팅 인터페이스에 관한 일고찰」, 석당논총 8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23) 이재승(2022), 「취약성의 윤리와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 <철학논총> 제107집 제1권, 새한철학회, p.186.

224) Rebecca Solnit, 정혜영 역(2012),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225) 김순남(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김형경(2019),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조문영(2022), 『빈곤과정』, 글항아리.

이렇게 본 연구는 김초엽과 조예은,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재 인류에게 닥친 재난이 어떤 식의 징후로 그려지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인류에게 닥칠 어려움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SF적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작품의 의미와 전망까지 더듬어 보는 게 이 연구의 역할이자 활용도라 생각한다.

2. 재난 속 공동체와 이후의 영향력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초엽은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SF문학의 한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작품성과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왕성하게 소설을 쓰고 있는 김초엽의 작품 중 2021년에 나온 『지구 끝의 온실』은 최근 코로나 시절과 교묘하게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스트라고 하는 전지구적인 재난에 맞서 치열하게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고민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129년 더스트생태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아영에게 모스바나라는 식물이 버려진 구역에서 엄청나게 퍼져간다는 제보를 받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데서 소설은 시작된다. 인류는 더스트라는 하는 먼지와 모래 폭풍으로 인해 절멸의 위기를 맞고 돔 시티를 세워 선택받은 인류만이 그 안에서 생존한다. 돔 시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간다. 아마라와 나오미 자매도 쫓기며 살아가다 숲 속의 공동체가 있다는 소문을 믿고 그곳을 찾아간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프림 빌리지’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로 나름의 규칙과 공동경작으로 삶을 영위한다. 두 자매도 이곳에 정착하려 하지만 외부의 공격으로 프림 빌리지는 없어지게 된다. 아영은 이 모스바나를 추적하며 드디어 이 두 자매를 만나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 소설은 몇 가지 서사가 얽혀있다. 우선 간단하게 위에 정리한 아영의 모스바나에 얽힌 사연과 사건을 캐는 과정이다. 이것이 소설의 외부, 즉 액자에 해당한다. 여러 서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129년 아영의 모스바나 탐색 과정 -> 나오미 자매의 이야기
- ② 나오미 자매의 과거 - 프림 빌리지에서의 삶과 이후의 이야기
- ③ 아영의 어린 시절 - 지수와와의 만남
- ④ 지수와 레이첼의 만남과 헤어짐

2-4번까지의 서사는 아영의 탐색에 의해 복원되거나 말해진다. 아영에게 모스바나에 관한 사연을 들려주는 나오미 자매의 과거는 재난을 맞아 나누어진 세계를 극명하게 잘 표출한다. 같은 재난을 맞이했을 때라도 그 상황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존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되풀이해 보여주는데 이 작품 역시 다르지 않다. 돔 시티는 오로지 힘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선택되었다. 이는 칠레와 아이티에 닥쳤던 재난의 상황을 비교하며 “지배층은 재난의 충격을 완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죽고, 심하게 다치고, 집을 잃는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고통

받는다. 조금이나마 갖고 있던 것을 모두 잃는다”²²⁶⁾는 주장처럼 재난은 나오미와 같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이들은 더스트의 공격 속에서 서로 죽이고 약탈하며 생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존이 오래 갈 리 없고 약자들은 힘을 모으게 된다.

강수들은 근대적 연대 관념은 사회주의, 사회학과 함께 19세기 전반 “서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²²⁷⁾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의도일 터인데 소설 속 위기 상황은 자명하다. 나오미 자매가 찾아간 ‘프림 빌리지’는 근대적 의미의 연대가 구축되고 실현된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이상향의 모습이다. 프림 빌리지는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추정, 원시적인 공동체의 원형처럼 그려진다.

레이첼이 개조한 작물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는 것 외에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식재료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물론 주로 재배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다.(중략) 작물을 넉넉히 수확하는 날에는 허브를 올린 신선한 음식을 함께 요리해서 먹었다. 사흘에 한 번씩은 학교에 나갔다.(중략) 나는 더 이상 피를 뽑히지 않아도 되어서, 매일 밤 긴장 상태로 잠들지 않아도 되어서 이곳에서의 삶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좋았다. 이 마을이 나를 꼭 필요로 해주는 것 같아서.²²⁸⁾

위의 인용문은 나오미의 회상 속 프림 빌리지의 일상이다. “오늘날 크게 통용되는 연대 개념은 공동책임, 지원, 협력, 결속의 네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경향”²²⁹⁾과 같이 프림 빌리지의 삶의 규칙들은 상호 환대와 더불어 각자의 역할을 정해 농사를 짓거나 마을을 수리, 방어하는 등 공동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피해 다니며 불안과 공포로 일관했던 나오미 자매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 즉 성원권도 부여받는다. “재난 속의 잠시 동안의 행복”²³⁰⁾을 구가하는 이 공간은 급조된,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들이 모인 느슨한 공동체이다. 프림 빌리지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옹아매는 구속이나 강제가 없는 느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 근대적 연대 개념의 핵심 공통분모는 상호성(mutuality)으로서 이것은 연대 참여자의 개별성을 전제하면서도 참여자들 사이의 대등한 쌍방향적 사회관계를 지향”하고 “사회적/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더 큰 친화성을 갖는 경향이 있”²³¹⁾다는 의견처럼 구성원 모두 돔 시티에서 밀려난 약자들 간의 공감과 이해, 연대가 이들을 대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끈 큰 동력이다. 그 안에서 체득한 상호성과 환대의 경험은 나오미 자매와 그 외 구성원들이 모스바나를 심어 더스트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구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나오미 자매가 지수와 프림 빌리지로부터 얻은 선한 영향력과 공동체의 소중함은 강력할뿐더러 삶 전체를 가로지를 정도의 영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림 빌리지 내의 인공지능 로봇인 레이첼과 지수와 관계도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지수는 프림 빌리지의 대장격으로 나오고, 아영의 회상 속 인물이기도 하다. 레이첼은 모스바나를 심고 가꾸면서 더스트에 대항하는 식물을 만든다. 레이첼은 온실 속 정원을 통해 식물을 가꾼

226) John C.Mutter, 『재난 불평등』, 앞의 책, p.164.

227) 강수택(2022), 『팬더믹, 사회분열, 연대』,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p.178.

228)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앞의 책, pp.164~168.

229) 강수택, 『팬더믹, 사회분열, 연대』, 앞의 책, p.178.

230) Rebecca Solnit, 『이 폐허를 응시하라』, 앞의 책, pp. 454~455.

231) 강수택, 『팬더믹, 사회분열, 연대』, 위의 책, pp.178~179.

다. ”정원은 항상 생성의 장소이므로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희망의 몸짓이다. 지금 심는 이 씨앗들이 싹 터 자라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는, 봄이 오리라는, 그래서 뭔가 수확이 있으리라는 소망 말이다. 그것은 미래에 깊이 관여하는 활동이다.“²³²⁾라는 의견이 레이첼의 온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수가 레이첼에게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모호하다. 명백한 것은 지수가 로봇인 레이첼을 많이 의지하고 호감을 넘어선 감정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 김초엽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이나 인터뷰 등을 보면 기계적인 장치나 보조물에 인간이 가까운 미래, 아니 현재에도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음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고 그것의 필요성과 친연성을 인정했다. 안경에서부터 의족, 보청기, 인공 장기 더 나아가 우리의 뇌를 대신할 스마트폰까지, 인간에서 신체를 보조하고 대신해 주는 역할을 맡는 기계는 더 이상 미래만의 일은 아니다. 더 나아가 로봇과의 관계가 상호호환적이고 동료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 소설은 타진한다. 더구나 둘의 관계가 동성애적인 느낌도 있어 더욱 남다르다. 물론 레이첼은 로봇으로 성별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로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공동체는 인종, 성별, 나이, 계급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인간이 아닌 존재인 로봇까지도 포함된다. 코스모폴리탄적이고 포스트휴먼의 시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공동체가 보여줄 모습을 일정 정도 선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이 작품은 더스트라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미래의 재난에 약자들의 공동체가 상호협력과 책임으로 희망의 씨앗을 지닌 수 있었는가를 들여다보았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후 4장에서 조예은의 작품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3. 상호 이해와 의존의 살아남기 -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

2016년 타임리프 공모전에 「오버랩나이프, 나이프」로 우수상을, 제 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시프트』로 대상을 수상한 조예은은 이후 『뉴서울파크 켈리장수 대학살』, 『카테일, 러브, 좀비』 등의 작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이다. 『스노볼 드라이브』는 『지구 끝의 온실』보다 줄거리나 등장인물이 단순하다. 하지만 이 소설 역시 주인공 모루와 이월의 시점에서 여러 갈래의 서사가 겹쳐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모루의 현재 - 센터에서의 일상 -> 이월과 재회
- ②모루의 과거 - 중학생 시절과 가짜 눈이 내린 후 엄마의 죽음과 이모 유진의 실종
- ③이월의 이야기 - 모루와의 추억과 가짜 눈이 생긴 후 새엄마와의 관계
- ④이월과 이모의 이야기 - 새엄마의 죽음과 모험, 실종
- ⑤모루와 이월의 현재 - 센터에서의 만남과 탈주

2017년 6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채 ‘녹지 않은 눈’, 즉 가짜 눈이 내리게 되는데 그 눈은 치명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남기고 장시간 맞으면 죽고 만다. 가짜 눈은 계절이나 기후와 상관없고 어떠한 예보도 없이 온다. 그리고 문득 그친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밀려오는 가짜 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고 고립된다. 녹지 않은

232) Rebecca Solnit, 『오웰의 장미』, 앞의 책, p.72.

눈을 모루가 살고 있던 백영시에 몰아놓고 특수폐기물 매립지역으로 만들고, 그 안의 사람들은 그 눈을 치우는 센터에서 일하며 산다. 중학교에 다니다 이 알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한 모루도 엄마의 죽음과 이모 유진의 실종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센터에서 눈을 치운다. 가짜 눈이 내리고 7년 후, 즉 2024년 센터에서 중학교 동창이었던 이월을 만나게 된다.

“기후이탈이란 “기후가 정상 범위내의 변화치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 학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기후이탈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은 온갖 최악의 기상재앙으로 얼룩질 것”²³³⁾이라고 말했듯이 이 소설 속 가짜 눈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뚜렷하게 그 원인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월의 아빠로 대변되는 지배층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러한 상황이 생겼음이 은연 중 나타나고 있다. 기후 이탈 또는 위기에 따른 재난을 작가는 은유와 경종으로 ‘가짜 눈’을 만든 것이다. 전형적인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그려지는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것은 센터에서의 삶이 마치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숙사같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고 돈 없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가짜 눈이 모이는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한 채 살기 위해 센터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나름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 다양한 놀이와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약자의 자리에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외부의 폭압을 견뎌내면서 동시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인 ‘행위형성적 감수력(agency forming capacity)’을 키워나간다”²³⁴⁾는 평과 같이 센터의 젊은이들은 재난 속에서도 나름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키워나간다. 물론 이 관계들은 센터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모루의 룸메이트처럼 핸드크림을 만들어 파는 등의 작은 플리마켓을 여는 식인데, 모루 역시 이 안에서 공동체가 지닌 역량을 조금씩 익혀 간다.

이월은 중학교 이사장의 딸로 가짜 눈이 처음 오던 날, 모루를 구해준 인연이 있다. 여기에 사라진 모루의 이모 유진과 이월이 얽혀 있다. 이월은 가짜 눈이 내린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그나마 마음을 주고받았던 새엄마의 죽음에 집을 떠나기로 작정한다. 새엄마를 물어줄 장소로 예전의 중학교로 가려던 이월은 트럭 운전사인 유진에게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노숙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둘은 헤어지게 된다. 이월은 아빠에게 연락하는 대신 센터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모루와 재회한다.

모루와 이월, 유진, 새엄마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내심 의지하고 기대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은 채 지내고 그러다 원치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다. 유진과 새엄마는 모루와 이월에게 마음을 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으로 등장한다. 이월은 아빠의 회사에서 죽게 된 강아지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아빠는 이를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지만 새엄마만이 이월을 알아준다. 교통사고 후 불구가 된 새엄마의 삶은 가짜 눈 속의 세상이나 수집해 놓은 스노볼 속 세상처럼 박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둘 모두 가짜 눈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아웃사이드러들이다. 버려진 도시에서 사라진 이모를 찾으려 하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모루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실명에 이른 유진 역시 이 재난의 시대에 버려진 이들이다. 그렇지만 이 네 인물들은 상대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그득하다. 상대에 대한 환대를 통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명하니 있지 말고 일어나!”/거칠고 낫설며 차가운 손길이었다. 그럼에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233)반기성(2022), 『기후위기, 지구의 마지막 경고』, 프리스마, 11p.

234) 노대원·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앞의 논문, 115-116쪽.

“하루는 여기 이렇게 있단다, 이월아. 사라질 염려 없어.”/ 눈과 함께 바람이 몰아치는지, 현관문이 잘게 흔들렸다. 새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네 전화를 받았을 때도 그랬다. 아직 목소리도 옛된 애가 가진 거 다 주겠다고, 와 달라고 비는데 울지는 않아. 그게 이상했어. 우리 조카 같은 애가 또 있구나 하고 궁금해서 가 봤지.(생략)”

“응. 돌아올 거야, 분명히.”/조금 솔직해지자면 이이월이 그렇게 말해 줘서 좋았다. 이모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준 사람은 이이월이 처음이었다. 모두들 이모가 죽었을 거라고, 돌아오지 않을 테니 찾기를 포기하라고만 말했다.²³⁵⁾

위의 인용들은 네 인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보이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장면들이다. 사소하지만 네 인물은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이해하며 웃어주고, 들어주며 희망을 잡을 수 있는 말을 건넨다.

마지막에 남게 된 모루와 이월은 이성적 끌림을 넘어선 약하고 힘없는 자들만의 연대감과 호의를 지니면서 이모를 찾아 떠나는 탈주를 감행한다. “환대는 실로 우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가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²³⁶⁾이란 말처럼 둘은 서로를 환대하고 의지한다.

그들에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믿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유진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나의 믿음은 백모루와 같았다. 믿음은 같은데 모루의 근거를 굳이 내 손으로 깨고 싶지 않았다.(중략) 이모가 마지막으로 옮기려 했던 무언가와 스노볼, 확실치는않지만 지금 좇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²³⁷⁾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는 그들이 남긴 생존의 방법을 따라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것”²³⁸⁾이라는 의견대로 둘은 새엄마 혹은 유진 더 나아가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사라진 많은 사람들과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이자 그들만의 생존을 위한 몸짓이다. 이들은 특히 이월 아빠의 강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기성세대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로 대변되는 이월 아빠나 센터와의 고리는 벗어버리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 입에 분명하다. 모루와 이월이 나아가는 세상이 비록 어떠한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포도’가 자라는 공간이자 세로운 형태의 시민적 모임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통제와 속박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희망을 찾아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 하겠다.

이 소설에는 SF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와 “불안정한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를 향한 암울한 전망이자 경고의 메시지”²³⁹⁾가 담겨 있다. 가짜 눈이라는 밀도 끝도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모루로 대변되는 센터의 젊은이들이 암울함을 대변한다. 이 소설은 또한 권력을 지닌 자들에 대한 묘사나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단 이월의 아빠가 다니는 회사와 가짜 눈이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

235) 조예은, 『스노볼 드라이브』, 앞의 책, p.20/p.63./p.122./p/175.

236) 김형경, 『사람, 장소, 환대』, 앞의 책, 204p.

237) 조예은, 『스노볼 드라이브』, 앞의 책, p.200.

238) 황지영, 「재난 유토피아와 그 증언-하기의 윤리-2020년대 SF(Sience Fiction)에 나타난 ‘기후/생태 재난’을 중심으로」, 앞의 글, p.196.

239)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p.74.

는 암시를 풍기는 정도다. 이 거대한 재난이 인류 앞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미 눈앞에 닥친 일어난 재난과 암울한 미래를 약자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게 이 소설이 가진 초점이다. 더불어 그 안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탈주의 움직임은 역시 느슨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가능함을 모루와 이월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드러낸다. 두 주인공의 성장담으로도 읽힐 수 있는 이 소설은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의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그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재난을 일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세대의 미래형 묵시록에 가깝다.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까지의 인류가 행했던 많은 악행과 업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는 셈이다.

4. 느슨한 공동체의 힘

자연재해는 부유한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의 가능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데 이는 경제난, 정치적 위기, 무능한 지도자, 부패, 내전, 공중보건적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모두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통제하기는 더욱 어렵다.²⁴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위 인용문과 같이 과거, 현재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이다. 미래 역시 다르지 않으리란 예측은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인 듯도 보인다. 더구나 그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나 특정 정치 조직 내에서도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소득 불평등이 점점 더 노골화될 것”²⁴¹⁾이라는 전망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더 큰 해를 입는 가난한 나라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 두 소설은 그곳을 돔 시티 외의 공간과 백영시로 압축해서 그려낸다. 이 공간들의 특징은 보호받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그 안의 사람들은 배척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미달 된 존재로 취급받는다.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사회란 다름 아닌 이 공간을 가리키는 말”²⁴²⁾이란 정의처럼 더스트로 인해 돔시티가 하나의 강력한 사회가 되고, 가짜 눈으로 인해 백영시를 제외한 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 외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 성원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난민이나 부랑자, 폭도 혹은 버려지고 잊힌 존재로 취급된다. 성원권의 문제가 분류가 아닌 “권력”과 “정치학”²⁴³⁾의 문제라는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돔 시티는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침입자들을 학살했다. 작은 마을들도 돔 시티에서 보낸 로봇들에게 파괴당했다. 건질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가 시체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목격당한 사람들의 말이었다. 더스트 폭풍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마을을 봉쇄한 채 지하 대피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²⁴⁴⁾

공식 발표가 나기 무섭게 수거한 눈 더미들이 줄줄이 도착했다.(중략) 내가 살았고 살고 있는 도시가 며

240) John C.Mutter, 『재난 불평등』, 앞의 책, pp.78~79.

241) David Wallace Well, 김재경 역(2020), 『2050 거주불능지구』, 추수밭, p.250.

24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앞의 책, p.57.

243) 김현경, 위의 책, p.74.

244)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앞의 책, p.230.

칠 새에 죽어 버렸다. (중략)거리에 빈집들이 넘쳐 났고, 소각장에서는 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생략) 실직한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매일같이 눈이 내리고 눈을 실은 화물 트럭이 백영시에 도착했으므로 매립지와 소각장에는 늘 인력이 부족했다. 결국 엄마도 그 인력 중 하나가 되었다. 유해한 물질에 둘러싸인 생활이 건강할 리 없었다. 백영시 노동자들이 평균수명이 일반인들보다 10년가량 짧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그 기사는 게재된 지 5분 만에 삭제되었다.²⁴⁵⁾

“권력자들은 종종 최악의 불안에 빠진 폭도만큼이나 야만적이고 이기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착각”²⁴⁶⁾한다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인용문은 돔시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침입자’로 규정한 후 학살까지 자행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인용문 역시 백영시나 센터의 사람들이 낙인찍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을 그린다. 두 소설은 이렇듯 성원권을 박탈당한 취약한 사람들의 공동체나 연대에 시선을 돌린다. 연대와 상호 환대, 공감의 정서를 이루어게 되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비계보적인 탈주와 희망의 씨앗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두 소설은 프림 빌리지나 모루, 이월의 탈주로 그려 내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소설에서 살펴본 공동체들은 강한 결속력과 구속, 속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프림 빌리지 내에 나름의 규칙과 규율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자율적인 행동까지 구속하진 않는다. 그들은 상호호환과 협력으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다. 센터에서의 삶은 프림 빌리지보다는 보다 강제적이지만 그 안에서의 활동은 나름의 자율성과 독특함을 지닌다. 여기에 모루와 이월이 관계하고 있는 유진과 새엄마 등과의 관계는 여러 방향으로의 가지치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망들은 느슨하고 자율적이며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탈중양화되고 비계보적인 이들의 관계는 마치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했던 리좀과 같고, “리좀은 반反 계보적”²⁴⁷⁾이라는 말처럼 반, 혹은 비(非) 계보적이다. “좌표상으로 다국적 도시인 쿠알라룸프가 이 숲과 가장 가까웠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온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프림 빌리지는 “말레이어나 인도어,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여자들이 많았지만 성별을 짐작하기 힘든 다국적이자 그야말로 비계보적인 구성원들이다.

여기에 레이첼의 온실과 정원은 “항상 생성의 장소이므로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희망의 몸짓이다. 지금 심는 이 씨앗들이 싹 터 자라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는, 봄이 오리라는, 그래서 뭔가 수확이 있으리라는 소망 말이다. 그것은 미래에 깊이 관여하는 활동”²⁴⁸⁾이 된다. 그 정원에서 더스트에 대항하는 모스바나를 만들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식물로 키워냈다는 것이 그 증좌의 일환이다. 사실 레이첼은 솔라리티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소속으로 “극도로 소형화된 입자는 통제를 벗어났고, 그러다 증식 오류”(p292)가 발생해 더스트 폭풍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한 사망감이나 죄책감으로 레이첼이 식물을 가꾼 것은 아니지만 지수와 프림 빌리지의 구성원을 위해 계속해서 온실을 다듬고 정원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 느슨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공동체로의 끈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물론 “지구를 걱정하는 일”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위업으로 이들의 행보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인류를 위한 행보라는 식의 거창하고 위대한 의미부여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전형적인 대항 서사도 아니다.

최근의 소설들이 재난의 서사를 SF로 풀어내고 있는 점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SF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전의 매니아적인 성향의 몇몇 독자들에겐만 선보였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개성적 가능성”²⁴⁹⁾과 “SF 소설이 보여 줄 수 있

245) 조예은, 『스노볼 드라이브』, 앞의 책, pp.39~40.

246) Rebecca Solnit, 『이 폐허를 응시하라』, 앞의 책, p.201.

247) Rebecca Solnit, 『오웰의 장미』, 앞의 책, p.173.

248) Rebecca Solnit, 『오웰의 장미』, 앞의 책, p.72.

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사고실험”²⁵⁰)으로까지 평가되는 상황과 맞물린다. 앞서 살펴본 두 소설은 재난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보다는 일어난 이후를 상상한다. 때문에 윤리적 죄의식과 성찰보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선택과 발걸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두 소설은 그것을 약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의 연대, 그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공동체의 힘과 협력에 주목한다.

두 소설은 공동체의 힘으로 권력이나 부유한 세력에게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최근 집단적 혁명이나 움직임에 별로 반응하지 않은 세대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최근 젊은이들, 즉 MZ 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는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미시적이고 자기 삶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민감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빈곤퇴치나 환경운동조차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대의를 위한 희생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빈곤에 대한 ‘무거운’ 개입은 퇴색하고, 그 대신 손쉽고 발달하고 창의적인 봉사 혹은 공정무역이나 공정기술, 사회적 기업, 빈민을 위한 마케팅 등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라는 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작업이 헤게모니를 획득”²⁵¹)해왔다는 의견처럼 기후 위기나 재난과 맞선 대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는 이러한 감각, 즉 “저항이나 헌신보다 열정, 재미, 창의성을 추구”²⁵²)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더불어 앞으로의 세계는 자신들의 곁에 있는 작은 공동체와 더불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공표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나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때 오로지 가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적 연대와 환대, 돌봄 등의 해결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항의 언어로 가족을 사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고립화하고 단절해온 이성애 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과정”²⁵³)이다. 두 소설은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가족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돌보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1인 가구와 비혼의 증가가 “‘그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선언, 즉 결혼과 혈연 아닌 방식으로 연대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시민들의 출현”²⁵⁴)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르면 두 소설 속에 등장하는 관계들은 바로 그러한 연대에 해당한다. 시민적 연대의 공동체는 소외자이거나 빈민, 밀려난 자 등 선형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여 모습을 갖추었을 때 형태가 드러난다고 보았을 때 당연히 닫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거나 유동적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경험은 두 소설 속의 나오미나 지수, 아영, 모루와 이월에게 강력하게 작동한다. “재난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유대로 인한 만족감과 자유”²⁵⁵)를 얻은 경험의 힘은 크다. 아영이 지수에게 받은 환대는 나오미 자매를 찾는 과정으로 연결되고, 나오미 자매의 프롬 빌리지 내에서의 경험은 모스바나를 통해 추

249) 최수진·방재석,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연구」, 앞의 글, p.269.

250) 이지용(2023.3), 「한국 SF 소설의 역사가 보여준 특징과 현재」, <문명과 경계>제6호,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p.244.

251) 조문영, 『빈곤과정』, 앞의 책, p.222.

252) 조문영, 『빈곤과정』, 앞의 책, p.207.

253)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앞의 책, p.13.

25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앞의 책, pp.42~43.

255) Rebecca Solnit, 『이 폐허를 응시하라』, 앞의 책, p.32.

출된 치료약 개발까지 나아간다. 프림 빌리지의 다른 구성원들도 세계 각지로 퍼져 모스바나를 퍼트려 더스트를 종식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수 역시 레이첼과의 프림 빌리지 내의 경험으로 더스트 이후의 삶을 연장한다. “지구를 걱정하는 일”이 재난을 일으킨 당사자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느슨한 공동체의 경험에 따른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두 소설은 보여준 것이다.

두 소설의 이러한 전개는 “인류세의 문제들은 우리의 무지막지한 행위로 만들었지만 더는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워진 세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후의 세계에 대한 더욱 깊은 탐구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유도”²⁵⁶⁾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다면 사실 상 지금의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절대적인 악이나 물리쳐야 할 세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또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후 위기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절대 악이나 빌런과 같은 분명한 적대세력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봤을 때 인간 스스로가 이 상황의 적이자 타개해야 할 대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다. 물론 그러한 재난에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고, 돔시티나 센터, 백영시 등 한 구역을 게토화시키려는 계층이나 존재들은 있지만 최종적인 대상이라 하기에는 막연하다. 가장 근본적인 기후 위기의 범인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함, 협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종 고유의 신경 메카니즘”²⁵⁷⁾이 재난 속에서도 발휘되어 “재난 유토피아/의 사회, 다시 말해 더 유연하면서 즉흥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기여할 여지가 많아지고 소속감이 커지는 사회”²⁵⁸⁾를 준비하는 자세일 터이다. 이처럼 두 소설은 최근의 중요한 소설의 키워드이자 아이콘인 재난, 불평등, 가족이 아닌 느슨한 공동체, 연대를 SF라는 형식을 빌어 적절하게 묘파해내고 있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256) 복도훈, 「인류세의 (한국)문학 서설」, 앞의 글, p.28.

257) Brian Hare, Vanesa Woods, 이민아 역(2021),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p.226.

258) Rebecca Solnit, 『이 폐허를 응시하라』, 앞의 책, pp. 457~458.

<참고문헌>

<기초자료>

김초엽(2021),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조예은(2021), 『스노볼 드라이브』, 민음사.

- 단행본 및 논문자료

강수택(2022), 『팬더믹, 사회분역, 연대』, 경상국립대학출판부.

권두현(2022), 「'실내 우주'의 SF 에톨로지* : 사물-동물-식물의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에 관한 일고찰」, <석당논총>8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p. 171-209.

김순남(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김지혜(2017),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70, 현대문학이론학회, pp.57-78.

남진숙(2022), 「디스토피아(dystopia)적 상상력과 현실 문제 인식 - 소설집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21(1), 문학과환경학회, pp.65-104.

노대원 · 황임경(2020),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pp. 93-120.

반기성(2022), 『기후위기, 지구의 마지막 경고』, 프리스마.

복도훈(2020), 「인류세의 (한국)문학 서설」, <한국문예창작>19(3), 한국문예창작학회, pp.13~34.

신두호(2016),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67~102.

이지용(2023.3), 「한국 SF 소설의 역사가 보여준 특징과 현재」, <문명과 경계>제6호,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pp.225~256.

장성규(2021), 「재난 소재 한국 소설의 미학적 전략」, <구보학보>27, 구보학회, pp.305-334.

조문영(2022), 『빈곤과정』, 글항아리.

최수진.방재석(2021.12),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연구」, <스토리앤 이미지텔링>제22집,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pp.267-289.

황지영(2022.12), 「재난 유토피아와 그 증언-하기의 윤리-2020년대 SF(Sience Fiction)에 나타난 '기후/생태 재난'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58집, 이화어문학회, pp.177-201.

Brian Hare. Vanesa Woods, 이민아 역(2021),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Clive Hamiton, 정서진 역(2018), 『인류세』, 이상북스.

David Wallace Well, 김재경 역(2020), 『2050 거주불능지구』, 추수밭.

EBS 다큐프라임(2020), 『인류세:인간의 시대』, 해나무.

John C.Mutter, 장상미 역(2020), 『재난 불평등』, 동녘.

Rebecca Solnit, 정혜영 역(2012),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Rebecca Solnit, 최애리 역(2022), 『오월의 장미』, 반비.

Lucie Jones, 권예리 역(2020), 『재난의 세계사』, 놀와.

「불편등한 재난에 맞서는 느슨한 공동체의 힘」 토론문

손혜숙(한남대)

오혜진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재난 이후 공동체 형성과 연대의 양상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여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표문에서 주목한 연구 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쪽에 두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가장 민감하고 전 지구적인 소재와 문제를 문학이 즉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이 담고 있는 절박성이 크다는 의견처럼 이 논문도 먼지와 녹지 않는 눈을 중심으로 한 재난 세상을 다룬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 『스노볼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춘다.”

즉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소재와 문제를 문학이 즉각적으로 다루고, 절박성이 크기에 두 작품에 주목하였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학이 기후 위기만 다룰까? 기후 문제로 인한 재난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대기 등 수많은 재난은 끊임없이 문학의 소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SF장르, 디스토피아적 미래, 재난의 원인보다는 재난 이후의 삶과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작품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재난을 다룬 많은 작품이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따라오면서 제시하신 대상 작품 선택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디.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청하고자 합니다.

2. 방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두 작품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서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서적들을 통해 어떤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청합니다.

3. 연구 목적의 실현 여부입니다. 발표문에서는 두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류에게 닥친 재난의 징후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내용은 재난 이후 공동체 형성과 연대의 양상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4. 4장에서 ‘두 소설은 공동체의 힘으로 권력이나 부유한 세력에게 저항 혹은 대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며 이를 MZ세대의 투영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저항이나 대항보다는 재건 혹은 생존을 위해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재난이 어떤 형태의 재난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인재라면 그 대상이 있기에 재건 혹은 생존보다는 원인인 대상에 대항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 소설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재난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두 소설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공동체의 힘이 생존이나 재건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5. 4장에서 두 작품 모두 ‘느슨한 공동체의 경험에 따른 선한 영향력’ 이 작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구 끝의 온실』에서의 작용 양상은 논구하고 있는데, 『스노볼 드라이브』에서의 양상은 간과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합니다.

한국어교육학 발표

사회자 : 조운정(동서울대)

- 발표 : 왕설(닝보대), 김보현(중앙대)..... 171
플립드 러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연구
- KFL 초급 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 토론 : 장현묵(세종대) 187

- 발표 : 장지영(이화여대) 189
라이프로깅(lifeloggng)을 통한 한국어 저널 쓰기 사례 연구 :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 토론 : 박서욱(고려대) 201

플립드 러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연구

- KFL 초급 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

왕설(닝보대), 김보현(중앙대)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 초급 듣기 수업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²⁵⁹⁾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한국어 숙달도 향상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인지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플립드 러닝은 기존의 교실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강의를 이분화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교실 밖에서 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하고, 교실 안에서는 상호작용 및 응용 연습, 심화 학습, 토론, 과제 수행 등을 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일컫는다.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2000년대 이후 부족한 수업 시간을 보충하고 개인별 심화 학습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박진욱(2014)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박진욱(2014)에서는 대단위 학부 수업에서의 수강 인원과 시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의 플립드 러닝 적용 가능성을 도입하였다. 그 후 교수 모형 개발 및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²⁶⁰⁾, 수업 사례와 효용성²⁶¹⁾을 다룬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 결과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본고에서 초점을 두는 중국 KFL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코로나19 이후이다.²⁶²⁾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아름(2020), 추육영(2020) 등이 있는데, 연구자가 속해 있는 중국 내 대학도 변화된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립드 러닝을 일부 교과에 도입하였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업과 플립드 러닝 수업을 비교하는 연구를

259) 플립드 러닝은 'flipped classroom', 'inverted classroom', 'inverted learning' 등으로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역전학습', '역진행 수업', '거꾸로 학습/교실'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면서 원어의 의미와 개념을 잘 드러내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60) 대표적인 연구로 이소현(2015), 이경·윤영(2017), 송명희(2018), 김세나(2019), 이정희(2020) 등이 있다.

261) 대표적인 연구로 김규훈(2015), 한혜민·김선아(2016), 한혜민·권유선(2018), 한혜민(2018) 등이 있다.

262) 동효령(2017), 우연희(2017) 등을 통해 이전에도 중국 대학에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을 도입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수행했다. 중국 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플립드 러닝 수업의 사례와 연구가 부족한 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의 KFL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듣기 수업²⁶³⁾에서 플립드 러닝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간 한국어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나 수업 만족도 측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플립드 러닝의 효과는 단순히 해당 학습 내용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요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이는 향후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교육학 연구에서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²⁶⁴⁾ 정의적 요인인 흥미, 태도, 동기, 상호작용 참여 및 협동심,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²⁶⁵⁾고 보고되었다.

반면 한국어교육에서는 플립드 러닝의 학습 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취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와 함께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러 요인 중에서도 초급 학습자에게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낮은 한국어 숙달도로 인해 한국어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나 의사소통 능력, 상호작용, 참여 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습에 대한 태도나 동기, 흥미 등은 학습자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습 방식과 과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므로²⁶⁶⁾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급 수준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충분히 함양한다면 미래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2.1. 한국어 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개념²⁶⁷⁾을 학습자에게 적용해 재개념화한 것이다. 학업 상

263) 한국어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특히 그 효과가 다수 입증되었다. 말하기의 경우 동효령(2017), 이경·윤영(2017), 장희매·김중섭(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쓰기는 조운경(2020), 박지영·김영주(2021), 우환(2022) 등이 있다. 그러나 듣기 영역은 비교적 플립드 러닝 적용 사례가 적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264) 플립드 러닝과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이아영(2016), 정성진(2016), 박동화(2016), 정운호(2016), 이경화 외(2016) 등이 있다.

265) 플립드 러닝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이민경(2014), 정진아(2015), 류지연(2016), 송주영(2016), 방광필(2017) 등이 있다.

266) Bandura(2004)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방법은 ‘성공 경험’이며 Candy(1991)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습자가 주도권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훈련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성공 경험과 주도권을 부여하도록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향상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267)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참조적 사고로 자기효능감을 형성, 즉 자신이 어떤 수행에 대해 성공하거나 실패했다면 이를 근거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유사한 수행에 대해 미래 수행을 예측한다고 한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수행의 모든 과정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강한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다(Bandura 2004:22).

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어려움이 있어도 빠르게 회복하여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게 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3).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Pajares(1996), 나동진 외(2008), 차정은 외(2012), 이현숙 외(2013) 등 다양한 연구에서 학습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이 실제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참여도, 교과에 대한 흥미와 가치, 과제 수행 등 학습 과정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등이 있다(김아영 2007:369).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을 정도를 말하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 관찰 및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과제 난이도는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아영·박인영 2001).

언어 학습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제2언어 학습과 습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의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Brown 2007:162~164). 대표적으로 미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와 관계를 연구한 Nicole 외(2007:417)에서는 자기 조절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프랑스어 학습 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유효한 지표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영어 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본 박윤자(2003), 이해원(2006), 김보민(2016), 송지영(2017a) 등에서도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습과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백한숙(2010)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연구했으며 주운·이용남(2010)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 불안,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손성희·전나영(2011)은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실 환경이나 교육목표 설정의 기초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며, 손성희·전나영(2012)와 이진녕(2015)은 동기체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주운(2011)과 후지이쓰토무(2015) 등은 제1언어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해 연구하였고 양은영(2016)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조절훈련과 쓰기 성취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강귀종·조위수(2018)과 박현진(2021)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특정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는 학습 동기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고 특히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다른 학습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나타났기에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2.2. 한국어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은 교사 중심, 형식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비형식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교사 없이 학습하는 '독학'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Tough 1967) 현재에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 목표, 내용, 방식 등을 선택하여 학습 과정을 주도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최정순·박은아 2012).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한 후 실행하여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Knowles 1975; 양명희 2000)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Candy(1991)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획, 실천하는 선택과 결정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과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되어 왔는데²⁶⁸⁾ 본고에서는 이석재 외(2003)에서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석재 외(2003)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학습 욕구 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을 포함하는 학습 계획 능력과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학습 전략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을 포함하는 학습 실행 능력, 그리고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을 포함하는 학습 평가 능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송준미(2012)와 김선화(2022) 등의 여러 후속 연구에서도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여러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Savoi(1980)과 Long(1991)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Morris(1995)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주희진(2011) 또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²⁶⁹⁾의 자료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수진(2019)에서는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학습의 지속성에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어교육 연구로는 자기주도적 언어 학습 방안을 모색한 이준호(2010), 차순정(2010)과 학문 목적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해 연구한 장민정(2018),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 및 학습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 정효민(2018), 류위한(2021)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한국어 학습 과정에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어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개념에 비해 여전히 미비한 단계이며(정효민 2019:8), 본고와 같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를 가진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탐색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268) Knowles(1975)에서는 학습 요구 진단, 학습 목표 설정, 학습 전략 선택과 실행, 학습 전략 평가, 인적 및 물적 자원 확보 등 학습 과정에서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둔 요인을 제안하였다. 반면 Oddi(1986)은 구성 요소를 적극적 행위 욕구, 인지적 개방성,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 논의에서는 김홍원(1996), 이석재 외(2003)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었는데, 전자에서는 학습자의 내적 능력과 관련하여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행동적 능력으로 구분하였고 후자에서는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습 계획, 학습 실행, 학습 평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을 통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므로 이석재 외(2003)의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269) 이는 2003년에 이루어진 OECD 국가 간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연구이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듣기 수업과 비교하여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 위해 비교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국 국내 절강성 소재 N 대학교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²⁷⁰⁾을 대상으로 전통적 교실 수업 방식과 플립드 러닝 기반의 한국어 듣기 수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N 대학교의 한 학기는 모두 17주로 운영되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6주 동안 한국어 수업이 진행된다.²⁷¹⁾ 한국어 듣기 수업은 1주에 2회, 1회에 45분씩 총 90분 수업으로 운영되며, 2022년 1학년에 해당하는 초급반의 경우 2개 반이 운영되었다. 이 중에서 한 개 분반은 플립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하는 실험집단(27명)으로, 다른 분반은 전통적 강의식 교수법을 적용하는 통제집단(29명)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한 후 유학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고, KFL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의 연령, 학습 환경, 학습 목적, 숙달도는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45> 실험 대상 구성

집단	처치 구분	남	여	계
실험집단	플립드 러닝 수업	11	16	27
통제집단	전통적 강의식 수업	12	17	29
계		23	33	56

본격적인 실험 전에 두 집단 간 학습자의 듣기 능력이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1회 초급 듣기 기출문제로 사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²⁷²⁾, SPSS 26.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학업 성취도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독립 표본 T-검정의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p 값이 .338로 .05를 초과하여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의 학업 성취도는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김아영·박인영(200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270) 중국 N 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는 국제교육교류원 소속으로, 모두가 '3+2'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습자이다. '3+2' 프로그램은 중국 국내 현지에서 3년 동안 한국어와 해당 전공 지식을 이수하고 3학년 편입생으로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모두 한국 대학교 유학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1) 중국 N 대학교의 한국어 교과목은 정독(精讀),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급 학습자(1학년 학습자)는 1년 동안 4개 과목을 이수한다. 1학년 상반기에는 쓰기 수업이 없는 대신에 한국어 정독(精讀) 수업에서 발음, 읽기 및 간단한 문장 쓰기 능력 훈련을 시킨다. 한국어 정독(精讀) 수업은 1학년 상반기 1주에 4회에서 하반기부터 3회로 감소되고 듣기와 쓰기 1주에 2회(1학년 하반기부터 시작), 말하기는 1주에 1회, 모든 과목의 1회 수업은 45분씩이다.

27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출문제를 진단평가 도구로 선정한 것은 국가 공인 시험으로서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사후 검사 Cronbach's Alpha 계수가 .748과 .840로 양호하게 나타났다.²⁷³⁾ 그리고 실험 전 두 집단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²⁷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p=.809$, $t=.242$), 집단 간 동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 동질성 검사 결과는 자신감($p=.896$, $t=-.131$), 과제난이도 선호($p=.139$, $t=-1.50$), 자기효능감($p=.991$, $t=.011$)의 p 값이 모두 .05를 초과하였으므로 두 집단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측정은 김선화(2022)가 이석재 외(2003)을 수정·보완한 문항²⁷⁵⁾을 활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학습 계획 4문항, 학습 실행 6문항, 학습 평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김선화(2022)에서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906과 .933으로 내적 일관성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실험 전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76$, $t=.563$). 아울러, 집단 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인이 학습계획($p=.297$, $t=1.052$), 학습실행($p=.799$, $t=.255$), 학습평가($p=.428$, $t=.798$)의 p 값 또한 모두 .05를 초과하였으므로 두 집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전 검사 이후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수업이 끝난 후 두 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의 사전, 사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도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는 모두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한국어 듣기 학업 성취도 평가는 사전, 사후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16주의 실험 후에는 집단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분석하였으며, 실험집단의 플립드 러닝에 대한 수업 만족도는 빈도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성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4. 플립드 러닝의 효과 분석

4.1.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273) 통상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60 이상인 경우 측정 도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되며, 신뢰성이 있는 측정 도구를 판단할 수 있다.

274) 실험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동질성 검증은 두 집단이 동일한 수준에 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75) 이석재 외(2003)의 경우 문항 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간략하게 축소한 김선화(202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16주 간의 한국어 학습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실험 집단과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을 적용한 통제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측정 결과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6>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독립표본 T-검정 결과(N=56)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통제집단	29	2.74	0.48	-4.484	.000*
		실험집단	27	3.36	0.56		
	과제난이도 선호	통제집단	29	2.84	0.42	-1.377	.174
		실험집단	27	3.01	0.50		
	자기조절 효능감	통제집단	29	3.00	0.43	-1.616	.112
		실험집단	27	3.19	0.44		
	전체	통제집단	29	2.86	0.32	-3.159	.003*
		실험집단	27	3.19	0.45		

* $p < .05$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실험집단은 전체 평균 3.19, 통제집단은 전체 평균 2.86으로 나타났고 $p = .003$ 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⁶⁾ 따라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전체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나 신념은 학습자의 노력을 이끌어 내게 되고, 학습자는 노력을 통해 후속 학습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며 이는 학습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손성희·전나영 2011:107).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에 부딪혀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되므로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며,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에 대해서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자신감 요인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 = .000$), 과제난이도 선호($p = .174$, $t = -1.377$), 자기조절효능감($p = .112$, $t = -1.616$)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들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숙달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아직 한국어 학습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자기 판단이나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²⁷⁷⁾ 그러나, 자신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특히 초

276) 이는 한혜민·권유선(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 수업을 적용한 학습자가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추었다고 밝힌 바 있다.

277) 한혜민·권유선(2018)의 연구에서도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을 도입한 초기에는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낯선 수업 방식과 사전 학습의 부담으로 교실 내 활동과 과제들을 어렵게 지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

급 학습자에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박현진(2021:943)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요인 중 특히 자신감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 시작 단계에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향후 한국어 공부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학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은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업 방식이 될 것이다.

4.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

다음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4.27로 통제 집단의 점수인 3.6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 계획($p = .003, t = -3.154$), 학습 실행($p = .000, t = -5.167$), 학습 평가($p = .003, t = -3.168$)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4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인 독립표본 T-검정 결과(N=56)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계획	통제집단	29	3.63	0.65	-3.154	.003*
		실험집단	27	4.13	0.53		
	학습실행	통제집단	29	3.68	0.58	-5.167	.000*
		실험집단	27	4.44	0.52		
	학습평가	통제집단	29	3.71	0.64	-3.168	.003*
		실험집단	27	4.23	0.59		
	전체	통제집단	29	3.67	0.55	-4.309	.000*
		실험집단	27	4.27	0.47		

* $p < .05$

즉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더 크게 향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초급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식으로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속도, 학습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도 학습자가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 전반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판단된다.

습자이므로 이와 유사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4.3. 학업 성취도 및 수업 만족도와의 관련성

플립드 러닝의 효과와 관련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 외에도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 집단에서 두 측면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기 때문에²⁷⁸⁾ 이들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8> 변인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변수	수업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업 성취도
수업 만족도	1			
학업적 자기효능감	.746**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619**	.758**	1	
학업 성취도	.735**	.735**	.818**	1

** $p < .01$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업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업 성취도 간에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이 .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 = .746, p < .01$), 수업 만족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r = .619, p < .01$),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r = .735, p < .01$) 모두 높은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r = .758, p < .01$), 학업 성취도($r = .735, p < .01$) 또한 매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학업 성취도와 ($r = .818, p < .01$)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학업 수준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박현진 2020)이며, 학교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배성아·성소연 2016)이다. 이에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우선 규명해 보기로 하였다.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은 학업 성취도로 설정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279, p > .05$)은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F = 28.013,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⁷⁹⁾

278) 학업 성취도에 대해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의 전체 평균은 77.33, 표준편차는 10.26로 통제집단의 전체 평균은 70.61, 표준편차는 11.61로 나타났다. t 값은 -2.368이었고 p 값은 0.21로 두 집단 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도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한다는 학습자가 전체의 75.95%, 수업방식에 만족한다는 학습자가 61.68%, 흥미도에 대한 만족한다는 학습자가 56.24%, 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한다는 학습자 55.50%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교육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우연희(2017), 김아름(2020) 등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79) 본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약 70.0%로 나타났다($R^2 = .700, \text{adj}R^2 = .675$). 한편, 회귀모형의 VIF(분산

<표 49>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학업 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6.204	3.944	.279	1.573	.129	2.35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13.452	3.762	.613	3.576	.002*	2.354

$F=28.013, (p<.05), R^2=.700, adjR^2=.675$

* $p < .0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한국어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다양한 선행 연구(손성희·전나영 2013; 김춘주·강승혜 2016; 이해영·박지연 2017; 김지영 2017; 권혜경·조윤경 2020 등)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우림(2021)에서 316명의 대규모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고의 결과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KFL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개인차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업 성취를 향상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학습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 만족도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과로서 학습 성과를 높이는 필수 요소(이쌍철·김정아 2018; 권선희·류현숙 2021)이므로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며, 독립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영향력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0>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수업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0.522	0.166	.651	3.141	.004*	2.35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0.096	0.159	.125	.605	.551	2.354

$F=(15.441, p<.05), R^2=.563, adjR^2=.526$

* $p < .05$

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beta = .096, p > .05$)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F=15.144, p < .05$)을 미치

팽창지수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⁰⁾

즉,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업적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과제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지적 요인으로서, 수업 환경이라는 외적 요인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 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이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모두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미래 학습을 좌우하는 중요한 측면이므로, 따라서 근본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또한 모두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 밝힌 바,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초급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플립드 러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5. 결론

이 연구는 KFL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듣기 수업이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 대한 효과성도 알아보고자 실험 수업과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듣기 수업은 초급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초급 단계 학습자의 학업 태도, 동기, 학업 지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듣기 수업은 초급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학업 계획, 학업 실행, 학업 평가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플립드 러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 한국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셋째,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초급 한국어 듣기 수업은 학습자의 듣기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업 성취도, 수업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높을수록

280) 본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약 56.3%로 나타났다($R^2 = .563$, $adjR^2 = .526$). 회귀모형의 VIF(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0 이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 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면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KFL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듣기 수업에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플립드 러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비교 실험과 통계 분석을 통해 플립드 러닝 수업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제한된 환경에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이므로 연구 성과를 한국어교육 현장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를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제언이 연구자의 시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는 향후 확장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교사나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더욱 면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귀종·조위수(2018),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231-252.
- 권선희·류현숙(202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 및 학습자 상호작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참여도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7-97.
- 권혜경·조윤경(2020),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학습자 동기 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1(2), 185-209.
- 김규훈(2015), 플립드 러닝 기반 한국어 어휘 학습의 가능성 모색: 연어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24, 한국문법교육학회, 29-56.
- 김보민(2016), 영어 자기효능감과 영어능력, 학습동기 및 불안감 사이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2022), 학습자 제작 플립드러닝이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흥미와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성: 혼합방법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나(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4,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171-185.
- 김아름(2020),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수업이 학업 성취도 미치는 효과, 한국어교육 3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7~98.
-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 학지사.
- 김아영·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教育學研究 39(1), 한국교육학회, 95-123.
- 김지영(2017),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언어 기능별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주·강승혜(2016),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와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스캐폴딩의 지식 공유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7(2), 1-23.
- 김홍원(1996), 자율 학습능력의 개념 정립 및 신장방법 탐색. 사회과학교육 29, 315-341.
- 나동진·신미경·조인근(2008), 학업 성취의 사회적 목표와 학업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간의 관계: 학업동기유형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2), 543-562.
- 동효령(2017),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의 적용 가능성 탐색: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0(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63-191.
- 류위한(2021), 자기결정성, 자기주도학습, 한국어 학습행동의 영향 관계와 역할에 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자(2003), 동기, 자기감시, 자기효능감이 학업 지연성향과 영어 읽기, 쓰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김영주(2021), Zoom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의 효과, 언어와 문화 17(1),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85-108.

- 박진옥(2014), 대단위 한국어 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 모형 개발연구, 이중언어학 57, 이중언어학회, 75-102.
- 박현진(2020),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 어문논집 89, 민족언어학회, 335-360.
- 박현진(2021), 베트남인 학부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특성 연구. 문화와융합, 43(1), 937-955.
- 배성아·성소연(2016), 대학생의 성격강점,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09-827.
- 백한숙(2010),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성희·전나영(2011b), 한국어학습자의자기효능감분석연구 외국어로서의한국 어교육 3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11.
- 손성희·전나영(2012), 한국어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귀인 성향 자기효능감 학교 적응 분석 연구, 언어와문화 8(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3-192.
- 송명희(2018), 중급 유사 문법을 대상을 한 플립드 러닝 문법 수업 모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영(2017),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읽기 · 듣기 능력과 학습자 변인: 학습동기 학습전략,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준미(2012), 창의성과 책임지향성이 성인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영(2016), 자기조절적 쓰기 훈련을 통한 한국어 쓰기 과제 수행의 향상도 연구 :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림(2021),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연희(2017), 플립드 러닝 기반 한국어 초급 문법 수업 모형 개발 및 효과 연구 -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3~83.
- 우환(2022), PBL-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高鳳論集 70, 경희대학교 학술단체협의회, 149-177.
- 이경·윤영(2017),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기반 문법 교육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3(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33-361.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이소현(2015),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대학 학부 한국어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 언어와문화 11(2),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221-262.
- 이쌍철·김정아(2018), 학생의 온라인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教育行政學研究 36(2), 한국교육행정학회, 115-138.
- 이정희(2020), 플립드러닝을 활용한 시사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10), 자기주도적 쓰기 기술 및 전략 연구, 한국어학 48, 269-297.

- 이진녕(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 관계 분석, 한국어교육 2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45.
- 이해영·박지연(2017),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 듣기 전략, 듣기 불안, 듣기 노출 시간의 상관성: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28(3), 85-104.
- 이현숙·신진아·김경희(2013). 다층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교육 맥락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6(2), 477-506.
- 이혜원(2006), 영어 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민정(2018),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연구, 泮橋語文研究 50, 반교어문학회, 41-66.
- 장희매·김중섭(2019), 플립러닝 기반 한국어 말하기 수업 적용 연구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3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7-207.
- 전나영·손성희(2013), 한국어 학습자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관계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24(2), 181-203.
- 정효민(2018), 자기주도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문화학, 15(1), 201-228.
- 정효민(2019), 드라마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한국어 말하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경(2020), PBL-플립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141-1160.
- 주운(2011),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운·이용남(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어 학습동기, 의사소통 불안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교육연구 33, 23-37.
- 주희진(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237-259.
- 차순정(20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방법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외(2012). 학업능력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불안의 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6(1), 131-152.
- 최정순, 박은아(2012).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실태 분석-인식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열린교육연구, 20(4), 23-45.
- 추육영(2020),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모형 모색 -상대 높임법을 기반한 이메일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5,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53-273.
- 한혜민(2018).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혜민·권유선(2018),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해외 대학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2(4),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55-179.
- 한혜민·김선아(2016),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 개발과 활용 사례, 외국어

- 로서의한국어교육, 45, 391-418.
- 후지이쓰토무(2015),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학습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人文科學 研究 33,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9-32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Englewood Cliffs, N.J.
- Bandura, A.(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역), 서울 : 학지사.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on Compete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rown, H. D.(2007),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이흥수 외 공역), 서울: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Candy, P. C.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CA: Joss-Bass.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Association Press.
- Morris, S. S.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demic performance in a nontraditional high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Nicole M., F. P. & Carol H.(2007), Self-efficacy of College Intermediate French Students - Relation to Achievement and Motivation, *Language Learning* 573, 417-442.
- Oddi, L. F.(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Identify Self-Directed. *Adult Education Quarterly Winter* 36(2), 97-107.
- Pajares, F.(2002),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Contexts:An Outline*, Retrieved from March 25, 2004.
<http://www.uky.edu/~eushe2/Pajares/efftalk.html>.
- Schunk, D. H.(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ist*, 75, 848-856.
- Tough, A. M. (1967), *Learning Without a Teacher: A Study of Tasks and Assistance during Adult Self-Teaching Projects*, Toronto: Ontario Institute of Studies in Education.

토론문

플립드 러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연구

- KFL 초급 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

장현묵(세종대학교)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교수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습자 주도적·능동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교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lipped Learning(이하 FL)은 가장 대표적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업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습하고 교실에서 문제해결과 토론 등 상호작용기반의 교수-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FL 방식은 한국어교육 현장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수법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논의는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의 KFL 초급 한국어 학습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전통적 교수 방법과 FL을 적용한 듣기 수업을 각각 실시한 후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FL의 다양한 효과뿐만 아니라 전통적 교수 방법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은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초급 수준으로 설정하면서 초급 학습자에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2.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 목표, 내용, 방식 등을 선택하여 학습 과정을 주도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에게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FL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사전학습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기반의 심화된 교수-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초급 학습자에게 적절한지 궁금하여 연구 대상을 초급 수준으로 설정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FL의 적절성은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교수자 중심의 강의, 과제를 통한 복습 등의 전통적 교수 방법이 더욱 적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맥락에서 전통적 방식에 비해 FL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량의 제약으로 생략된 초급 한국어 듣기 수업의 목표와 교수요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본 연구 내용과는 별도로, FL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한계점을 느낀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FL 수업은 사전학습에서 학습자의 자발성이 크게 요구되고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는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참여도나 적극성을 독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수 활동 방법이나 전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질문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로깅(lifelogging)을 통한 한국어 저널 쓰기 사례 연구 :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장지영(이화여대)

1. 서론

쓰기는 다른 기능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차원의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요하며(Scardamalia, 1981), 제2언어 학습자들은 쓰기 영역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신영지, 2016; 정다운, 2014b). 제2언어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나타나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L2 학습자들은 쓰기에 대해 매우 큰 정의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Dela Rosa & Genuino, 2017). 이러한 정의적 부담감은 쓰기 불안²⁸¹⁾으로 이어지게 되고 쓰기 효능감²⁸²⁾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쓰기 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임현정, 2016; 동효령, 2021).

이에 쓰기 불안을 낮추면서 쓰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자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블로그에서의 저널 쓰기를 통해 스스로 쓰기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으며(Miceli 외, 2010) 정의적 부담감을 낮추어 L2 학습자가 쓰기의 주체가 되도록(Ducate & Lomicka, 2008)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적 글쓰기는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의 상호 교환이 목적이 되며, 학습자들은 독자와의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고 유의미한 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eyton & Reed, 1990).

한편 L2 수업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 쓰기 주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대화식 저널 쓰기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그(lifelogging)를 활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부과된 쓰기 주제를 자신의 이야기로 개별화시켜 저널 쓰기를 적용시킬 수 있다. 라이프로그, 블로그에서의 저널 쓰기는 온라인과 쓰기 수업을 연결하면서도 학습자 내면의 개별적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향상을 가져오는 한편, 수업 시간에 배운 명시적 언어 지식을 활용하게 하여 쓰기 능력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개별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그와 수업 시간에 배운 쓰기 주제를 연결하여 블로그상에서 글쓰기를 시행하고, 저널 쓰기의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81) 쓰기 불안(writing apprehension)은 Horwitz, Horwitz & Cope(1986)의 '외국어 불안'을 쓰기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의미한다(Daly & Miller, 1975).

282) 쓰기 효능감(writing self-efficacy)은 Bandura(1997)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쓰기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쓰기를 수행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으로 쓰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Pajares et al., 2007).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2.1 대화식 저널 쓰기

대화식 저널 쓰기는 교사와 학생이 서면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에 목적을 둔다. 학생들은 자신이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 저널 쓰기를 시행하고, 교사는 형태적 정확성보다는 글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답변의 과정에서도 직접적 오류 수정이나 점수 평가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둔다(Peyton, 1993; Peyton & Reed, 2000). 쓰기가 스키마 형성이 중요한 활동임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쓰게 하는 것은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저널 쓰기는 수업 내용 자체, 혹은 수업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Staton, Shuy & Kreeft, 1982).

저널 쓰기는 학생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고, 학습자 개인의 수준과 관심에 맞춘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저널 쓰기를 통한 학생들의 정보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읽기 활동의 기회를 저절로 얻을 수 있게 된다(Peyton & Reed, 1990). 이를 위해 교사가 답글 형식의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데 교사의 저널 응답 피드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화식 저널 쓰기에 대한 피드백 유형(Todd et al., 2001)

유형	예시
지지	Only one day to understand an article by Widdowson is not bad.
탐구	This is one possible rationale for using L1, but there are many others. What other reasons for using L1 can you think of?
평가	A thoughtful response. Well done.
이해	Yes, some people spend a lot of time worrying about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which cannot be changed. Although it is vital to learn from past mistakes, excessive worrying over them is pointless.
분석	Are you trying to blame outside factors rather than looking at yourself?
제안	As we discussed a few days ago, it is crucial for you to establish a satisfactory living situation.
추가 정보 제공	Although there is a belief that tutors are the main source of knowledge/ information in any academic program, friends are also a vital source, especially as they probably understand your situation better than the tutors.
동의	Yes, thinking is a strange thing. Everyone knows what thinking means, but explaining what it means is impossible.
감사	Thanks for such an interesting journal.

쓰기의 상호작용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는 저널 쓰기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효과가 있다. L2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낮추어 쓰기 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한다(Peyton & Seyoum, 1989; 오나연, 2018; 동효령, 2021). 또 수업 내용과 연관시켜 저널 쓰기를 진행하였을 때는 언어적 측면에서 쓰기 능력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유정, 홍선호, 2017; 차경애, 최승희, 2013). 그리고 저널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배영주, 2013).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저널 쓰기를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라이프로그와 블로그 쓰기

라이프로깅은 실제 세계의 삶을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삶의 디지털라이징(digitizin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균, 박기현, 2022). 즉,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개체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말한다. 사용자가 SNS 등에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는 것이나 스마트워치 등으로 일상 생활의 행동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라이프로그의 예이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쓰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쓰기는 교사 이외의 독자 설정이 가능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의 의사소통(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은 다양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Hyland, 2022)에서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적 인식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글쓰기의 질적 측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L2 교수·학습을 위한 블로그의 종류에는 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학습 단위로 운영되는 블로그, 학습자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Campbell, 2003). 블로그 쓰기는 저널 쓰기를 디지털화하여 글과 함께 그림, 혹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 글쓰기에 대한 정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일상의 기록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쓰기는 사회적 맥락과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적 참여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블로그 쓰기는 한국어 사용자의 집단에 참여하는 활동이 되기도 하며(Meiceli & Kennedy, 2010), 일기 쓰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블로그 쓰기는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경복, 2021).

3. 수업 설계

본 연구의 사례로 삼은 한국어 수업은 서울시 소재 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어 능력 3-4급의 학문목적한국어 학습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 한 차시당 7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은 15주간 진행되었다.

수업에 사용된 교재는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말하기·듣기)’와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읽기·쓰기)’²⁸³⁾였다. 각각 10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15주 안에 모든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말하기·듣기’와 ‘읽기·쓰기’ 교재의 주제가 비슷한 것을 연관

283)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 2018,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시켜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학기의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업의 각 주제에 따른 쓰기 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저널 쓰기를 위한 수업 개요

주차	단원	쓰기 과제
1	오리엔테이션(블로그 개설, 저널 쓰기 소개)	
2	심리와 성격 및 직업	• MBT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쓰기
3		
4	운동과 식생활	•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쓰기
5		
6	문화와 예술	•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글쓰기 •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쓰기
7		
8	중간시험	
9	한국인의 결혼관	•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10		
11	경제와 소비	• 소비의 미덕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12		
13	언론과 방송	• 1인 방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14		
15	기말시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목적한국어 수업임을 고려하여 주제를 채택하였다. 6개의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일상의 생각이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2주에 하나 이상 포스팅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 쓰기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주제의 글쓰기를 정의적 불안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블로그 개설을 위한 플랫폼으로 학습자들은 주로 Naver Blog나 blogspot을 사용하였다. 블로그에서 학습자들이 쓸 글은 수치화된 언어적, 내용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학점을 부여해야 하는 수업의 특성상 <표 2>에 나타난 주제에 대한 글은 명시적 피드백을 별도의 파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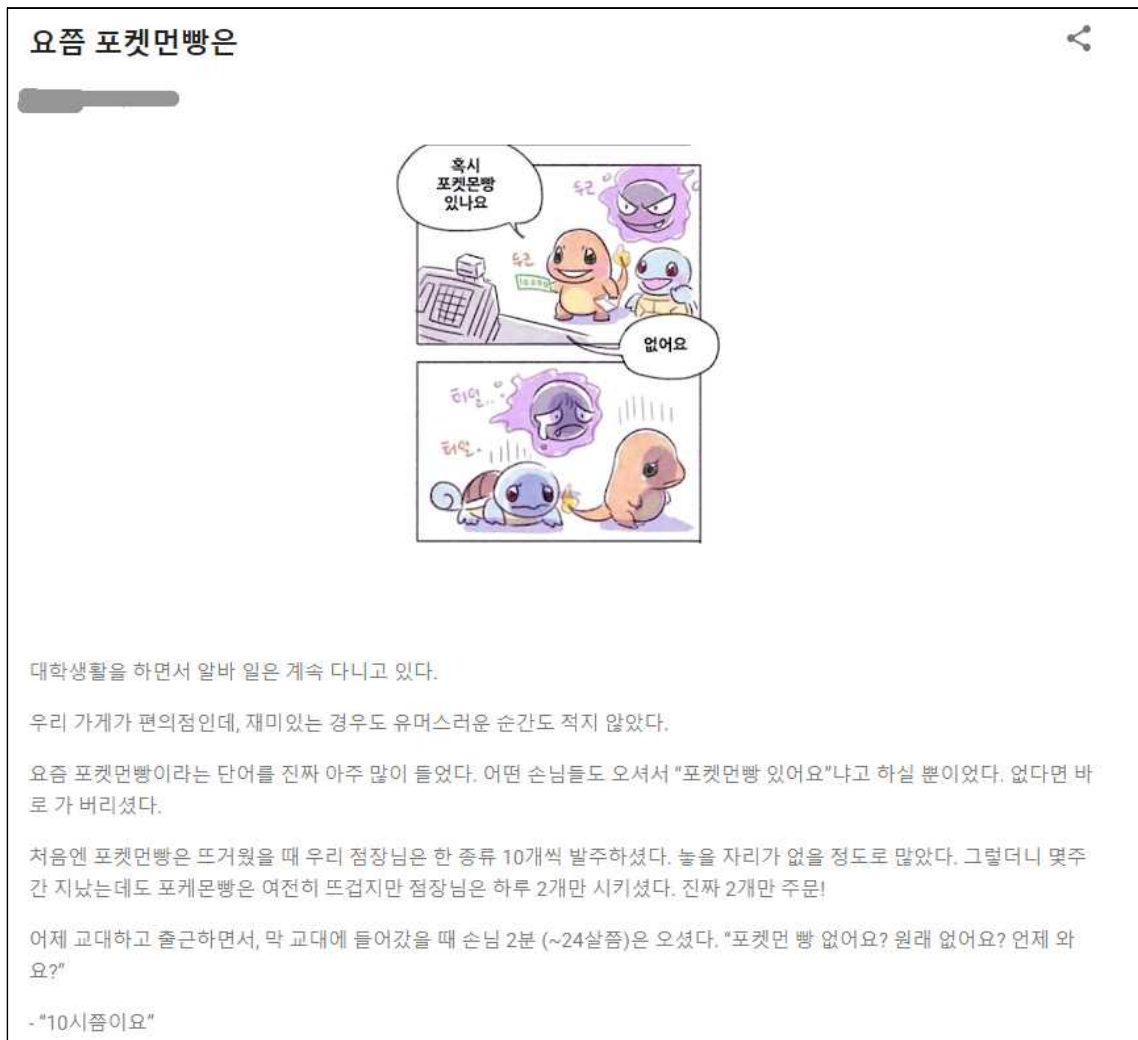
4. 한국어 저널 쓰기 수업 사례

저널 쓰기는 주제적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그이다. 학습자들은 주로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일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 둘째는 수업 시간에 부여한 쓰기 과제에 대한 쓰기이다. 수업 시간에 설명의 글과 주장의 글에 대한 장르적 특성과 장르적 특성을 보여주는 관습적 쓰기 표현을 학습한 후 쓰기 과제를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였다.

쓰기에 대한 문법적, 내용적 피드백은 수업 시간에 따로 제공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서는 정의적 상호작용이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을 낮추고자 하였고, 쓰기 주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1 라이프로그킹 쓰기 사례

먼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 쓴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아르바이트 중에 알게 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측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포스팅한 예가 많았다. <그림 1>은 당시 학령기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어 편의점 품질 사태가 연일 이어졌던 상품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의 글이다.



<그림 42> 일상적 에피소드에 대한 라이프로그킹의 예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학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묘사하듯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 경험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한국의 유행하는 빵에 대한 놀라움과 재미있는 경험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 대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물어보았을 때 학생은 다시금 상기된 표정으로 상황

을 설명하였고, 글을 쓸 때 어렵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특별히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있었던 일을 쓸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이 쓰기를 상호작용의 수단, 혹은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쓰기 불안을 극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어지는 글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상을 써서 한국에서 새롭게 경험한 것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근무하면서 몇번나 손님 오다가 포켓면빵 물어봐서 또 떠났다. 이렇게 뜨거운가? 이 스토리가 sns에 올리고 여러 친구가 댓글을 달았다. 우리 점장님은 발주 때마다 2-3개씩만 주문 가능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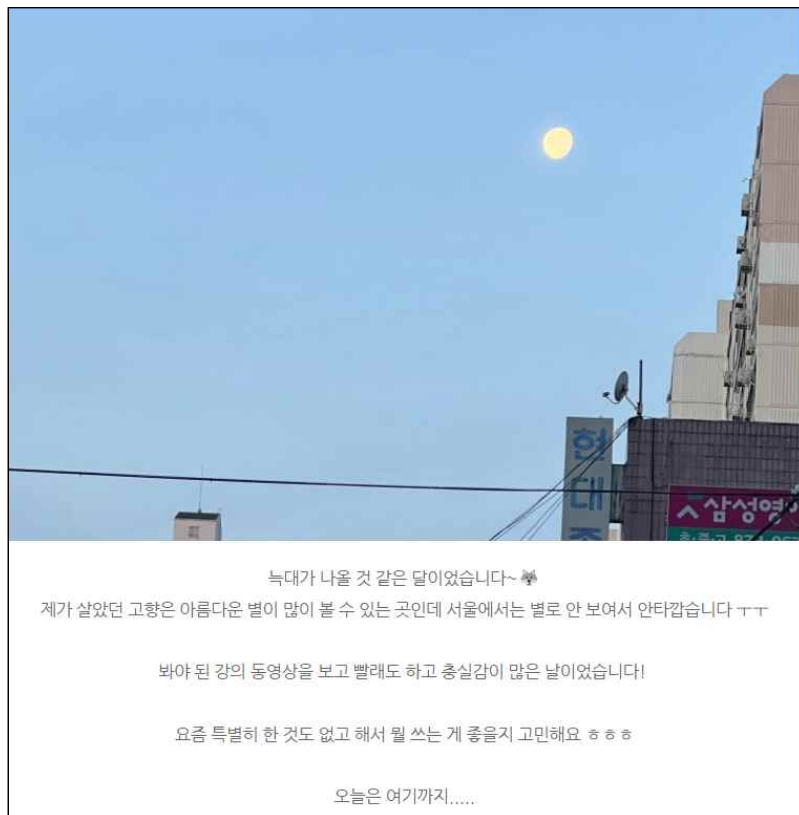
당근마켓에서 진짜 비싸게 팔고 있음. 스티커만~

우리 사장님은 “포켓면 빵운 들어오면 검품해서 팔지 마요. 따로 냅두고 내 여자 친구한테 줄 거예요”라고 했다

우리 가게에서 12시밤에 손님은 문앞에 기다리고 음식 도착하면 빨리 뽑았다.

[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라이프로그를 적용한 블로그 쓰기의 또 다른 예이다. 일본인 학생의 일상적 단상에 대한 글이며, 그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43> 일상적 단상에 대한 라이프로그의 예

이 학생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을 보며 느낀 단상을 그림과 함께 글로

답이 나왔다. 여기에 ‘늑대가 나올 것 같은 달’과 같은 문화를 반영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동료 학습자와 교사, 블로그를 작성한 학생의 대화 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상호작용적 글쓰기를 유도한 대화의 예

이와 같이 학습자의 저널 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적 비유 표현이 도출되었고, 동료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교사와 학습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4.2 수업 과제를 통한 글쓰기 사례

본 연구의 수업 사례에서는 3장에서도 밝혔듯이 학습자들의 일상 에피소드나 단상 외에도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난이도 있는 주제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과제를 수행할 때는 수업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되, 과제의 주제를 개인화시켜 진정성있는 글쓰기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은 성격과 적성, 직업에 대한 주제로 말하기, 듣기, 읽기 수업을 진행한 후 ‘미래의 나의 직업’에 대해 성격 및 적성과 관련지은 글을 포스팅하게 한 예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MBTI 검사를 할 수 있는 URL²⁸⁴⁾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MBTI 검사를 실제로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검사 과정과 검사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읽기 연습의 기회도 함께 제공할 수

284) <https://www.16personalities.com/ko>

있었다. <그림 4>는 MBTI 검사 결과를 자신의 경험과 결부지어 성격을 분석해 본 베트남 학생의 글이다.

내가 어떤 성격인가?

나는 INFP-T 형인 편이다. 열정적인 중재자라고 한다. 사실 “열정적인 중재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성격은 일부분을 맞은 것 같다.

이번 실험 질문 조사는 처음이 아니라도 살짝 갑작스러웠다. 3번 테스트했고 모든 INFP-T형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마음, 에너지, 본성 등에 비율이 변화도 있다. 정확히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삶의 환경, 주변 사람, 자신 생각 때문에 영향을 끼쳐서 그랬다.

결과에 따라서 살펴보면 간혹 참작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지만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올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있다는 말이 맞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만나는가 하면 내재한 즐거움은 넘치고 영감을 받는다.

나는 자신 원칙과 생각 대로 행동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가끔 다른 사람에게서 고집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오해를 받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있고 다수가 아닌 소수에 더 많은 관심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랑 맞춰서 내성적인 편이 더 강해서 의사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각자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데,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사람들 간의 화합을 하기도 하며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자아는 ~71%나 차지하므로 내 의견이 중심하고 지나치게 하는 건가? 종종 그렇다. 예를 드는 경우가 있다. 친한 사이랑 얘기하고 만약 논쟁해야 하면 끝까지 얘기해서 가끔 어의가 없더라도 내가 맞은 점을 꼭 찾아야 한다. 반면에 눈앞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의견을 내지 않다. (사실 그 성격이 단점이라서 바꾸고 싶은데 못 할 것이다).

<그림 4> 수업 시간에 배운 주제와의 연계 예시(1)

이 글의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BTI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과 실제로 연관시켜봄으로써 한국어로 된 성격 분석 결과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적 글쓰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봄으로써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학생의 글은 독자를 상정하였지만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5>는 같은 주제이지만 미래의 직업에 좀 더 초점을 둔 글의 예이다.

미래 나의 직업



"네 꿈이 뭐냐" - 이 질문에 대해 몇번을 받는지 몰랐는데 "꿈이 없어요"라고 자주 대답한다.

꿈이 없는 뜻이 아니라 바람직한 답이 정확히 없어서 그랬다. 이제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있다. 알바근무할 때는 본인한테 "이 일은 왜 아직 계속하고 있을까?"냐고 했다. "일은 왜 오랜동안 할 수 없겠지",... 이념 질문을 하곤 한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일을 찾기 때문이다. 월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하는 중 가벼운 한 마음과 열일을 가져 가야 하는 일을 하는 한 출근해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회사든지 모집 공지사항을 보면 첫째, 자신에게 유형 근무냐고 하고, 환경 근무와 받을 수 있는 월급, 연봉, 공비를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렇지만 결정하는 요건은 근무할 때에 달려 있다. 근무하면서 노력할 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좋은 반면에 아무일이든 나누지 않고 나만 책임치면 생각해야 한다. 사장님도 질 챙겨주지 않는 것도 하고 근무 환경은 스트레스만 주는 말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일은 없는데 노력할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일하는 것이다. 엄격하면서 편하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한테, 나주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갈 것 같고 자신의 꿈을 목적으로 찾고 질 하고 싶다. 아주 큰 역할이 아니고 매일 매일 기쁘게 출근 해서 퇴근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좋다. 요즘 회사원이 되고 싶다. 그냥 평사원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능력이 적당한 직원을 맡고 싶다.



사실 적당히 편안하고 매일 기쁘게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창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이고, 또 직업관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

<그림 5> 수업 시간에 배운 주제와의 연계 예시(2)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글은 예시를 사용한 주장의 글에 가깝다.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은 좋은 직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저널 쓰기를 블로그에서 진행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저널 쓰기를 온라인 상에서 진행함으로써 시각화된 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보다 흥미있는 쓰기의 경험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온라인 저널 쓰기가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상호문화적 관점의 확립, 교사와의 정의적 유대 형성으로 수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저널 쓰기를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정의적 불안감의 감소와 쓰

기 효능감 향상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으며,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등의 도구 및 결과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쓰기의 정확성 향상에 대한 분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다각화된 측면에서 연구 사례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라이프로그를 소재로 한 블로그에서의 저널 쓰기는 사회 화용적 관점에서의 글쓰기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바, 다양한 글쓰기 효과에 초점을 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경복(2021), 일기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쓰기능력 향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균, 박기현(2022), 스쿨 메타버스, 테크빌교육.
- 김예지, 2020, 대화식 저널 쓰기가 영어 쓰기 수행과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홍선호(2017), 대화식 저널쓰기 활용 교사 피드백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문법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연구, 22(2), 한국언어연구학회, 19-37.
- 동효령, 2021,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0, 한중인문학회, 95-119.
- 배영주(2013), 학습자의 저널쓰기(journal writing)를 활용한 대학생의 수업 참여 증진 방안 연구, 교육종합연구, 11(2), 교육종합연구원, 73-91.
- 신영지.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학습전략 연구: 메타인지 전략의 적용 모색,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383-415.
- 오나연(2018), 대화식 저널 쓰기: 학습자중심 작문수업을 위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45-264.
- 이채희, 최와니(2010), 초등영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쓰기를 위한 블로그 활용, 교육논총, 30(1),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125-151.
- 임헌정, 2016, 텍스트 질에 영향을 미치는 쓰기 요인에 대한 연구 -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쓰기 수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운(2014b),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분석. 어문논집, 60, 중앙어문학회, 389-420.
- 정영철(2012), 대화식 저널쓰기를 통한 대학생들의 비판적 영어 글쓰기 능력 향상 그 가능성과 한계, 현대영미어문학, 30(3), 현대영미어문학회, 93-117.
- 진승희(2021),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EFL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 및 의사소통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27(2),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137-155.
- 차경애, 최승희, 2013, 대화식 저널 쓰기를 통한 중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 사례 연구, 현대영어교육, 14(1), 현대영어교육학회.
- Campbell, A. P.(2003), Weblogs for use with ESL classes.
(<http://iteslj.org/Techniques/Campbell-Weblogs.html>)
- Dela Rosa, J. P. O., & Genuino, C. F.(2017), Correlating writer's block and ESL learner's writing quality. *Indones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7(3), 604-612.
- Ducate, L. & Lomicka, L.(2008), Adventures in the blogosphere: From blog readers to writer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1(1), 9-28.
- Hyland, K.(2022), *Teaching and researching writing(4th ed.)*, New York: Routledge.
- Miceli, T., Visocnik, S. & Kennedy, C.(2010), Using an L2 blog to enhance learners'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3(4), 321-341.

- Peyton, J. K.(1993), Dialogue Journals: Interactive Writing To Develop Language and Literacy(<https://files.eric.ed.gov/fulltext/ED450614.pdf>)
- Peyton, J. K.(2000), *Dialogue Journals: Interactive Writing To Develop Language and Literacy(revised)*(<https://files.eric.ed.gov/fulltext/ED450614.pdf>)
- Peyton, J. K., & Seyoum, M.(1989), The Effect of Teacher Strategies on Students' Interactive Writing: The Case of Dialogue Journal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23(3), 310-334.
- Scardamalia, M. (1981). How children cope with the cognitive demands of writing. In C.H. Frederiksen & J. F. Dominic(Eds). *Writing: The nature, development, and teaching of written communic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taton, J., Shuy, R. & Kreeft, J. (1982). *Analysi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as a communicative event*.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라이프로깅(lifelogging)을 통한 한국어 저널 쓰기 사례 연구 : 유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서욱(고려대)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의적 부담감을 낮추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온라인 매체에서의 저널 쓰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화식 저널 쓰기를 블로그 쓰기와 연결하는 것은 실제적인 쓰기 맥락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완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의 제목에서는 ‘라이프로깅’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에 따르면 라이프로그는 학습자가 일상 생활의 경험 전반을 온라인 세계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쓰기 과제는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그”, “수업 시간에 부여한 쓰기 과제에 대한 쓰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실제 사례에서 분석한 쓰기는 라이프로그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과 연계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업과 연계된 쓰기 과제는 라이프로그와는 그 성격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목이 전체 연구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연구자께서는 라이프로그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대화식 저널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2장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에서의 쓰기 활동은 교사 이외의 독자 설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독자를 통해 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쓰기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 기반의 쓰기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의 4장에서 제시된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매체 쓰기에서의 상호작용적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림 3>에서 제시된 것 외에 실제 수업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정의적 부담감을 낮추고 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이 제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피드백을 진행하셨는지, 또 <표 1>에 제시된 대화식 저널 쓰기에 대한 피드백 유형 중 어떤 유형이 많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저널 쓰기가 상호문화적 관점의 확립, 교사와의 정의적 유대감 형성 등을 통해 수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기 불안 및 효능감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제시된다면 더욱 완결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